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책임연구원 김경준

공동연구원 정은주

N

Y

P

I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평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재외동포의 존재는 그리 작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은 항상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제공하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한민족의 발전을 염려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세대교체로 인해서 차세대 동포들의 한민족의식이 약화되고 있어서 향후 한민족사회와의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차세대 동포들도 1세대, 2세대 동포들과 같이 한민족의 후예로서 한민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왔지만 재외동포의 규모에 비해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부처와 관련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래 우리 한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한 연구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 연구를 통해서 발굴되는 정책과제가 정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은 물론 한민족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하고 격려해 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되는 연구로 1차년도에는 공통적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였고, 2차년도인 2016년에는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로 선정된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전문가협의회 운영,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학계, 현장 및 정책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매월 또는 격월로 동포청소년 현안 및 정책과제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재중동포청소년 731명, 재미동포청소년 541명을 대상으로 한민족정체성, 동포사회(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재중동포청소년과 재미동포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9개 과제),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5개 과제),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14개 과제), 재외국민청소년(7개 과제)으로 나누어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제안하였다. 또한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9개 과제),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7개 과제),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4개 과제), 기업지원 및 장학금지원 과제(2개 과제)를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글로벌, 미래 인재, 역량, 한민족, 한민족공동체, 한민족 발전, 역할 기대, 재미동포, 재미동포청소년, 재중동포, 재중동포청소년,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함.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국가별로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
-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되는 연구로 2015년에는 전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목표로 수행하고 있음.
- 특히, 2016년에는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인구규모와 파급효과, 정치적·경제적 비중 등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국가로 선정된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연구내용

-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과 의의 파악, 재중·재미동포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분석, 재중·재미동포청소년 규모와 특성 파악,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 역량과 참여욕구 분석,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의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음.

3. 연구방법

- 전문가협의회 운영, 설문조사, 면접조사, 콜로키움 개최,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 실시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음. 전문가협의회는 학계, 현장 및 정책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또는 격월로 정기적으로 동포청소년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설문조사는 재중동포청소년 731명, 재미동포청소년 541명을 대상으로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교류 욕구 및 경험, 동포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면접조사는 재중동포청소년 및 재미동포청소년 부모, 교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4. 주요 결과

1) 재중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재중동포청소년은 동포유형별로 한민족 관련한 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국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조선족(한글)학교 재학경험,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등의 생활실태, 한민족정체성, 미래 인재 역량, 교류 경험 및 한민족 공동체 참여 욕구, 동포사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등을 살펴보았음.
- 조선족(한글)학교의 재학 경험은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46.2%만이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중도 입국하는 조선족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한글이나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었음. 또한 조선족청소년들의 조선족(한글)학교 입학은 부모의 권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교육에 대한 조선족청소년 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보이고 있었음.

-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재외국민청소년에 비해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한민족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민족이고, 자신이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등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등 한민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부족이나 한국 입국 후의 부정적인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됨.
- 미래 인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살펴보았음. 대부분의 미래 인재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창의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미래 인재 역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국내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미래 인재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었음.

(2) 면접조사 결과

- 중국과 한국에 있는 재중동포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 발전을 위한 인재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중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중국 내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중국에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점차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어서 한민족정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학교 이외에 여가시간을 지낼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부족하여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들이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재외국민청소년은 학비부담의 문제, 다문화가정 증가의 문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정체성 교육을 위한 민족학교

지원,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남북통일의 측면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관련 전문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청소년들은 언어소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그 원인을 부모에 두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 선택에 대한 갈등 이외에 일반 청소년들이 갖는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지 않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 입국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고,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동포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정규학교 입학할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주배경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 지원, 그리고 진로 상담과 취업을 위한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중국 거주 조선족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선족 학부모들의 경우에 한민족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우리말의 규범화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음. 또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하고 있으나 중국 내 직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한민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음. 자녀들의 한민족정체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한민족적 자질 향상을 위한 장학금, 상장 및 자격증 발급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우리말의 규범화 추진, 교육·취업·문화교류 등을 위한 자유로운 한국 방문 기회의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내 조선족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내 입국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국적에 대한 인식과 선택과 관련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음. 이는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음. 또한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문제, 또래관계 불안으로 인한 사회 적응의 문제 등이 있으며, 한국학교 입학 정보 부족으로 인한 편입학 실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음.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적응과 관련 상담 지원, 외국인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재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청소년은 541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45.8%(248명), 여자 청소년은 54.2%(293명)이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34.9%, 고등학생 45.5%, 대학생 17.2%, 기타 2.4%로 나타났다. 북동부(24.9%), 중서부(17.4%), 남부(30.9%), 서부(26.8%)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미국 거주 기간은 평균 14.5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71.3%가 미국 출생인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74% 정도의 청소년은 본인 출생 전 부모 또는 조부모 이전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 한국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 평균 재학기간은 약 5년이었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말 한국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많았고 다닌 기간이 더 길었으며, 주말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86.6%)의 경우가 부모님의 권유로 나타남.
- 한국어사용 능력과 관련한 설문에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말하거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남. 재미동포 부모의 경우는 미국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내에서 보통 미국인들의 직업 생활 형태를 자신의 자녀들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민족에 대한 의식을 갖고는 있으나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실천 부분에서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해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요인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창의적사고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과 관련한 조사에서 동포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의 평균은 가장 낮았으며,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도 평균이 낮게 나타남.

- 한국 관련 교류 욕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낮게 나타남. 향후 동포사회를 위한 기여에 대해서는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혹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와 같은 직접 역할 기여보다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함으로써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 역할 기여에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와의 가정생활,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의식이었으며,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어능력, 부모와의 가정생활, 동포청소년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음. 한국어를 잘하고 동포청소년과 교류 경험이 많았던 재미동포청소년이 단순히 자신이 한민족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실천적으로 역사를 알고 동포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실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동포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결과에서는 동포 청소년과의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 욕구, 한민족정체성-실천,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한국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수록, 그리고 미래 인재 역량 중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동포사회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면접조사 결과

- 재미동포청소년의 학부모와의 면접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어 교육, 자녀의 미래 삶과 진로, 한인공동체에 대한 제언,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가족관계, 한국문화 등을 활용하였음.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자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비록 이중 정체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한민족 토대 위에 성장해야 건강한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한국어 교육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 사용은 자녀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음. 주말 한국학교를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받고 동포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돕는 장소로 여기고 있었음. 자녀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하였으며, 자녀들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인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음. 한인 공동체가 재미동포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희망과 한인 공동체와 연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기를 희망하였음. 또한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고국 방문 프로그램, 직업연계 체험 프로그램,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같은 지원 제도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와의 면접 조사를 통해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 주말 한국학교의 기능과 문제점, 한인 공동체에 대한 제언 등을 살펴보았음. 교육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의 이중정체성 갈등은 문화적 단절과 몰이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재미동포청소년 자신의 이중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미국사회나 한인공동체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과거 1세대 부모들은 정책적으로 영어를 강조하는 미국사회 분위기와 한국인으로 미국사회 내 빠른 정착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어습득을 강조하여, 지금 40대가 된 한인 2세들이 한국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재 재미동포청소년들이 미국 문화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한국어 학습은 부모-자녀 간의 소통 강화, 문화적, 정신적 측면의 강화 등의 여러 장점이 많다고 하였음. 현재 미국의 주말 한국학교는 민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 동포청소년과 교육자를 통한 정서적 지지 공간의 역할,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차세대 교사의 필요성, 재정적 어려움, 한인 공동체와의 연계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주말 한글학교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인 공동체, 학부모, 지역의 교육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5. 정책제언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은 미래 인재 개발 관점에서의 다차원적 목표 지향, 동포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행,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정책 지원, 다각화된 내용의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음.
-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으로 나누어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제안하였음.
-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조선족청소년 심리 및 진로 상담서비스 제공,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우수 인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제공, 한민족적 자질의 우수성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경연대회 등 확대,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한국 기업의 인턴쉽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지원, 민족적 자질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 제안되었음.
-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글 등 한민족 교육 기회 확대, 사립학교의 설립 지원, 도시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 제공 지원, 또래동포청소년 간 교류기회 제공이 제안되었음.
-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센터 설치·운영,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의 설치 지원, 조선족(중도입국)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센터 지정, 은둔형 조선족청소년 상담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 동포청소년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 실시, 중소기업 필요 인력 지원을 위한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 조선족기업가협회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조선족청년기업가 양성 지원, 통번역 전문가 교육 등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선족청소년 모국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이 제안되었음.
- 재외국민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초·중학생 대상의 한국학교 학비 지원 확대, 한국학교에 상담전문교사 파견 등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의 개발 지원,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선,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리더십 캠프 개발·운영이 제안되었음.

-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 기업지원 및 장학금지원 과제를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제안하였음.
-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각종 대회 지원 확대, 문화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이 제안되었음.
-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과목 개발과 홍보 방안 구축, 주말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전문가 양성, 주말 한국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제안되었음.
-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는 재미동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단체 설립 지원,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기업 지원 및 장학금사업 과제로는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제안되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9
4. 연구의 제한	12
II. 이론적 배경	15
1.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	17
2.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대상	22
3.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의의	23
III.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과 현황	25
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	27
2. 재중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	33
3. 재미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	48
4. 소결	75
IV.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81
1. 설문조사 개요	83
2. 면접조사 개요	103
V. 재중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13
1.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115
2. 재중동포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분석	154
3. 소결	202

Ⅵ. 재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205
1. 재미동포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07
2.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 분석	243
3.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269
4. 소결	290
Ⅶ. 정책제언	295
1. 정책 방향	297
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299
3.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329
참고문헌	357
부 록	369
Abstract	441

표 목차

〈표 Ⅰ-1〉	주요 연구내용	8
〈표 Ⅰ-2〉	전문가 및 정책 실무 협의회 추진 내용	10
〈표 Ⅰ-3〉	콜로키움 내용	11
〈표 Ⅲ-1〉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법·제도·기구) 비교	29
〈표 Ⅲ-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부처 및 사업내용	32
〈표 Ⅲ-3〉	재중동포 인구	33
〈표 Ⅲ-4〉	지역별 조선족 인구분포 변화	34
〈표 Ⅲ-5〉	동북 3성 20개의 조선족 농촌 인구이동 조사 상황 통계	35
〈표 Ⅲ-6〉	국내 연해 도시 진출 조선족 인구 상황	35
〈표 Ⅲ-7〉	조선족 청소년 인구분포	36
〈표 Ⅲ-8〉	조선족학교 현황(동북 3성)	36
〈표 Ⅲ-9〉	학교유형별 조선족학교 현황(동북 3성)	37
〈표 Ⅲ-10〉	공관별 한국학교 교원 및 학생 수	38
〈표 Ⅲ-11〉	공관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 수	39
〈표 Ⅲ-12〉	재중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40
〈표 Ⅲ-13〉	외국인 주민 및 한국계 중국인 자녀 현황	40
〈표 Ⅲ-14〉	한국계 중국인자녀 연령별 현황	41
〈표 Ⅲ-15〉	국내 재학 중인 한국계중국인 학생	42
〈표 Ⅲ-16〉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45
〈표 Ⅲ-17〉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외동포지원	46
〈표 Ⅲ-18〉	훈혈 한인 청소년의 인종·민족적 구성	54
〈표 Ⅲ-19〉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출생지 분포	55
〈표 Ⅲ-20〉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세대 분포	55
〈표 Ⅲ-21〉	연령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미국 법적 지위 현황	56
〈표 Ⅲ-22〉	18세 이상 재미동포청소년의 교육 수준	57

〈표 III-23〉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 가정의 총 가계소득	59
〈표 III-24〉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60
〈표 III-25〉	세대에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61
〈표 III-26〉	지역에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62
〈표 III-27〉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64
〈표 III-28〉	세대에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	64
〈표 III-29〉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 재외동포재단 중심	67
〈표 III-30〉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69
〈표 III-31〉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주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대회	70
〈표 III-32〉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문화 관련 교육기관	71
〈표 III-33〉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 문화 기관	72
〈표 III-34〉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기타 프로그램 및 대회	74
〈표 IV-1〉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	85
〈표 IV-2〉	한국 관련 재중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90
〈표 IV-3〉	재중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	91
〈표 IV-4〉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92
〈표 IV-5〉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93
〈표 IV-6〉	재중동포청소년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94
〈표 IV-7〉	한국 관련 재미동포청소년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97
〈표 IV-8〉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	98
〈표 IV-9〉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관련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99
〈표 IV-10〉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100

〈표 IV-11〉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101
〈표 IV-12〉	중국 내 연구 참여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107
〈표 IV-13〉	한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	108
〈표 IV-14〉	중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배경	108
〈표 IV-15〉	한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배경	109
〈표 IV-16〉	미국 내 연구 참여 부모의 일반적 배경	109
〈표 IV-17〉	미국 내 연구 참여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111
〈표 V-1〉	최초로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	116
〈표 V-2〉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국적	117
〈표 V-3〉	재중동포 청소년의 국적/신분	118
〈표 V-4〉	재외국민 청소년의 중국 거주 기간	118
〈표 V-5〉	재외국민 청소년의 중국 거주 이유	119
〈표 V-6〉	최초로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	120
〈표 V-7〉	재외국민청소년 부모의 국적	120
〈표 V-8〉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121
〈표 V-9〉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기간	122
〈표 V-10〉	조선족(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	123
〈표 V-11〉	한국어 능력 - 문항별 평균	124
〈표 V-12〉	한국어 능력	124
〈표 V-13〉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 측정문항별 평균 ..	125
〈표 V-14〉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126
〈표 V-15〉	한민족정체성 - 측정문항별 평균	127
〈표 V-16〉	한민족정체성	128
〈표 V-17〉	의사소통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	129
〈표 V-18〉	의사소통능력	130

〈표 V-19〉	창의적 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	131
〈표 V-20〉	창의적 능력	132
〈표 V-21〉	문제해결력 - 측정문항별 평균	133
〈표 V-22〉	문제해결력	134
〈표 V-23〉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135
〈표 V-24〉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136
〈표 V-25〉	세계시민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137
〈표 V-26〉	세계시민의식	138
〈표 V-27〉	국가정체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139
〈표 V-28〉	국가정체의식	140
〈표 V-29〉	재중동포청소년 교류 경험	141
〈표 V-30〉	한국 관련 교류 욕구	143
〈표 V-31〉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역할 기대	145
〈표 V-32〉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46
〈표 V-33〉	중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8
〈표 V-34〉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9
〈표 V-35〉	재외국민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0
〈표 V-36〉	중국내 조선족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1
〈표 V-37〉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2
〈표 V-38〉	재외국민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3
〈표 V-38〉	중국 내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154
〈표 V-39〉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171

〈표 V-40〉	중국거주 조선족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184
〈표 V-41〉	한국 내 조선족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190
〈표 VI-1〉	재미동포청소년의 학교별 분류와 인구사회학적 주요 특성	208
〈표 VI-2〉	미국 거주의 주요 이유	209
〈표 VI-3〉	최초로 미국으로 이주한 세대	210
〈표 VI-4〉	재미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	211
〈표 VI-5〉	재미동포청소년 부모의 인종(ethnicity)	212
〈표 VI-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213
〈표 VI-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기간의 차이	214
〈표 VI-8〉	성별에 따른 한국·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	215
〈표 VI-9〉	한국어 사용 능력 - 문항별 평균	215
〈표 VI-1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어 사용 능력의 차이	216
〈표 VI-11〉	부모관련 가정생활 - 측정문항별 평균	217
〈표 VI-1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부모관련 가정생활의 차이	218
〈표 VI-13〉	한민족정체성 - 측정문항별 평균	219
〈표 VI-1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220
〈표 VI-1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221
〈표 VI-16〉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 각 요인별 평균	222
〈표 VI-17〉	의사소통능력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2
〈표 VI-1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223
〈표 VI-19〉	창의적사고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3
〈표 VI-2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창의적사고의 차이	224
〈표 VI-21〉	문제해결력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5
〈표 VI-2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	225
〈표 VI-23〉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6

〈표 VI-2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의 차이	227
〈표 VI-25〉	세계시민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7
〈표 VI-2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228
〈표 VI-27〉	국가정체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29
〈표 VI-2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국가정체의식의 차이	229
〈표 VI-29〉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30
〈표 VI-3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차이	231
〈표 VI-31〉	한국 관련 교류 욕구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32
〈표 VI-3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차이	232
〈표 VI-33〉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33
〈표 VI-3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의 차이	234
〈표 VI-35〉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235
〈표 VI-3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차이	235
〈표 VI-3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미래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한 차이	236
〈표 VI-38〉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의 방해 요인에 대한 결과	237
〈표 VI-39〉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	238
〈표 VI-40〉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39
〈표 VI-41〉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40
〈표 VI-42〉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42
〈표 VI-43〉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243
〈표 VI-44〉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269
〈표 VII-1〉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중동포청소년 정책과제	299

〈표 Ⅶ-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327
〈표 Ⅶ-3〉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정책 과제	329
〈표 Ⅶ-4〉	재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355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차별 추진 계획	5
【그림 Ⅰ-2】	2차년 주요국가 선정 및 연구	6
【그림 Ⅰ-3】	2016년 2차년도 연구 과정 흐름도	12
【그림 Ⅲ-1】	연도별 재미 한인의 수 및 혼혈 한인 비율 변화, 1970-2010 ..	51
【그림 Ⅲ-2】	연령대에 따른 재미 혼혈 한인의 비율	52
【그림 Ⅳ-1】	설문 개발 절차	85
【그림 Ⅳ-2】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94
【그림 Ⅳ-3】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동포 유형	94
【그림 Ⅳ-4】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교급 분포	94
【그림 Ⅳ-5】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102
【그림 Ⅳ-6】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교급 분포	102
【그림 Ⅳ-7】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	102
【그림 Ⅳ-8】	면접조사 분석 절차	106
【그림 Ⅶ-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	297
【그림 Ⅶ-2】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연계 방향	330
【그림 Ⅶ-3】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	341
【그림 Ⅶ-4】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추진 방안 ..	342
【그림 Ⅶ-5】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육전문가 양성	346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피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들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이 민족 네트워크의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이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는 국가로 향후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외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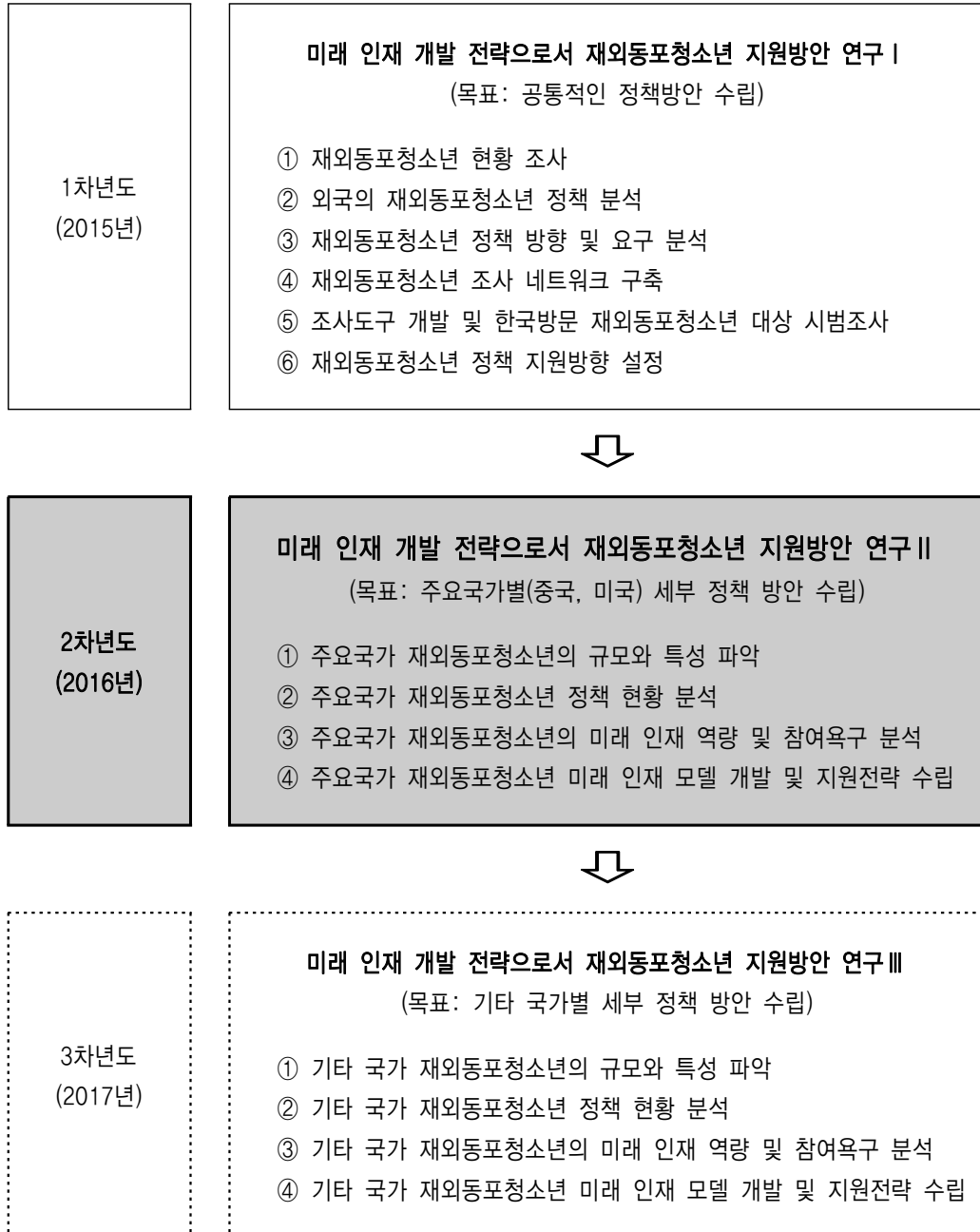
재외동포는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만,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한민국에 무조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을 한 경우도 있고, 그 국가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기타 재외동포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전혀 경험 해보지 못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과의 유대관계가 훨씬 떨어지며, 대한민국이 과거에 부모 세대들에게서 기대했던 것을 청소년들에게서도 그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재외동포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음.

그동안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글이나 역사교육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로 미래 재외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재외동포 차세대의 주류 진출을 지원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한인차세대 대회의 개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교류사업 실시, 중국 및 CIS 지역의 우수 대학생에 대한 학업 의욕 고취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주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IT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26~30).

하지만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은 범·제도적 기반의 부재, 정책 추진 체계의 미흡 등의 이유로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서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요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함께 개별 국가별로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과 개별 국가별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I-1] 참조). 이는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에 공통적인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국가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 제한된 여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한계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국가와 기타국가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I -I】 연차별 추진 계획

2016년 2차년 연구 대상 국가는 [그림 I-2]와 같이 2015년 1차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2차년 연구를 위한 주요국가의 선정은 1차년에 실시한 전문가 의견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국가가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주요국가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기준이 되었다. 첫째,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그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둘째, 관심국의 인재 개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고, 셋째, 정치적·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등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로 제안되었다(김경준, 김태기, 2015: 165~166). 이에 근거하여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현황자료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주요 조사 국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재 개발 모델과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I-2】 2차년 주요국가 선정 및 연구

2. 연구내용

1)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과 의의 파악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이론, 리더십이론, 발달 및 역량개발 이론 등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재 개발과 관련한 이론을 분석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대상과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2) 재중·재미동포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분석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관과 재중·재미동포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 조사 대상 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2015년 1차년 연구에서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요 대상 국가는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전문가의 견조사를 통해 정책 목표와 그 대상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국가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2차년 조사 대상인 주요국가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개괄적으로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목표와 법·제도 및 기구의 분석과 정부 부처별 재외동포정책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인 중국과 미국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우리 정부 부처,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3) 재중·재미동포청소년 규모와 특성 파악

재중·재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재중·재미동포 및 동포청소년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고,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동포청소년의 경우에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에 대도시나 한국 등 외국으로의 인구 이동 진행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인구 분포와 특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4)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 역량 및 참여욕구 분석

한민족의 미래 인재로서 재중·재미동포청소년들의 역량과 한민족 공동체에의 기여 가능성과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한국 관련 생활 실태, 한민족정체성, 미래 인재 역량, 교류 욕구 및 교류 경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부모, 관련 교육 및 청소년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 파악과 이들의 실질적 욕구를 분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을 우리의 미래 인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5)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개발

재미동포청소년은 다인종이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재중동포청소년은 다민족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어 국가별, 지역별로 차별적인 인재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나누어 국가별로 또는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재외동포 인재 개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I -1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세부내용
재외동포청소년 연구의 관점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 대상, 의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동포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현황 – 각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또는 해당 국가의 자체 프로그램
재중동포청소년 설문 및 면접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중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재중동포청소년 학부모 및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재미동포청소년 설문 및 면접 조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및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및 과제 •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및 과제 (1차년도 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콜로키움, 정부 부처 자문을 통해 도출)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관점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이론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재중동포청소년 및 재미동포청소년 인구와 학생 수의 파악을 위해서 각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초 통계자료와 정부 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미동포청소년 및 재중동포청소년 관련 국내외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

(1) 전문가 자문

연구 방향의 설정, 중국 및 미국 현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 등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 제안 등을 위해서 재중동포 및 재미동포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진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협의회 운영

재중동포 및 재미동포 전문가 5명 내외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중동포 및 재미동포청소년의 현안 문제와 정책 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회 구성은 학계 전문가 1~2명, 현장 전문가 1~2명, 정책 관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협의회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새롭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초대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전문가 및 정책 실무 협의회 추진 내용에 대한 요약은 <표 I-2>와 같다.

표 I-2 전문가 및 정책 실무 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전문가	개최 시기
1차	연구내용의 구성 및 추진 방향의 설정	현장 및 정책 관계자	3월
2차	재외동포청소년 특성과 현 정책의 문제점	현장 및 정책 관계자	7월
3차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안 제언	현장 및 정책 관계자	8월
4차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	현장 및 정책 관계자	9월
5차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모델 검토	현장 및 정책 관계자	11월

3) 양적 연구

재중동포청소년 및 재미동포청소년(중·고·대학생) 대상으로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한국 관련 교류 욕구와 교류 경험, 동포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등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에 지역별(구집거지, 신집거지, 국내거주), 교급별(중·고·대학생), 신분별(외국국적자, 재외국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총 731명의 조사결과가 활용되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별(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교급별(중·고·대학생), 신분별(외국국적자, 재외국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541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4) 질적 연구

재중동포청소년 및 재미동포청소년 부모, 교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면접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여건, 한민족정체성 의식,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의식, 정책지원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방법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 조사의 경우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가진 소속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중국 조사의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교사와 교수)에 의한 조사와 연구진 현지 출장에 의한 직접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국내 중국동포청소년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 협조를 얻어 연구진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포함된 전체 면담 대상자는 재중동포의 경우에는 재중동포교육 전문가 15명(중국 거주 9명, 한국 거주 6명), 학부모 10명(중국 거주 4명, 한국 거주 6명)의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미국동포의 경우에는 재미동포교육전문가 15명, 학부모 14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5) 콜로키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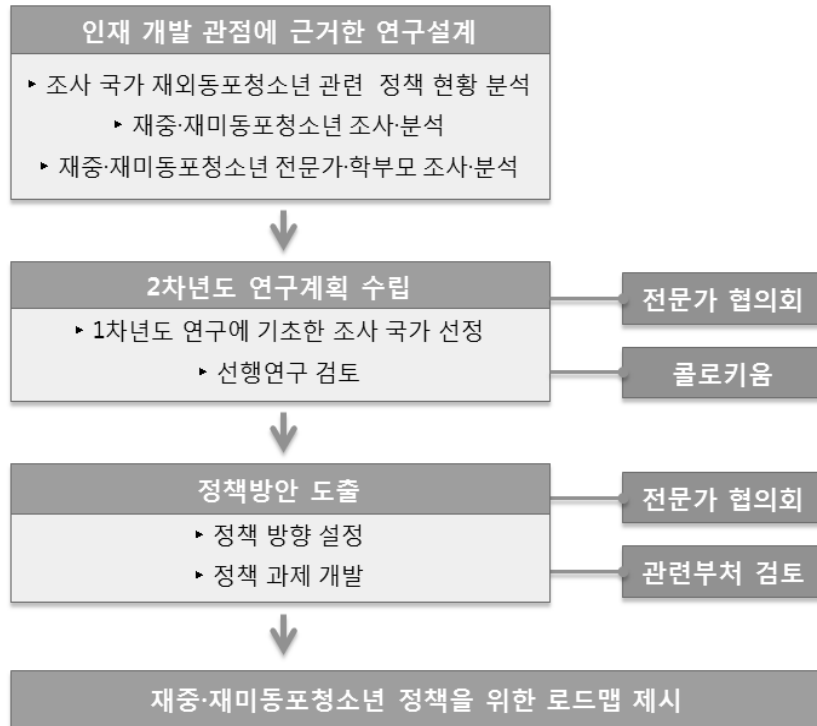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의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종사자 및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콜로키움을 기획·개최하였다. 첫 번째 콜로키움은 재미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글·한국 학교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미국 현지에서 한국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발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내용(예, 한글, 역사, 정체성 교육 등)에 관한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재미동포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할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콜로키움은 국내거주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체류 현황과 이들의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국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표 I -3 콜로키움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재미 한국·한글학교 현황 및 발전방안	재미동포 전문가	6월
2회	재중동포청소년·차세대의 한국체류와 교육현황	재중동포 전문가	11월

6) 관계 부처와의 정책협의 실시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발굴 및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 주요국가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그림 I-3】 2016년 2차년도 연구 과정 흐름도

4.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수행되는 연구 중 2차년도 연구로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국가로 선정된 중국과 미국의 동포청소년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나 연구대상의 선정과 조사결과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인구규모와 파급효과, 정치적·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을 주요국가로 선정하였으나 주요국가에 대한 선정기준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인구비례로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 국가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당 국가의 현지 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할당해서 표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전문가 및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를 연구자에 의한 직접 조사와 현지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조사자간에 조사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미국 조사의 경우에 서면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두 면접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에 실시한 조사결과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정책과제 제안에 활용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
2.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대상
3.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의의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

1) 청소년 미래 인재 개발 관련 제이론

청소년 미래 인재 개발과 관련한 이론으로 인적자원개발이론, 리더십이론, 발달 및 역량개발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점과 미래 인재의 대상 및 미래 인재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인적자원개발이론

인적자원개발이론에서 인적자원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 물적 자원, 재무자원, 정보자원 등 다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강일규, 전재규, 길은배, 배기형, 2007: 32~33).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원은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넓은 개념으로 인적자원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력의 개념보다 개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과 품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강일규 외, 2007: 33~34).

인적자원개발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초점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의 구축을 초점으로 하여 지적자본의 극대화, 유연한 노동력, 국가인력정책에의 함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영학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관리체계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성과 개선, 학습조직 지향, 기업 인적자원개발 전략 구축 및 실행을 위한 함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이나 산업심리학에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서는 개인의 학습 효율성 및 효과적 역량개발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고용가능성 제고, 역량의 효과적 향상, 개인 및 팀의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함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미숙, 이동임, 2001: 9).

국가적 측면에서 인자자원개발을 살펴보면, 국가 인적자원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청소년, 일반 시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영재의 육성, 국가 전략 분야의 지식 개발과 인력 양성(IT 인력 양성, 해외 고급두뇌 초청, 전문생산 기능인력 양성, BT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지원 등),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육성 등 특정한 대상으로 국가 성장을 위한 인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임경수, 2013: 103~104). 인적자원개발은 국가나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등을 위해서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인적자원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글로벌 이동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 근로자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 확대, 고급인재의 국제적 이동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진미석 외, 2008: 9). 인적자원의 글로벌화는 이제 인적자원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인적자원으로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재외동포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즉,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보고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강일규 외, 2007: 38).

(2) 리더십이론

인재는 리더인가? 리더는 인재인가? 인재와 리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많으나, 반드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재들의 상당수가 미래에 리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십이론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이론, 리더의 행동 유형(업무지향, 관계지향 등)에 관심을 갖는 행동이론, 리더 행동의 효과가 환경 및 구성원들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상황이론 등으로 변화해 왔다고 보고 있다(강민수, 2011: 14~27). 리더십이론은 과거에는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후천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리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보통 사람들을 잠재적 리더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미래 경쟁력을 갖춘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서 그동안 청소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청소년 리더십 특성과 구조에 대한 분석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김미숙, 유효현, 박효정, 전미란, 박춘성(2008: 2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리더십 특성을 크게 개인 내 특성과 개인 간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 내 특성의 경우에는 비전과 추진,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의로움, 과제책임감으로, 그리고 개인 간 특성은 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과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어 타당성과 리더십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김언주, 심재영(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청소년 리더십의 구조요인을 구명하고자 문헌분석을 통해서 인격형성, 집단역동, 문제해결, 대인기술, 기획능력의 이론적 요인을 추출하여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발달 및 역량개발 이론

발달적 관점에서의 인재 개발은 일부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특정하기 보다는 모든 청소년들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발달단계별로 미래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지금의 시점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능력들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발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김동일, 박춘성, 홍경화, 원경림, 김이내, 김지연, 박상민, 2010: 50).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의 폭발적 증가 등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한 시기에 얻어질 수 있기보다는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OECD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DeSeCo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핵심역량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심리사회적인 자원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핵심역량은 개인과 사회의 성공적인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p.16)으로 보고 있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16~18).

청소년역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청소년역량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등으로,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등으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으로, 시민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4: 17~44;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16). 특히, 청소년 인재와 관련해서 김동일 외(2010: 51~52)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시대의 변화에 맞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창의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p. 51)으로 정의하고,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개인 내 역량, 개인 간 역량, 학습역량으로 구분하고, 개인 내 역량은 비전, 자기주도성, 창의성, 시민의식을, 개인 간 역량은 감성지능, 문화지능, 대인관계능력을, 그리고 학습능력은 인지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전문가 들은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인 능력,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163).

2)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관점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있어서 청소년 인재를 국내에 있는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청소년까지로 확장해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은 그 대상의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대한민국과 거주국에서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인재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소년 중 정책적 관심을 갖는 대상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의 발전과의 관련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즉, 재외동포청소년 인재의 개발은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을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한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으로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자 또는 조력자로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그리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혁신자)

미래 사회는 현재보다 국가 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가 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를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라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정서적으로 소원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우수한 인재가 여건의 부족으로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여건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소년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민족 발전의 후원자(조력자)

재외동포 중에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재외동포사회의 이주 역사가 깊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모국이 되는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이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재외동포가 비록 재외국민이 아니고 외국국적자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의 발전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과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 등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필요 시 후원자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시민이자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

재외동포청소년 인재의 개발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으로 육성한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재외동포청소년은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곧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자원인 동시에 세계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세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의식과 함께 세계시민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보다 넓은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대상

재외동포청소년 중에서 인재 개발의 대상은 국적, 연령, 청소년 특성(개인의 능력, 한민족정체성 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개의 법률이나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인재 개발 대상의 접근에서 차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은 인재 개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국국적자는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 국민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중동포와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경우에 법률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 연령의 경우에는 모두가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대상이 되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20대 연령대가 보다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재 개발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2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능력을 사회나 직업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 특성의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과 한민족정체성의 정도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능력의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잠재적인 후원자 또는 조력자로서 그 잠재성과 장기적인 효과 등을 고려할 때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재 개발을 위해서는 엘리트나 일반 청소년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정체성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발전에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211~212).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래에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만,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에 관해서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의 의의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은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한국과 한민족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자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거주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사회의 발전은 미래 세대에 주역이 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청소년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민족정체성, 리더십, 세계시민의식

등 글로벌 공동체 시대에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우수 인력을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를 통해서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대한민국과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글로벌화는 전 세계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재 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선택하게 하였다.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외국 인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에 매력적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언, 2013: 31).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는데, 2009년도에 500명 우수 인재의 귀환을 목표로 하는 두뇌 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인당 약 8~9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이진영 외, 2013: 23). 중국의 경우에도 해외 유학생 및 화교화인 차세대 유치에 위해 ‘해외유학인재 창업원구’라는 경제개발단지를 지역별로 조성하고 해외에서 귀환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지원, 세금 감면, 토지 건물 임대료 감면,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5: 62). 이밖에도 재외동포청소년을 국내로 유치하는 방법 이외에 거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주국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사회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여론 형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공동체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소년 인재는 협의적으로는 거주 국가의 인재, 한민족공동체의 인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계공동체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청소년들로 성장시켜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다중언어나 거주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청소년들에 비해서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세계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Ⅲ 장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과 현황

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
2. 재중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
3. 재미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
4. 소결

제 III 장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과 현황*

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¹⁾

1)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제도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목표와 법·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8년)에는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가 정책의 기본 목표였으며, 1996년 2월 29일에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²⁾를 위하여 대통령훈령(제63호)에 의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으며³⁾, 1997년에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인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하였다⁴⁾. 이상의 법적 기반에 의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년)에는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재외동포의 활용이 정책의 기본 목표였으며, 1999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제5조),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제7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⁴⁾. 2002년 12월부

* 이 장의 1절과 2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민병갑 교수(원즈 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임세정·주대신 연구원(재외한인사회연구소), 4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음.

1)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대통령훈령 제288호, <http://likms.assembly.go.kr/law/>

3)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3348호, <http://likms.assembly.go.kr/law/>

4)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3348호, <http://likms.assembly.go.kr/law/>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3호, <http://likms.assembly.go.kr/law/>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3호, <http://likms.assembly.go.kr/law/>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3호, <http://likms.assembly.go.kr/law/>

터는 서비스 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재외동포가 3년간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⁵⁾.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년)에는 현지화, 한민족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 발전이 기본 목표였으며, 2007년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외국에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원 파견, 경비 지원 등을 하게 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⁶⁾. 2003년 8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7월 27일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6개 관련 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 1. 1) 방침을 확정하였다⁷⁾.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며,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 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⁸⁾.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3년)에는 모국과 재외동포 간 호혜 발전을 통한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이 기본 목표였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가 재개되었으며 국적법 개정 등을 통한 제한적 복수국적자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 폐지되었던 재외국민 투표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09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며, 2012년에는 거주국의 영주 사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우편, 순회접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포함하는 통과시켰다⁹⁾. 2010년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서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자의 경우에

5)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소개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1>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24호. <http://likms.assembly.go.kr/law/>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1>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7)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소개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1>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8) 고용노동부 방문취업제 소개 자료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1>

9)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AC%EC%99%B8%EA%B5%AD%EB%AF%BC_%EC%84%A0%EA%B1%B0%EA%B6%8C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¹⁰⁾. 2013년 1월에는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¹¹⁾.

표 III-1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법·제도·기구) 비교

구 분	김영삼정부 (1993-1998)	김대중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3)	박근혜정부 (2013-현재)
기본 목표 12)	· 현지화와 모국 과의 유대 강화	· 현지화, 모국과의 유대 강화, 재외 동포 활용	· 현지화,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 발전	· 모국과 재외동포간 호혜발전을 통한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재외동포역량강화, 차세대 정체성 고양, 동포사회를 창조경제 생태축 으로 연결 ¹³⁾
법· 제도	· 재외동포정책 위원회규정제정 (1996) · 재외동포재단 법 제정(1997)	·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공직선거법 개정 (2009) · 국적법 개정 (2010)	· 공직선거법 개정(2015)
	· 산업연수생제도 도입(1992)	· 취업관리제 도입(2002)	· 고용허가제시행 (2003) ·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로 통합(2007) · 방문취업제 실시 (2007)	·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 및 실시(2012) ·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2010) · 재외공관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사업 실시(2013)	· 재외국민 주민등록 증 발급제도(2016) · 모든 재외공관 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2016)
기구	· 재외동포정책위 원회설치(1996) · 재외동포재단 설립(1997)				

10) 국적법 법률 제14183호 <http://likms.assembly.go.kr/law/>

[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95&PROM_DT=20140318&PROM_NO=12421](htt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95&PROM_DT=20140318&PROM_NO=12421)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11) 월드코리아(2016. 1. 2일자). 2016년도 달라지는 재외동포정책은?.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67>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12) 윤인진(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권, 4~22.

13) 연합뉴스(2016. 1. 12일자). 신년인터뷰. <http://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박근혜정부 시기(2013년 이후~현재)에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재외동포 역량강화, 차세대의 정체성 고양, 동포사회를 창조경제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으며,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 2015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선거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⁴⁾.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재외국민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가 160여개 해외 모든 공관으로 확대·실시되었다. 또한 2016년 1월에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7월부터는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¹⁵⁾.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29일에 대통령훈령 제63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로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의 수립,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한다(제1조 및 제2조). 기구의 구성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조 및 제3조).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무위원장은 국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제9조).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그 역할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윤인진, 2013: 10~11;

14) 재외동포신문(2015. 7. 29일자). 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선거 등록된다.

<http://www.dong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516>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15) 월드코리아(2016. 1. 2일자). 2016년도 달라지는 재외동포정책은?.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67>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동아일보, 2015년 1월 24일자).

재외동포정책의 주관부서로서 외교부는 재외동포영사국 내에 재외동포과와 재외국민보호과를 두어 재외동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과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실무자 간 협의체의 운영 등 동포업무 관계기관의 협조,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해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¹⁶⁾.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서 1997년에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과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외동포교육사업,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 사업,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별히,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글학교의 육성, 한글학교 교사 육성,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지원,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교육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학교 설립, 한국어 보급, 재외교육기관 지도·점검, 재외교육기관 공무원 파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어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보급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동포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세계한민족축전은 최근 개최되고 있지 않다. 통일부에서는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통일정책 설명회, 고려인 현지신문 기고문 게재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초과학 관련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ICT 분야 자격 및 해외인력 유치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및 재외동포 지원 사업과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외동포사업은 주로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도 부처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대상의 교육이나 교류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6) 외교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업무소개, http://www.mofa.go.kr/introduce/organized/depart/20110921/1_25500.jsp?menu=m_70_40_10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표 III-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관련 주요 부처 및 사업내용

부처명		주요 사업내용
재외동포정책위원회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과 효율적 추진·지원 기구 •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유대 강화, 국내외 경제활동지원, 정체성 함양, 부처별 사업계획 등 심의·조정
외교부 ¹⁸⁾	재외동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정부부처 실무자간 협의체 운영 등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 업무 등
교육부(국제협력관)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교육 지원 • 해외 한국어 보급 • 한국학교 설립 •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인사관리 • 재외교육기관 지도·점검
법무부(체류관리과) 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문화체육관광부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보급(국어정책과) • 재외동포청소년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과)
통일부(국제협력과) 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제공 • 통일정책설명회 • 고려인 현지신문 기고문 게재 지원사업(카자흐스탄)
미래창조과학부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관련 해외인재 유치 지원(연구개발정책과) • ICT분야 자격 및 해외인력 유치 총괄(정보통신방송기반과)
여성가족부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및 재외동포지원 •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청소년활동진흥과)
고용노동부 ²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관리

17)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88호 제1조 및 제2조.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18)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업무소개. <http://www.mofa.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19) 교육부. 국제협력관 업무소개. <http://www.moe.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소개. <http://www.moj.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업무소개 자료 및 문화예술교육과 보도자료(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한국문화를 배운다). <http://www.mcst.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2)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업무소개. <http://www.unikorea.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및 담당자 업무 확인.

2. 재중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²⁶⁾

1) 재중동포청소년 현황

(1) 중국 내 재중동포 현황

재중동포 인구는 2014년 12월 현재 2,585,993명이며, 이 중 외국국적자는 2,216,644명(85.7%)이고, 재외국민은 369,349명(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은 369,349명 중에서 일반체류자가 305,567명(82.7%)이고, 유학생이 58,120명(15.7%), 영주권자가 5,572명(1.5%)이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 대사관별로 보면, 북경, 천진 등의 주중국대사관 지역이 99,48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칭다오(82,417명), 주광저우(71,761명), 주상하이(47,505명), 주선양(44,400명) 등의 순이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주중국대사관 지역이 23,2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상하이(10,225명), 주선양(9,835명), 주칭다오(7,376명) 등의 순이었다.

표 III-3 재중동포 인구

지역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주선양	-	34,565	9,835	44,400	1,607,500	1,651,900
주중국	-	76,250	23,237	99,487	182,794	282,281
주칭다오	-	75,041	7,376	82,417	210,125	292,542
주광저우	-	69,341	2,420	71,761	115,831	187,592
주상하이	63	37,217	10,225	47,505	86,901	133,596
주홍콩	5,508	6,164	1,143	12,815	-	12,815
주청두	-	3,200	950	4,150	5,030	9,180
주시안	1	3,178	1,203	4,382	3,880	8,262
주우한	-	701	1,731	2,432	5,393	7,825
총계	5,572	305,567	58,120	369,349	2,216,644	2,585,993

* 출처: 외교부(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30.

23)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소개 자료. <http://www.msip.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4)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및 청소년활동진흥과 업무소개. <http://www.mogef.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5) 고용노동부. 업무소개. <http://www.moel.go.kr>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26)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조선족 및 조선족청소년 현황

중국 인구조사는 호적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 거주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절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의 조선족 인구는 1,923,361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923,84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에는 1,830,929명으로 2000년에 비해서 약 1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 3성 지역의 경우에 1990년에 1,868,377명(97.1%)이었으나 2000년에는 1,775,198명(92.3%), 2010년에는 1,607,510명(87.7%)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북 3성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의 인구는 199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지역별 조선족 인구분포 변화

지역	1990		2000		2010		1990~ 2000	2000~ 2010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증감율	증감율
합계	1,923,361	100	1,923,842	100	1,830,929	100	0.00	-0.50
동북3성	1,868,377	97.14	1,775,198	92.27	1,607,510	77.08	-0.50	-0.99
지린(吉林)	1,183,567	61.54	1,145,688	59.95	1,040,167	56.81	-0.31	-0.97
헤이룽장(黑龍江)	454,091	23.61	388,458	20.19	327,806	17.90	-1.51	-1.68
랴오닝(遼寧)	230,719	12	241,052	12.53	239,537	13.08	0.42	-0.06
기타지역	54,984	2.86	148,644	7.73	223,419	22.92	9.62	4.16
베이징(北京)	7,710	0.4	20,369	1.06	37,380	2.04	9.40	6.25
톈진(天津)	1,820	0.09	11,041	0.57	18,247	1.00	17.45	5.15
네이멍구(內蒙古)	22,173	1.15	21,859	1.14	18,464	1.01	-0.14	-1.68
허베이(河北)	6,713	0.35	11,783	0.61	11,296	0.62	5.44	-0.42
상하이(上海)	742	0.04	5,120	0.27	22,257	1.22	18.69	15.83
장쑤(江蘇)	963	0.05	5,048	0.26	9,525	0.52	16.03	6.56
산둥(山東)	3,362	0.17	27,794	1.44	61,556	3.36	20.44	8.23
광둥(廣東)	611	0.03	10,463	0.54	17,615	0.96	27.49	5.35
옌볜(延邊)	821,47	42.71	842,135	43.77	736,900	40.24	0.24	-1.33
지린(吉林) (옌볜제외)	362,088	18.83	303,553	15.78	303,267	16.56	-1.71	-0.01
옌지(延吉)	171,465	-	228,401	-	-	-	6.33	2.86

* 출처: 박경래, 곽충구, 정인호, 한성우, 위진(2012). 재중동포 언어실태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report_seq=653&mn_id=45에서 2015년 1월 26일 인출.

* 원출처: 권태환(2004)의 옌지시 통계국(2000), 전국인구보편조사 결과와 박광성(2012)의 2010년 중국 인구 센서스-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박경래 외, 2012에서 재인용)

하지만 박광성 연구팀이 2009년에 수행한 동북지역 20개 조선족농촌(길림성 10개, 요녕성 5개, 흑룡강성 5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조선족농촌 인구의 이동이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호적인구 중 34.15%만이 실거주 인구이고 유출인구는 66.85%이며, 이중 국내이동이 38.30%, 국외이동이 27.77%로 조사되었다(동포투데이, 2014.2.6일자).

표 III-5 동북 3성 20개의 조선족 농촌 인구이동 조사 상황 통계(2009년 8월)

분류	호적인구	실거주인구	유출인구	국내이동	국외이동
합계	17,245	5,890	11,135	6,603	4,752
비율	100	34.15	65.85	38.30	27.77

* 출처: 동포투데이(2014.2.6).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교육.

http://dspdaily.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476&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30623205154_2684&ds_code=에서 2015년 1월 11일 인출.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정신철 연구팀의 현지조사 보고에서도 2013년 11월 현재,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의 호적인구 186,471명 가운데 외지로 진출한 인구가 131,324명으로 총수의 70.42%로 농촌의 경우 약 70% 인구가 고향을 떠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연해도시 진출 조선족 인구 상황은 해당 지역 민족사무위원회의 2008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청도시가 15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강삼각주가 10만여명, 북경시가 7~8만 명, 천진시는 5~6만 명 등으로 총 50~5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포투데이, 2014.2.6일자).

표 III-6 국내 연해 도시 진출 조선족 인구 상황(2008년)

지역	호적인구	임시거주증	실거주인구
북경시	-	-	7-8 만 명
천진시	-	-	5-6 만 명
장강 삼각주	-	-	5-6 만 명
주강 삼각주	-	-	10 만여명
산동 연태시	4,020	6,000	4-5 만 명
산동 위해시	6,866	8,857	3-4 만 명
산동 청도시	12,050	36,251	15 만여명
합계	-	-	50-55 만 명

* 출처: 동포투데이(2014.2.6).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교육.

http://dspdaily.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476&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30623205154_2684&ds_code=에서 2015년 1월 11일 인출.

한편 10~24세 조선족청소년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502,390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26.13%였으나, 2,000년에는 464,041명(24.12%)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293,685명(16.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조선족 청소년 인구분포 (전체 조선족 비율)

연령조	1990		2000		2010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0-14세	146,608	7.62	167,173	8.69	51,241	2.80
15-19세	172,749	8.99	164,552	8.55	85,429	4.67
20-24세	183,033	9.52	132,316	6.88	157,015	8.58
계	502,390	26.13	464,041	24.12	293,685	16.05

* 출처: 동포투데이(2014.2.6).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교육.

http://dspdaily.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476&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30623205154_2684&ds_code=에서 2015년 1월 11일 인출.

2012년에 재외공관을 통해서 동북 3성 지역에 있는 171개교 중 130개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조선족 학교는 길림성 지역이 47개, 요녕성 지역이 35개, 흑룡강 지역이 41개였으며, 한족을 제외한 조선족 학생 수는 34,188명이 고, 지역별로는 길림성 지역은 14,516명, 요녕성 지역은 10,212명, 흑룡강성 지역은 8,45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III-8 조선족학교 현황(동북 3성)(2012년)

지역	학교 수(개교)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조선어교원)
		총계	조선족	한족	
길림성	47	17,276	14,516	2,760	3,496 (489)
요녕성	35	11,136	10,212	924	2,053 (399)
흑룡강성	41	10,769	8,455	2,314	1,919 (276)
기타	7	1,222	1,005	317	154 (49)
총계	130	40,403	34,188	6,315	7,622 (1,21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4c). 중국 조선족 학교 현황. p. 1.

* 2012년에 재외공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수는 171개교이나 이 자료는 130개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임.

이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130교 학교 중에서 소학교는 49개교, 초중학교는 4개교, 9년제 학교는 21개교, 완전중학교는 25개교, 고등학교는 22개교, 연합학교는 22개였으며, 한족을 제외한 조선족 학생 수는 소학교는 12,687명(37.1%), 초중학교는 833명(2.4%), 9년제 학교는 2,981명(8.7%), 완전중학교는 8,222명(24.0%), 고등학교는 3,512명(10.3%), 연합학교는 5,953명(17.4%)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9 학교유형별 조선족학교 현황(동북 3성)(2012년)

지역	학교 수(개교)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조선어교원)
		총계	조선족	한족	
소학교	49	13,836	12,687	1,249	1,915 (552)
초중학교	4	836	833	3	118 (11)
9년제 학교	21	3,775	2,981	794	931 (191)
완전중학교	25	10,155	8,222	1,933	1,991 (174)
고등학교	9	4,369	3,512	857	988 (62)
연합학교	22	7,432	5,953	1,479	1,679 (223)
총계	130	40,403	34,188	6,315	7,622 (1,21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4c). 중국 조선족 학교 현황. p. 1.

* 2012년에 재외공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수는 171개교이나 이 자료는 130개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임.

(3) 재중동포 학생 수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학교는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12개교이며, 교원은 674명이고 학생은 6,5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학생 수는 유치원생이 406명, 초등학생이 2,637명, 중학생이 1,586명, 고등학생이 1,898명이었다. 지역별로 학생 수를 살펴보면, 상해한국국제학교가 1,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경한국국제학교(1,140명), 천진한국국제학교(910명), 칭다오청운한국학교(7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공관별 한국학교 교원 및 학생 수

학교명	학생 수(학급 수)					교원 계
	유	초	중	고	계	
북경한국국제학교	59(5)	496(17)	243(9)	342(13)	1,140(44)	101
천진한국국제학교	143(6)	378(15)	212(8)	177(6)	910(35)	92
상해한국국제학교		581(22)	350(13)	467(16)	1,398(51)	124
무석한국학교	52(3)	161(7)	129(6)	165(6)	507(22)	52
소주한국학교		72(6)	24(3)	25(3)	121(12)	17
홍콩한국국제학교	25(2)	68(6)	27(3)	66(3)	186(14)	28
연대한국학교		249(12)	184(7)	240(9)	673(28)	67
칭다오청운한국학교	77(5)	303(12)	172(8)	172(8)	724(33)	66
대련한국국제학교	5(1)	107(6)	99(5)	107(6)	318(18)	44
선양한국국제학교	45(3)	79(6)	46(3)	56(3)	226(15)	34
연변한국학교		38(6)	31(3)	43(3)	112(12)	22
광저우한국학교		105(6)	69(3)	38(2)	212(11)	27
계 (12개교)	406(25)	2,637(121)	1,586(71)	1,898(78)	6,527(295)	674

* 출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현황 자료.

<http://moe.go.kr/web/100070/ko/board/list.do;jsessionid=XBG3DVz0j7+w1C-bxOEYxdNt,node01?bbsId=336>

재외공관별 한글학교와 교원 및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69개 학교에 743명의 교원과 5,972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제외한 학생 수는 5,890명으로 초등학생은 3,833명, 중학생은 805명, 고등학생은 283명이었다.

표 III-11 공관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 수

공관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합계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주선양	391	187	26	61	12	13	6	—	—	6	81
주중국	646	397	79	70	7	8	3	—	28	10	74
주칭다오	1288	438	346	85	22	30	150	—	23	16	208
주광저우	1108	693	15	129	2	6	—	4	7	14	112
주상하이	1468	1004	3	237	—	7	—	5	—	13	150
주홍콩	613	305	58	80	29	16	25	—	—	1	33
주청두	213	128	—	36	—	2	—	5	—	4	37
주시안	61	32	—	5	—	5	—	—	—	2	16
주우한	22	16	—	6	—	—	—	—	—	1	7
주다렌	162	94	12	24	—	12	—	—	10	2	25
계	5,972	3,294	539	733	72	99	184	14	68	69	74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4a), 2014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8-19.

(4) 국내 입국 재중동포청소년 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전체 769,818명으로 이중 재중동포는 650,846명으로 84.5%에 달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동포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H-2)이 267,405명, 재외동포(F-4)이 355,294명, 영주(F-5)가 85,384명, 방문동거(F-1)이 24,707명, 기타가 37,028명이었다. 이 중 재중동포의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245,405명,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261,359명, 영주(F-5)자격 소지자는 84,502명, 방문동거(F-1)자는 36,85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8: 34~35).

표 III-12 재중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2016. 8. 31 현재, 단위: 명)

	전체	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	방문동거	기타
외국국적동포	769,818	267,405	355,294	85,384	24,707	37,028
재중동포	650,846	245,895	261,359	84,502	22,238	36,852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p. 34~35.

한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한국계 중국인 및 자녀에 대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재중동포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694,256명으로 이중 한국국적 취득자가 581,098명, 한국국적 취득자가 73,998명, 그리고 외국인 주민자녀는 39,16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 외국인 주민 및 한국계 중국인 자녀 현황

(2015. 1. 1 기준, 단위: 명)

	전체	중국(한국계)
전체	1,741,919	694,256
한국국적 미취득자	1,376,162	581,098
- 외국인근로자	608,116	268,558
- 결혼이민자	147,382	24,039
- 유학생	84,329	658
- 외국국적동포	286,414	206,047
- 기타	249,921	81,796
한국국적 취득자	158,064	73,998
외국인 주민자녀	207,693	39,160

* 출처: 행정자치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http://www.moi.go.kr/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Id=46327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또한, 한국계 중국인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160명 중 만 7세 미만은 15,215명(38.9%), 만 7~12세는 13,491명(34.5%), 만 13~15세는 5,690명(14.5%), 만 16~19세는 4,764명(12.2%)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총 19,963명으로 만 7세 미만은 7,743명(38.8%), 만 7~12세는 6,881명(34.5%), 만 13~15세는 2,916명(14.6%), 만 16~19세는 2,423명(12.1%)이었고, 여자는 총 19,197명으로 만 7세 미만은 7,472명(38.9%), 만 7~12세는 6,610명(34.4%), 만 13~15세는 2,774명(14.5%), 만 16~19세는 2,341명(12.2%)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한국계 중국인자녀 연령별 현황 (2015. 1. 1 기준, 단위: 명)

	전체	남	여
전체	39,160	19,963	19,197
만 7세 미만	15,215	7,743	7,472
만 7~12세	13,491	6,881	6,610
만 13~15세	5,690	2,916	2,774
만 16~19세	4,764	2,423	2,341

* 출처 : 행정자치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http://www.moi.go.kr/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0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국계중국인 학생 수는 2015년에 초등학생 1,702명, 중학생 345명, 고등학생 157명으로 총 2,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9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804명), 충남(88명), 울산(78명), 인천(68명), 경남(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초·중·고 연령대(만 7~19세) 인구가 23,945명인 것을 감안하면, 초·중·고 재학생 2,208명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표 III-15 국내 재학 중인 한국계중국인 학생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합
총계	1,702	349	157	2,208
서울	785	98	49	932
부산	17	2	3	22
대구	10	7	2	19
인천	44	16	8	68
광주	—	4	—	4
대전	1	3	—	4
울산	65	11	2	78
세종	—	—	1	1
경기	600	156	48	804
강원	10	6	8	24
충북	29	4	4	37
충남	57	10	21	88
전북	18	5	5	28
전남	5	3	—	8
경북	20	5	3	28
경남	38	16	3	57
제주	3	3	—	6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은 크게 재외국민청소년과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정책은 주로 교육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정책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 전국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국학교 설립 지원, 한국어 보급, 재외교육기관 교원 파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12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172명의 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학교의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가 4개교, 2001년~2010년 사이에 설립된 학교가 6개교였으며, 최근 소주와 광저우지역에 2개 학교(소주한국학교 2013년, 광저우한국학교 2015년)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효율화·체계화를 통해 재외동포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및 현지 정규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322백만 원이 지원되었다²⁸⁾.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사업 및 프로그램은 교원 연수, 학교 교육 및 환경개선 지원, 우수학생 초청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 지원, 재중동포청소년 한국방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현지 정보화교원 연수 등 있다. 중국지역 조선족교사 초청연수는 조선족 교사 역량강화와 국내·외 우리말 교육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66명의 조선족 학교 교사를 초청하였으며, 2015년에는 음악교사를 추가하여 총 95명을 초청하여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음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연수하였다. 정보화 연수는 중국 및 CIS지역의 민족교육 육성을 위해 정보화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원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만방학교 조선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41명, 2015년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보화연수를 실시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4b: 10~11; 재외동포재단, 2015: 10~11). 또한 2016년에는 재중동포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요녕성 조선족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기술 활용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흑룡강성 교원 40명을 대상으로는 한국무용의 보급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15).

학교 교육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민족학교 교육기자재 및 문화용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민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선족학교, 고려인학교

27)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현황 자료

<http://moe.go.kr/web/100070/ko/board/list.do?jsessionid=XBG3DVz0j7+w1C-bxOEYxdNt,node01?bbsId=336>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28) 교육부 국고보조금 정보 자료 <http://www.moe.go.kr/web/128366/ko/board/view.do?bbsId=428&boardSeq=60301>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에 정보화기자재와 문화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조선족학교 17개교, 고려인학교 1개교 등 18개 학교에 컴퓨터 122대, 프린터 14대, 한복 140벌, 사물놀이 23세트, 사물놀이의상 140벌, 가야금 31대 등 총 199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나(재외동포재단, 2014b: 10), 2015년에는 조선족학교 17개교에 컴퓨터 175대, 프린터 2대, 복사기 9대, 사물놀이 4세트, 사물놀이의상 25벌, 소고 12개 등 155백만 원으로 축소·지원되었다(재외동포재단, 2015: 10).

장학사업은 우수 재외동포 학생 한국 초청과 중국 현지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 재외동포 학생 초청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거주국과 모국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였으며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월 90만원),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31명의 재중동포 학생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및 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 고취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를 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0개국에 119명을 선발하여 1인당 USD 840의 장학금 지원하였는데, 중국동포 학생은 42명, 러시아·CIS 학생은 77명이었다(재외동포재단, 2014b: 25~28). 2015년에는 18명의 재중동포 학생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졌으며, 장학금 지원은 9개국에 140명을 선발하여 1인당 USD 1,200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중국동포 학생과 러시아·CIS 학생은 각각 70명이었다. 재중동포 학생에 대한 초청 규모는 2014년에 비해 축소된 데 반해 장학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5: 27~28).

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 지원은 해외한인후손들에 대한 직업능력 교육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74명, 청도 정양학교 20명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47명, 청도 정양학교 20명의 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b: 28; 재외동포재단, 2015: 30). 이에 대한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중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은 재중동포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것으로 2015년에 학생 124명, 수행교사 28명 등 총 152명을 초청하여 8박 9일간 전통 및 현재 문화체험, 역사유적지 답사, KBS 도전골든벨 촬영, 대학탐방 등을 실시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5: 15).

표 III-16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어교사, 음악교사를 초청하여 2주간 국내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국어교육 및 음악교육 현황, 최신 국어교수법 및 음악 관련 교수법 강의, 한국 역사·문화 체험기회 제공 · 한국무용의 기본과 제동작, 소고, 입춤 등 한국 무용 연수 실시
민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선족학교에 정보화기자재와 문화용품 지원 ·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 연수 실시(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만방학교)
재외동포초청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 지원 · 초청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과 지역별 간담회 등 실시
중국 현지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교육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실시
재중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중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 출처 : 재외동포재단(2014b, 2015),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조선족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국에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공교육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을 심사하는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²⁹⁾

29)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으로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학교 학생이 공교육 진입 시 학적 등의 서류를 본국에서 갖추지 못할 경우에 한국어 능력을 심사하여 공교육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2011년 3개교에서 2015년 100개가 운영되고 있다. (출처: 교육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 <http://www.moe.go.kr/web/128167/ko/board/view.do?bbsId=427&boardSeq=61239>에서 2016년 10월 17일 인출)

표 III-17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외동포지원

	학교 운영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³⁰⁾	· 다문화예비학교운영(15곳)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 업무교류 및 한글도서증정 · 동대문도서관의 연변과학기술대학 도서관에 한글도서 기증 · 양천도서관의 용정도서관 한글도서 보급
부산광역시 ³¹⁾	· 예비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7곳) · 다문화 직업교육(고 1, 기관 1)	—
대구광역시 ³²⁾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인천광역시 ³³⁾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광주광역시 ³⁴⁾	· 동반, 중도 입국자녀 위탁교육기관 지정 · 운영: 새날학교(초중등 75명)	· 동북아한민족의 연대감 회복사업 추진 (2015) · 동북아한민족민족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기획팀 운영 · 조선족 민족학교 교류협력지원 · 행복한 학교 공간조성 및 시설 지원 · 한민족 책 나눔 캠페인 및 한글도서지원센터운영지원 · 동북아한족협력단체 활동지원: 2단체
대전광역시 ³⁵⁾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울산광역시 ³⁶⁾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³⁷⁾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경기도 ³⁸⁾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동북3성과 MOU체결 및 조선족 학교 협력사업 · 한국어교육자료 지원, 청소년교류 및 역사문화체험 · 유아교육기자재 지원, 교사대상 상담연수 실시 · 동북3성 이외의 조선족 학생 교류 추진
강원도 ³⁹⁾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길림성과 MOU 체결 · 학생교류활성화 방안 협의 중
충청북도 ⁴⁰⁾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해외교포자녀를 초청하여 문화체험 및 가정체험 (중 · 고생 20여명)

30)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1)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2)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3)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ncheon.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4)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5)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www.dj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6) 울산광역시교육청 <http://www.us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http://www.sj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8)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39)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학교 운영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충청남도 ⁴¹⁾	· 다문화예비학교 (6곳)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길림성 백산시조선족학교 컴퓨터 및 한글교육자료 기증 · 학생교환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 ⁴²⁾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전라남도 ⁴³⁾	· 일반학교 예비프로그램지원(10곳)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경상북도 ⁴⁴⁾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한글학교/한국학교 한글도서 지원(2014- 2016)
경상남도 ⁴⁵⁾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⁴⁶⁾	· 다문화예비학교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또한 예비학교 운영 이외에 교육청별로 다양한 교류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과 업무교류와 한글도서를 보내고 있고, 2013년부터는 동대문도서관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 도서관에, 그리고 양천도서관은 용정도서관에 한글도서를 보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북아한민족 연대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민족민족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선족 민족학교 교류협력 지원과 한민족 책 나눔 캠페인, 행복한 학교 공간조성 및 시설 지원, 동북아한족협력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동북3성 지역의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조선족학교와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자료 지원, 청소년교류 및 역사문화체험, 유아교육기자재 지원, 교사 대상, 상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동북 3성 이외의 조선족 학생과의 교류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거주 중국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문제도 검토 중에 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길림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중고생 20여명의 해외교포자녀를 초청하여 문화체험 및 가정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한글도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⁷⁾.

40) 충청북도교육청 <http://www.cb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1)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2) 전라북도교육청 <http://www.jb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3) 전라남도교육청 <http://www.jne.go.kr/index.jne>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4) 경상북도교육청 <http://www.gb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5)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index.gne>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에서 2016년 10월 15, 16, 17일 인출

47)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기술하였음.

3. 재미동포청소년 현황과 정책⁴⁸⁾

1) 재미동포청소년 현황⁴⁹⁾

(1) 재미동포청소년 현황 파악의 필요성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재미동포의 수가 170만 명을 넘었으며, 2016년 현재에는 그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민병갑 · 임세정, 2015).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이주한 한국 이민자 수는 미국의 10대 주요 이민자 집단에 속한다. 197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 이민자는 1976년에 이르러 연 30,000 명을 상회했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는 그 수가 15,000명 이하로 크게 감소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20,000~25,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Min, 2010). 과거에 비해 새로운 한국 이민자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미동포의 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이민이 시작된 지 약 45년이 지났고 재미 한인사회는 빠르게 세대교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동포 2세 이상의 비율은 33%이며, 여기에 13세 이전에 미국에 이민 온 1.5세대까지 포함시키면 차세대 재미동포의 비율이 53%로 반수가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U.S. Census Bureau, 2010-2014).

이렇듯 재미동포사회의 세대변화가 진행되면서 재미동포 차세대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재미동포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이민자 1세대에만 국한되었으나, 그들의 1.5세 및 2세 자녀들이 대거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의 범위가 젊은 세대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그동안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차세대 재미동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미동포 고등학생의 학업성적 및 세대별 교육수준의 증가를 타 아시아 민족과 비교한 연구(Xie & Goyette, 2003), 둘째, 재미동포 차세대의 경제적 적응, 특히 그들의 교육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를 타 아시아 민족 및 백인과 비교 · 분석한

48) 이 부분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민병갑 교수(퀸즈 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임세정 · 주대신 연구원(재외한인사회연구소)이 공동집필하였음.

49) 3.1 재미동포청소년 현황은 민병갑 교수(퀸즈 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와 임세정 연구원(재외한인사회연구소)이 집필하였음.

연구(Kim & Sakamoto, 2010; Sakamoto, Goyette, & Kim, 2009; Zeng & Xie, 2004), 셋째, 모국어 사용 및 민족정체성 유지에 관해 타 아시아 민족과 비교한 연구(Kibria, 2002; Min & Kim, 1999), 마지막으로 차세대 재미동포의 종교 활동, 특히 그들의 개신교 교회 활동에 관한 연구(Kim, 2006; Kim, 2010; Min, 2010)가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차세대 재미동포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와 함께 그들의 성격을 양적·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윤인진, 2005; 윤인진, 채정민, 2007; 김경근,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민족정체성 유지 정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차세대 재미동포가 향후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갖게 될 영향력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전반적 현황을 주요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문화적 성격으로 나누고, 체계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현황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1차년 연구에 의하면 정책대상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범위를 만 9세에서 24세로 폭넓게 설정하였다(김경준, 김태기, 2015). 기존 보고서들은 재미동포청소년의 양적 현황을 파악할 때, 대부분 재미동포 학생 숫자를 기초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재미동포 학생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입준비 및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러한 교육기관을 이탈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다(민병갑, 임세정, 2015). 이렇듯 동포교육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의 수를 감안할 때 기존의 보고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양적 현황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9-24세 재미동포청소년의 성격을 다방면에서 측정해 분석한 통계자료는 현재 전무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조사 방법 및 주요내용

재미동포청소년에 대한 신빙성 있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U.S. Decennial Census) 통계자료와 매년 실시하는 American Community Survey(ACS)를 활용하였다. American Community Survey(이하 줄여서 ACS)는 미국 통계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조사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자료로 평가된다. 이 조사는 매년 전체 인구의 1%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인종 및 민족 구분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미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의 인구변화 및 사회·경제·문화적 성격을 분석하는 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연구에 ACS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통계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년 또는

5년간의 ACS를 통합해 분석에 사용한다. 본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최근 5년(2010~2014년)간의 ACS를 통해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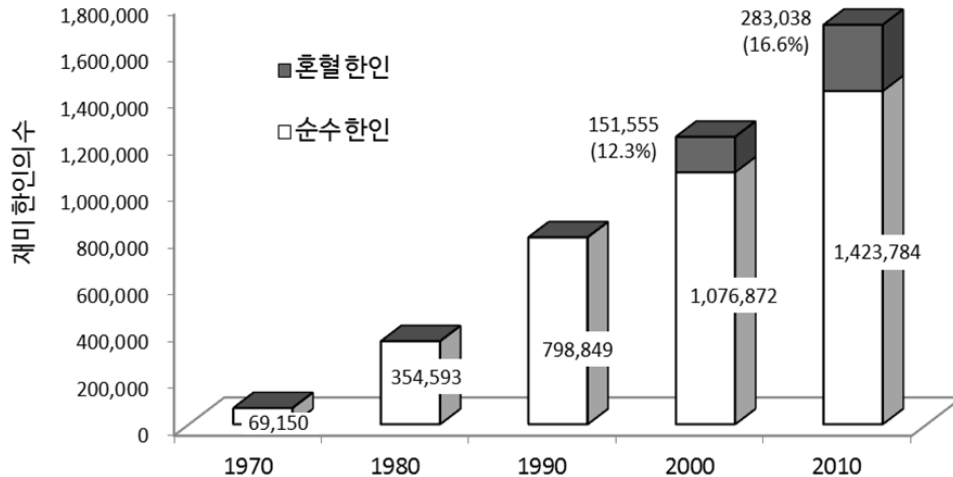
김경준과 김태기(2015)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9~24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였다. 본 자료조사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였다. 세대구분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13세 이후에 이민 온 이들은 ‘1세’로, 12세 이전에 이민 온 이들은 ‘1.5세’로 나누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세대에 상관없이 ‘미국 출생’으로 묶어 ‘2세’ 이상을 모두 포함시켰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절에서는 1세의 비율이 1.5세 및 미국 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본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소년이 비교적 어리고 제한된 연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의 성격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세대를 잘못 동일시해 해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혼혈 여부는 순수 한인과 혼혈 한인으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순수 한인은 자신의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이라고만 답한 이들을 가리키며, 혼혈 한인은 한국인 외에 다른 인종 또는 민족을 추가로 선택한 이들을 일컫는다. 2000년부터 미국 센서스는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인종이나 민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혼혈인구의 수를 측정하고 그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ACS를 통해 측정하는 혼혈 한인의 수는 10년 단위의 인구센서스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ACS는 전체 인구의 1%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의 결과 코딩 방식이 인구센서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구센서스는 혼혈 한인을 ‘순수 한인 또는 다른 어떤 형태와의 조합(Korean alone or in any combination)’이라는 큰 항목으로 묶어 그 수를 공개하는 반면, ACS는 순수 한인과 가장 빈번하게 조합이 이뤄지는 인종 또는 민족만을 선별해 코딩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확한 혼혈 한인의 수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살펴보고, 그들의 세부적인 성격은 ACS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을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성격, 문화적 성격에 따라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성격에서는 전체 재미동포의 시기별 인구변화를 시작으로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 구성 현황을 혼혈 여부, 출생지, 세대,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경제학적 성격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교육수준 및 그들의 가정 내 총 소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성격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모국어 사용률 및 민족정체성 유지 정도를 혼혈 여부, 세대, 지역 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3)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학적 성격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재미동포 인구는 증가하였다([그림 III-1] 참고). 1970년 재미동포의 수는 약 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센서스에 누락된 한인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 7만 5천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는 약 80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200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 2010년에는 170만 명 이상의 한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 누락된 한인의 수와 지난 6년간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2016년 현재 재미동포의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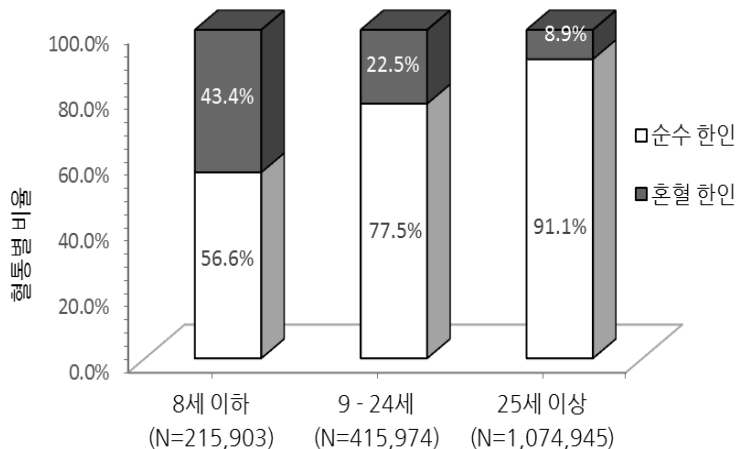
*출처: U.S. Census Bureau, 2010 Census

【그림 III-1】 연도별 재미 한인의 수 및 혼혈 한인 비율 변화, 1970-2010

미국 센서스는 2000년부터 응답자가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을 선택하는 질문에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혼혈 한인의 경우, 1990년대까지 자신의 인종 혹은 민족을 선택하는 질문에 한국인 또는 비 한국계 부모의 인종이나 민족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했지만, 2000년 센서스를 기점으로 양쪽 부모의 인종 또는 민족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부터는 센서스를 통해 한인 혼혈 인구의 비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III-1]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2000년대의 혼혈 한인의 수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한인 총 인구의 12%였다. 2010년에는 혼혈 한인의 수가 약 30만 명에 근접하며, 전체 한인 인구의 17%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혼혈 한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타 인종 및 민족과 결혼하는 차세대 성인 재미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동포의 족외혼율은 1세보다는 1.5세 및 미국 출생 2세 이상에게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며, 최근 한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Min & Kim(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출생 한인의 54%가 타민족 또는 인종과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III-2]는 순수 한인과 혼혈 한인의 비율을 재미동포의 연령(8세 이하, 9~24세, 25세 이상)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혼혈 한인의 비율은 어린 나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혼혈 인구가 어린 나이에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경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차세대 재미동포의 족외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구체적으로 혼혈 한인의 비율은 8세 이하의 재미동포 중 약 43%를 차지하며,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9~24세에서는 약 23%, 25세 이상에서는 약 9%를 차지한다. 재미동포청소년의 약 1/5이 혼혈이고, 8세 이하의 한인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혼혈인 점은 앞으로 재미동포사회의 구성원이 빠르게 다인종·다민족화 되어 갈 것임을 암시한다.



* 출처: U.S. Census Bureau, 2010 Census

【그림 III-2】연령대에 따른 재미 혼혈 한인의 비율

그렇다면 한국인과 비 한국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 청소년의 인종 또는 민족적 구성은 어떻게 될까? 분석에 앞서 먼저 재미동포 결혼양상의 한 가지 특성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타인종 또는 민족과 결혼한 재미동포 중 세대와 상관없이 백인과 결혼한 비율이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Min & Kim, 2009). 이러한 경향은 타 아시아 민족의 결혼양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Min & Kim, 2009). 이처럼 백인과의 족외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백인이 다수인 미국 사회에서 그들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차세대 한인들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백인과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준 높은 대학의 학생 구성을 보면 백인과 아시아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미 주류사회의 좋은 직장에도 백인과 아시아인이 상당히 높게 분포되어 있다. 둘째, 백인과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은 흑인 또는 라틴계 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이 높아 중산층 이상의 백인 거주 지역에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백인과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백인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백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표 III-18>을 살펴보면, 재미동포 성인의 일반적인 족외혼 양상이 혼혈 청소년의 인종 또는 민족적 구성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상대로 자신을 ‘한인과 백인’이라고 응답한 혼혈 청소년의 비율은 약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인과 흑인’이라고 답한 이들은 약 9%, ‘한인과 중국인’이라고 한 청소년은 전체 혼혈 청소년의 약 4%로 나타났다. 미국 내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중국인(약 4백 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2세 한인이 백인 또는 흑인과 결혼할 확률 역시 중국인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한인과 중국인’을 선택한 혼혈 한인의 비율이 4%나 된다는 사실은 중국인과 선택적으로 결혼하는 2세 한인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CS는 10년 단위의 인구센서스와 비교해 비록 혼혈 한인의 수는 적게 집계하지만, 혼혈 한인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조사결과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혈 청소년이 아무리 자신을 ‘한인과 일본인’ 또는 ‘한인과 베트남인’이라고 응답하였어도 그 비율이 낮다면 ACS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ACS로는 혼혈 청소년의 인종·민족적 구성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알 수 있지만, 이들의 구성 비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아울러, <표 III-18>은 자신을 ‘한인과 백인’이라 응답한 혼혈 한인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미동포 성인의 타민족·인종과의 결혼양상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III-18 혼혈 한인 청소년의 인종·민족적 구성

	혼혈 한인의 수 (N)	비율(%)
한인과 백인**	66,147	87.5
한인과 흑인	6,572	8.7
한인과 중국인	2,900	3.8
합계	75,619	100.0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 백인의 범주에는 라틴계 백인과 비 라틴계 백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이어서 <표 III-19>는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출생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혈통을 분리하지 않은 한인 전체를 살펴보면, 재미동포청소년의 약 57%는 미국에서, 약 40%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순수 한인만을 볼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비율이 각각 49%와 약 48%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혼혈 한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인 91%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약 5%는 한국에서, 나머지 약 4%는 기타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절대 다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다. 미국 센서스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나 한국의 해외동포 담당 정부 관리자들은 흔히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에서만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재미동포 전 연령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이들(재미동포 1세와 1.5세)의 출생지 분포에서 기타 지역 출생자의 비율이 5% 정도로 나타났다(Min, 2012). 이 중,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의 대부분은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자녀(혼혈 한인 2세)이거나 그들의 3세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 기타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는 재중동포 및 재일동포의 3세 또는 4세 자녀로서 미국에 재이주해 온 이들이 많다(Min, 2012).

표 Ⅲ-19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출생지 분포

		미국	한국	기타 지역**	합계
한인 전체	N	222,411	153,953	12,786	389,150
	%	57.2	39.5	3.3	100.0
순수 한인	N	153,586	150,295	9,650	313,531
	%	49.0	47.9	3.1	100.0
혼혈 한인	N	68,825	3,558	3,236	75,619
	%	91.0	4.7	4.3	100.0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 기타 지역에는 미국 본토 외 미국령에 속한 지역(American Samoa, Guam,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과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등이 속함.

다음으로 <표 Ⅲ-20>은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세대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앞서 <표 Ⅲ-19>에서 살펴본 미국 출생자들은 여기에서 미국 출생 세대에 해당되며, 한국과 기타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이 여기에서는 1세와 1.5세로 나뉜다. 재미동포청소년은 혈통에 관계없이 모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1세의 비율은 1.5세와 2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 1세는 아주 낮은 비율(14% 정도)을 차지하고, 1.5세와 미국 출생 한인들이 절대다수를 이룬다. 이 중, 순수 한인 청소년만을 선별해서 보면 1세대의 비율이 약 17%로 조금 높아진다. 혼혈 한인 청소년의 90% 이상이 미국 출생이다. 혼혈 한인 3세들은 부모 중 한쪽만이 한인이며, 그것도 한인 2세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노출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20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세대 분포

		1세	1.5세	미국 출생 (2세 이상)	합계
한인 전체	N	52,803	113,936	222,411	389,150
	%	13.6	29.3	57.2	100.0
순수 한인	N	52,216	107,729	153,586	313,531
	%	16.7	34.4	49.0	100.0
혼혈 한인	N	587	6,207	68,825	75,619
	%	0.8	8.2	91.0	100.0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마지막으로 살펴볼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학적 성격은 그들의 미국 내 법적 지위 현황이다. <표 III-21>는 혈통에 관계없이 전체 재미동포청소년의 시민권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미동포청소년은 이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권이 없는 이들은 전체 청소년 중 1/4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의 반수 이상이 미국 출생인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출생 시 법적으로 부여된 시민권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12세는 약 9%에 불과하지만, 18~24세는 15%에 이른다. 이와 유사하게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신분의 청소년 역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이들은 많은 수가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조기 유학생 및 대학생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뒤 비자 만료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버린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권이 없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나이의 청소년들 중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버린 부모의 자녀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21 연령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미국 법적 지위 현황

		시민권 보유		시민권 부재 이민자	합계
		출생 시 법적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이민자		
전체 (9~24세)	N	236,871	49,495	102,784	389,150
	%	60.9	12.7	26.4	100.0
9~12세	N	62,169	7,862	14,346	84,377
	%	73.7	9.3	17.0	100.0
13~17세	N	71,786	12,385	25,678	109,849
	%	65.3	11.3	23.4	100.0
18~24세	N	102,916	29,248	62,760	194,924
	%	52.8	15.0	32.2	100.0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 출생 시 법적 시민권자는 미국출생자들과 미국 외의 곳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을 모두 포함함.

(4) 재미동포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성격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학적 성격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경제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교육 수준, 직업 성격, 경제적 상황, 빈곤 정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표 분석은 대부분 경제활동이 왕성한 25~64세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청소년은 나이가 9~24세로 대부분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분석 지표를 교육 수준과 가정 내 경제적 상황으로 제한해 살펴본다.

<표 III-22>는 9~24세의 재미동포청소년 중 18세 이상만을 선별해 그들의 혈통별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의 최고 나이가 24세인 점을 감안해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 재학률, 대학 졸업률로 나누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률을 살펴보면, 한인 청소년의 약 93%가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알 수 있다. 혈통을 분리해 살펴보아도 이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인 청소년은 거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25~64세 재미동포의 고졸 비율이 95%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민병갑, 2015).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이후 교육 수준은 어떻게?

표 III-22 18세 이상 재미동포청소년의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 재학률**	대학 졸업률
한인 전체	N	194,924	181,764	181,764
	%	93.2	75.2	17.6
순수 한인	N	167,785	156,456	156,456
	%	93.2	77.4	18.1
혼혈 한인	N	27,139	25,308	25,308
	%	93.3	62.2	14.3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 대학 재학률은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가 재학하고 있는 기관이 대학이라는 가정 하에 ACS의 지난 3개월 간 학교 재학여부를 나타내는 변수(SCHOOL)를 통해 산출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은 약 93%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75.2%) 대학을 졸업(17.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혈통에 따라 분리해 살펴보면 순수 한인과 혼혈 한인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 한인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대학 재학 중(77.4%)이거나 대학 졸업자(18.1%)인 반면, 혼혈 한인은 약 77%만이 현재 대학에 다니거나(62.2%) 대학을 졸업(14.3%)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수준에 관한 청소년의 혈통 별 간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혼혈 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순수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배경에 기인한다. 현재 미국 내 혼혈 한인의 상당수는 1950~60년대 미군과 결혼하여 이민 온 한국 여성의 2세 혼혈 자녀이거나, 그 자녀들이 낳은 혼혈 3세인 경우가 많다. 물론, 1965년 이후에 이민 온 한국 이민자의 2세 자녀가 타인종·민족과 결혼해 낳은 3세 혼혈 자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세 성인 혼혈 한인은 위의 미군결혼 여성 자녀가 낳은 3세 혼혈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아직 적다. 그러므로 <표 III-22>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수의 혼혈 한인은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후손인 혼혈 한인 3세일 가능성이 높다. 1965년 이후 이민 온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1960년대 이전에 이민 온 미군결혼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그들의 2세 또는 3세 혼혈 자녀 역시 사회·경제적 수준 역시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혼혈 한인은 순수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교육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로 구성된 선택적 이민자 집단(selective migrants)으로, 자녀 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많은 이들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 데에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 크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자 1세 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장차 미 주류사회에 당당히 속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육과 입신양명을 중요시하는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순수 한인의 부모 중에는 자녀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때로는 지나치게 강요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이에 반해, 혼혈 한인의 부모는 두 명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아닌 탓에 한국적인 문화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오히려 이들은 자유로운 미국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정해진 시기 안에 성취해야 할 과업이 아닌 자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 여기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라 하겠다. 즉, 순수 한인과 혼혈 한인 청소년의 교육 수준 차이는 이렇듯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 의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재미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 경제 여건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이 세대주의 자녀로서 소속되어 있는 가정의 총 가계소득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I-23>은 청소년 가정의 총 가계소득을 혈통에 따라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혈통을 구분하지 않은 한인 청소년 전체의 총 가계소득 중간값은 80,600달러이다. 그러나 혈통을 나누어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순수 한인의 총 가계소득 중간값은 75,211달러인데 반해, 혼혈 한인 가정의 경우 57,846달러로 순수 한인 가정보다 약 17,000달러가 적다. 이러한 혈통 간극은 위에서 살펴본 교육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3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 가정의 총 가계소득

	총 한인 수	총 가계소득 중간값
한인 전체	262,354	\$80,600
순수 한인	204,508	\$75,211
혼혈 한인	57,846	\$57,846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5) 재미동포청소년의 문화적 성격

언어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민자들의 모국어 사용 정도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모국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아주 유용한 척도로 활용된다. ACS에는 5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만약 응답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언어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이민자들이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변수는 응답자의 모국어 사용현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응답자의 모국어 사용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구사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세대주가 대표로 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는데, 이 때 모국어 사용률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주 가끔씩 모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더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바람이 투영되어 ‘사용한다’고 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S는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민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며, 언어사용 변수 또한 많은 이들이 이에 기초해 이민자의 가정 내 모국어 사용률을 측정하고 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모국어 사용 현황 역시 이 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III-24>은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정도를 보여준다. 먼저, 청소년 전체를 혈통에 따른 구분 없이 살펴보면 약 56%에 해당하는 이들이 한국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 한인은 약 68%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 혼혈 한인은 8%만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종·민족과 결혼한 18세 이상 재미동포의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률은 평균 17%정도이고 타 아시아 민족과 결혼한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타 소수민족과 결혼한 경우에는 25%, 백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13% 밖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Kim & Min, 2010). 타인종·민족과 결혼한 재미동포 중 백인과 결혼한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혼혈 한인 청소년의 낮은 한국어 사용률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표 III-24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총 한인 수	총 한인 수 대비 한국어 사용 비율(%)
한인 전체	389,150	56.4
순수 한인	313,531	68.1
혼혈 한인	75,619	8.0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표 III-25>는 순수 한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세대별 한국어 사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 한인 청소년 중 1세에 해당하는 이들 중 약 87%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는 그보다 훨씬 낮은 약 64%만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미국 출생 세대는 65%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세와 미국 출생 세대가 1세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1세에 비해 미국 문화에의 노출 및 동화 정도가 훨씬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사용률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출생 세대의 한국어 사용률이 1.5세대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것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모국문화를 잃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간다는 동화이론(Alba & Nee, 2003)에 입각한다면 미국 출생 세대의 한국어 사용률은 1.5세에 비해 낮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III-25>에서와 같이 미국 출생의 한국어 사용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출생 청소년의 비율이 1.5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혼혈 재미동포 전체인구의 나이 중간값이 세대가 갈수록 어려움을 고려할 때(민병갑, 2015), 미국 출생자들 중에는 1.5세보다 나이가 어려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특히나 1세대 이민자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청소년들의 모국어 사용은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밖에도, 1.5세대에는 한국계 입양인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5세의 한국어 사용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표 III-25 세대별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총 순수 한인 수	총 순수 한인 수 대비 한국어 사용 비율(%)
세대 전체	313,531	68.1
1세	52,216	87.2
1.5세	107,729	63.8
미국 출생(2세 이상)	153,586	64.7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일반적으로 미국의 청소년은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독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면 이민자 자녀의 경우 모국어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함께 살던 1세대 부모와 분리되면서 감소하는 차세대의 모국어 사용률은 최근의 통계자료를 통해 재미동포 차세대의 한국어 사용현황을 분석한 민병갑과 임세정(2015)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민병갑과 임세정(2015)은 순수 한인 차세대의 모국어 사용률이 18세를 전후로 확연히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재미동포 1.5세와 2세 모두 5~17세의 응답자보다 18세 이상의 응답자가 약 20% 가량 적게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는 18세 이상 차세대의 결혼 여부 또한 모국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았다. 18세 이상 차세대 성인 중 미혼자(또는

배우자 부재)가 기혼자 보다 한국어 사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출생 세대의 경우에 이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18세 이상 미혼 성인은 56%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기혼자들의 한국어 사용률은 2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출생 한인의 약 55%가 타인종·민족과 결혼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민병갑, 임세정, 2015).

<표 III-26>은 미국을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 지역은 재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최근 들어 한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워싱턴주, 재미동포의 최초 이민 정착지인 하와이주가 포함되어 있다. 서부 지역 다음으로 많은 재미동포가 거주하는 동북부 지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 버지니아, 메사추세츠를 포함한다. 예상대로 이 두 지역의 청소년 한국어 사용률은 매우 높다. 서부 지역은 약 73%에 이르며, 동북부 지역 또한 약 70%로 그 뒤를 잇는다.

표 III-26 지역에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비율

	총 순수 한인 수	총 순수 한인 수 대비 한국어 사용 비율(%)
전 지역	295,570	68.1
서부 지역	122,482	72.5
동북부 지역	70,946	68.9
중서부 지역	44,809	54.4
남부 지역	57,333	68.6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중서부 지역의 청소년 한국어 사용률은 약 54%로 위의 두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시카고로 대표되는 중서부 지역 역시 오랜 한인 이민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이곳은 최근 새로운 한인 이민자의 유입이 가장 낮은 곳이다. 따라서 차세대 재미동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어 사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중서부 지역은 서부나 동북부 지역에 비해 한국과의 교류도 덜 활발한 편이라 차세대 재미동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6>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남부 지역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률이다. 최근 10~20년 사이 미국 남부 지역의 조지아,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재미동포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듯 남부 지역의 한국어 사용률은 동북부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10년 단위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재미동포 수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약 101% 증가했으며,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의 경우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시기 서부 LA지역과 동북부 뉴욕 지역의 재미동포 인구 증가율이 각각 19%와 23%였던 것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Min, 2013). 이렇듯 재미동포는 LA, 뉴욕, 시카고 등의 전통적인 이민 관문도시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경제적 기회의 폭이 넓은 남부 지역의 중간 크기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중간 크기 도시들도 한국과의 초국가적 연계가 매우 활발해졌는데, 이 역시 많은 재미동포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다(Min, 2013). 한 예로, 이제 한국과 애틀랜타 및 달라스 사이에는 직항 항공편이 수시로 운행되며, 곳곳에 작지 않은 규모의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재미동포들이 손쉽게 한인 식품점을 비롯한 각종 한인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미동포의 거주 지역 변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남부 지역 한인들의 모국어 및 민족문화 유지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민족의 민족정체성 유지 정도는 그들의 모국어 사용률 외에도 자신의 뿌리를 어디로 여기는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ACS에는 응답자가 자신의 뿌리 혹은 조상의 나라(ancestry)를 어디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여기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뿌리 나라를 차례대로 두 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표 III-27>과 <표 III-28>은 이 뿌리를 묻는 질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응답자가 첫 번째로 선택한 뿌리 나라만이 분석에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표 III-27>은 혈통에 따른 재미 한인 청소년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을 보여준다. 재미동포청소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은 약 88%이다. 각 혈통 별로 살펴보면, 순수 한인은 약 97%로 거의 대부분이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혼혈 한인은 52% 정도만이 자신의 모국을 한국이라 답했는데, 앞서 <표 III-24>에서 혼혈 한인의 한국어 사용률이 약 8% 밖에 안 되던 것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줄 모르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혼혈 한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뿌리를 한국으로 여기는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다는 것은 꽤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혼혈 한인 3세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결과다.

이는 비록 언어는 잃었지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전부 잃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재미동포의 한국과의 초국가적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연계가 혼혈 한인의 정체성 형성 또는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7 혈통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총 한인 수(N)	총 한인 수 대비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한인 전체	365,827	88.1
순수 한인	295,461	96.8
혼혈 한인	70,366	51.9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이어서 <표 III-28>은 순수 한인 청소년만을 선별해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을 세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세대가 올라감에 따라 한국을 모국으로 선택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든다. 1세와 1.5세는 모두 응답자의 98% 정도가 한국을 모국이라 답했으며, 미국 출생 또한 이보다 약간 낮은 96% 정도가 한국을 모국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 감소폭은 거의 미미한 터라 세대별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III-28 세대에 따른 재미 순수 한인 청소년의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총 순수 한인 수(N)	총 순수 한인 수 대비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는 비율(%)
세대 전체	295,461	96.8
1세	49,500	98.1
1.5세	102,353	97.8
미국 출생(2세 이상)	143,608	95.7

* 출처: U. 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청소년 연령 만9~24세

2)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⁵⁰⁾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 또는 관련 기관을 위주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미국 현지에서 지역 커뮤니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과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미국 현지 프로그램은 한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뉴욕·뉴저지 지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국내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⁵¹⁾

재미동포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정책 대상으로 수혜를 받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보다는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미동포청소년은 여러 재외동포청소년 중 미국거주 재외동포청소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이며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재외동포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중 국가의 특성 또는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라 재미동포청소년이 정책 대상이 되거나 지원을 받고 있다.

①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재미동포청소년 대상의 교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주요 부처로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지원이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초·중·고 교육’ 게시판에 재외동포교육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⁵²⁾. 자료를

50) 3.2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중 (1) 국내 현황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미국 현황은 민병갑 교수(퀸즈 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와 주대신 연구원(재외한인사회연구소)이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51) 이 부분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2)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현황 자료: <http://moe.go.kr/web/>

100070/ko/board/list.do;jsessionid=XBG3DVz0j7+w1C-bxOEYxdNt,node01?bbsId=336, 2016년 10월 13일 인출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정부에서 인가받고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2개교가 설립되었으나, 미국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한국학교는 재외한국학교로도 불리며 주로 일본, 중국, CIS,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에 설립되어 있으며 공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가 적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교육부 지원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6개의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고 7명이 파견되어 있다. 한국교육원은 워싱턴, 뉴욕, 시카고, 텍사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교육원은 1980년대에 설립되어 약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각지의 재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한국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같은 통계자료에서 한글학교는 미국 전역에 702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미동포는 4만 명 정도, 교원은 6천 8백 여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국내 초청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은 모국을 방문하여 한국어 말하기 등과 관련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국제사회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어, 문화, 현장체험,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 등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대상은 외국에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재외동포를 국내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다⁵³⁾. 2009년~2015년 동안 재외동포 국내 초청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일본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30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28명으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매우 적었다⁵⁴⁾.

② 재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과 지원 사업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원, 초청, 장학,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민족정체성 함양 및 한국 관련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는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요약한 표이다(<표 III-29> 참조).

53)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국내초청교육: <http://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9&menuNo=297>, 2016년 10월 13일 인출

54)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 내 재외동포교육센터 소개 페이지: <http://hansaram.kr/>, 2016년 10월 13일 인출

표 III-29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 재외동포재단 중심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⁵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함 · 총 3차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5년 1차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으로 국내청소년 30명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인가정에 머물며 재외동포사회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 · 2차와 3차 사업은 초청국가 재외동포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
재외동포초청 장학사업 ³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을 지원 · 초청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상·하반기 각 1회)과 지역별 간담회 등을 실시 (2015년에 미국 장학생 1명 초청)
조사연구사업 지원 ³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교육·사용·보급현황 연구 · 재외한글학교 교재분석 (2014년 지원)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초청연수 ⁵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을 초청하여 한국어교수법에 대한 강의와 한국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교사로서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한글학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능력에 관한 교육 등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원 ⁵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에게 인터넷 강의를 통한 연수 기회 제공 ·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2)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역 중심 프로그램-뉴욕·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⁵⁸⁾

미국의 뉴욕·뉴저지 재미동포 공동체는 미국 내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큰 재미동포 공동체 지역이다(Min, 2013).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약 22만 이상 (2016년 현재 약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의 한인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미국 내 전체 한인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뉴저지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내 다른

55) 재외동포재단 (2014b, 2015).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56)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사업안내 게시판.

www.okt.or.kr/portal/PortalView.do?PageGroup=USER&pagelid=1283437318518&query=&url1=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57)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사업안내 게시판.

www.okt.or.kr/portal/PortalView.do?PageGroup=USER&pagelid=1283437318518&query=&url1=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58) 이 부분은 민병갑 교수(퀸즈 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와 주대신 연구원(재외한인사회연구소)이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지역에 비해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관용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민자와 차세대가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유지하기가 더 수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미국 내 재미동포의 거주 비율이 높은 미국 동부의 뉴욕-뉴저지 지역의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한국학교 및 관련 기관

재외동포청소년의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세운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전일제 학교로 정착국가의 정규교육 커리큘럼과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주로 일본, 중국 및 구 소련공화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동남아, 일부 남미 국가 등에도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주로 한국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현지에 한국학교를 세워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또 다른 한국학교의 형태는 1960년대 이후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차세대와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운 주말 한국학교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연구학자들은 전자의 경우만 ‘한국학교’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는 ‘한글학교’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국에서 차세대 및 청소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은 주말 ‘한글학교’가 아닌 ‘한국학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주말 ‘한국학교’의 목적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역사 및 문화를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차세대 및 청소년의 한국 민족 정체성 확립이기 때문이다(민병갑, 임세정, 2015).⁵⁹⁾

가. 한국학교의 분포

2014년 기준으로 뉴욕·뉴저지 지역(코네티컷 포함)에는 143개의 한국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민병갑, 임세정, 2015). 한국학교의 소속기관, 다시 말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관은 종교기관, 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학교, 자립학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143개의 한국학교의 90% 정도가 종교기관 소속의 한국학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신교회, 천주교회, 불교사원 등이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학교는 개신교회가 주 운영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미국에는 교육부 승인의 정식 한국학교가 부재하고,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자들의 뜻에 따라서 주말 한국어 학교를 한국 학교라고 칭한다.

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은 크게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한글) 학교, 뉴욕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한국 및 문화 관련 사업, 미국 공립학교에 한국어 과목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미국 한국어 재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기관의 역할은 <표 III-30>에 제시되었다.

표 III-30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기관	주요 업무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⁶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한국학교 지역협의회 중 하나인 동북부협의회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코네티컷에 있는 한국학교의 연합체 · 한국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러 대회를 주최하여 재미동포청소년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더욱 관심을 두고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III-31> 참조)
뉴욕 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er in New York) ⁶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지원 뉴욕 한국교육원: 뉴욕 총영사관 담당 5개 주(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1981년 맨해튼에 설립됨 · 해당 지역 한국학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 감독,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한국으로부터 받아 각 한국학교에 배포하는 역할 ·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실시 · 뉴욕·뉴저지 지역 고등학교의 한국어 반이나 대학교의 한인학생회의 활동으로 사물놀이를 장려하고, 여러 학교에 사물놀이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미주 한국어 재단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 ⁶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설립된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이하 ‘한정추’)는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해 미국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한국어를 추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한정추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뉴저지에 있는 Rutgers University에 한국어 교사 양성 석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함 · 2010년 이후 뉴저지 주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Palisades Park High School)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현재 이 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크게 인기를 끌어 한국어 교사 두 명이 한국어 과목을 지도하고 있음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국 내 14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해 교육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재미한국학교

60)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www.naksnec.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1) 뉴욕한국교육원. www.nykoredu.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2) 미주한국어재단. www.koreanlanguagefoundation.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동북부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대회⁶³⁾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31> 참조).

표 III-31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주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대회

대회명	대회 내용
제30회 어린이 예술제 ⁶³⁾	·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1일, 뉴욕장로교회 · 참가종목: 연극, 노래극, 국악, 탈춤, 사물놀이, 무용, 합창 등 정체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종목
제16회 어린이 동요대회 ⁶⁴⁾	·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4일,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 참가대상: 1~8학년 학생 (초등부, 중등부) · 참가종목: 독창, 중창
제32회 동화구연대회 ⁶⁵⁾	·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 · 참가대상: 1~6학년 학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 참가종목: 한국 동화를 외워서 3~4분간 구
제1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⁶⁶⁾	·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3일, 뉴저지 프라미스한국학교 · 참가대상: 5~11학년 학생 (한국에서 1년 이상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제16회 한영-영한 번역 대회 ⁶⁷⁾	·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14일, 퀸즈한인교회(뉴욕), 한소망교회(뉴저지) · 참가대상: 3~12학년 학생 · 시험내용: 출제범위 내에서 50%, 범위 외에서 50%
제20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⁶⁸⁾	· 일시 및 장소: 2016년 3월 18~20일, 뉴욕-뉴저지 지역 한국학교 · 참가대상: 5~12학년 학생
제8회 한국 역사문화 퀴즈대회 ⁶⁹⁾	· 일시 및 장소: 2014년 12월 6일, 아콜라 문화학교 · 참가대상: 4~9학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온 학생)

63)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제30회 어린이예술제 공고,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284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4)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제16회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260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5)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2015년 동화구연대회,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254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6)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2016 나의 꿈 말하기대회,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203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7)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제16회 한영-영한 번역대회 개최 안내,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123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8)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20주년 기자회견,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63250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69) 재미학교 동북부협의회, 제 8회 한국역사/문화 퀴즈대회 공문, http://naksnec.org/xen/?document_srl=143927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② 한국문화학교 및 기관

한국학교 이외에 한국 문화와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해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뉴욕·뉴저지 지역의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역할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문화 관련 교육기관

2016년 현재, 뉴욕·뉴저지 지역에는 한국 전통문화학교 및 연관 기관이 30여 개가 있다. 이 학교 및 기관 대부분은 한인 행사뿐만 아니라 비한인 행사에도 참여하여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기관 중 절반 정도는 공연활동과 동시에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거나 개인 교습을 통한 전통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교육기관⁷⁰⁾ 중에서 직접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총 다섯 군데로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뉴욕한국국악원, 춤누리 전통문화학교,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학교, 뉴욕 취타대가 포함되어 있다.

표 III-32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문화 관련 교육기관

기관	주요 업무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Korean Performing Arts Center) ⁷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 소개와 교육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 · 센터 개설 이래 약 1,000여 명의 학생에게 체계적인 전통음악과 무용을 지도하고 있음 · 한국의 소리 (Sounds of Korea)라는 전통 공연 예술단을 운영
뉴욕한국국악원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Institute) ⁷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플러싱 한인타운에 설립됨 · 국악원이 설립된 이후, 약 2,000명의 학생이 국악원을 통해 전통 음악과 문화를 배우고 있음
뉴욕 취타대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⁷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타대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인 대취타를 연주하는 단체로 2008년 설립됨 · 전문 강사들이 취타대와 사물놀이를 지도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여름 캠프, 및 각종 다양한 공연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

위 학교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문화학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문화를 가르쳐 제자를 양성한다. 둘째, 문화 행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닌

70)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교를 제외하고 한국 전통문화 수업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을 한국문화학교로 정의하였다.

71)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http://kpacnyc.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2) 뉴욕한국국악원. <http://www.ktmdi.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3) 뉴욕 취타대. <http://www.nyktmb.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지역 사회 거주민에게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린다. 한국문화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 수는 적지만,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크다. 위에 열거한 한국문화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많은 형태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악기 (가야금, 해금, 거문고, 장구 등), 전통무용 (부채춤, 진도 북춤, 살풀이춤 등), 민요, 창, 판소리 등이 있다.

나. 문화 기관

위에서 서술한 한국문화학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한인 차세대에게 계승하고, 전문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문화 기관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많은 대중에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 기관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한국 문화예술 및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33>은 뉴욕·뉴저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기관을 소개하겠다. 여기에 소개된 다섯 개의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기관 중 뉴욕한국문화원과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주로 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고,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뿌리교육재단, 동화문화원은 주로 한인 차세대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관이다.

표 III-33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 문화 기관

기관	주요 업무
뉴욕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⁷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으로 1979년 설립 · 설립목적은 뉴욕·뉴저지 지역사회 내 한국 문화 활동을 돕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발달을 위함임 · 대표적인 프로그램: Spotlight Korea <p>Spotlight Korea는 뉴욕 시 초·중·고 공립학교에 1~4명의 전통 무용 및 음악 강사 (artist-teacher)를 파견하여, 전통예술 공연과 학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함. 주요 커리큘럼에는 소고춤, 부채춤 등의 전통 춤과 사물놀이 등의 전통 악기 연주가 포함되어 있음</p>

74) 뉴욕한국문화원. <http://www.koreanculture.org/?mid=mainK>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5) 코리아 소사이어티. <http://www.koreasociety.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6)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http://kayf.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7) 뿌리교육재단. <http://www.kayacny.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78) 동화문화원. <http://www.donghwaculture.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기관	주요 업무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 ⁷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장군이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설립하였고, 1993년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워싱턴 D.C.의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합병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 · 미국과 한국 간의 정책적, 기업적, 교육적, 문화 예술적 교류를 장려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뉴욕 초·중·고 공립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Korean American Youth Foundation) ⁷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창립 후 20여 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차세대 청소년의 정체성과 세계화 시대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도록 돕고 있음 · 대표적 프로그램인 WAFL (We are future leaders)을 통해 청소년 리더십 향상에 힘쓰고 있음
뿌리교육재단 (Korean American Youth Assistance Coalition, Inc.) ⁷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 차세대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해서 2000년에 설립 · 주요 사업은 모국방문 프로그램으로 2016년 현재 총 17회 진행되었음.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중 약 10일 간의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음
동화문화원 (Donghwa Cultural Foundation) ⁷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한국 및 동아시아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 · 한국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인 도, 덕, 인, 의, 예, 지를 차세대 청소년에게 심어주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대표적 프로그램은 East Meets West 에세이 경연대회, 아시안 전통예술경연대회가 있음

다. 기타 프로그램 및 대회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 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대회 및 공연은 재미동포 청소년의 뿌리교육과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34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의 기타 프로그램 및 대회

대회명	주요내용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주최 영어웅변 대회 ⁷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에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제6회를 개최하였으며, 9-1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웅변대회의 주제는 한국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참가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 가도록 돕고 있음
뉴욕중앙일보 한글 문학 작품 공모전 ⁸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 차세대 청소년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민족의 문화 및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한글 문학 작품 공모전을 실시함 • 공모전의 참가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국에 온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
미동부한인문인협회 고교백일장 ⁸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에 창립된 미동부한인문인협회는 미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글의 모음집인 '뉴욕문학'을 매년 발간함 •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백일장을 개최하고 수상함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 타임스퀘어 태권도-한식 페스티벌 ⁸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여 태권도를 미 공립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 • 이 재단의 노력의 결과로 현재 약 4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이 재단은 2008년부터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세계한국국악경연 대회 ⁸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에 세워진 미주 한국국악진흥회에 개최되는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는 세계에 한국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연대회를 통해 한인 차세대의 전통문화 습득을 장려하도록 돕고 있음. • 2016년에 치러진 제16회 대회에는 유치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연령대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16개 팀이 참가하였음

79)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소속 경운장학회. 2016 Contest Announcement.

<http://scholarship.kyungginy.org/2016-contest-announcement-1>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80) 미주 중앙일보(뉴욕 중앙일보). [사고] 학생 한글 문학 작품 공모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81218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81) 미동부한인문인협회. newyorkmunhak.net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82)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 Festival/Event. <http://ustef.org>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83)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www.task-us.org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4. 소결⁸⁴⁾

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을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제도, 추진체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1993년~1998년)에는 정부 정책의 조정과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률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을 설치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1998년~2003년)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서비스업 취업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취업관리제 등의 법·제도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2008년)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법·제도가 만들어져서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그동안 소외되어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2013년)에는 공직선거법과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져 그동안 중단되었던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자에 한해서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선거등록, 재외국민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등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주무부서로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에서 부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교육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입국과 체류취업자격의 부여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와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초과학 관련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와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2) 재중동포청소년과 정책 현황

재중동포청소년은 크게 조선족청소년과 재외국민청소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국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들의 대도시, 한국 등 외국으로의 빈번한 이동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내 청소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 국내 재중동포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중동포는 2014년 12월 현재 2,585,993명으로 외국국적자는 2,216,644명, 재외국민은 369,349명이었다. 재외국민 중 일반체류자는 305,567명, 유학생은 58,120명, 영주권자는 5,572명이었다.

조선족 인구는 호적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인구조사에 의하면, 1990년에 1,923,361명에서 2010년에는 1,830,929명으로 약 10만 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동북 3성에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산둥, 관동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광성(동포투데이, 2014.2.6일자)의 연구에 의하면, 10~24세 조선족청소년 인구는 1990년에는 502,390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26.13%였으나, 2000년에는 464,041명(24.12%), 2010년에는 293,685명(16.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12개교이며, 학생은 6,527명이었다. 교급별로는 유치원생이 406명, 초등학생이 2,637명, 중학생이 1,586명, 고등학생이 1,898명이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694,256명이며, 이중 한국계 중국인의 주민자녀는 39,160명이었다. 또한 이들 39,160명 중 만 7세 미만은 15,215명, 만 7~12세는 13,491명, 만 13~15세는 5,690명, 만 16~19세는 4,764명이었다.

중국의 호적인구 정책이나 조사상의 한계로 재중동포청소년에 대한 인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며, 국내에 입국하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방문취업동포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도 국내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비자를 발급하는 등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로 중국에 있던 자녀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거주자에 비해서 10%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중동포청소년 정책은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정책과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정책은 주로 교육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학교의 설립 지원, 한국어 보급, 재외교육기관에의 교원 파견 등의 사업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학교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규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사업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중국 내 조선족과 국내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조선족 교원에 대한 현지 및 초청 연수, 민족학교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우수학생 초청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대상의 IT 교육 지원,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방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는 국내 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과 함께 동북 3성 지역의 학교 및 기타 지역 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원, 도서관을 통한 도서 보급사업, 학생 간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중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외교부에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국제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나 문화예술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재중동포사업을 실시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중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향후 국내 입국자의 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재미동포청소년과 정책 현황

재미동포의 전체 인구수는 2010년 미국 센서스를 기준으로 약 17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민병갑, 임세정, 2015), 2010년 인구센서스에 누락된 한인의 수와 지난 6년간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2016년 현재 재미동포의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9~24세 청소년은 약 4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한인 청소년의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혼혈 한인의 증가이다. 9~24세에 해당하는 재미동포청소년 중 약 20%가 현재 혼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혈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약 88%)은 백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로, 90% 이상이 미국 출생이다. 재미동포청소년의 세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세에 비해 1.5세 및 미국 출생(2세 이상)의 비율이 약 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같은 맥락에서 절반 이상(약 57%)의 청소년이 미국 출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미국 내 법적 지위 현황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시민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시민권 부재자는 반대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시민권 부재자의 비율은 전체 재미동포청소년의 약 26%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유학생 등의 임시체류자뿐만 아니라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바뀐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청소년 전체의 90% 이상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중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비율 역시 약 93%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수준은 혈통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한인 청소년의 경우, 약 96%가 현재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한 반면, 같은 상황에 있는 혼혈 한인은 약 76%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간극은 일부 혼혈 한인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순수 한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는 문화적 영향에 기인한다.

언어는 문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가정에서의 모국어 사용률은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재미동포청소년은 반수가 조금 넘는 56%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을 혈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순수 한인 청소년은 약 68%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 혼혈 한인 청소년은 8%만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한인 청소년만을 보면, 1세의 한국어 사용률은 87%로 1.5세 및 미국 출생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앞으로 재미동포 차세대의 비율과 함께 족외혼율도 증가한다면, 그들의 한국어 사용률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미동포가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인 소수민족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류경제사회에 깊이 진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국의 문화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한인 이민자의 수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20여 년 후 재미동포사회는 차세대 한인의 높은 족외혼률로 인해 점차 한민족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 및 모국문화 유지에 크게 투자하는 유대인 커뮤니티처럼 재미동포사회 역시 재미동포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순수 한인만이 재미동포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혼혈 한인과 그 가정 그리고 한국계 입양인 등도 모두 재미동포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5%가 넘는 미국 출생 재미동포청소년과 절반이 넘는 혼혈 한인 청소년이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상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부처인 외교부, 교육부와 재단인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지원 사업은 한국학교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교육원을 통해 역사 및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 특성 상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일부 CIS 지역, 개발 도상 국가들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에 재미동포청소년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뉴저지의 여러 한인단체 및 기관은 지역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한민족 뿌리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지역 재미동포청소년에게 민족정체성 확립과 한국을 알리는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지역 한국어 교육 수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향상된 것을 보인다. 여러 기관과 지역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한국학교를 세웠고, 전국의 많은 한국학교가 연합하여 협의회를 설립해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교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한국학교의 제한점은 한국학교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수업이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청소년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등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어 교육자들은 풀타임 한국학교를 세우는 대신, 한국어를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뉴욕·뉴저지 지역 공립 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고, 1997년부터 SAT Subject Test 한국어 시험이 시행되면서 한인 차세대 청소년에게 한국어 공부를 지속할 동기가 부여되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더 많은 공립학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많은 한인 차세대 청소년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교에 관한 연구에 비해 한국문화학교와 관련 기관에 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국 문화교육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 전통 및 현대문화 공연과 전시를 통해 체험할 기회는 많이 있는 데 비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손에

꿈을 정도이다. 이마저도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고, 개인 교습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학교는 대체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존속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한인 차세대 청소년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문화학교는 정규수업, 단기 워크숍, 여름 캠프, 모국방문 프로그램, 입양인 대상 프로그램, 대학교 사물놀이 팀 지도, 정기 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기관 또한 공립학교 방문 프로그램, 전시회, 대회 등 여러 방식으로 차세대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검토해본 결과, 한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 청소년의 참여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수십 년간 힘써 온 문화예술가와 교육자들의 노력이 크다. 더 많은 한국 문화예술가와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뿌리 교육 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있다. 뉴욕·뉴저지 지역의 몇몇 문화기관은 여름방학 최소 2주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와 현대사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선발 절차도 까다롭고, 한국에 가기 전에 참가자들이 충분히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모국방문을 통해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모국방문 프로그램은 대체로 인기가 많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 경비 부담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본인이 최소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공평한 뿌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 온 이민자의 자녀가 어른이 되어 가고, 한인 3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인 1.5세 또는 2세 부모와 3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미국 주류 문화에 더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세대가 진행될수록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나, 혼혈 한인의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혼혈 한인 청소년의 경우도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이중 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한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미디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한국과의 초국가적 연계 또한 어느 때보다 더욱 발달되어 있다.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개요

제 IV 장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는 이들의 실태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와의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즉,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과 이들을 미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개요⁸⁵⁾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항목은 재중동포청소년과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설문할 문항들을 우선 도출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현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 절차를 통해 해당 지역 및 대상에게 필요한 개별 문항을 추가로 도출하여 설문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첫째,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통항목과 각 국가에 해당되는 개별 문항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문항 개발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둘째, 재중동포청소년과 재미동포청소년의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각 국가와 조사 대상 특성 및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 이 장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공동집필하였음.

85) 이 부분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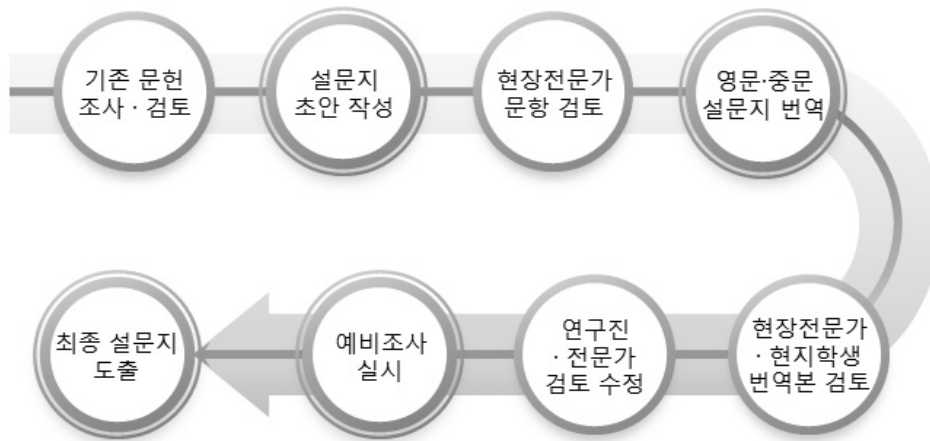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항목은 1차 년도인 2015년도에 개발한 설문에 기초를 두고 개발을 시작하였다. 1차 년도 설문과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년도 설문을 중국과 미국이라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미래 인재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한 설문 항목은 2015년도 연구 결과 중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김경준, 김태기, 2015: 163)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조사내용을 도출하고 구체적 설문 항목을 포함시켰다.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미래인재역량으로 나타난 요소는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 능력, 국가정체의식이었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표 IV-1 참고>).

재중·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기본적 틀과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설문항목은 재중동포청소년 중 중국거주 재중동포청소년, 한국거주 재중동포청소년(조선족), 중국거주 재외국민, 또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해당 집단 특성에 맞추어 추가되었다.

최종설문지 도출을 위한 절차는 [그림 IV-1]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 문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현장 전문가의 문항 검토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인 김경준과 김태기(2015)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문을 본 연구의 설문 초안에 적극 활용하였다. 개발된 설문 초안을 전문 번역가에 의뢰하여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번역된 설문지는 미국과 중국 현지 교사와 학생을 통한 번역본 검토 과정을 실시하였다. 현지 거주자들의 검토와 연구진과 전문가의 검토 수정 작업을 거쳐 수정본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다시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설문을 도출하였다.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2)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주요 조사 영역은 국제학교 및 한글학교 경험, 한국어능력,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 능력, 국가정체성),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한국 관련 교류 희망 정도,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 기대 및 필요한 지원 등의 영역이었다.

본 연구과제에서 조사한 설문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설문대상	설문 영역 및 주요 항목	
재중동포 + 재미동포 공통문항	배경변인	· 현재 거주 국가 및 지역, 출생년도, 성별, 현재 다니는 학교 · 거주국 거주 이유,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 한인 유무, 국적, 부모 국적
	국제학교 및 한글학교 경험	· 국제학교/한글학교 경험, 기간, 동기와 이유
	한국어사용능력	· 한국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해하는 능력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 한국어 가정 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보기, 한국 관련 직업 희망, 한국 사람과 결혼 희망

설문대상	설문 영역 및 주요 항목		
재중동포 + 재미동포 공동문항	한민족정체성		· 한민족에 대한 생각, 한민족 후손임이 자랑스러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한민족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함,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공감
	미래 인재 역량	의사소통능력	· 타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질문, 타인과 생각이 다를 때도 대화 나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 존중
		세계시민의식	· 타국에 대한 친근한 느낌, 세계에 대한 개방적 자세, 타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자세, 타국 문화의 이해와 수용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 사회개선을 위한 행동, 준법, 사회봉사활동참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관심, 세계인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함,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참여,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한 관심, 사회적 평등실현 중요성 인지
		창의적능력-창의적사고	· 새로운 생각, 부분을 듣고 전체 상상하기, 연결 지어 생각하기
		창의적능력-문제해결력	· 과제 난이도에 따른 해결, 문제해결 전에 해결방법 모색, 과제 시 이전 경험 반영
		국가정체성	· 자국 문화, 역사, 국민의 우수성 인식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한국 관련 교류 희망 정도		·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동포청소년과의 만남,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연락 혹은 활동 경험, 거주국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 · 한국 관련 교류 욕구(한국청소년과의 교류, 탐방프로그램 참여, 유학, 한국 관련 기업에서의 일, 한국 문화 경험)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 기대 및 필요 지원		·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거주국 동포사회 발전, 한국 문화 보급, 동포사회 단합,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기여, 남북통일에 기여) ·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한국 방문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민족교육 지원)
	재외국민 (중국) 청소년	한국관련 기타	· 한국에서의 교육과 취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 ·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외국민청소년 미래 선택	·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 · 살고 싶은 이유
재미동포 청소년	향후 한국 거주		· 향후 한국에서 학업이나 일 할 계획이 있나?

위에서 제시한 설문 영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동포청소년의 배경변인

배경변인의 경우, 재중동포청소년과 재미동포청소년의 환경에 맞춰 일부 설문 문항이 수정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설문 문항 1~8번에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거주 지역, 출생년도, 성별, 현재 거주 국가 거주 기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거주국에 살게 된 이유, 거주국가로 최초로 이민 온 세대, 현재 국적, 부모 국적 또는 인종이 문항에 포함되었다.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조선족, 한족, 한국 국제학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문하였다. 여기 포함된 문항들은 조혜영·문경숙·박동성·양한순·최진숙(2007)와 김경준·김태기(2015)의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②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관련 실태

한국어 관련 실태는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 문항 9~13번,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문항 9~12번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국제학교 또는 한국·한글학교 재학 경험, 기간, 동기와 한국어 사용 능력, 필요성과 관련한 문항은 이석인·임영언(2011)과 김경준·김태기(2015)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할 때 한국어 사용 또는 한국문화를 어떻게 접하는 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조혜영 외(2007)와 김경준·김태기(2015)의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③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은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 한민족에 대한 관심 등의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한민족정체성 항목은 5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설문하였으며, 성경룡·김인영·박준식·손기섭·이재혁·전상인·최태강·한준(1999), 이석인·임영언(2011), 김경준·김태기(2015)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④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미래인재역량의 주요 5개 항목은 본 연구의 1차년도 델파이조사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

여 조사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주요 5개 항목별 주요내용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대화 시 잘 이해하고 필요시 질문, 또한 상대방의 행동, 생각에 대한 존중 등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의사소통능력 항목은『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연구의 설문지에서 그 항목을 추출하였다(장근영 외, 2015: 434-435). 둘째, 세계시민의식은 타국 및 세계에 대한 개방감 또는 우호적인 자세를 포함한 항목, 셋째,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은 사회개선을 위한 행동, 활동과 관련한 신념 및 인지, 행동을 포함한 항목, 넷째, 국가정체성은 자국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 항목을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항목들은『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지은림·선광식, 2007: 122). 다섯째, 창의적능력은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구축(Ⅱ)』연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최상덕, 2014: 53-54).

⑤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한국 관련 교류 희망 정도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은 이들과의 만남, 단체 사람들과의 연락, 활동 경험 등을 포함한 항목으로 설문하였다. 이 항목은 윤인진·채정민(2007) 연구의 설문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 관련 교류 욕구는 유학, 한국 기업, 한국 문화 경험 등과 같은 교류 욕구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 항목은 윤인진·채정민(2007)과 김경준·김태기(2015) 연구의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⑥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역할 기대 및 필요 지원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 기대는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 재외동포청소년이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필요 지원과 관련한 항목은 재외국민 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본 연구의 1차년도 델파이조사를 기초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⑦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기타 문항 및 대상별 개별 문항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한국에서의 유학 또는 취업을 고려할 경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대한 항목은 연구진과 전문가자문을 통해 개발되었다.

또한 재중동포 또는 재미동포청소년 각 대상별로 추가되어야 할 문항 역시 연구진과 전문가자문을 통해 개발되어 설문에 추가되었다.

2)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1) 재중동포청소년의 설문 조사 개요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 설문 조사는 지역별(구집거지, 신집거지, 국내거주), 교급별(중·고·대학생), 신분별(외국국적자, 재외국민)로 700명 내외(최종분석 대상 731명)를 조사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 설문 조사는 재외동포재단과의 협조를 통해서 현지 학교 교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과 현지 학교 교사와 교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중국동포청소년에 대한 국내 조사의 경우에는 중국동포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를 통하는 방법과 조선족부모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재중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표 IV-1>과 같으며 재중·재미동포청소년에 해당하는 공통문항과 재중동포청소년에게 필요한 개별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의 설문조사의 경우, 재미동포청소년의 분석과 같이 분석에 필요한 최종문항과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된 문항과 요인,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① 재중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

재중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는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유무, 재학 기간, 동기 등에 관한 질문과 한국어 능력,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한민족정체성 등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주요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사용능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7이었으며, 한민족정체성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 그리고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중에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문항은 한국어 사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사용능력 요인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관련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요인에 포함하였다.

② 재중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재중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적사고의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IV-3> 참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8, 세계시민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 국가정체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 의사소통능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 창의적사고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9, 문제해결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7로 나타났다.

표 IV-2 한국 관련 재중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1	2	3
한국어 사용능력	Q11_1	.933	.164	.130
	Q11_3	.930	.179	.110
	Q11_2	.926	.191	.105
한민족정체성	Q14_4	.079	.809	.154
	Q14_1	.139	.790	.163
	Q14_3	.176	.785	.182
	Q14_5	.123	.779	.140
	Q14_2	.237	.730	.119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Q13_4	.054	.094	.834
	Q13_5	.072	.161	.795
	Q13_3	.366	.286	.554
	Q13_2	.375	.302	.540
	Q13_1	.634	.154	.460
고유치		3.404	3.361	2.295
설명변량		26.188	28.856	17.650
누적변량		26.188	52.044	69.694
Cronbach' s α		.97	.78	.86

표 IV-3 재중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1	2	3	4	5	6
개인 및 사회적 책임		Q18_2	.744	.143	.113	.163	.104	.009
		Q18_3	.679	.217	.173	.043	.165	.075
		Q18_1	.673	.065	.239	.029	.154	.134
		Q17_1	.663	.088	.122	-.128	.086	.232
		Q18_1	.661	.222	.217	.077	.224	.079
		Q18_5	.654	.256	.144	.240	.092	.072
		Q17_2	.645	.109	.197	.183	.030	.196
		Q17_3	.576	.237	.136	.078	.110	.271
세계시민의식		Q19_3	.227	.821	.186	.085	.076	.159
		Q19_2	.182	.802	.098	.121	.173	.125
		Q19_4	.255	.754	.139	.056	.130	.165
		Q19_1	.211	.720	.112	.206	.140	-.013
국가정체 의식		Q20_3	.186	.037	.807	.045	.171	-.003
		Q20_1	.258	.133	.805	.061	.123	.114
		Q20_2	.185	.189	.798	.053	.073	.150
		Q20_4	.321	.184	.713	.106	.000	.091
의사소통능력		Q15_2	.139	.179	.123	.244	.788	.032
		Q15_3	.105	.192	.108	.155	.672	.352
		Q15_4	.222	.211	.140	.031	.644	.313
		Q15_1	.362	.012	.068	.300	.586	.056
창의 역량	창의적 사고	Q16_2	.134	.101	-.024	.792	.189	.155
		Q16_1	.098	.187	.125	.747	.183	.122
		Q16_3	.083	.101	.112	.742	.119	.268
	문제 해결력	Q16_5	.240	.120	.163	.184	.122	.746
		Q16_6	.247	.092	.035	.181	.192	.708
		Q16_4	.153	.184	.123	.328	.221	.640
고유치			4.341	2.983	2.881	2.320	2.277	2.119
설명변량			16.694	11.472	11.082	8.992	8.758	8.148
누적변량			16.694	28.166	39.248	48.170	56.928	65.076
Cronbach' s α			.88	.86	.86	.79	.78	.77

③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역할기대, 한국과의 교류 욕구,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한국과의 교류 경험의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IV-4> 참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역할 기대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 한국관련 교류 욕구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 한국과의 교류경험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2로 나타났다.

표 IV-4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변수	측정문항	1	2	3	4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Q22_3	.838	.050	.234	.096
	Q22_2	.779	.082	.229	.133
	Q22_5	.766	.159	.184	.046
	Q22_1	.759	.111	.093	.163
	Q22_4	.745	.227	.164	.161
한국 관련 교류 욕구	Q24_3	.141	.830	.113	.069
	Q24_4	.008	.746	.097	.175
	Q24_2	.209	.718	.331	.114
	Q24_1	.221	.674	.435	.099
	Q24_5	.159	.639	.348	.067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Q23_3	.225	.262	.814	.087
	Q23_2	.225	.179	.761	.149
	Q23_1	.142	.301	.735	.122
	Q23_4	.314	.204	.729	.105
한국과의 교류 경험	Q21_2	.086	.137	.146	.793
	Q21_3	.203	.072	.027	.747
	Q21_1	.048	-.026	.275	.661
	Q21_4	.162	.331	-.051	.606
고유치		3.462	3.090	3.034	2.192
설명변량		19.233	17.166	16.856	12.178
누적변량		19.233	36.400	53.255	65.434
Cronbach' s α		.87	.86	.87	.72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등을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중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재중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관한 개요는 <표 IV-5>에 정리하였다.

표 IV-5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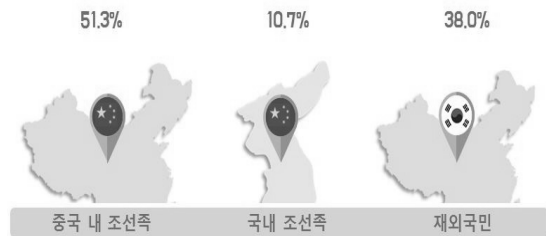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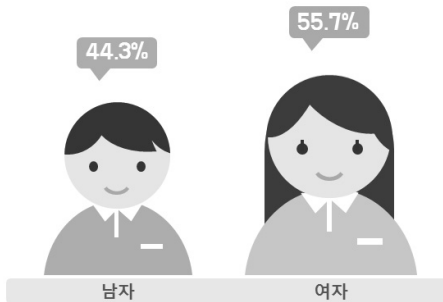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및 재외국민청소년으로 중학생 이상~만24세 이하 · 국내 조선족청소년으로 중학생 이상~만24세 이하 · 최종 분석대상 : 731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조선족학교와 한국학교를 통한 조사 · 한국 내 조선족학교와 다문화학교를 통한 조사 및 조선족부모를 통한 개별조사
조사시기	· 2016년 4월~8월
조사내용	· 한국어사용능력,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한민족공동체 참여욕구 등

(4)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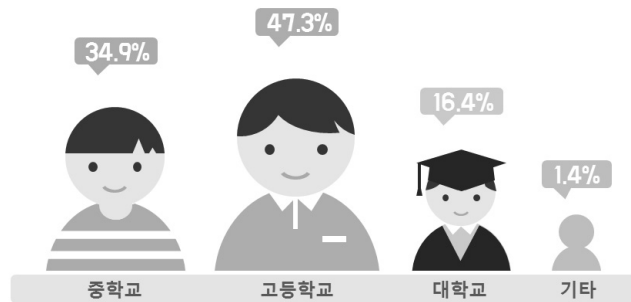
<표 IV-6>에는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배경 특성이 제시되었다. 전체 응답자수는 731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비율은 44.3%,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55.7%으로 여자 청소년 응답자수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9%, 고등학생이 47.3%, 대학생이 16.4%, 기타 1.4%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유형은 재중동포 청소년의 이동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조선족청소년과 재외국민청소년을 포함하였는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 51.3%, 국내 조선족청소년이 10.7%, 재외국민청소년이 38.0%로 나타났다. 재중동포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58세로 나타났다.

표 IV-6 재중동포청소년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24	44.3
	여자	407	55.7
	전체	731	100.0
교급별	중등	255	34.9
	고등	346	47.3
	대학	120	16.4
	기타	10	1.4
	전체	731	100.0
동포 유형별	중국 내 조선족	375	51.3
	국내조선족	78	10.7
	재외국민	278	38.0
	전체	731	100.0
연령 (년)	$M = 16.58$ ($SD = 2.69$)		



【그림 IV-2】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그림 IV-3】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동포 유형



【그림 IV-4】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교급 분포

3)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1) 재미동포청소년의 설문조사 개요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재중 및 재미동포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공통 설문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여 영문 번역 후 미국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같이 재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도 현지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설문항목의 문장과 단어는 수정 또는 보완되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청소년, 즉 미국시민권자(대한민국-미국 이중국적자 포함)와 미국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실성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청소년은 본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조사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미국에서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 조사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미국 전역의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관은 2016년 4월~6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동안 조사 자료 검수를 완료하였다. 이 후 설문지 원본과 데이터를 연구진에게 발송하였고 연구진은 설문 원본과 데이터를 확인한 후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재중동포청소년과 같다(<표 IV-1>참고).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척도와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재중동포청소년의 설문조사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도출된 문항을 근거로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재미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

재미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는 한국학교·한글학교⁸⁶⁾ 재학 경험 유무, 기간, 동기 등에 관한 질문과 한국어 능력,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재미동포청소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은 크게 한국어 사용능력, 부모관련 가정생활, 한민족정체성으로 나뉜다(<표 IV-7> 참고). 그러나 재중동포청소년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는 반면,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두 개의 요인으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민족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정체성의식이 한 요인으로 도출되고, 한민족 역사와 전통을 알고 한민족에 대해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 한다 등의 실천과 관련된 항목이 다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내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실제 한민족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내재화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의 기초 분석은 한민족정체성을 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능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9로 나타났다. 부모관련 가정생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1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의 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8, 한민족정체성의 실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로 나타났다.

②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전체 여섯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IV-8> 참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4, 국가정체 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 세계시민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 창의적 사고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9, 의사사통능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4, 문제해결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4로 나타났다.

86) 해외 소재 '한국학교'는 대한민국정부로 인가 받고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식 학교이다. 미국에서 한인회나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로 불리 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한글학교'라 하였다.

③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 및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 및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전체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IV-9> 참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0,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역할기대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5, 한국관련 교류 욕구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5, 한국과의 교류경험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3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한국 관련 재미동포청소년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1	2	3	4
한국어 사용능력		Q11_1	.927	.182	.068	.189
		Q11_2	.758	.191	.104	.188
		Q11_3	.695	.325	.042	.225
한민족 정체성	실천	Q13_4	.213	.691	.292	.234
		Q13_5	.192	.653	.236	.157
		Q13_3	.324	.562	.134	.145
	의식	Q13_1	.087	.255	.754	.094
		Q13_2	.041	.131	.610	.115
부모관련 가정생활		Q12_3	.294	.239	.092	.636
		Q12_2	.262	.163	.284	.458
		Q12_1	.577	.253	.144	.407
고유치			2.602	1.625	1.227	1.024
설명변량			23.651	14.771	11.151	9.313
누적변량			23.651	38.422	49.573	58.886
Cronbach' α			.89	.78	.68	.71

표 IV-8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1	2	3	4	5	6
개인 및 사회적 책임	Q17_4	.673	.179	.046	.095	.132	.127
	Q17_3	.651	.086	.134	.089	.147	.052
	Q17_2	.635	.084	.234	.114	.132	.072
	Q16_3	.591	.143	.214	.104	.145	.161
	Q17_5	.559	.062	.224	.098	.193	.130
	Q17_1	.495	.087	.215	.260	.041	.148
	Q16_1	.474	.094	.120	.291	.063	.187
	Q16_2	.375	.127	.138	-.066	.165	.144
국가정체 의식	Q19_3	.118	.860	.147	.048	.119	-.032
	Q19_2	.103	.787	.070	.079	.081	.029
	Q19_1	.128	.764	.133	-.008	.067	.043
	Q19_4	.184	.626	-.021	.094	-.038	.144
세계시민 의식	Q18_2	.226	.087	.725	.169	.165	.104
	Q18_3	.197	.090	.713	.141	.140	.063
	Q18_1	.209	.105	.705	.115	.171	.091
	Q18_4	.271	.077	.638	.062	.185	.068
창의역량: 창의적사고	Q15_2	.146	.028	.096	.728	.143	.058
	Q15_3	.139	.127	.082	.681	.251	.246
	Q15_1	.102	.036	.168	.678	.061	.107
의사소통 능력	Q14_2	.141	.005	.183	.270	.677	.105
	Q14_4	.222	.066	.313	.039	.631	.101
	Q14_3	.215	.083	.149	.101	.502	.135
	Q14_1	.206	.112	.080	.278	.398	.116
창의역량: 문제해결력	Q15_5	.244	.084	.098	.212	.141	.678
	Q15_6	.246	.057	.106	.130	.137	.630
	Q15_4	.210	.058	.141	.365	.257	.427
고유치		3.207	2.526	2.476	2.099	1.742	1.364
설명변량		12.336	9.716	9.524	8.073	6.701	5.246
누적변량		12.336	22.053	31.577	39.650	46.351	51.597
Cronbach' α		.84	.87	.86	.79	.74	.74

표 IV-9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관련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1	2	3	4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Q22_2	.787	.206	.218	.149
	Q22_4	.764	.224	.227	.069
	Q22_3	.746	.229	.166	.110
	Q22_5	.726	.259	.235	-.004
	Q22_1	.639	.175	.253	.151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Q21_4	.207	.763	.225	.149
	Q21_3	.242	.684	.199	.204
	Q21_5	.162	.637	.172	.169
	Q21_2	.336	.609	.226	.197
	Q21_1	.230	.521	.043	.283
한국관련 교류 욕구	Q23_3	.249	.175	.736	.139
	Q23_4	.108	.139	.650	.118
	Q23_2	.366	.264	.641	.173
	Q23_5	.361	.162	.592	.113
	Q23_1	.464	.186	.504	.167
한국과의 교류 경험	Q20_2	.160	.134	.045	.827
	Q20_3	.041	.191	.102	.729
	Q20_1	.124	.148	.157	.652
	Q20_4	.032	.212	.181	.625
고유치		3.585	2.643	2.468	2.408
설명변량		18.870	13.910	12.990	12.675
누적변량		18.870	32.780	45.770	58.445
Cronbach' α		.90	.85	.85	.83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SPSS 20.0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중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재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관한 개요는 <표 IV-10>에 정리하였다.

표 IV-10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 미국에 거주 중인 재미동포청소년(시민권자, 영주권자)으로 중학생 이상~만24세 이하 · 최종설문대상 541명
조사방법	· 미국 내 한국학교 관련 기관을 통한 설문지 조사
조사시기	· 2016년 4월~6월
조사내용	· 한국어사용능력,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한민족공동체 참여욕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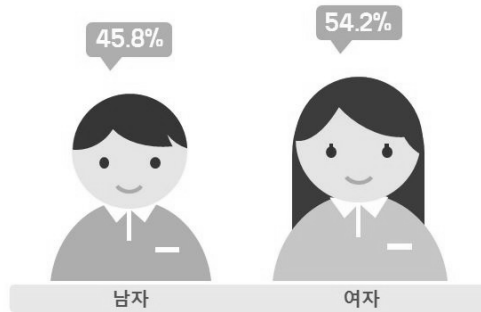
(4)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표 VI-11>에는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배경 특성이 제시되었다. 전체 응답자 수는 541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비율은 45.8%(248명),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54.2%(293명)로 여자 청소년 응답자수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다. 청소년의 연령은 평균 16.5세였으며, 미국 거주기간은 평균 14.5년 이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북동부 25.0%, 중서부 17.4%, 남부 30.9%, 서부 26.8%로 대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34.9%, 고등학교 45.5%, 대학교 17.2%, 대학원 및 기타 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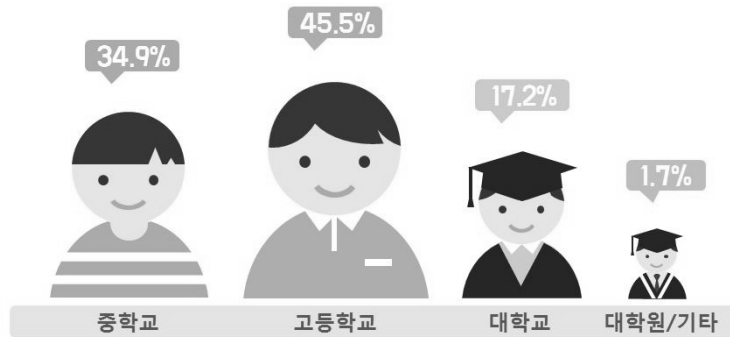
표 IV-11 재미동포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항목		합계	
		빈도	%
성별	남자	248	45.8
	여자	293	54.2
	전체	541	100.0
거주지역 ⁸⁷⁾	북동부	135	24.9
	중서부	94	17.4
	남부	167	30.9
	서부	145	26.8
	전체	541	100.0
교육별	중등	189	34.9
	고등	246	45.5
	대학	93	17.2
	대학원	9	1.7
	기타	4	0.7
	전체	541	100.0
미국 거주기간 (년)		$M = 14.54$ $(SD = 3.82)$	
연령 (년)		$M = 16.51$ $(SD =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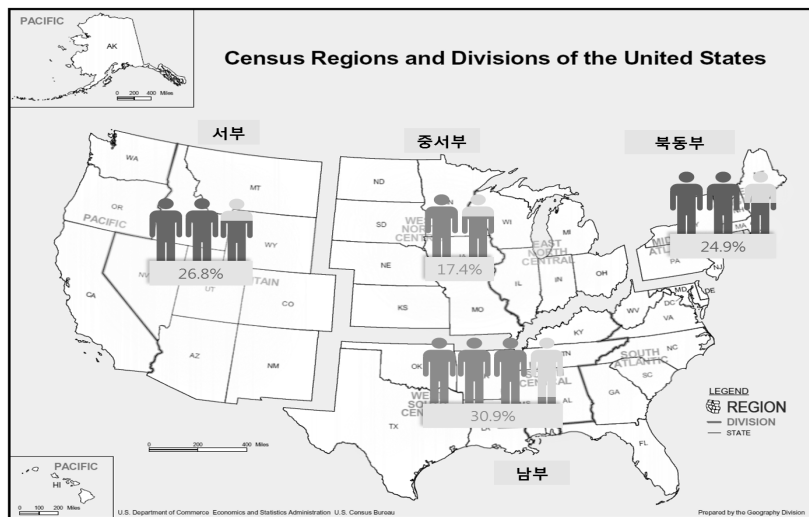
87) 미국 지역 구분은 U.S. Census Bureau의 'Census Bureau Regions and Divisions with State FIPS Codes'의 구분을 참고 하였으며, [그림 VI-7]의 지도에도 인용하였음.
(https://www2.census.gov/geo/pdfs/maps-data/maps/reference/us_regdiv.pdf, 2016년 7월 12일 인출).



【그림 IV-5】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그림 IV-6】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교육 분포



【그림 IV-7】 재미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

2. 면접조사 개요⁸⁸⁾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태와 역량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물인 학부모와 한국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및 관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결과는 인적자원개발과 인재양성의 다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일상 속에 발현된 의미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삶과 문화, 사회적 행위나 상호작용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에 관한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연구 방법이다(김병욱, 2010)” (전소연·남부현, 2015: 625에서 인용). 특히, 현상학은 개인의 삶을 통해 경험한 사건의 의미나 현상들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과 체험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Creswell, 2007; 전소연·남부현, 2015: 625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근거로 경험의 요소들을 찾는다. 이후 이 요소들의 연계와 통합을 전체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전소연·남부현, 2015: 625).

이에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과 목적에 근거하여 중국과 미국 현지에서 있는 학부모와 한국학교 교장과 교사, 한국에 거주 중인 재중동포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이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인재로서 이들의 걱정과 미래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에 대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며 체험적, 실존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88) 이 부분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공동집필하였음.

2) 면접 진행 절차

재중동포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9월 동안 연구자가 중국 또는 국내에서 면담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중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자가 중국 상해와 청도, 연길을 방문하여 한글학교 및 조선족학교 교사 5명을 직접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교수, 교사 등 중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조선족학교 교사 4명과 조선족학부로 4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조사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조선족 및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학교 교사 6명과 조선족 학부로 6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내용을 토대로 1-2시간 동안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에서의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7월 동안 주별로 현재 운영되는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계약연구원이 15명의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와 교장선생님들과 1-2시간 만나고 반구조화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15명의 재미동포 한국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정체성과 문화적응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도중 참여자들의 경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특이한 사항들은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중요 내용은 노트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빠짐없이 전사한 후 일부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이 메일을 통해 보충하였다. 전사한 원자료는 녹음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한 후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신경림 외, 2004).

3) 면접 조사 분석 단계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을 거쳐 준비된 원자료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6단계를 거치면서 분석이 진행되었다(남부현, 2015: 186-189에서 재인용; 전소연·남부현, 2015: 627에서 재인용).

1단계, 미국(학부모 참여자: 15명, 교육전문가 참여자 14명)과 중국(학부모 참여자 4명, 교육전문가 참여자 9명) 그리고 한국(학부모참여자 6명, 교육전문가 참여자 6명) 내에서 수집된 방대한 면담자료는 1차적으로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이 빠짐없이 그대로 모두 전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모든 원자료를 국가별 그리고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상호 교차하며

반복하여 읽고 면담 도중 노트한 내용들도 참고하며 각각의 참여자들이 묘사한 경험의 표현들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며 내용을 충실히 정독하였다(전소연·남부현, 2015: 627).

2단계, 연구자들이 각자 반복하여 주의 깊게 읽으며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들 중 주요 핵심내용과 주제(themes)를 담고 있는 구(의미단위)와 문장들을 추출하여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국가별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그룹을 나누어 정독한 내용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상황과 실태 그리고 이슈들을 파악하였고 참여자들의 내외적인 경험의 사례들 속에 표출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도 발굴해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 중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선입견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괄호치기(bracketing)하고 추출한 문장과 구의 내용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반복적으로 원자료를 읽으며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임의의 범주도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의 내용 중 주요 핵심내용과 주제들을 담고 있는 문장들 중 유사한 내용들은 재구조화하여 표시하였다(전소연·남부현, 2015: 627).

3단계, 국가와 그룹을 달리하여 추출된 모든 핵심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연구자들은 교차분석하며 충실히 새로운 감각으로 여러 번 정독하여 읽고 연구자 개인의 직관과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문맥과 행간에 숨겨진 의미(themes)들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수많은 의미단위들을 담은 문장들은 범주에 따라 구분하며 수차례 재정리하며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문장들 중 연구목적에 맞고 참여자 삶의 경험을 생생하게 발현한 핵심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새롭게 추출하고 재검토하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주제를 정하였다. 이 작업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되며 연구대상인 그 현상을 참여자 경험 속에서 도출해 내고 보편성과 대표성을 담보로 하는 핵심 소주제를 발굴하는 과정인 것이다(전소연·남부현, 2015: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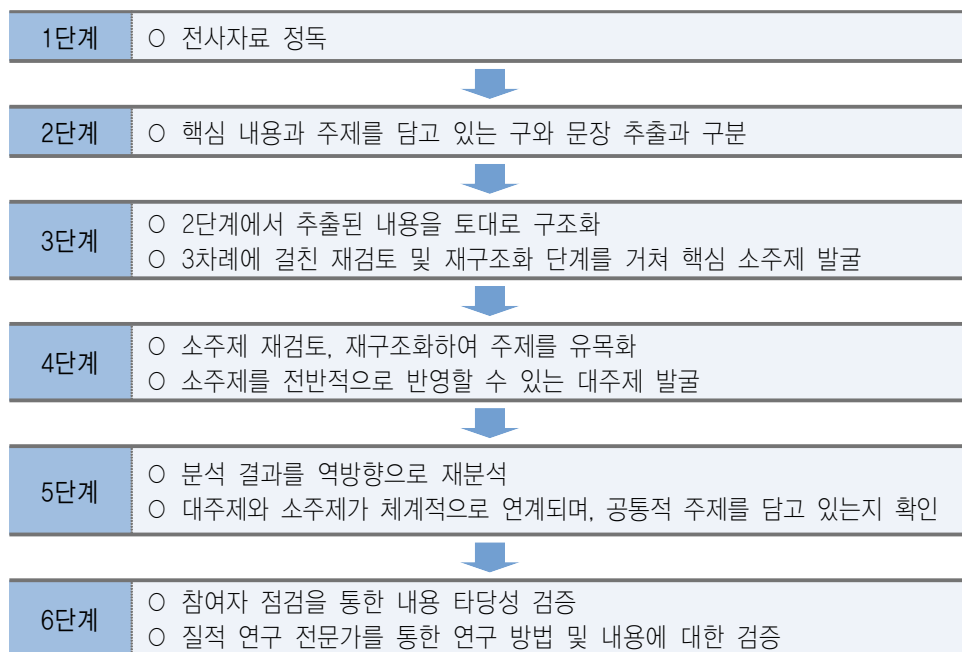
4단계, 도출된 소주제들을 대표하는 대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참여자 그룹별로 모든 소주제들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하여 유목화한 후 참여자 경험과 그 현상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짓고 대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대주제 속에 유목화한 소주제들의 핵심내용과 의미들이 그 대주제와 맥이 통하는지 재점검하며 재정리하였다. 모든 대주제로 유목화한 소주제들은 상호간에 함축된 의미와 본질을 표출하며 하나의 대주제 속에 참여자의 특정 경험과 그 경험의 맥락들이 충분히 녹아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전소연·남부현, 2015: 627).

5단계는 분석이 끝난 후 역방향으로 재분석하여 하나의 범주 안에 대주제와 소주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며 공통적인 핵심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그 맥락이 통하는지 원자료를 토대로

재검토하였다. 즉, 참여자들이 경험한 그 세계에 대해 소주제는 핵심개념과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주제와 범주 간에 통합적으로 연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의지를 배제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남부현, 2015; 전소연·남부현, 2015: 627).

모든 분석절차를 마치고 6단계는 추출된 결과가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또 내용에 대한 왜곡이나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타당성 검증 방식으로 참여자 점검(member checks)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 중 참여자 검증에 동의한 1명에게 연구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재정리된 연구결과는 질적 연구 전문가 2인의 검증(peer examination)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핵심 개념이나 의미단위들의 주제 묶음과 범주화에 따른 분류와 서술적 표현에 대해 수정·보완하였다(전소연·남부현, 2015: 6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모든 결과가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므로 문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 그룹마다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주제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밝혀낸 결과들이 타 지역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들이 경험한 것들과는 그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림 IV-8】 면접조사 분석 절차

4) 면접 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여자 정보는 <표 IV-12>에서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 내 교육전문가,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교육전문가, 학부모(한국 내 조선족과 중국 내 조선족 학부모), 미국 교육전문가, 미국 내 한인 학부모 등이다.

중국 내 교육전문가는 조선족학교 교사, 주말한글학교 교사, 한국학교 교사 등 총 9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표 IV-12>에 제시되었다. 주로 40~50대가 대부분이었고, 중국 국적이 5명, 한국 국적이 4명이고, 상하이, 청도, 연길, 흑룡강 지역의 교사였다.

표 IV-12 중국 내 연구 참여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국적	주거지	직업	비고
전문가1	48	남	조선족	흑룡강	교사	조선족학교
전문가2	45	여	조선족	흑룡강	교사	조선족학교
전문가3	48	남	조선족	상하이	교장	주말한글학교
전문가4	52	남	한국	상하이	교사	한국학교
전문가5	47	남	한국	연길	교수	연변과기대
전문가6	42	여	조선족	연길	교사	조선족학교
전문가7	26	여	조선족	연길	교사	조선족학교
전문가8	56	남	한국	청도	이사장	조선족학교
전문가9	47	남	한국	청도	교사	한국학교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교육전문가는 조선족학교, 조선족학원, 중도입국청소년센터 등에서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표 IV-13>에 제시되었다. 면접 대상자 연령은 30~50대로 분포되어 있으며,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표 IV-13 한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및 주거지	직업	비고
전문가1	58	남	한국	교장	조선족학교
전문가2	57	여	한국	교사	조선족학교
전문가3	45	남	한국	교장	조선족학원
전문가4	46	여	한국	센터장	중도입국청소년센터
전문가5	38	여	한국	센터장	중도입국청소년센터
전문가6	41	여	한국	센터장	중도입국청소년센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학부모는 흑룡강과 연길지역의 학부모로 총 4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표 IV-14>에 제시되었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40대 3명, 50대 1명이었으며, 남자 2명, 여자 2명이며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었고,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표 IV-14 중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거주지	자녀와 동거여부
학부모1	47	여	중국조선족	흑룡강	동거
학부모2	53	여	중국조선족	흑룡강	동거
학부모3	45	남	중국조선족	연길	동거
학부모4	45	남	중국조선족	연길	동거

국내 내 조선족청소년 학부모는 상하이,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지역의 학부모로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표 IV-15>에 제시되었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모두 40대 였으며, 남자가 2명, 여자가 4명이었다.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며, 현재 천안과 안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11세~20세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표 IV-15 한국 내 연구 참여 재중동포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출신	거주지	거주 기간	직업	자녀 나이	자녀와 동거여부
학부모1	47	여	중국조선족	상하이	천안	2년	식당일	20세	동거
학부모2	40	여	중국조선족	흑룡강	천안	5년	식당일	15세	동거
학부모3	44	여	중국조선족	요녕성	천안	10년	회사원	17세	동거
학부모4	42	여	중국조선족	흑룡강	안산	8년	주부	14세	동거
학부모5	40	남	중국조선족	길림성	안산	10년	건축	11세	동거
학부모6	46	남	중국조선족	길림성	안산	14년	사업	16세	동거

총 15명의 재미동포청소년의 부모가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부모의 정보는 <표 IV-16>에 제시되었다. 전체 15명 중 11명은 어머니, 4명은 청소년의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연령은 40대 혹은 5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의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의 조사 참여가 있었다.

표 IV-16 미국 내 연구 참여 부모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성별	나이	출생지	이주 연령	이주사유	거주지	경제 수준	자녀수 (연령)	한국적 교육환경		
									한글학교 유/무	학교 접근성	문화 시설
A	여	45	한국 (서울)	33	남편유학	미시간, 앤아버	하	2 (남: 15, 11)	유	15분	한인교회
B	남	50	한국	19	가족이민	버지니아, 센터빌	중	3 (여:18, 9 남:15)	유	5-20 마일	코리아 벨가든
C	여	50	한국 (서울)	37	결혼	일리노이, 놀스부룩	중	2 (여:13, 남:9)	유	15분	한인문화회관
D	여	41	한국	27	결혼이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중상	2 (남:13, 여:11)	유	15-20분	YKAA
E	여	44	한국 (서울)	23	유학	텍사스, 플라워마운드	중	3 (여: 9, 12, 14)	유	10마일	한인교회, 한인회
F	여	45	한국 (부산)	15	가족이민	캘리포니아, 프리트몬트	중	2 (남:18,여:17)	유	3분	한인교회

참여자	성별	나이	출생지	이주연령	이주사유	거주지	경제수준	자녀수 (연령)	한국적 교육환경		
									한글학교 유/무	학교 접근성	문화 시설
G	남	52	한국 (인천)	29	유학	펜실베이니아, 레빗타운	하	2 (남:19,여:12)	유	-	없음
H	여	39	한국 (서울)	30	남편유학	텍사스, 루이지빌	중하	1 (여:2)	유	30-60분	한인마트, 한인협회
I	여	59	한국	28	결혼이민	캘리포니아, 써니베일	중	2 (남:20,여:26)	유	30분	없음
J	여	44	한국 (대구)	28	남편취업 이민	콜로라도, 파커	중	2 (여:17, 남:13)	유	10-15분	한국학교
N	남	60	한국	30	유학	캘리포니아, 밀피타스	중상	2 (여:30,남:26)	유	10마일	한인회, 한인교회
O	남	49	한국 (서울)	25	가족이민	뉴저지, 서머셋	중상	3 (남:22, 19, 여:15)	무	30분	없음
K	여	49	한국 (서울)	32	국제결혼 이민	오하이오, 신시내티	중	1 (여:18)	유	-	한국학교
L	여	40	한국 (서울)	26	국제결혼 이민	콜로라도, 파커	중	2 (여:10,13)	유	45분	-
M	여	40대	한국	20초	이민 국제결혼	캘리포니아, 산호세	중	2 (여:9, 6)	유	5분	한국학교

*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임의로 표시하였음 (K, L, M은 외국인 남편 가정)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표 IV-17>은 교육전문가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한글 또는 한국 학교 교사 또는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사 경력도 8년~31년으로 다양하였다.

표 IV-17 미국 내 연구 참여 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경력	직업/직급	거주지역	지역사회	
						교육 환경	경제적 특성
A	69	남	24년	교사	미시간, 앤아버	상	상
B	62	여	24년	한국학교 교장	조지아, 애틀랜타	하	중
C	44	여	15년	미술 & 한국어 강사	일리노이, 시카고	중	중
D	50	여	30년	한국어 교사	오하이오, 신시내티	중	중-상
E	53	여	8년	한국학교 교장, 개인사업	텍사스, 달라스	하	중
F	50	여	10년	한국학교 교장, 개인사업	콜로라도, 덴버	중	중
G	41	남	22년	투자 컨설턴트	버지니아, 애넌데일	중	중
H	50	여	25년	고등학교 교사	뉴저지, 그린브룩	중	중
I	70	남	43년	자영업 운영 사장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중	중
J	50	여	26년	한국학교 교장, 대학 강사	펜실베이니아, 뉴타운	중	중
K	53	여	26년	한국학교 교장	노스캐롤라이나, 게일	상	상
L	68	남	31년	은퇴(자영업)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하	상
M	55	여	27년	교사	캘리포니아, 산호세	상	중
N	48	여	16년	한국학교 교장	캘리포니아, 산호세	상	상

* 참여자와 학교명은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임의로 표시하였음.

제 V 장

재중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2. 재중동포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분석
3. 소결

제 V 장

재중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⁸⁹⁾

1) 조사대상의 중국 거주, 최초 이주 세대 및 국적

(1) 조선족 청소년

조선족청소년 가정에서 중국으로 처음 이주한 세대, 자신의 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내 조선족의 경우에 처음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는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9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6.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93.6%,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6.4%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93.9%,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6.2%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89.0%,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1.0%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96.8%,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3.2%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96.3%,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3.7%로 나타났다.

* 이 장의 1절과 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89)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최초로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

		합계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		본인 출생 전 부모 세대		부모와 함께 이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내 조선족	남	141	100	132	93.6	9	6.4	0	0
	여	228	100	214	93.9	14	6.2	0	0
	합계	369	100	346	93.8	23	6.2	0	0
	중	136	100	121	89.0	15	11	0	0
	고	126	100	122	96.8	4	3.2	0	0
	대	107	100	103	96.3	4	3.7	0	0
	합계	369	100	346	93.8	23	6.2	0	0

국내·외 조선족청소년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89.1%로 대부분 이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만 중국인이 4.8%, 아버지만 중국인이 3.7%,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2.1%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88.8%였고, 어머니만 중국인이 6.3%, 아버지만 중국인이 2.8%,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2.1%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89.6%였고, 어머니만 중국인이 3.9%, 아버지만 중국인이 4.3%,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2.2%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85.9%였고, 어머니만 중국인이 8.5%, 아버지만 중국인이 2.8%,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2.8%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92.8%였고, 어머니만 중국인이 1.6%, 아버지만 중국인이 4.6%,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1.6%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두 분 다 중국인이 89.7%였고, 어머니만 중국인이 3.7%, 아버지만 중국인이 4.7%,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조선족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중국인인 경우는 47.1%로 과반수 미만이었으며, 어머니만 중국인이 30.9%,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14.7%, 아버지만 중국인이 7.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두 분 다 중국인 58.1%, 어머니만 중국인이

29.0%,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9.7%, 아버지만 중국인이 3.2%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중국인이 37.8%, 어머니만 중국인이 32.4%,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18.9%, 아버지만 중국인이 10.8%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두 분 다 중국인이 48.0%, 어머니만 중국인이 36.0%,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12.0%, 아버지만 중국인이 4.0%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중국인이 23.3%, 어머니만 중국인이 40.0%, 두 분 다 중국인이 아닌 경우가 23.3%, 아버지만 중국인이 36.0%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두 분 다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국적

		합계		아버지만 중국인		어머니만 중국인		두 분 다 중국인		두 분 다 중국인 아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 국 내 조 선 족	남	143	100	4	2.8	9	6.3	127	88.8	3	2.1
	여	231	100	10	4.3	9	3.9	207	89.6	5	2.2
	합계	366	100	14	3.7	18	4.8	334	89.3	8	2.1
	중	142	100	4	2.8	12	8.5	122	85.9	4	2.8
	고	125	100	5	4.0	2	1.6	116	92.8	2	1.6
	대	107	100	5	4.7	4	3.7	96	89.7	2	1.9
	합계	374	100	14	3.7	18	4.8	334	89.3	8	2.1
국 내 조 선 족	남	31	100	1	3.2	9	29.0	18	58.1	3	9.7
	여	37	100	4	10.8	12	32.4	14	37.8	7	18.9
	합계	68	100	5	7.4	21	30.9	32	47.1	10	14.7
	중	25	100	1	4.0	9	36.0	12	48.0	3	12.0
	고	30	100	4	36.0	12	40.0	7	23.3	7	23.3
	대	13	100	0	0	0	0	13	100.0	0	0
	합계	68	100	5	7.4	21	30.9	32	47.1	10	14.7

이중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으로 분류하여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국적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55.9%,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44.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중국 국적은 74.3%, 대한민국 국적은 25.7%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중국 국적이 40.5%, 대한민국 국적이 59.5%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이 52.0%, 대한민국 국적이 48.0%였고, 고등학생은 중국 국적이 40.0%, 대한민국 국적이 60.0%,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재중동포 청소년의 국적/신분

		합계		중국		대한민국	
		빈도	%	빈도	%	빈도	%
국내 조선족	남	31	100.0	23	74.3	8	25.7
	여	37	100.0	15	40.5	22	59.5
	합계	68	100.0	38	55.9	30	44.1
	중	25	100.0	13	52.0	12	48.0
	고	30	100.0	12	40.0	18	60.0
	대	13	100.0	13	100.0	0	0
	합계	68	100.0	38	55.9	30	44.1

* 중국과 대한민국 이중 국적자인 경우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중국 국적으로 분류함
(중국은 이중국적 인정 안함)

(2) 재외국민 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중국 거주기간과 거주 이유, 최초로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 그리고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청소년들의 중국 거주기간은 평균 6.83년으로 나타났다.

표 V-4 재외국민 청소년의 중국 거주 기간

	평균(년)	표준편차(SD)
재외국민 청소년의 중국 거주기간	6.83	4.61

또한 재외국민 청소년들의 중국거주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 이민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26.3%), 학업(16.9%), 중국 출생(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중국이민이 52.7%, 기타가 26.7%, 학업이 15.1%, 중국 출생이 5.5%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중국이민이 52.3%, 기타가 25.8%, 학업이 18.9%, 중국 출생이 3.0%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중국이민이 60.2%, 기타가 31.8%, 중국 출생이 4.5%, 학업이 3.4%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 중국이민이 48.9%, 기타가 23.7%, 학업이 23.2%, 중국 출생이 4.2%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중국 이민이 많고, 학업으로 인한 중국 거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재외국민 청소년의 중국 거주의 주요 이유

		합계		중국 출생		중국 이민		학업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	146	100	8	5.5	77	52.7	22	15.1	39	26.7
	여	132	100	4	3.0	69	52.3	25	18.9	34	25.8
	합계	278	100	12	4.3	146	52.5	47	16.9	73	26.3
교 급 별	중	88	100	4	4.5	53	60.2	3	3.4	28	31.8
	고	190	100	8	4.2	93	48.9	44	23.2	45	23.7
	합계	278	100	12	4.3	146	52.5	47	16.9	73	26.3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 처음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는 부모와 함께 이주한 경우가 81.7%로 가장 많았고,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6.5%,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 함께 이주한 경우가 80.1%였고,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8.5%,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1.4%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한 경우가 83.3%였고,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4.4%,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2.3%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부모와 함께 이주한 경우가 84.1%였고,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3.6%,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2.3%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한 경우가 80.5%였고, 본인 출생 전 부모세대가 17.9%,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1.6%로 나타났다.

표 V-6 최초로 중국으로 이주한 세대

		합계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		본인 출생 전 부모 세대		부모와 함께 이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재외국민	남	146	100	2	1.4	27	18.5	117	80.1
	여	132	100	3	2.3	19	14.4	110	83.3
	합계	278	100	5	1.8	46	16.5	227	81.7
	중	88	100	2	2.3	12	13.6	74	84.1
	고	190	100	3	1.6	34	17.9	153	80.5
	합계	278	100	5	1.8	46	16.5	227	81.7

한편, 재외국민청소년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두 분 다 한국인은 97.5%, 아버지만 한국인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두 분 다 한국인이 96.6%, 아버지만 한국인이 3.4%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두 분 다 한국인이 98.5%, 아버지만 한국인이 1.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두 분 다 한국인 경우가 95.5%, 아버지만 한국인 경우가 4.5%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 두 분 다 한국인인 경우가 98.4%, 아버지만 한국인 경우가 1.6%로 중학생 학부모가 고등학생 학부모보다 두 분 다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재외국민청소년 부모의 국적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두분 다 한국인	
		빈도	%	빈도	%	빈도	%
재외국민	남	146	100	5	3.4	141	96.6
	여	132	100	2	1.5	130	98.5
	합계	278	100	7	2.5	271	97.5
	중	88	100	4	4.5	84	95.5
	고	190	100	3	1.6	187	98.4
	합계	278	100	7	2.5	271	97.5

2) 재중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재중동포청소년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91.7%,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7.3%, 학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99.1%, 고등학생은 100.0%, 대학생은 76.2%가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6.2%,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47.7%, 학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39.1%, 고등학생은 27.6%, 대학생은 100.0%가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8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조선족/한글학교 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내 조선족	남자	120	108	90.0	10	8.3	2	1.7	1.33
	여자	193	179	92.7	13	6.7	1	0.5	
	전체	313	281	91.7	23	7.3	3	1.0	
	중	111	110	99.1	1	0.9	0	0	49.94***
	고	97	97	100.0	0	0	0	0	
	대	105	80	76.2	22	21.0	3	2.9	
	전체	313	287	91.7	23	7.3	3	1.0	
국내 조선족	남자	29	13	44.8	14	48.3	2	6.9	.07
	여자	36	17	47.2	17	47.2	2	5.6	
	전체	65	30	46.2	31	47.7	4	6.2	
	중	23	9	39.1	13	56.5	1	4.3	20.16***
	고	29	8	27.6	18	62.1	3	10.3	
	대	13	13	100	0	0	0	0	
	전체	65	30	46.2	31	47.7	4	6.2	

주) *** p<.001; ** p<.01; * p<.05.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과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을 비교해 보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국내 조선족 청소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많았다.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조선족 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조선족(한글)학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이 한글 및 한국역사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기간

표 V-9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기간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중국 내 조선족	남자	130	9.89	2.65	.02	-
	여자	217	9.85	3.00		
	전체	347	9.86	2.87		
	중	131	8.15	1.87	48.53***	대, 고>중
	고	126	10.71	2.27		
	대	90	11.17	3.55		
	전체	347	9.86	2.87		
국내 조선족	남자	13	7.30	3.93	.24	-
	여자	17	8.08	4.61		
	전체	30	7.74	4.28		
	중	9	3.75	2.93	19.19***	대>중, 고
	고	8	6.57	2.27		
	대	13	11.23	3.08		
	전체	30	7.74	4.28		

주) *** p<.001; ** p<.01; * p<.05

재중동포청소년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기간을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은 평균 9.86년으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15년, 고등학생이 10.71년, 대학생이 11.17년이였다. 또한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기간은 평균 7.74년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이 3.75년, 고등학생이 6.57년, 대학생이 11.23년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이 국내 조선족청소년에 비해서 조선족(한글)학교 재학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선족(한글)학교에 입학한 이유

조선족청소년들이 조선족(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가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 결정(39.8%), 친구의 권유(18.3%)의 순이었으며,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님 권유가 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 결정(29.0%), 친구의 권유(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 나 국내 조선족청소년 모두 부모님의 권유가 조선족(한글)학교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0 조선족(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 결정		친구의 권유(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내 조선족	남자	130	63	48.5	48	36.9	19	14.6	4.18
	여자	219	83	37.9	91	41.6	45	20.5	
	전체	349	146	41.8	139	39.8	64	18.3	
	중	134	50	37.3	51	38.1	33	24.6	15.73 **
	고	123	54	43.9	59	48	10	8.1	
	대	92	42	45.7	29	31.5	21	22.8	
	전체	349	146	41.8	139	39.8	64	18.3	
국내 조선족	남자	14	10	71.4	2	14.3	2	14.3	4.72
	여자	17	6	35.3	7	41.2	4	23.5	
	전체	31	16	51.6	9	29	6	19.3	
	중	10	7	70	2	20	1	10	6.29
	고	8	5	62.5	1	12.5	2	25	
	대	13	4	30.8	6	46.2	3	23.1	
	전체	31	16	51.6	9	29	6	19.3	

주) *** p<.001; ** p<.01; * p<.05

(4) 한국어 능력

재중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5점 만점에 말하기는 평균 4.55점, 듣고 이해하기는 평균 4.54점, 읽고 쓰기는 평균 4.52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유형별 한국어 능력은 재외국민 청소년이 평균 4.9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내 조선족청소년 평균 4.38점, 국내 조선족청소년 평균 4.25점으로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한국어 능력 - 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636	4.55	.89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630	4.54	.88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630	4.52	.94

표 V-12 한국어 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내 조선족	남자	139	4.28	1.04	2.68	-
	여자	227	4.45	.93		
	전체	366	4.38	.97		
	중	137	4.35	.93	6.35**	대>고 고>대, 중
	고	124	4.61	.63		
	대	105	4.16	1.27		
	전체	366	4.38	.97		
국내 조선족	남	28	3.96	1.05	7.42**	여>남
	여	35	4.58	.74		
	전체	63	4.30	.93		
	중	23	3.94	.91	4.63*	대>중
	고	27	4.34	1.03		
	대	13	4.87	.32		
	전체	63	4.30	.93		
재외 국민	남자	96	4.90	.34	.75	-
	여자	94	4.94	.29		
	전체	190	4.92	.32		
	중	40	4.93	.28	.10	-
	고	150	4.92	.33		
	전체	190	4.92	.32		

주) *** p<.001; ** p<.01; * p<.05

(5)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재중동포청소년들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를 살펴보면, 부모님과 대화 시 한국어 사용은 5점 만점에 평균 4.33점, 부모님과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는 평균 4.46점, 부모님과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 노래 듣기는 평균 4.40점으로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 관련 직업 갖는 것에 대한 희망은 평균 3.42점, 한국 사람과의 결혼은 평균 3.57점으로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는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728	4.33	1.09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727	4.46	.86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726	4.40	.98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728	3.42	1.15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727	3.57	1.16

재외동포유형별로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를 살펴보면, 재외국민 청소년이 평균 4.5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내 조선족청소년(평균 3.96점),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평균 3.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 가정에서 한국과 관련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한국 관련 직업 및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국적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이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14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 내조 선족	남자	143	3.63	.81	2.21	—
	여자	229	3.75	.71		
	전체	372	3.70	.75		
	중	141	3.64	.75	1.15	
	고	124	3.69	.73		
	대	107	3.79	.79		
	전체	372	3.70	.75		
국내 조선 족	남	31	3.82	1.01	1.52	—
	여	36	4.08	.67		
	전체	67	3.96	.85		
	중	25	3.76	.90	1.21	
	고	29	4.11	.85		
	대	13	4.01	.70		
	전체	67	3.96	.85		
재외 국민	남자	145	4.46	.55	3.42	—
	여자	131	4.56	.39		
	전체	276	4.51	.49		
	중	87	4.42	.49	2.78	
	고	189	4.54	.48		
	전체	276	4.51	.49		

주) *** p<.001; ** p<.01; * p<.05

3) 재중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재중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은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한민족이라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해 보았다.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34점, ‘한민족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평균 4.52점으로 높았으나, 이에 비해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3.69점,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응답은 평균 3.55점,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평균 3.78점이었다.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 편이지만 한민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에서도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한민족정체성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729	4.34	.89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726	4.52	.81
나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28	3.69	1.02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727	3.55	1.15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727	3.78	1.06

동포유형별로 한민족정체성을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은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평균 3.89점), 국내 조선족청소년(평균 3.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유형 내에서 한민족정체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인을 비교해 보면, 중국내 조선족의 경우에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한민족정체성이 높았으며,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의 한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한민족정체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 내조선족	남자	141	3.78	.81	4.77 [*]	여>남
	여자	229	3.96	.69		
	전체	370	3.89	.74		
	중	139	3.83	.83	.79	-
	고	124	3.93	.67		
	대	107	3.93	.70		
	전체	370	3.89	.74		
국내 조선족	남	31	3.36	.92	.41	-
	여	36	3.51	.95		
	전체	67	3.44	.93		
	중	25	3.14	1.01	4.02 [*]	대>중
	고	29	3.45	.91		
	대	13	4.01	.55		
	전체	67	3.44	.93		
재외 국민	남자	146	4.13	.79	3.74 [*]	여>남
	여자	132	4.30	.66		
	전체	278	4.21	.74		
	중	88	4.13	.75	1.61	-
	고	190	4.25	.73		
	전체	278	4.21	.74		

주) *** p<.001; ** p<.01; * p<.05

4) 재중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 역량

(1) 의사소통능력

재중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인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능력, 개인적·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능력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는 평균 3.95점,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평균 4.03점,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평균 4.06점,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평균 4.32점으로 재중동포청소년들의 의사소통능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의사소통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721	3.95	.88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721	4.03	.8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721	4.06	.81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721	4.32	.73

한편,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청소년은 5점 만점에 평균 4.23점,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평균 4.00점, 국내 조선족 청소년이 3.99점으로 재외국민청소년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 청소년에 비해서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청소년 중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의사소통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 국 내 조 선 족	남자	144	3.97	.742	.47	-
	여자	231	4.02	.62		
	전체	375	4.00	.66		
	중	142	4.02	.69	.39	-
	고	126	4.02	.66		
	대	107	3.95	.64		
	전체	375	4.00	.66		
국 내 조 선 족	남	31	3.91	.73	.97	-
	여	37	4.06	.56		
	전체	68	3.99	.64		
	중	25	3.94	.68	.19	-
	고	30	4.00	.64		
	대	13	3.98	.61		
	전체	68	3.99	.64		
재 외 국 민	남자	146	4.13	.59	8.68**	여>남
	여자	132	4.33	.53		
	전체	278	4.23	.57		
	중	88	4.14	.55	3.19	-
	고	190	4.27	.57		
	전체	278	4.23	.57		

주) *** p<.001; ** p<.01; * p<.05

(2) 창의적 능력

재중동포청소년의 창의적 능력은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는 평균 3.65점,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는 평균 3.70점,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평균 3.70점으로 미래 인재 역량의 능력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표 V-19 창의적 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721	3.65	.85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720	3.70	.86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721	3.70	.91

한편, 재중동포 유형별로 창의적 능력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청소년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었고, 국내 조선족 청소년이 3.69점,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평균 3.58점으로 재외국민청소년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 청소년에 비해서 창의적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창의적 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 국 내 조 선 족	남자	144	3.64	.72	2.00	—
	여자	231	3.54	.70		
	전체	375	3.58	.77		
	중	142	3.54	.72	2.23	—
	고	126	3.68	.75		
	대	107	3.50	.62		
	전체	375	3.58	.71		
국 내 조 선 족	남	31	3.76	.61	.62	—
	여	37	3.63	.66		
	전체	68	3.69	.64		
	중	25	3.70	.57	.38	—
	고	30	3.63	.72		
	대	13	3.85	.57		
	전체	68	3.69	.64		
재 외 국 민	남자	146	3.82	.67	.46	—
	여자	132	3.87	.67		
	전체	278	3.84	.67		
	중	88	3.74	.63	3.03	—
	고	190	3.89	.68		
	전체	278	3.84	.67		

주) *** p<.001; ** p<.01; * p<.05

(3) 문제해결력

재중동포청소년의 문제해결력은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나는 지난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평균 3.78점,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평균 3.92점, ‘나는 지난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표 V-21 문제해결력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721	3.78	.88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721	3.92	.87
나는 지난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720	3.84	.88

한편,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문제해결력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청소년은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이었고,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은 3.84점, 국내 조선족 청소년은 3.75점으로 재외국민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문제해결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 내 조선족	남자	144	3.91	.712	2.33	-
	여자	231	3.80	.689		
	전체	375	3.84	.699		
	중	142	3.81	.642	.46	-
	고	126	3.89	.748		
	대	107	3.82	.716		
	전체	375	3.84	.699		
국내 조선족	남	31	3.77	.781	.08	-
	여	37	3.72	.709		
	전체	68	3.75	.738		
	중	25	3.87	.680	1.87	-
	고	30	3.56	.744		
	대	13	3.95	.780		
	전체	68	3.75	.738		
재외국민	남자	146	3.84	.810	.85	-
	여자	132	3.93	.749		
	전체	278	3.88	.782		
	중	88	3.81	.739	1.24	-
	고	190	3.92	.800		
	전체	278	3.88	.782		

주) *** $p < .001$; ** $p < .01$; * $p < .05$

(4)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의식

재중동포청소년의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의식은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14점,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53점,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21점,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평균 3.78점,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04점,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41점,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08점,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4.4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 질서, 양심적 사회생활, 사회적 평등실현 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V-23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19	4.14	.86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19	4.53	.72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19	4.21	.86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719	3.78	.91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17	4.04	.84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18	4.41	.73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18	4.08	.81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19	4.40	.77

한편,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의식을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5점 만점에 평균 4.25점이었고, 재외국민청소년이 평균 4.17점, 그리고 국내 조선족 청소년이 4.01점으로,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의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의식이 가장 높고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개인적 · 사회적 책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 국 내 조 선 족	남자	144	4.19	.64	2.66	—
	여자	231	4.29	.54		
	전체	375	4.25	.58		
	중	142	4.32	.55	2.11	—
	고	126	4.26	.68		
	대	107	4.16	.48		
	전체	375	4.25	.58		
국 내 조 선 족	남	31	3.84	.74	3.67	—
	여	37	4.15	.59		
	전체	68	4.01	.67		
	중	25	3.78	.69	5.35	—
	고	30	3.99	.63		
	대	13	4.49	.49		
	전체	68	4.01	.67		
재 외 국 민	남자	145	4.08	.69	6.52 [*]	여>남
	여자	132	4.28	.60		
	전체	277	4.17	.66		
	중	88	4.12	.58	.89	—
	고	189	4.20	.69		
	전체	277	4.17	.66		

주) *** p<.001; ** p<.01; * p<.05

(5) 세계시민의식

재중동포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은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평균 3.80점,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평균 4.13점,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평균 4.19점,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평균 4.23점으로 세계시민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다른 국가에 대한 친근한 느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세계시민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720	3.80	.88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720	4.13	.80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720	4.19	.77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720	4.23	.78

한편,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세계시민의식을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5점 만점에 평균 4.12점이었고, 재외국민청소년이 평균 4.10점, 국내 조선족 청소년이 평균 3.87점으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세계시민의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 국 내 조 선 족	남자	144	4.11	.67	.03	—
	여자	231	4.12	.62		
	전체	375	4.12	.64		
	중	142	4.08	.70	3.20*	대>고
	고	126	4.23	.59		
	대	107	4.03	.59		
	전체	375	4.12	.64		
국 내 조 선 족	남	31	3.82	.81	.23	—
	여	37	3.92	.91		
	전체	68	3.87	.86		
	중	25	3.70	.81	4.28*	대>고 대>중
	고	30	3.76	.87		
	대	13	4.48	.72		
	전체	68	3.87	.86		
재 외 국 민	남자	145	4.10	.68	.01	—
	여자	132	4.09	.69		
	전체	277	4.10	.68		
	중	88	4.00	.67	2.55	—
	고	189	4.14	.69		
	전체	277	4.10	.68		

주) *** p<.001; ** p<.01; * p<.05

(6) 국가정체의식

재중동포청소년의 국가정체의식은 ‘자국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의 4개 문항으로 자국의 문화·역사·국민의 우수성, 명성에 대한 홍보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자국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33점, ‘자국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25점, ‘자국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87점, ‘자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는 평균 4.23점으로 재중동포청소년들의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체의식 중에서 자국 국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국가정체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국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720	4.33	.80
자국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721	4.25	.88
자국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721	3.87	1.06
자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720	4.23	.92

한편,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국가정체의식을 살펴보면,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이 5점 만점에 평균 4.23, 재외국민청소년이 평균 4.17점, 국내 조선족 청소년이 평균 3.74점으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국가정체의식 점수가 가장 높고 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국가정체의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국가정체 인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내 조선족	남자	144	4.21	.74	.19	-
	여자	231	4.25	.66		
	전체	375	4.23	.69		
	중	142	4.28	.69	1.38	-
	고	126	4.26	.69		
	대	107	4.14	.68		
	전체	375	4.23	.69		
국내 조선족	남	31	3.83	.89	.66	-
	여	37	3.66	.82		
	전체	68	3.74	.85		
	중	25	3.69	.75	1.92	-
	고	30	3.61	.93		
	대	13	4.15	.76		
	전체	68	3.74	.85		
재외 국민	남자	145	4.12	.85	1.24	-
	여자	132	4.23	.78		
	전체	277	4.17	.82		
	중	88	4.18	.79	.02	-
	고	189	4.17	.83		
	대					
	전체	277	4.17	.82		

주) *** p<.001; ** p<.01; * p<.05

* 중국내 조선족과 국내조선족의 중국국가정체성, 재외국민은 한국국가정체성으로 측정

5) 재중동포청소년의 교류 경험 및 한민족 공동체 참여 욕구

(1) 재중동포청소년 교류 경험

재중동포청소년의 교류 경험은 한국 조선족 청소년과의 만남, 한국 조선족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락 또는 활동 경험, 중국 내 한국 조선족 청소년 탐방행사 참여 경험, 한국의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평산시 한국 조선족청소년과의 만남은 평균 4.0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 조선족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 또는 활동한 경험은 평균 3.29점, 중국 내 한국 조선족 청소년 탐방행사 참여 경험은 2.79점, 한국의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2.5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선족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참여나 특정인과 의식적으로 만나는 활동보다는 주변 조선족청소년과의 일상적인 만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교류 경험을 살펴보면, 재외국민 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산시 한국·조선족 청소년들과의 만남이나 연락(평균 4.45점), 그리고 한국·조선족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사람과의 연락이나 활동 경험(평균 3.75점)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게 비해서 가장 많은 반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하는 한국·조선족 청소년 탐방행사에 참여한 경험(평균 2.87점)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의 참여 경험(평균 2.94점)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재중동포청소년 교류 경험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평산시 한국·조선족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 거나 연락한다.	중국내조선족	375	3.88	1.1	.44***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3.18	1.3		
	재외국민	276	4.45	.98		
	전체	719	4.03	1.1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조선족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 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중국내조선족	374	3.02	1.2	27.55 ^{***}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2.88	1.4		
	재외국민	276	3.75	1.3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전체	718	3.29	1.3		
중국에서 하는 한국·조선족 청소년 탐방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중국내조선족	375	2.87	1.3	3.85 [*]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68	2.35	1.3		
	재외국민	276	2.79	1.5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전체	719	2.79	1.4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중국내조선족	375	2.25	1.2	13.05 ^{***}	국내조선족>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2.94	1.3		
	재외국민	276	2.73	1.5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전체	719	2.50	1.4		

주) *** p<.001; ** p<.01; * p<.05

(2)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교류 욕구

재중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교류 욕구는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한국 탐방 프로그램에의 참여,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기업에서의 취업, 다양한 한국문화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한국문화의 경험에 대한 욕구가 평균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욕구(평균 3.86점), 한국 탐방프로그램 참여 욕구(평균 3.68점), 한국 기업에서의 취업 욕구(평균 3.63점), 한국에서의 유학 욕구(평균 3.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관련 교류 욕구는 높은 편이며, 특히, 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V-30 한국 관련 교류 욕구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싶다.	중국내조선족	375	3.79	1.02	1.71	-
	국내조선족	68	3.90	1.03		
	재외국민	276	3.95	1.11		
	전체	719	3.86	1.06		
한국에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중국내조선족	375	3.62	1.13	2.52	-
	국내조선족	68	3.96	1.09		
	재외국민	276	3.70	1.21		
	전체	719	3.68	1.16		
한국에서 유학(공부)하고 싶다.	중국내조선족	375	3.42	1.14	6.28**	국내조선족>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68	3.96	1.02		
	재외국민	276	3.41	1.28		
	전체	719	3.47	1.20		
한국이나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중국내조선족	375	3.28	1.08	39.84***	국내조선족>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3.91	1.07		
	재외국민	276	4.02	1.07		
	전체	719	3.63	1.13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중국내조선족	374	3.96	1.10	2.15	-
	국내조선족	68	4.25	.98		
	재외국민	276	4.05	1.15		
	전체	718	4.02	1.11		

주) *** p<.001; ** p<.01; * p<.05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한국 관련 교류 욕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조선족청소년과 재외국민청소년들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에 비해서 교류 욕구가 높았다. 특히,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재외국민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재중동포청소년의 역할 기대 및 필요지원

(1) 재중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재중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는 민족사회의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중국에 조선족 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한 역할 기대, 민족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 기대, 한국 경제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남북통일 역할에 대한 역할 기대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 조선족 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한 역할 기대가 평균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족사회 단합에 대한 역할 기대(평균 3.79점), 한국 경제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평균 3.57점), 남북통일 역할에 대한 역할 기대(평균 3.48점), 민족사회의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평균 3.4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청소년들의 역할 기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 사회에 조선족문화를 알리고 다른 지역 해외동포와 교류하여 민족사회를 단합시키는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동포사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역할 기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내 조선족 청소년들이 국내 조선족청소년이나 재외국민청소년에 비해서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성공해서 민족사회 발전에 기여하고(평균 3.62점), 중국에 조선족 문화를 알리며(평균 4.13점), 민족사회의 단합에 도움을 주고(평균 4.09점), 국제사회에서의 다리 역할을 통한 남북통일에의 기여(평균 3.68점)에 대해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역할 기대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국에서 성공해서 민족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내조선족	373	3.62	1.00	19.08***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68	3.31	1.13		
	재외국민	275	3.11	1.10		
	전체	716	3.40	1.08		
중국에 조선족(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중국내조선족	373	4.13	.837	19.27***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3.47	1.09		
	재외국민	276	3.83	.952		
	전체	717	3.95	.932		
민족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내조선족	372	4.09	.851	39.82***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68	3.50	1.05		
	재외국민	275	3.45	1.04		
	전체	715	3.79	1.00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내조선족	373	3.62	1.09	1.82	-
	국내조선족	67	3.34	1.06		
	재외국민	276	3.56	1.07		
	전체	716	3.57	1.08		
국제사회의 다리역할을 해서 남북통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내조선족	372	3.68	1.04	13.34***	중국내조선족>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68	3.41	1.18		
	재외국민	276	3.22	1.23		
	전체	716	3.48	1.15		

주) *** p<.001; ** p<.01; * p<.05

(2) 재중동포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재중동포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한국 방문 기회의 제공,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지원, 민족교육 지원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지원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한국 방문 기회의 제공은 평균 4.12점,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평균 4.14점,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지원은 평균 4.18점, 민족교육 지원은 평균 4.15점으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표 V-32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중국내조선족	375	4.04	.85	6.72 ^{**}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3.91	.95		
	재외국민	275	4.27	.95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전체	718	4.12	.91		
조선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내조선족	375	4.09	.85	3.62 [*]	재외국민> 중국내조선족
	국내조선족	68	3.97	.89		
	재외국민	275	4.24	.86		재외국민> 국내조선족
	전체	718	4.14	.86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국내조선족	375	4.20	.81	.92	-
	국내조선족	68	4.04	.98		
	재외국민	275	4.19	.91		
	전체	718	4.18	.86		
우리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내조선족	375	4.23	.79	3.00	-
	국내조선족	68	4.01	.98		
	재외국민	275	4.08	.99		
	전체	718	4.15	.89		

주) *** p<.001; ** p<.01; * p<.05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제공(평균 4.27점)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평균 4.24점)에 대해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이나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에 비해서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청소년과의 활발한 교류(평균 4.20점)와 민족교육 지원(평균 4.23점)에 대해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는 않았지만, 한국 방문 기회의 제공,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 청소년과의 활발한 교류, 민족교육 등 대부분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재중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및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재중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

재중동포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영향 요인은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국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 등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중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입력방식에 따라 한민족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는 성별(남=1, 여=0), 연령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 부모가정생활, 교류경험, 교류 욕구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미래인재역량(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을 투입하였다.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29.33,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beta=-.27$, $p<.05$), 연령($\beta=-.08$, $p<.05$), 한국어능력($\beta=.10$, $p<.01$),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beta=.22$, $p<.001$), 동포청소년 교류 욕구($\beta=.15$, $p<.001$), 의사소통능력($\beta=.20$, $p<.001$), 국가정체의식($\beta=.23$, $p<.001$)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5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이 많을수록, 동포청소년 간의 교류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국가정체의식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의 향상과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한국 관련 활동의 확대, 동포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국가정체의식 등 미래인재 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3 중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중 국 내 조 선 족	성별(남=1, 여=0)	-.19	.08	-.12*	-.07	.06	-.05	-.11	.05	-.07*
	연령	.02	.01	.10	.02	.01	.07	.02	.00	.08*
	한국어능력				.12	.03	.16**	.08	.03	.10**
	부모가정생활				.29	.05	.30***	.21	.04	.22***
	동포청소년교류경험				.11	.05	.10*	.02	.04	.02
	동포청소년교류욕구				.17	.04	.21***	.13	.03	.15***
	의사소통능력							.33	.05	.29***
	창의적사고							.06	.04	.06
	문제해결력							.03	.05	.03
	세계시민의식							-.01	.05	-.00
	국가정체의식							.25	.04	.23***
	개인적·사회적 책임							.00	.03	.00
	R ²	.02			.38			.59		
	F변화량	4.44*			50.12***			29.33***		

주) *** p<.001; ** p<.01; * p<.05

국내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11,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동포청소년 교류 경험($\beta=.59$, p<.001)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동포청소년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민족정체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4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국 내 조 선 족	성별(남=1, 여=0)	-.16	.22	-.09	.04	.17	.02	.05	.19	.03
	연령	.07	.03	.24	-.05	.03	-.17	-.05	.03	-.19
	한국어능력				.13	.11	.14	.13	.12	.14
	부모가정생활				.16	.12	.15	.16	.14	.15
	동포청소년교류경험				.59	.11	.56***	.62	.15	.59***
	동포청소년교류욕구				.35	.12	.31**	.27	.19	.24
	의사소통능력							-.02	.19	-.01
	창의적사고							-.01	.17	-.01
	문제해결력							.02	.17	.00
	세계시민의식							-.01	.15	-.01
	국가정체의식							-.02	.14	-.01
	개인적·사회적 책임							.08	.12	.12
	R ²	.06			.54			.55		
	F변화량	2.1			14.71***			.11***		

주) *** p<.001; ** p<.01; * p<.05

재외국민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18.23,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beta=.14$, p<.05), 세계시민의식($\beta=.14$, p<.05), 국가정체의식($\beta=.43$, p<.001), 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재외국민청소년들은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이 많을수록, 그리고 세계시민의식과 국가정체의식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한국 관련 활동의 확대와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등 미래인재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5 재외국민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재 외 국 민	성별(남=1, 여=0)	-.29	.11	-.18*	-.23	.10	-.14*	-.11	.08	-.07
	연령	.06	.03	.12	.03	.03	.06	.03	.02	.07
	한국어능력				.37	.17	.14*	.22	.14	.08
	부모가정생활				.42	.11	.26***	.23	.09	.14*
	동포청소년교류경험				.20	.06	.20**	.05	.05	.05
	동포청소년교류욕구				.07	.05	.09	-.08	.04	-.10
	의사소통능력							.14	.10	.11
	창의적사고							.02	.06	.02
	문제해결력							.00	.07	.00
	세계시민의식							.16	.07	.14*
	국가정체의식							.40	.06	.43***
	개인적·사회적 책임							.05	.04	.09
	R ²	.05			.24			.53		
	F변화량	5.3**			11.11***			18.23***		

주) *** p<.001; ** p<.01; * p<.05

(2) 재중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중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영향 요인도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국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 등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입력방식에 따라 한민족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는 성별(남=1, 여=0), 연령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한국어 능력, 부모가정생활, 교류경험, 교류 욕구, 한민족정체성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미래인재역량(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투입하였다.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7.36,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beta=.07$, $p<.05$), 동포청소년 교류 경험($\beta=.08$, $p<.05$), 동포청소년 교류 욕구($\beta=.30$, $p<.001$), 세계시민의식($\beta=.13$, $p<.01$), 개인적·사회적 책임($\beta=.16$, $p<.01$)이 동포사회 발전 역할에 대한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5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이나 교류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이나 개인적·사회적 책임이 높을수록 동포사회 발전이라는 역할에 대한 기여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로 하여금 동포사회의 발전 역할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류 경험을 확대하고, 세계시민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등 미래인재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6 중국내 조선족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중 국 내 조 선 족	성별(남=1, 여=0)	-.01	.08	-.01	.14	.06	.08*	.12	.06	.07*
	연령	.00	.01	.01	-.01	.01	-.04	-.00	.01	-.01
	한국어능력				-.03	.03	-.04	-.03	.03	-.04
	부모가정생활				.04	.05	.04	.05	.05	.05
	동포청소년교류경험				.12	.04	.11**	.09	.04	.08*
	한국관련교류욕구				.29	.04	.33***	.26	.04	.30***
	한민족정체성				.43	.05	.40***	.28	.06	.27
	의사소통능력							-.01	.06	-.01
	창의적사고							.02	.05	.02
	문제해결력							.04	.05	.04
	세계시민의식							.16	.05	.13**
	국가정체의식							.01	.05	.01
	개인적·사회적 책임							.10	.03	.16**
	R ²	.00			.48			.54		
	F변화량	.00			65.49***			7.36***		

주) *** $p<.001$; ** $p<.01$; * $p<.05$

국내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4.68,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동포청소년 교류 경험($\beta=.43$, $p<.01$)이 동포사회 발전이라는 역할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의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동포사회 발전이라는 역할에 대한 기여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조선족청소년들로 하여금 동포사회의 발전 역할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7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국내 조선 족	성별(남=1, 여=0)	.00	.23	.00	.12	.21	.06	.07	.18	.03
	연령	.09	.03	.32**	-.00	.04	-.02	-.02	.03	-.08
	한국어능력				.05	.13	.05	.08	.11	.08
	부모가정생활				-.14	.14	-.13	-.01	.14	-.01
	동포청소년교류경험				.40	.16	.37*	.47	.16	.43**
	한국관련교류욕구				.47	.15	.40**	-.01	.18	-.00
	한민족정체성				.04	.15	.04	-.01	.13	-.01
	의사소통능력							-.03	.18	-.02
	창의적사고							.02	.16	.24
	문제해결력							.32	.20	.20
	세계시민의식							.08	.15	.08
	국가정체의식							.16	.14	.14
	개인적·사회적 책임							.22	.11	.31
	R ²	.10			.40			.62		
	F변화량	3.58*			5.49***			4.68***		

주) *** $p<.001$; ** $p<.01$; * $p<.05$

재외국민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10.84, $p<.001$). 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beta=.12$,

$p<.05$), 연령($\beta=.19$, $p<.01$).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beta=-.23$, $p<.001$), 동포청소년 교류 욕구($\beta=.19$, $p<.01$), 창의적 사고($\beta=.23$, $p<.01$), 문제해결력($\beta=.22$, $p<.01$), 세계시민의식($\beta=.21$, $p<.01$), 국가정체의식($\beta=.19$, $p<.05$)이 동포사회 발전 역할에 대한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한국 관련 가정생활을 적게 할수록, 동포청소년 간 교류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이 높을수록 동포사회 발전이라는 역할에 대한 기여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청소년들로 하여금 동포사회의 발전 역할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등 미래인재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8 재외국민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재 외 국 민	성별(남=1, 여=0)	.10	.13	.05	.24	.12	.13*	.22	.10	.12*
	연령	.08	.04	.16	.08	.037	.14*	.10	.03	.19**
	한국어능력				.03	.19	.01	-.08	.17	-.02
	부모가정생활				-.32	.13	-.16*	-.45	.12	-.23***
	동포청소년교류경험				.15	.07	.13	.01	.07	.01
	한국관련교류욕구				.30	.06	.32***	.18	.06	.19**
	한민족정체성				.39	.08	.34***	.05	.09	.04
	의사소통능력							-.17	.12	-.11
	창의적사고							.28	.08	.23**
	문제해결력							.25	.09	.22**
	세계시민의식							.28	.09	.21**
	국가정체의식							.21	.08	.19*
	개인적·사회적 책임							.06	.05	.08
	R ²	.02			.29			.49		
	F변화량	2.56			13.34***			10.84***		

주) *** $p<.001$; ** $p<.01$; * $p<.05$

2. 재중동포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분석⁹⁰⁾

1) 중국 내 교육전문가

중국 내 교육전문가와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민족정체성, 교육적 환경, 재중동포 청소년 미래 삶과 진로, 재중동포청소년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38> 참조).

표 V-38 중국 내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민족 정체성	• 역사와 문화적 이중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적 이중정체성 • 생존의 민족정체성 • 민족 · 문화정체성 교육 •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의식 • 정체성 교육의 한국학교와 민족학교
	• 한국어, 언어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 한국어 사용의 이점
교육적 환경	• 열악한 교육 · 문화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 문화적 공간의 부족 • 유해환경에 노출된 자녀들 • 한국의 대중문화에 집중 • 부모의 부재로 돌봄이 부족한 가정 •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재외국민청소년들의 언어 문제 발생
재중동포 청소년 미래 삶과 진로	• 한민족 발전의 인재로 성장 기대	
	• 한국에서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 미래 한민족 통일에서의 연계 역할 기대	
재중동포청소년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 예산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교육적 환경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다양한 교사수급 요청 •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지원 • 한국과 문화교류 및 체험기회 확대 희망

90) 이 부분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 · 정리하였음.

(1) 정체성

민족정체성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인종적 또는 문화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183). 가족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연과 함께 생겨나는 민족성은 한 인간이 동일한 민족 집단 내에서 또는 이러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테두리에서 자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한민족이라는 혈연적 민족정체성은 물려받았지만 성장과정 중 문화와 역사가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또한, 성장하여 스스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지켜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육전문가 집단의 사례들 속에서 재중 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는 한민족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역사와 문화적 이중정체성

가. 민족적 이중정체성

참여자들이 표현한 “중국 사람이고, 조선족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혈연적인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요인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는 중국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한국을 응원하며, 챔피언 일이 있을 땐 중국인인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땐 한국말을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참여자 5는 젊은 세대 앞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은 조심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 9는 조선족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민족 의식을 상실하게 되며 점차 중국 사람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우리는 일단 ‘중국 사람’이고 ‘조선족’이에요. 우리한테는 중국어도 모국어고 한국어도 모국어예요. 중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우리가 너 한국어만 하(사용)라고 하면...(중략)...(중국교육전문가 3).

조선족들은 근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할 때는 중국을 응원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한국을 응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국가관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란 인식이 강해요. 그 학생들 앞에서 중국에 대해 비하하고 그러서는 절대 안돼요(중국교육전문가 5).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있어요...(중략)...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건 안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중국인들과 생김새는 비슷하나, (하지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생긴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는 현지 학교에 다니다 온 학생들일수록 중국에 잘 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음식이나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에 동화가 잘 되어 있고, 중간에 유입된 아이일수록 거부감이 많아요...(중략)...이 아이들이 약간 배타적이라고 할까요?(중국교육전문가 8).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의 민족의 언어까지 다 상실하고 점점 가면서 민족이라는 의식도 약해지고, 더 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의식까지 없어질 것 같아요. 중국에 동화가 되는 것이죠. 중국 사람에 동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9).

나. 생존의 민족정체성

중국에 있는 한민족 동포들이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이며 무엇인지에 대해 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음을 밝혔다. 참여자 2는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으면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 뿌리를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세계화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민족성은 한 사람의 생활에 기본이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민족정체성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민족이 생존해 나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으면 그 민족은 멸망하고 마는 거지요(중국교육전문가 2).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민족으로 대우를 하고. 저희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이 백만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저희 한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발전함에 있어서 한민족이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겠지요(중국교육전문가 5).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선조의 뿌리를 찾는 일이죠. 한민족정체성을 많이 담론하고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6).

저는 조선족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세대가 조선족 3세대 2세대 분들은 특히 결혼 같은 경우, 한족이 아니라 같은 조선족과 결혼하도록 하고, 학생들 경우에도 어울리는 학생들을 보면 조선족은 조선족끼리 모이고 한족은 한족끼리 모이는데 국가관을 보면 중국 사람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민족적 측면에서는 조선족이라는 게 강해요(중국교육전문가 5).

동포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 우리의 민족습관이라든가 민족습성, 그리고 문화, 예의 이 방면에서 비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1).

다. 민족·문화정체성 교육

우리 민족이 깨끗하고 예의범절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에게 현지 문화에 익숙하게 길들여지기 쉬운 생활에서 지키기 어려운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현하고자 하는 중국 동포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가슴 뭉클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문화 및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문화를 배워야하는 아주 중요한 계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선족이고, 우리의 조상은 한민족,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선...조선족으로서 조선문화, 역사를 알고 민족의 예의, 습성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1).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사는 뿌리가 있는 나라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수한 나라이기에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이런걸 아는 게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6).

아직까지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언어와 문화교육,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 민족 교육인데 민족교육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졌어요(중국교육전문가 8).

우리 민족 역사를 배우기에 편리하고, 우리 민족은 깨끗하고 예의범절도 바르죠. 그런 면에서 조선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아요. 조선족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 생각해요...(중략)...한국역사로서 현재 배우는 과목에도 세종대왕이라는 인물 전기가 있잖아요. 한국 문화와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6).

라.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의식

특별히, 재외국민청소년들의 경우에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들이 한민족임을 내세우고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민족적 배경의 국가가 잘 산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들에게 내면의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외국민청소년들은 겉으로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낙후되다 보니까 중국을 정말 좀 낮춰보는, 흔히 이제 속된 표현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재외국민청소년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우월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은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4).

중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자랐던 아이들도 비슷해요. 그 아이들은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함께 한국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해요. 자기 스스로가 중국인인 척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애들 대부분이 한국인인 걸 드러내고 살고 싶어 해요. 기꺼이, 그래서 어디 가서 중국인 인척, 창피한 일이 있을 땐 중국인인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땐 한국말을 하고 있고, 중국인만이고 싶지 않은 거지요(중국교육전문가 9).

마. 정체성 교육의 한국학교와 민족학교

한국학교와 민족학교가 재중동포청소년의 정체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현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들이 한국학교나 민족학교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특히, 참여자 5는 한국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 운동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후예들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므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한국학교들은 어쨌든 아이들 정체성 교육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주안점을 두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의식들은 잘 가지고 있기는 해요(중국교육전문가 4).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지요. 조선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아요(중국교육전문가 9).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이 저는 역사적인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제시대에 독립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고, 그 후예들이 많이 있어요. 후예들이 여기서 용정 이쪽 지역에서 살다가 근대사가 되면서 조선족이 된 거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된 거죠. 뿌리는 어차피 같은 거고.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역사적인 빛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후예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도 있고 보람된 일이지요(중국교육전문가 5).

② 한국어, 언어적 정체성

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타국에서 태어나 중국어가 모국어처럼 사용되어야 하는 조선족 자녀들은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언어는 물론 민족정신도 배우게 된다고 하며 재외동포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학교에서의 규범적인 언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면 커서 배우는 것보다 배우기도 쉽고 민족정신 같은 것은 커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6).

주위에 한족이 많고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다보니 일상 교제 가운데서 한어와 조선어를 섞어 쓰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7).

나. 한국어 사용의 이점

재중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하게 되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 사용할 줄 하는 청소년들은 역량있는 아이들이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취업이나 사업에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이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청소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부모들과 조선말로 교류하니까 편한 점도 많고, 중국에 살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하지 않아요. 사회에 나와서 취직할 때도 한 개 언어를 더 안다는 것이 다른 애들보다 좋은 점이죠(중국교육전문가 6).

우리아이가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 또 굳이 경쟁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8).

애네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일단은 중국어가 되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로도 의사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들이에요(중국교육전문가 9).

(2) 교육적 환경

① 열악한 교육·문화적 환경

가. 교육적·문화적 공간의 부족

한국과 달리 재외국민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연이나 문화적 프로그램과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므로, 청소년 시기에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중국사회에서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청소년들이 마땅히 어떤 그 놀이문화를 할 만한 게 없다보니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피씨방, 카페 두가지 빼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하고는 다르게 개방된 놀이 공간이 없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공원의 공간,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돈을 내고 빌리거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에 가기 전엔.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처럼 몰려서 어울려서 놀기가 힘든 거죠(중국교육전문가 4).

한국에서의 생활과 달리 이곳에는... 도서관도 없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도 하나도 없어요...(중략)...영사관에 도서관을 세우라고 하고 싶어요...영사관에 문화담당 영사가 있을까싶지만, 그런 사람이 관리를 좀 해주고, 거기서 주로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과 공연들, 한국에서 데려와서 좀 공연도 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싶어요(중국교육전문가 9).

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자녀들

대도시 이주, 핵가족화, 부모의 한국 이주 등으로 인해 재중동포청소년들은 정서적, 가치관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서적인 혼란까지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선족청소년들이나 재외국민청소년들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시설 차단 정책의 부재로 인해 성인업소 및 유해업소에 노출되기 쉽고 스마트폰에 의지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부터 시작해서 정체성의 혼란, 그답에 어떤 학습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기 때문에 전문 상담선생님들을 좀 해서 아이들 심리 상담을,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 자영업자들이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갖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누군가는 상담을 해주면서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적되어 쌓아오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구요(중국교육전문가 4).

개혁개방 이후로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가족도 핵가족으로 바뀌고 또 주변의 학교도 교육기관도 없어졌고 그래서 현재의 조선족 차세대들이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민족교육환경에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8).

이곳은 알다시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서 술 담배 다 팔아요. (도우미) 노래방도 애들이 돈만 있으면 다 “어서 오세요”이죠. 애들을 보호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사실 아이들이 성인들의 성인문화를 금방 접할 수 있어요.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중략)...한국 문화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요(중국교육전문가 9).

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집중

한류의 열풍으로 중국 대륙에 K-POP과 더불어 아이돌, 드라마, 예능까지 아이들의 관심사를 끌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음악, 생활수준, 패션, 프로 축구까지 모든 수준에서 한국을 중국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게 되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이들 청소년에게 문화적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게 하며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제일 관심사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한다. 핸드폰도 한국의 삼성을 많이 사용해요. 관심사 면에서, 드라마도 좋고 예능 프로들도 우리 애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6).

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오락프로에 관심이 있다. 여성들은 송중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남자 애들 눈에서도 멋있어 보이죠. 한국의 문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7).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인터넷을 봐도 한국 꺼만 보고, 음악을 들어도 한국음악만 듣고, 영화와 드라마 한국꺼만 봐요...(중략)...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거에요...(중략)...자기는 한국에 살아보지 못했으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중국교육전문가 9).

라. 부모의 부재로 돌봄이 부족한 가정

참여자들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들 덕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다고 말하였다. 부모들이 곁에 있지 않다보니 성장 환경이 불안정하며 일상생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국교육전문가 8은 조선족으로 태어난 자체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지만 부모가 이를 키워주고 돌보지 못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현재 조선족 애들은 아주 불안정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 환경의 불안정성, 부모들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라서 애들이 생활을 완전하게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이런데서 꼭 큰 영향을 일으킬 거 같아요(중국교육전문가 2).

조선족의 현황이, 부모세대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부모를 못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고,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렇게 한국이나 대도시로 나가는 부모들이 떨어져 살다보니 가정이 깨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죠. 부모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보내주니까요. 용돈도 풍부한데 심리적으로, 가정이 깨어진 곳이 많으니까, 그런 아픔들이 많아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중국교육전문가 5).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천부적으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잘 육성하지 못하고 다 버린 거예요.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다 잘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계속 가면 굉장히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스스로 버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 버렸다고는 하지만 부모가 그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 거예요(중국교육전문가 8).

마.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재외국민청소년들의 언어 문제 발생

최근 재외국민청소년 가정의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정은 저학년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으로 엄마가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 부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와서도 언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갈수록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 즉, 중국 현지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이 아이들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의 이제 언어교육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인 엄마가 그 아이를 다 서포트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말을 잘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좀 처지게 되는 한국에 처한 거랑 거의 비슷한 다문화가정 아이들.. 한국 다문화는 또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엄마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제는 이 현지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보급되어야만이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 있는 아이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 초등 같은 경우 비율을 보면,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학년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고학년으로 가면 그 비율이 낮지만, 저학년들에는 뭐 한반에 대여섯명씩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20%에서 30% 그 사이에 아들이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는... 학교도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또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서포트 하려면 어머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어머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제반 여건들, 뭐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나 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전무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중국교육전문가 4).

(3) 재중동포 청소년 미래 삶과 진로

재중동포청소년들이 중국과 한국 교류가 많아질 국제 상황 속에서 한민족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이들이 한국과 북한과도 연계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민족의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한민족 발전의 인재로 성장 기대

국제적인 변화 상황에서 재중동포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이 한국기업의 정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과 한국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 속에 조선족 동포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선족, 나아가서 한민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중에는 전세계 발전을 위해서 한민족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 (중략)... 한국에서도 그렇고 애들이 커서 성공해도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자기 개인만 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사회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조선족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 한민족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중국교육전문가 3).

우리 중국은 큰 시장이에요. 국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족이 큰 역할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중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붙이는데 아주 큰 기둥이 되죠(중국교육전문가 6).

삼십년 사십년 후가 되면 정양학교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큰 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 교류는 갈수록 많아질텐데, 국경 개념도 지금은 벌써 없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어떤 수행에서 경제 문화 교육 여러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들이 정양학교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중국교육전문가 8).

② 한국에서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재중동포청소년들은 중국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정착하길 바라지만, 중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재중동포청소년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현지 문화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서 이 지역에서 취업이 돼서 한국인하고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중략)...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재외국민청소년)이 아이들의 취업 구조가 아주 열악해요.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임금 격차, 이런 게 존재하니까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아예 않고, 그냥 한국 가서 기업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만이 이 지역에서 한국과의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중국교육전문가 4).

현재 조선족 출신들이 중국의 한국 기업이나, 직접 한국에 가서 취업하는 현상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본다면 인재 노동력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중국교육전문가 7).

③ 미래 한민족 통일에서의 연계 역할 기대

한국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조선족은 북한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 통일이 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기 힘든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조선족청소년들은 이러한 미래 한민족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재중동포이지만 특수한 지리환경, 특수한 역사 시기에 있어요. 특히 우리의 우세는 한국과 북조선하고도 많은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민족의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들이 다문화 발전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중국의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기대를 해서 중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략)...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은 이 방면에 아주 큰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2).

앞으로 통일세대가 될 텐데 통일에 있어서도 북한하고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조선민족이 한국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5).

(4) 재중동포청소년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① 예산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재중동포청소년들의 민족교육을 위해서는 자금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교육시설, 기자재, 교사 수급에서도 일차적인 문제는 자금인데,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은 조선족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며 민족적인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후세들을 교육함으로써 조선족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후원이 잘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부족하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나서는 사람이 적어요. 문제는 자금이겠죠. 정규 학교가 없으면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없고 조금만 지나면 조선족이 없어질 거예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중심점이 되어 모여서 우리 문화도 지키고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중국교육전문가 3).

어머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제반 여건들, 뭐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그분들을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나 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전무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좋을거 같아요...(중략)...원어민 영어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제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페이가 약해요. 학교가 가지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다 보니, 늘 어려움이예요. 특히 원어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한국인 영어선생님만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보면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요(중국교육전문가 4).

파견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해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장기간으로 되지 않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끝내지 않고,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중략)...학교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 시설이죠. 교육시설, 기자재 등 무엇보다도 예산을 자체 부담을 해야 하

는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고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요(중국교육전문가 8).

② 교육적 환경 기반 구축

가. 한국에서 다양한 교사수급 요청

대도시지역의 조선족학교의 경우에 원어민 교사, 한국어 교사, 예체능 교사 등 교사 인력 부분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사범대학 출신의 선생님들이나 재학생들도 인턴제도로 와서 부족한 교사역할을 담당해 주길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사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사들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자문제나 예산부담 등을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재외국민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상담교사의 파견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치유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말과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조선족 교사를 양성하는 조선족 사범학교나 조선족 사범대학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지요...(중략)...타결책으로 한국에서의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이 더 활발하게 제공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사범대학 출신이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민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범대학 출신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인턴제도, 곳곳에 알아보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 또는 재학생들이, 삼사학년 재학생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중략)...예를 들어서 체육 선생님이 와서, 또는 무용선생님이 와서 우리말과 문화와 악기를 가르치면서 우리말로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죠. 한국어든 체육이든 기타 예체능이지요, 오히려 예체능 부분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로서 아주 유익하죠(중국교육전문가 8).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으로 상담교사들을 파견하여 늘 상주하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중국교육전문가 4).

나.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지원

참여자들은 한국정부가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등 다양한 능력 양성, 창의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운영 지원, 도서관, 책 보급 등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족 청소년들의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와 한국에서의 유학과 기업에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

우리 학생들, 역사교육이나 예의 교육이나 습관 교육이나 여러모로 우리 민족사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기대하고 많이 떠밀어주는 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족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한민족으로서 책임감, 앞으로 민족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방면에서 점점 가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조선어라고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습관 교육이 부과된 의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중국교육전문가 1).

우리 조선족 학생들의 진로지도, 인생관이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정확한 지도를 줄 것인가 이것도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민족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교본 과정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경을 통해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양성, 특히 창의성이라든가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런 면에서 많은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2).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책을 많이 보급해 준다면 지 그런 교육적인 지원을 해서 차세대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크듯이 계속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중국교육전문가 5).

우리 애들이 대학도 많이 갔는데 이 애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학이 쉬워지면 좋겠고, 거기서 유학한 뒤 실천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데 한국 학생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곤란하게 공부하는 애들에게 경제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네 장학금 같은 거도 할 수 있고 설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중국교육전문가 6).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던가 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류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중국교육전문가 7).

다. 한국과 문화교류 및 체험기회 확대 희망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며, 그 말 속에 역사와 문화가 있기에 그 부분에서 한국의 교사들이 절실함을 표현하였다. 조선족청소년이나 재외국민청소년 등 중국내 재중동포청소년들이 민족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 예술 공연, 발레, 댄스, 밴드, 성악 등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중국의 소규모 지역에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기를 절실히 희망하였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청소년들을 보면 조선민족문화나 이런 학습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외동포재단 같은데서 일부 조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민족문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중국교육전문가 2).

문화 공연팀이 좀 방문해줘서 군부대 위문공연처럼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한국학교에 와서 공연도 해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 가끔 있어요. 발레 팀도 오고, 성악 팀도 오고, 밴드 팀이 오기도 하고 댄스 팀이 오기도 하고 비보이가 오기도 하고 그런 혜택들을 가끔 보는데 여기서는 전혀 접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의 갈증이 심해요(중국교육전문가 9).

2)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교육전문가

한국 내 조선족 교육전문가와와의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 조선족 청소년의 꿈과 미래, 조선족 청소년 전문가의 교육적 노력과 실천, 한국사회의 교육적 지원과 제도 변화 요구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39> 참조).

표 V-39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	·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 사회 부적응과 부모에 대한 원망	
	· 학교 편입학 문제	
	· 정체성 갈등	· 국적과 문화적 갈등 · 청소년으로서 정체성 갈등
조선족청소년의 꿈과 미래	· 한국에서의 성공이란	
	· 한국어 공부보다 취업이 우선	
	· 목표가 없는 아이들	
조선족청소년 전문가의 교육적 노력과 실천	· 심리 상담 지원	
	·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	
	· 진로 상담을 통한 정착지원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	
한국사회의 교육적 지원과 제도 변화 요구	· 사회보장시스템 부재와 개선 요구	
	·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1)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

국내 조선족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조선족청소년들의 문제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과 부모에 대한 원망,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체성 갈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①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언어적 소통과 또래 관계 등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가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한자도 거의 기억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한국어나 중국어 모두에서 강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애들은 특성이 적응이 안돼서, 언어라든지 또래문화에 대해서 적응이 안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1).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보내주어도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요. 그 중에 잘하는 놈들은 어디 있어도 잘해요. 저는 거의 한자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 년 정도 지나면 한자도 거의 기억을 못하더라구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2).

② 사회 부적응과 부모에 대한 원망

중국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다 들어온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가정에 문제 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도 홀로 남게 된 자녀들은 친구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다보니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한다고 한다. 이는 부모들이 대책 없이 자녀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녀들도 준비 없이 한국에 오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로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은둔형의 아이들은 혼자만의 생활로 게임에 빠져 지낸다고 하는데, 향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우리 중국 들어온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가 주로 많은 편이에요. 특성을 보자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애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 여러가지로 그쪽에 엄마가 계속 놔둬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온 애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한결같이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 자식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죠. “나를 팽개쳐 놓고 이제 나를 데려와서 난 어떡하라고”...(중략)... 한국에 들어오니 친구도 없고 놀러갈 데도 없고 말도 안통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들어왔나?” 중국에 있을 때는 원망이랄까 그런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 적대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기 선생님도 꽤 학교에 애가 안 나와서 가정상담 해 보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우고... ‘엄마아빠 너무 고생하고 힘든데 왜 이러고 살까, 엄마아빠는 너를 위해서이다... 왜 나를 위해서이나 나는 원치 않는데’.... 차라리 중국에서 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1).

자기는 아빠가 너무 그럽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왔는데 같이 살고 싶은데 몰랐는데 아빠가 맨날 맨날 술을 먹는 거예요. 맨날 맨날 욕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한국에 와도 엄마와 같이 사는 애들이 극히 드물어요. 엄마들이 일주일동안 가정도 우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고 금요일 밤에 와서 주말만 보내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와서도 또 혼자인거죠. 거의 지하방에 사니까 컴퓨터도 없고, 오로지 이 핸드폰만 가지고 노는 거죠. 중학생인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녀석도 있어요. 엄마랑 통화해도 엄마가 있어도 통제가 안돼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2).

은둔형 애들이 게임중독 되어서, 사회에 관계를 안 맺으니까. 혼자만 생활하니까. 관계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봤어요...(중략)...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가면 그때야 이야기하고 혼자만 지내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이 애가 성장해서 어떻게 클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커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③ 학교 편입학 문제

조선족청소년들은 한국 학교 입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학교 시스템에 대한 중국 학부모들의 무지로 자녀들이 학교에 편입학도 되지 않고 필요한 기초서류도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한국 학교 교사의 이야기보다도 동포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확한 교육적인 정보를 얻고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녀 학교 편입학에 대한 정보에 혼선을 일으키며 결국 자녀만 피해를 보고 일 년 이상 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애를 데리고 중학교를 학교 입학시키는데 무슨 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가고 뭐 가면 선생님,,, 이런 걸 무지하다.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육 년 칠년 팔년 살았어도 (부모는) 한국학교 시스템에 몰라요. 어디부터 먼저 가야되는 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내 자식 새끼 잘 배우러 와라 하고는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1).

제가 알기로는 삼대일로, 그니까 학교 들어간 애가 일이고 밖에 있는 애가 삼으로 알고 있어요. 출입국 통계하고 보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더 많아요...(중략)...엄마도 문제예요. 학교를 정말 보내고 싶으면 여기에서 원하는 기본사항을 해줘야 되는데 학부모도 해 오라는 건 안 해오고, 애가 한국에서 잘 적응 못하는 것 같은데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17살 18살 사실 이 친구들이 문제인데 이때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동포사회 커뮤니티 내에서 잘못된 정보도 되게 많이 흐른다. 저희가 아무리 서류 안내를 해도 가짜 서류를 자꾸 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중략)...대부분 초중이라고 해야죠. 중학교까지 다녔다거나 고1 다니다 왔다거나 이 정도 까지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학교를 일단 멈추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들이 육 개월에서 일 년 정도 노는 기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연결이 바로 잘 안되니까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④ 정체성 갈등

가. 국적과 문화적 갈등

국내 조선족청소년들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부러운 생각이 있으면서도 중국보다 한국의 문화재의 규모가 작다고 말하기도 하고 중국을 더 큰 나라라고 생각하며 으스대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중국 국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국말이 편하므로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지에 대해 대부분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경복궁을 데리고 가면 선생님 너무 작아요. 너무 귀여워요. 자기네는 엄청 크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 전체라고 으스대는 거예요(조선족 청소년교육전문가 2).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부럽고 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막상 국적 시험 볼 때 너 중국 국적 포기해야 돼, 그러면 싫다고 하는 애들 많다. 아직 어린 애들은...(중략)... 중국에 재산이 있는 애들은 안 바뀌요. 중국에 자기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자기한테 줄 건데 자기가 한국 국적을 따면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못준다고 안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니가 한국 국적으로 바꾸면 니가 받는 혜택이 더 많다 그래도 싫어요. 그 집을 받아야겠다고(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2).

들어온 연령이 14,5세에 들어온 애들은 본인 혼자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오게 한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린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귀화라든지 신청이 받아진 애들도 한국 애들은 애를 중국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애들이 혼란을 겪어요. 나는 한국인이라고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중국인으로 대하고 그럼 나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혼란스럽죠(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귀화를 한지 이 년 된 친구들도 아직까지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분증에도 중국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본인이 익숙한 것이 중국어고 내가 십 칠년 십 팔년 살아 왔던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애들은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거죠, 중국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한국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일반 한국 애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같기는 해요. (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나. 청소년으로서 정체성 갈등

조선족청소년들이 국가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정체성 갈등 외에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정체성 갈등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책임도 지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며 걱정하였다. 이에

조선족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근원적으로 청소년으로의 삶과 정체성 정립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원도 다니다가 시험 한 번 떨어지면 포기하고 2년, 3년 계속 도전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원하는지, 어른이 되는건 뭔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게 뭔지 얘기를 하는 거죠...(중략)... 애네도 청소년은 청소년이구나. 근데 그게 내가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주는 애네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아이들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요즘은 많이 느껴요... (중략) ... 그래서 요즘에는 정체성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애네들도 똑 같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돼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2) 조선족청소년의 꿈과 미래

① 한국에서의 성공이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조선족 부모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성공 기준을 돈에 두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을 살리기 위한 교육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나 장사 등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생각은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조선족청소년들이 학업보다는 취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있었을 때는 너 공부해서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국에 와보니 “돈이 있으면 다야.” 이런걸 알게 된 것 같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하지 않았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중국 어머님들이 되게 많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② 한국어 공부보다 취업이 우선

조선족청소년들은 언어적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취업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돈벌이를 해도 상당수 유흥비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 학교로 가려는 청소년들

이 적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일부이고 대부분은 취업을 우선시함으로써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애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그냥 놀지는 않아요. 남자애들은 동대문에 가서 짐을 날라주는 그런 것 해서 하루저녁에 십 만원씩 받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실제적으로는 집 안에 있거나, 정말 니트족이라고 하자나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기의 유흥비 정도만 버는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보다 돈을 빨리 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지 1,2년 정도 후에 애들은 돌아가고 싶어 해요 (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냥 돈이나 벌어라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마인드가 어떤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야겠다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냥 돈이나 벌어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은둔형으로 있다가 언어가 필요 없는 공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학교 밖의 기관으로 와서 한국어 같은 대안학교를 받는 형태가 거의 전부였다고 보시면 되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일부분이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③ 목표가 없는 아이들

대부분의 조선족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없고, 학교에 오기를 거부하고 학업적인 케어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에 살면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물론 본인 의지가 아닌 부모의 뜻에 따라 들어온 자녀들도 타지에서 언어적으로도 소통이 안 되며 점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무엇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삶의 목표에 대한 제시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혼자 무슨 조직 그런데서 십년을 다니다가 엄마가 애를 찾아서 십 년 만에 데려 온 애도 있다. 온몸에 문신이 있었어요...(중략)...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없

어요. 애들이 학교를 오다가 말다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2)

여기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애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애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하기 싫으면 우리도 하기 싫어.”라고 해요. 애들 그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부모님도 안쓰러워서 안 보내요. 그냥 조금 나이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애가 의욕이 없고 하니까 엄마는 포기하기도 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3) 조선족청소년 전문가의 교육적 노력과 실천

① 심리 상담 지원

현재 조선족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과 교사들은 여러 환경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대화를 시도하며 가정 내에서 부모가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의 재혼과 그에 따른 다른 형제의 출생 등의 가정상황으로 조선족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으며 더욱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다려주셔야 하고, 부모님의 역할,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사실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같이하면서 가족의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부모님들이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입양가정이거나 재혼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심리 정서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심리정서 사업도 하고 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내가 왔는데 아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꼬맹이가.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 동생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예쁘고, 나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감정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기간들이 길어서 오히려 부모님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맞는다며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부모님이 있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심리상담을 통하여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돈이 왜 중요한지, 나는 왜 중국에서 태어났을까 식으로 고민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 질문의 시간을 몇 회기 가졌을 뿐인데도 의사결정이나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지더라구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②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

현재 조선족청소년들을 포함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안내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기술적 안내나 한국어 교육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며,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은둔형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심인 것 같아요. “너 오늘 왜 수업 안 와? 내일 꼭 와? 또 내일 안와?” 그러면서 또 전화해요. 그 200명 되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다 전화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걸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네팔 아이라던가 인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웃고 농담을 할 때는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대를 시켜주고 맨 처음에는 밥을 따로 먹게 했어요. 반찬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이 애들이 더 소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애들을 막 순서대로 앉게 하고 이 애들 식판만 따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섞어서 먹고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③ 진로 상담을 통한 정착지원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돈벌이보다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된 직장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입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인정받는 학력이 되도록 단계적 한국어 교육을 하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족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돈을 지금 벌면 한 달에 10만원을 벌 수 있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돈을 벌면 한 달에 20만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께 얘기해야 하는 거죠. 자립을 기본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정서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정방문을 하고,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부모님 역할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죠...(중략)...한 아이는 무학으로 아무데서도 써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알바도 못했어요. 이런 친구를 저희가 운전면허학원을 등록을 시켜서 면허 시험을 3번 만에 붙였어요. 이제는 지게차 운전을 시키려고요. 자격증을 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상담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재능이나 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살려주는 거고, 아이마다 다 다르고, 가정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가는 거죠(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세상이 대림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한국은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그러려면 한국어부터 잘 해야 하고 기본학력도 맞춰놔야 너희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눈앞에 일단 돈이 급하고 부모님도 그런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요...(중략)...학교와 센터를 연결해서 주말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아야하니까 검정고시,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어느 정도 중급 3단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검정고시 진입을 시켜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인정해 줄 만한 학력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④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중국에서와는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기관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공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배우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선족청소년들이 한국사회 또는 세계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업이나 취업 이외에 봉사와 같은 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가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주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 아이들이 익숙한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가

그래서 쓰레기를 주울 때 마다 말을 해요. “이거 담배 누가 폈어요?” 애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일모레 봉사활동을 가요...(중략)...토요일날 구로구에 있는 노인돌봄센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서 추석선물도 전달하고 말벗 서비스도 하기로 해요...(중략)... 아이들이 내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국의 어려우신 분들을 나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4) 한국사회의 교육적 지원과 제도 변화 요구

① 사회보장시스템 부재와 개선 요구

조선족청소년들은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향후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자녀들에게도 사회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엄마가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익숙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기초 수급자라든지 뭔가 사회보장이 되는데,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H2, F4 비자 전부 다 여기서는 사회보장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1).

연령은 동포의 자녀들은 늘려 놓았지만, 취업하고 할 수 있는 걸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한테만 열어 놓은 거예요. 24세까지 늘려놨으면...(중략)...아직까지는 부처 간 지원은 초기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정책 가운데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중략)...다문화가족 지원법에는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혜택 없어요. 그 법에는 청소년을 언급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귀화를 해야 하는 거죠(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대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동포와 비동포로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있는데 애네들만 떼어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이해가 되지만

큰 법이 없는데 딱 동포 자녀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1순위 대상을 동포 자녀를 넣고 2순위, 3순위를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중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되면 지원단체를 지정한다거나 단체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②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조선족청소년들이 한국어 사용의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기술과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학교, 이주배경학교, 대안학교 등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을 돕는 학교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와 취업 훈련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협력하여 만들고 동북삼성 아이들만이라도 MOU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업에 있어서도 동포청소년들 같은 경우 다솜학교 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십년 동안 나름대로 인프라를 갖춰서 한국학교에 적응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중국 동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혀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1).

저는 한국어가 안 되는 아이라도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를 많이 문을 열든가, 직업학교 같은 데를 많이 연결해서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우면 살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아이들이나 중국아이들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2).

중국어 특화한 국제학교나 중국어를 특화한 학교를 우리는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는 기본으로 배우고, 그게 똑같이 중국에서 하면 중국어는 기본이고 우리 민족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요. 난 그래서 이 모델이 결국은 조선족 학교의 모델이라고 제안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요즘은 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런 것도 수원에는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동북삼성에 학교만이라고 애들을 보내기 전에 한국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그거를 다 그러니까 교류 MOU를 맺은 학교들은 그거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이 집어넣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와서 애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성년이 되기 전에 귀화를 하든 자격증을 따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언어가 그렇게 빨리 느는 것이 아니니까 한국인들과 경쟁하고 살기에는 어렵죠. 자격증을 따.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만 해서도 안 되고, 진로만 해서도 안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해요 (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6).

③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조선족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의 이원화, 양극화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우리사회 구성원은 물론 이주배경의 가족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아이들의 재능이라든가 적성을 잘 살펴서 재출발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이 애들을 활용하느냐, 필리핀, 베트남, 탈북에서 들어온 그 애들도 인적 자원 면에서만 본다면 나는 오히려 중국 동포애들이 활용할 가치가 더 높지 않나 생각해요(조선족 청소년교육전문가 1).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그래도 미래의 인적자원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돈 없으니까 재단에서라도 출자해서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싶어요(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3).

계층 상승이 어려울 꺼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층이 이원화 또는 양극화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층이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 이 교육적 수준들이 아이의 각각의 수준에 따라 재능과 그런 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4).

사회는 물론 가족 내에서도 남편의 사고도 바꾸고 시어머니의 사고도 바꾸어 동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사고와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선족청소년교육전문가 5).

3) 중국거주 조선족 학부모

중국거주 조선족 학부모와의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한민족정체성, 한국문화와 한국어, 자녀들의 진로와 스스로의 선택의 존중, 한민족 정체성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으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40> 참조).

표 V-40 중국거주 조선족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민족정체성		• 한민족정체성을 지키는 삶
		•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한민족정체성을 가진 청소년
한국 문화와 한국어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
		•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한국어 사랑과 한국어 올바른 사용
자녀들의 진로와 스스로의 선택의 존중		
한민족정체성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필요		

(1) 한민족정체성

① 한민족정체성을 지키는 삶

면담 대상의 조선족 학부모들의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 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조선족 학교에서의 부모공경, 어른공경, 예절 교육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 한국식 이름을 통하여 한국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있으며, 한민족 문화를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족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교육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애가 중국어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가야하나 한국어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가야하나, 와이프와 싸우면서도 끝내는 우리말로 우리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쪽으로 인도했고, 애 이름을 지을 때도 이미 그걸 고민해서 이름을 딱 보면 아예 한국식으로 지은 이름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어서, 애가 한국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지금 다니는 학교에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만족한다. 중국학교와 조선족 차이점이 예절에 관한 교육인데, 한족학교에서는 잘 못한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예절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선족학교에 너무 만족한다. 애들도 적응이 되어서 잘 성장하고 있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첫째로는 한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애가 지금 문과생이다 보니 이 부분에 상당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 민족이라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한민족 백의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야한다(중국조선족학부모 4).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생각한다(중국조선족학부모 1).

②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한민족정체성을 가진 청소년

조선족들은 한국인이나 중국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것이 한민족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족청소년들은 중국이나 한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하는 것 보다는 이 둘의 문화를 포괄하는 한민족문화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으로 커도 안 되고 중국인으로 커도 안 된다. 이런 유형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조선족 학교가 최적인 것 같다. 여기 다녀서 민족 문화에 대한 습격도 느낄 수 있고 장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화도 많이 갈라져서 조선족 문화도 형성되고 있고, 조선족 문화를 깨우치면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고 생각한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한민족정체성)은 애들이 필요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더 좋겠다. 중략...우리는 중국 사람이지만 조선 사람이어서 조선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중국조선족학부모 2).

(2) 한국 문화와 한국어

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

조선족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방송, 드라마, 음악, 예능도 한국 것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한다. 집에 한국 책이 많고, 그걸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집에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자체가 kbs, sbs에 나오는 드라마를 본다거나, 무한도전이라든지 런닝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슈퍼 뽀빠라 그런 유형으로 애들이 접촉하고 보고 있다. 특히 아이돌을 좋아한다. 음악을 따라하면서 애 자체도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중국조선족학부모3).

나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 이유는 한국문화가 재미있고, 음악이랑 연예인이랑 전통음식이랑 다 좋아서 관심이 많다(중국조선족학부모 2).

②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조선족 자녀들은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와 풍속, 습관,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 역사 등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한국뉴스나 문화 등을 접하고 있다...우리 조선민족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와 풍속, 습관, 예절 등을 받아 온 원인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어려서부터 조선족으로서 가정에서 계속 한국어를 일상용어로 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켜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다(중국조선족학부모 1).

우리 애는 한국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집에 한국 책들이 많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그런 책들, 그걸 보면서 컸기 때문에 애가 지리나 역사나 우리민족에 대한 고구려, 고조선 시대 역사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

이 관심을 갖고 있다.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한국문화에 상당히 애정, 관심을 갖고 있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③ 한국어 사랑과 한국어 올바른 사용

조선족 부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한민족의 말을 꼭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 자녀들이 인터넷 문화를 접속하면서 우리말의 규범화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말의 규범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조선족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조선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말을 버리지 말고 꼭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중국조선족학부모 1).

나는 주로 애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나는 한국어가 더 편하고 입에 오르기가 좋다(중국조선족학부모 2).

스무말로 하면 그중에 한 마디 두 마디가 중국어다. 한국말을 많이 한다. 습관이 되었다. 모국어가 한국어라서, 한국어가 편하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애가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글짓기에 특성이 있다 보니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중국조선족학부모 4).

(3) 자녀들의 진로와 스스로의 선택의 존중

조선족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미래 꿈이나 직업에서는 중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중국문화를 접하고 산 특성이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아이가 원하는 직업, 미래에 발전이 되는 방향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부모로서는 자녀가 중국 정부의 특별 혜택으로 우수한 직장,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 바이다(중국조선족학부모 1).

중국에서 직업을 갖길 원한다. 중국에서의 직업이 훨씬 더 우리 민족의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족으로 크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중국 쪽의 문화를 접하다보니,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애가 우리 민족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언어에 대해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도 잘하고, 저보다 낫다. 영어도 배우고 있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있어서 언어 쪽, 그리고 자기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 직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잘 적응 할 것이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전에 물어도 봤고 많은 대화방식으로도 진행되어 왔는데, 애는 확고하게 대학교 교사를 원하고 있다...애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데, 글썄요. 애가 여기서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겠다. 혹시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중국조선족학부모 4).

중국이든 어디든 자녀가 미래와 발전에 이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든 지지할 것이다...우선 직업이라는 게 자녀가 자기 흥취를 가지고 미래에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중국조선족학부모 1).

우리 애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애한테 더 좋은 길로 선택하겠다(중국조선족학부모 2).

(4) 한민족정체성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필요

조선족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한민족적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민족적 특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민족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말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또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청소년들을 교포로 정당하게 대우해서 자유로운 입출국과 취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애들한테,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나 대중동포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쪽에서 한국 문

화적 특성을 갖고 조선 민족학교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콩쿨을 조직해서 상장을 발급한다든지, 특별한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 민족 언어를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학교도 못한다.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상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아이는 민족적 자질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자격증 같은 게 좋을 것 같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사회적으로 중국사회라 할 때 한민족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것이고, 우리말의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문화가 애들이 인터넷 문화를 접속하면서 우리말의 규범화를 잊어먹고 있는 것 같다(중국조선족학부모 4).

민족 정체성을 키우는데 한국에서 해줄 만한 게, 교포라고 인정되거나, 민족정체성은 핏줄로 연결되지 않나,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니까 이 책에 기술된 사람은 한국을 마음대로 방문한다. 지금처럼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우리 후세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중국조선족학부모 3).

도움보다는 좋은 교육과 직장,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재중동포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중국조선족학부모 1).

4) 한국 내 조선족 학부모

한국 내 조선족 학부모와의 면접조사를 근거로 이중정체성, 문화갈등과 적응의 어려움, 중도입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41> 참조).

범주	대주제	소주제
이중정체성	• 국가 정체성 혼란	
	• 불완전한 한국인이자 한민족인	
	• 국적에 따른 정체성 변화	
문화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	• 중국과 다른 한국문화	
	• 언어 소통의 문제	
	• 친구관계에 대한 불안	
	• 차별과 편견	• 중국 사람으로서 겪는 차별 • 한국사회의 외국인 편견과 자녀에의 영향
	• 자녀교육	•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 놀고 싶고, 카드 쓰고 싶은 아이 •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과 편입학 실패
	• 자녀의 진로 : 자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	
중도 입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지원	• 한국적응과 학교 관련 상담	
	• 편견 없는 한국사회	
	• 외국인 위한 제도적인 정책 변화 요구	

(1) 이중정체성

① 국가 정체성 혼란

조선족 사람들은 중국사회에서는 한국인,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인 조선족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뿌리는 한민족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중국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냥 거기서 컸으니깐 중국인으로 알고 지냈지요. 그리고 조선족으로도 생각했지요, 저희는 중국 사람이라구 구분 없이 그냥 컸어요. 부모님은 조선 사람이고 그냥 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직은 낯설고 그렇지요.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니깐 아직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지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조선족이라는 자체는 사실 조선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중국에 가면 저희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중국사람 조선족. 중국에 가면 우리보고 역시 조선족이라고 하고 가끔 헛갈려요. 축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중국을 응원해요 한국을 응원해요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중국을 응원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을 응원하나 중국을 응원하나를 물어보면 한국을 응원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잘못 이해하더라구요. 한국에 와서 니가 한국을 응원한다고 하면 “야! 너 아버지?” 약간 그렇게 해요. 어 저 꼴 봐라. 아부하는 것.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앞에서 안 해도 뒤에서 해요. 그런 분 계세요. 좀 알밋잖아요. 아예 중국을 응원한다고 해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도대체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너는 조선족 동포라고 하고 중국에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그 사람한테 못 따라가거든요. 밀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약간 한마디로 딱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민족으로 생각하시냐? 맞아요. 솔직히 뿌리는 한민족이죠. 역사를 따져도...(한국조선족학부모 4).

② 불완전한 한국인이자 한민족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현재 한국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군대나 대학도 가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다.

여기 와서 본인이 한국국적이고 군대도 가야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한국사회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가야하고 대학은 꼭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싶어해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한민족으로 생각하죠. 아버지, 어머니. 다 한국국적. 한국인, 중국인 떠나서 한민족으로 생각해요(한국조선족학부모 6).

③ 국적에 따른 정체성 변화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성장해서 보통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구분 안한다고 한다. 또한 무리지어 중국인으로 몰아가거나 하면 중국사람 편에 서기도 하는 것을 보면 민족에 대한 의미보다 국적에 대한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 역사를 크게 구분 안 해요. 예절은 한국예절 가르쳐 주어서 잘 지켜요. 우리는 한국음식도 하고 중국음식도 하고 잘 먹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3).

초등 친구들 100명 되는데 단체 톡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국 국회의원이 11억 거지 떼라고 발언한 것 있어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친구들이 모두 조선족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사람 편에 서요. 제가 보면 지금 민족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국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2) 문화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

① 중국과 다른 한국문화

조선족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등에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인사나 질서지키는 것 등 예절부분에서 중국과의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인사도 잘 하고 중국은 예절 잘 안 지키지요. 인사하고 이런 것도 많이 중시 안 해요. 그런 것이 편했는데, 여기서는 인사도 몸으로 표시해야하고 질서도 잘 지켜야 하고 아직은 서툴러서 좀 힘들지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인사법부터 해서 중국에서는 깍듯이 인사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아직 문화 등이 익숙치 않아서 예절 같은 것들이 달라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워요. 요즘에는 몸에 익어서 좀 나아졌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하지만 문화 차이가 좀 있어 그런 점에서 힘들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② 언어 소통의 문제

언어문제는 소통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취업의 어려움이 생기고, 혼자 외부에서의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겪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재혼이라는 개인적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새아빠와의 소통에서 언어적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언어, 언어문제, 소통이 안돼서....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직장문제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한국조선족 학부모 4).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거피 좀 관심이 있어요. 조용하고 착한 편이에요. 여기 와서 센터서 공부한다고 힘들지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도 혼자서 밖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해요. 초등학교 1-2 학년 수준이에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아빠와 관계는 아직 3개월밖에 안되서. 아직 완전히 친해지지 않아서, 새 아빠는 아이가 워낙 크니깐 많이 이야기는 안하지요. 원봉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소통이 잘 안돼서 세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중국말로 하면 제가 한국말로 통역해 주시깐 아빠가 너가 혼자 한국말로 해라고 하고.. 서로 답답해서 oo인 말 잘 안하려고 해요 (한국조선족학부모 2).

침 왔을 때는 긴장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왜 엄마 따라 한국에 와서 고생시키냐고 엄마가 중국 가서 살면 되지 힘들게 한국어 하라고 하냐고 침에 그랬죠...(중략)...엄마 내가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해? 엄마 나 한국국적 따야 해?” 그러면서 약간 애도 혼란스러워 해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③ 친구관계에 대한 불안

조선족 자녀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원하지만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으로 쉽게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여자4는 자녀가 휴대폰 게임과 사회 적응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혼나는 일. 스트레스 많아요. 계속 핸드폰 보고 공부도 하지만 게임 많이 해서 좀 혼나요. 또 아이가 집에서 심심하니깐 집에 강아지를 못 살게 괴롭혀요, 그거 못하게 하면 대들고 화내고 강아지를 때리고 싶다고 해요. 새아빠랑 고모에겐 못하니깐 제게 짜증내고 대들고 해요. 항상 요즘 엄마에게 화를 내고 강아지를 못 살게 굴어요. 한 번씩은 속이 답답하다고 해요. 밖에 나가 고함치고 싶다고...(중략)...실질적으

로 밖에 나가면 보호자가 없으면 전혀 생활이 안돼요. 언어도 말도 안되고 생활을 전혀 못하고 학교도 전혀 못 다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겠는데...그게 가장 힘들지요. ○○○이 적응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은 노력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해요. 큰 일이 생길 때, 저는 조금 어려움 느껴요. 희준이도 노력해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왔잖아요. 전 우리가 노력하고 잘 하면 괜찮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3).

④ 차별과 편견

가. 중국 사람으로서 겪는 차별

조선족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후진국이라는 한국인의 인식이 그 외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대하여 차별하고 있어서 중국인으로서 겪는 차별의 강도를 더욱 힘들게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앞에서는 안 그래도 차별 같은 거 있지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중국 사람이라고 쳐다보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좀 못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 차별은 있어요. 중국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말투를 알고 중국 사람인 것 바로 알지요. 저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중국에서 왔다면 못사는 나라서 왔다고... 중국에서 왔다면 팔시 받는다고 아직도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색안경 쓰고 보고 한국어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새아빠도 걱정해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얹어 보는 거예요. 일 많이 시켜요. 관리자가 아니어도 막 시켜요. 회사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일 막 시켜요. 지금은 좀 낫죠. 일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나보고 화나면 난 그거 안 참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5).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아직 차별을 느껴요. 결혼이민자 서로 얘기 하는거 들어보면 이런 물건을 보면 중국은 이런 물건 없구나라고 하고...(한국조선족학부모 6).

나. 한국사회의 외국인 편견과 자녀에의 영향

조선족 부모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편견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이니까 게으르고 일 안하려고 한다...중국은 이런 물건 없을 꺼다”라고 여기는 한국사회의 편견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편견은 조선족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나중에 자녀들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연히 한국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지금 말로는 편견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니깐 당연히 나도 편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니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그거에 대해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중략)... “뭘 범 죄를 저질렀어. 저 중국 사람이잖아요. 어 축구 참여. 너 누구 응원하나 ? 물어보자나 요. 솔직히 그 자체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에 사실은. 아예 그냥 맘에 아 그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한사람 잘못 저지르면 어 중국 사람들은 다 그래. 약간 몰아붙이는 느낌(한국조선족학부모 4).

제가 일하는 데서 느끼는 건 게으르고 일 안하려고 하고 우리 교포나 외국인이 더 일하려고 하고 외국인이라고 우리 지금 생활에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보면 느껴요...(중략)... 애가 크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돌림 받을까봐. 학교폭력 문제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없어서 좀 불안해요. 한국말 잘 모르니깐 예를 들어서 아주 하기 안 좋은 일을 제가 다 해야 되고...(한국조선족학부모 6).

⑤ 자녀교육

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조선족 부모들은 언어가 안 되니 자녀들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취업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자녀들은 한국말을 배워서 공부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어하는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것 못하니깐 답답해하며,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어 문제가 혼자 생활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한국사회 적응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앞으로 언어 안 통하면 일자리가 막히니깐 언어를 해야 하는데 애들인지라 열심히 안 해서 문제이지요,,,(중략)... 한국에 와서 도전하고 뜻을 펼쳐야 하는데 언어를 모르니깐 어려운 점은 애가 한국말 배워서 공부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어하는데, 여가서는 하고 싶은 것 못하니깐 답답하지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자녀교육하면서 어려움이 한국어교육이지요. 전 직장 다녀야 하니까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깐. 혼자 살아야 하니깐, 한국사회 적응이 가장 문제지요. 한국어 문제가 가장 커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아이가 한국에 와서 적응 할 시간에 없이 바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도 집에서 1년을 놀았어요. 애들 데리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싸 들고 1년 뒷바라지 했죠. 침에는 불만이 많았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나. 놀고 싶고, 카드 쓰고 싶은 아이

자녀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걱정은 한국 부모나 중국 부모나 같은 고민거리 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의 적응의 어려움을 핸드폰 게임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카드 사용이 많은 자녀는 부모의 부재나 부적응을 소비형태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걱정은 공부 안하는 거예요. 공부는 좀 게을러서 잘 안 해요. 물어보면 ‘항상 친구들과 잘 지내요’ 하고 말은 다 안 해요. 저는 공부하라고 하고 일찍 오라고 해요. 엄마는 스스로 하는 것을 원해요. 친구들과끼리 다니면 공부는 안하고 언어도 중국말만 해서 걱정이예요(한국조선족학부모 3).

당연히 휴대폰이겠죠. 휴대폰 놀지 말라. 아기는 놀고 싶고 한번 그만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혼나는 거죠. 거짓말하면 혼나죠. 혼나면 울어요. 또, 며칠 지나면 사과하고. 침에는 많이 혼냈죠. 침에는 잘 모르잖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카드 너무 많이 써서 쉬는 날에는 아침에 안 일어나요. 쉬는 날에는 점심에 일어나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자요(한국조선족학부모 5).

올해 들어서 공부 때문에.. 애엄마가 한국말 하니깐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데요.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다고. 주로 공부하는 일 때문에 놀아가면서 맘이 공부에 없고 노는데 있고 엄마가 말하면 공부하고 많이 혼나요(한국조선족학부모 6).

다.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과 편입학 실패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들의 언어문제와 더불어 학교 가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학교 입학 정보 부족으로 자녀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달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데 이를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듣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아이 학교 보내는 정보도 제가 일하는 사장님이 알려줬어요. 일 하는 데만 가니깐 알아볼 수 없어요. 걱정은 애가 또래와 어울리고 배우는 것이 빨리되었으면 해요. 부모가 일만하는데 걱정은 많이 하고 어디 보내야 할지 잘 몰라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공부는 하려고 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해요. 중학교를 다 공부했는데 졸업장이 없어서... 고등학교로 갈 수도 없고, 검정고시를 봐야 해요. 아이가 학교 다닌 기록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증명을 못 가져왔어요... 앞으로 군대도 걱정되고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이가 한국어가 안 되서 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데 몰라서 어려워요. 지금은 대안학교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교문제가 가장 걱정이 커요. 지금 아이가 친구도 하나 없고, 접촉할 친구도 없어서 정말 걱정이 커요. 요즘 엄마랑 대화는 주로 학교 관련 문제 물어봐요. 지금은 학교 가는 것이 제일 걱정이지요. 앞으로 대학교도 보내야 하고...제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어느 학교를 가야하나 정보 없고 친구들 설명 듣고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어디 학교 보내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일 큰 걱정이 희준이 학교 가는 거예요. 언어공부도 그렇고... 저는 한국어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직도 공부하는 건 말을 안 듣지요, 한국어 해야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울면서 애기도 했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3).

⑥ 자녀의 진로 : 자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가 언어(한국어)를 잘 배워서 적응하고 대학까지 가면 직장을 잡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나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정착하여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어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갖거나 노력만 한다면 한국사회 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잘 적응하고...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언어하고 공부해서 직장 잡아서 취직하면 좋겠어요...(중략)...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두 나라 연결하는 일 하면 좋지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자격증 따고 직업도 좋은 것 가질 텐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날이지요...(중략)... 자신이 꾸준히 해야 하는데... 직업은 한국말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하지요. 컴퓨터도 잘하고 언어만 되면 한층 더 올라가야지요. 중국말은 여러 발음과 의미가 있으니깐 잘하는 우리 애들이 한국어만 되면 정말 좋은 직업가질 수 있지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공무원이나 전문분야 했으면 합니다. 저처럼 힘들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할 일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할지 재능이 무엇인지도 몰라 제일 걱정입니다(한국조선족학부모 2).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을 가지면 공부 잘 할 거예요. 아이들이 넘 몰라서 아직 포부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공부를 잘 해야지 너가 원하는 일 하지’라고 말해요, 근데 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몰라요... (중략)... 공부 못하지만 이런 학교 가서 기술 한 가지 배우고 공부하고 졸업해서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려우면 기술 배워서 졸업하고 직장잡고 나중에 대학가도 되고... (한국조선족학부모 3).

학교 졸업하면 직장문제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이제 직장 다니고 고등학교 생활도 그렇고 더 크게 나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정보도 부족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야겠죠...(중략)... 지난 번에는 자기가 과학자 된다고 했는데... 자주 바뀌어요. 나는 설계사 그런 걸로. 사무실에서 연구하고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내가 생각이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해요. 나는 아이의 희망 직업이 (관광) 가이드인데, 아들은 요리사래요(한국조선족학부모 5).

애는 나중에 커서 애기 능력에 따라서 애한테 맡길 거예요. 저의 애는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한국에서는 게으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중국에서는 장사는 할 줄 모르고 다른 거 해도, 회사 다녀도 나이가 많고 취업에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6).

(3) 중도 입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지원

① 한국적응과 학교 관련 상담

조선족 부모들은 한국문화, 학교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일하는 부모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 멘토링제도는 중도입국자녀들의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부모들은 청소년센터나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자녀들이 언어와 학습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는 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조선족 자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부모가 자녀의 학교 관련 상담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학부모 서비스 제도와 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센터 같은 것 있으면 좋겠네요. 전문적으로 학교관련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한국조선족학부모 2).

학교를 가고 싶는데 아직 너무 몰라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집에 없으니깐 알아볼 시간도 없고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나중에 진짜 걱정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할 일이 없고 고생하는 것을 몰라요. 자리를 잘 잡고 학교 다니는 것 어떻게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런 정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정보 정말 우리 몰라요 (한국조선족학부모 3).

대학생들 멘토링이 좋은데 센터가 방학이라서 갈 데도 없고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 또 걱정이예요. 멘토 대학생 시간도 너무 짧아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센터에 다니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어디에서 한국어도 못 배우고. 비가 오고 늦게 일어나도 꼭 가야한다고 하고 매일매일 가요(한국조선족학부모 2).

② 편견 없는 한국사회

조선족 부모들은 한국사회 내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서 자녀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며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들도(조선족) 더 노력한다면 한국 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사회 내 제도적 차별이나 편견도 사라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회가 우리까지는 편견이 있고 편견은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데는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금만 물러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참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제대로 하면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깐 모든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한 발자국 멀리서 볼 때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건.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아 우리가 조금 더 품어주자 이렇게 말한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을 좀 더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나쁜 말 듣지 않게끔 노력해야죠.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같이 융합하고 그런 사회, 앞으로 되겠죠? 같이 합시다(한국조선족학부모 4).

불만이 있는게 한국 사람들은 애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나라에 지급해 주고 한국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우리 영주권도 있는데 왜 한국 사람만 해주고 중국 사람은 안해 줘요? (한국조선족학부모 5).

③ 외국인 위한 제도적인 정책 변화 요구

조선족 부모들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귀화 정책의 완화, 사교육 개선, 학교교육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동포의 귀화제도 중 추천인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녀와 관련하여 한국의 학교교육이 충실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며 학원으로 몰려 가 자녀들이 어울릴 친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사교육 의존 현실이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친구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아쉬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
져요. 돈 때문에도 걱정이예요. 학비가 비싸잖아요(한국조선족학부모 1).

사교육, 한국의 사교육 너무 맘에 안 들어요. 지금 보면 학교는 약간 그냥 학교. 이름
만 학교. 속이 없어. 겉모습만 있는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인가 그냥 보여주는 교육인가 그런 거잖아. 교육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학교 원래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야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지식을 왜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건지? 사교육 좀 아쉽죠. 학교에서 좀 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EBS 듣고 인강 듣고 좋은데 애들은 하교하고 다 학원가잖아요. 끝
나면 다 학원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한국조선족학부모 4).

우리 외국인 정책 좀 더 늘려줬으면... 저도 한국 국적 취득하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일반귀화로 신청해야 되는데... 변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이 추천해
야 되는데, 저는 건축업을 하니깐 이런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하니깐 신청하고 싶어도
안 되고 정책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한국조선족학부모 6).

3. 소결⁹¹⁾

1) 재중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재중동포청소년은 동포유형별로 한민족 관련한 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국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조선족(한글) 학교 재학경험,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등의 생활실태, 한민족정체성, 미래 인재 역량, 교류 경험 및 한민족 공동체 참여 욕구, 동포사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족(한글)학교의 재학 경험은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을 대도시 지역의 조선족청소년보다 조선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한계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 국내 조선족청소년과 그 경험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조선족(한글)학교 경험 결과는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조사결과,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46.2%만이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중도 입국하는 조선족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한글이나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청소년들의 조선족(한글)학교 입학은 부모의 권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교육에 대한 조선족청소년 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외국민청소년에 비해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국내·외 조선족청소년들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가 많고, 조선족청소년의 미래의 삶을 한국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민족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민족이고, 자신이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등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등 한민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부족이나 한국 입국 후의 부정적인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미래 인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

91)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미래 인재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창의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미래 인재 역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국내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미래 인재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2) 재중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

중국과 한국에 있는 재중동포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 발전을 위한 인재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중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내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점차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어서 한민족정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학교 이외에 여가시간을 지낼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부족하여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들이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외국민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학비부담의 문제, 다문화가정 증가의 문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체성 교육을 위한 민족학교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해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재중동포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남북통일의 측면에서 미래 한민족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한민족정체성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학교 등의 지원을 위해서 예산과 다양한 교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내 조선족청소년 관련 전문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청소년들은 언어소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사회적응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그 원인을 부모에 두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 선택에 대한 갈등 이외에 일반 청소년들이 갖는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지 않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입국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고,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동포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정규학교 입학에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주배경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 지원, 그리고 진로 상담과 취업을 위한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선족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족 가정의 우선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의 재능과 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거주 조선족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족 학부모들의 경우에 한민족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우리말의 규범화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하고 있으나 중국 내 직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한민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한민족정체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한민족적 자질 향상을 위한 장학금, 상장 및 자격증 발급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우리말의 규범화 추진, 교육, 취업, 문화교류 등을 위한 자유로운 한국 방문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 내 조선족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입국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국적에 대한 인식과 선택과 관련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문제, 또래관계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문제 등이 있으며, 한국학교 입학 정보 부족으로 인한 편입학 실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학교 적응과 관련 상담 지원, 외국인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국인을 위한 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 VI 장

재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1. 재미동포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 분석
3.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 VI 장

재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제IV장에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개괄해보고자 한다.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조사는 첫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둘째, 재미동포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셋째, 재미동포청소년 교육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재미동포청소년의 생활 실태,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능력,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한글학교 현황 및 개선방안, 모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차례로 제시되었다.

1. 재미동포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분석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재미동포청소년은 541명이다. <표 VI-1>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청소년의 성별, 거주 지역, 미국 거주기간, 평균 연령을 청소년의 학교형태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체 541명 중 남자 청소년은 45.8%(248명), 여자 청소년은 54.2%(293명)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율은 34.9%, 고등학생 45.5%, 대학생 17.2%, 기타 2.4%로 나타났다. 즉, 설문참여자의 대부분(약 80% 정도)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뉴욕과 뉴저지 주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 북동부(24.9%)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포함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청소년 비율(26.8%)은 비슷하며, 텍사스와 같은 넓은 주를 포함하고 있는

* 이 장의 1절과 4절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과 3절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남부 지역의 청소년 참여 비율(30.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서부 지역의 청소년 비율은 17.4%로 나타났다.

미국 거주 기간은 평균 14.5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로 미국 거주 기간과 평균 연령에 약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출생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동포청소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 출생인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평균 연령과 미국 거주기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청소년의 경우는 연령보다 미국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1 재미동포청소년의 학교별 분류와 인구사회학적 주요 특성

구분		합계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Other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8	100.0	79	31.9	123	49.6	43	17.3	2	0.8	1	0.4
	여자	293	100.0	110	37.5	123	42.0	50	17.1	7	2.4	3	1.0
	전체	541	100.0	189	34.9	246	45.5	93	17.2	9	1.7	4	0.7
거주지역	북동부	135	100.0	32	23.7	89	65.9	12	8.9	2	1.5	0	0.0
	중서부	94	100.0	38	40.4	38	40.4	16	17.0	2	2.1	0	0.0
	남부	167	100.0	66	39.5	81	48.5	19	11.4	1	0.6	0	0.0
	서부	145	100.0	53	36.6	38	26.2	46	31.7	4	2.8	4	2.8
	전체	541	100.0	189	34.9	246	45.5	93	17.2	9	1.7	4	0.7
미국거주기간(년)		$M = 14.54$ $(SD = 3.82)$		$M = 12.41$ $(SD = 1.93)$		$M = 14.62$ $(SD = 2.94)$		$M = 17.59$ $(SD = 5.19)$		$M = 21.42$ $(SD = 3.97)$		$M = 23.38$ $(SD = 1.49)$	
평균 연령(년)		$M = 16.51$ $(SD = 3.30)$		$M = 13.38$ $(SD = 0.92)$		$M = 16.65$ $(SD = 1.33)$		$M = 21.52$ $(SD = 2.11)$		$M = 23.67$ $(SD = 1.00)$		$M = 23.75$ $(SD = 1.50)$	

재미동포청소년이 미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묻는 질문은 미국 출생, 미국 이민, 학업 등으로 질문하였으며, 이는 이들의 출생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표

VI-2>에 보면, 전체 중 약 71.3%의 청소년은 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 즉, 미국 시민권자인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 이민은 25.9%로 미국 이민으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영주권자의 형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을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중 1.7%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미국 출생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학생 전체 중 약 82%가 미국 시민권자인 것에 반해 고등학생의 약 67%가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과 기타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사례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3장의 재미동포청소년 통계 중 ‘연령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미국 법적 지위 현황’에 의하면 재미동포청소년이 출생 시 법적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이 73.6%이었으며, 시민권 부재 이민자의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표 III-21> 참고). 본 설문조사 역시 한인 전체 통계와 비슷하게 미국 출생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이 한국 출생 재미동포청소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미국 거주 주요 이유

구분		합계		미국 출생		미국 이민		학업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8	100.0	180	72.6	63	25.4	4	1.6	1	0.4
	여자	293	100.0	206	70.3	77	26.3	5	1.7	5	1.7
	전체	541	100.0	386	71.3	140	25.9	9	1.7	6	1.1
학교별	중등	189	100.0	154	81.5	27	14.3	5	2.6	3	1.6
	고등	246	100.0	165	67.1	76	30.9	3	1.2	2	0.8
	대학	93	100.0	57	61.3	34	36.6	1	1.1	1	1.1
	대학원	9	100.0	7	77.8	2	22.2	0	0.0	0	0.0
	기타	4	100.0	3	75.0	1	25.0	0	0.0	0	0.0
	전체	541	100.0	386	71.3	140	25.9	9	1.7	6	1.1

재미동포청소년에게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질문하기 위해 재미동포 1세, 1.5세, 2세 등으로 불리는 세대에 관한 질문은 미국으로 최초로 이주한 조상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은 세대 분포와 관련한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3>에 의하면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의 청소년은 19.2%, 본인 출생 전 부모 세대가 이주한 세대는 55.1%, 부모와 함께 이주한 세대는 25.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와 본인 출생 전 부모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보통 미국출생으로 인한 ‘재미동포 2세’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재미동포청소년은 ‘재미동포 1.5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미동포 1세’는 본인이 최초로 미국으로 이주한 세대이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1세에 해당하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3 최초로 미국으로 이주한 세대

구분		합계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세대		본인 출생 전 부모 세대		부모와 함께 이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자	248	100.0	37	14.9	143	57.7	68	27.4
	여자	293	100.0	67	22.9	155	52.9	71	24.2
	전체	541	100.0	104	19.2	298	55.1	139	25.7
학 교 별	중등	189	100.0	33	17.5	125	66.1	31	16.4
	고등	246	100.0	51	20.7	124	50.4	71	28.9
	대학	93	100.0	15	16.1	44	47.3	34	36.6
	대학원	9	100.0	3	33.3	4	44.4	2	22.2
	기타	4	100.0	2	50.0	1	25.0	1	25.0
	전체	541	100.0	104	19.2	298	55.1	139	25.7

재미동포청소년의 미국 내 법적지위를 묻는 질문에 약 80%의 재미동포청소년이 미국 시민권자 약 20%가 미국 영주권자의 형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비율이 8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미국 출생 가능성이 높아,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4 재미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

구분		합계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8	100.0	201	81.0	47	19.0
	여자	293	100.0	231	78.8	62	21.2
	전체	541	100.0	432	79.9	109	20.1
학교별	중등	189	100.0	167	88.4	22	11.6
	고등	246	100.0	187	76.0	59	24.0
	대학	93	100.0	66	71.0	27	29.0
	대학원	9	100.0	8	88.9	1	11.1
	기타	4	100.0	4	100.0	0	0.0
	전체	541	100.0	432	79.9	109	20.1

※ 미국과 대한민국 이중 국적자인 경우는 모두 미국시민권자로 분류함.

조사대상인 재미동포청소년의 약 96%의 부모는 모두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한인인 경우는 약 4%로 나타났다 (<표 VI-5> 참고). U.S. Census Bureau 통계에 의하면, 9세~24세 사이 재미동포청소년 중 순수 한인은 78%, 혼혈 한인은 약 2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 참고). 재미동포 내 혼혈 한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혼혈 한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 모두 한인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재미동포청소년 부모의 인종(ethnicity)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인		어머니만 한인		두 분 다 한인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자	248	100.0	1	0.4	8	3.2	238	96.0	1	0.4
	여자	292	100.0	2	0.7	10	3.4	279	95.5	1	0.3
	전체	540	100.0	3	0.6	18	3.3	517	95.7	2	0.4
학 교 별	중등	188	100.0	2	1.1	13	6.9	172	91.5	1	0.5
	고등	246	100.0	1	0.4	5	2.0	239	97.2	1	0.4
	대학	93	100.0	0	0.0	0	0.0	93	100.0	0	0.0
	대학원	9	100.0	0	0.0	0	0.0	9	100.0	0	0.0
	기타	4	100.0	0	0.0	0	0.0	4	100.0	0	0.0
	전체	540	100.0	3	0.6	18	3.3	517	95.7	2	0.4

2) 재미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재미동포청소년 실태조사는 한국학교·한글학교⁹¹⁾ 경험과 한국어 사용 능력, 부모와 가정 내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VI-6>은 재미동포청소년 중 한국·한글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중 55.0%, 없는 경우는 44.3%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한국학교 재학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한 이유로 살펴본 한국학교 재학경험의 차이는 미국 출생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학교 재학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1) 미국 내 한국 또는 한글학교는 재미동포 차세대를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을 하는 종합 한인 교육기관으로 지역 및 설립 목적에 따라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로 불리 운다.

표 VI-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한국 · 한글학교가 없다		χ^2 / F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자	247	133	53.8	110	44.5	4	1.6	4.86
	여자	293	164	56.0	129	44.0	0	0.0	
	전체	540	297	55.0	239	44.3	4	0.7	
학 교 별	중등	189	123	65.1	66	34.9	0	0.0	18.26 [*]
	고등	245	116	47.3	125	51.0	4	1.6	
	대학	93	51	54.8	42	45.2	0	0.0	
	대학원	9	4	44.4	5	55.6	0	0.0	
	기타	4	3	75.0	1	25.0	0	0.0	
	전체	540	297	55.0	239	44.3	4	0.7	
미 국 거 주 이 유	미국출생	385	224	58.2	158	41.0	3	0.8	7.37
	미국이민	140	66	47.1	73	52.1	1	0.7	
	미국유학	9	3	33.3	6	66.7	0	0.0	
	기타	6	4	66.7	2	33.3	0	0.0	
	전체	540	297	55.0	239	44.3	4	0.7	
미국 거주기간 (년)		540	$M = 14.52$ $(SD = 3.78)$		$M = 14.56$ $(SD = 3.92)$		$M = 13.98$ $(SD = 1.93)$.05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VI-7>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학교·한글학교 재학 기간을 성별,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한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평균 4.96년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한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이 길었다. 여학생은 평균 5.50년, 남학생은 평균 4.32년을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23$, $p<.001$).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학교 재학 기간이 가장 길었으나 학교별로 이들의 한글학교 재학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기간의 차이

구분		사례수	재학기간 (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37	4.32	2.76	11.23***	여>남
	여자	165	5.50	3.26		
	전체	302	4.96	3.10		
학교별	중등	124	5.20	2.79	0.56	-
	고등	120	4.78	3.18		
	대학	51	4.71	3.41		
	대학원	4	6.33	5.48		
	기타	3	5.17	4.07		
	전체	302	4.96	3.10		

주) *** $p < .001$; ** $p < .01$; * $p < .055$

<표 VI-8>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한글학교에 다니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이다.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8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본인의 결정 10.1%, 친구의 권유 1.0% 순위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한국학교 입학의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부모님 권유, 본인 결정 순), 여학생의 경우, 본인 결정에 의해 입학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한국학교 입학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8 성별에 따른 한국·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

구분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 결정		친구의 권유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38	120	87.0	10	7.2	3	2.2	7.68
	여자	169	146	86.4	21	12.4	0	0.0	
	전체	307	266	86.6	31	10.1	3	1.0	

주) *** χ^2 .001; ** χ^2 .01; * χ^2 .05; ※기타는 사례수가 적어 표에 포함하지 않음.

한국어 사용 능력은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9>에 제시되었다.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로 질문한 문항의 평균은 3.87점으로 3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가 3.62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가 3.27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대화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부모는 한국어로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는 영어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대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교 및 사회활동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영어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재미동포청소년의 말하기, 읽고 쓰기 능력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VI-9 한국어 사용 능력 - 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540	3.62	1.00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540	3.87	.93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539	3.27	1.15

성별, 학교별, 미국거주 주요 이유에 따른 한국어 사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10>에 제시하였다. 한국어 사용 능력의 전체 평균은 3.59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93점이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이 3.73점으로 남학생(평균 3.42점)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22, p<.001$). 다시 말해, 여학생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한국어 사용 능력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국유학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 출생 청소년보다 한국어 사용 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68, p<.001$). 사후검증 결과, 미국유학, 미국이민, 미국출생 순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1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어 사용 능력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7	3.42	.95	15.22 ***	여>남
	여자	293	3.73	.89		
	전체	540	3.59	.93		
학교별	중등	189	3.52	.90	1.21	-
	고등	245	3.59	.93		
	대학	93	3.73	.97		
	대학원	9	3.89	.73		
	기타	4	3.25	.74		
	전체	540	3.59	.93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5	3.36	.87	32.68 ***	미국유학 > 미국이민 > 미국출생
	미국이민	140	4.16	.81		
	미국유학	9	4.33	.62		
	기타	6	3.89	1.03		
	전체	540	3.59	.93		

주) *** $p<.001$; ** $p<.01$; * $p<.05$

재미동포청소년이 부모와 가정 내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11>제시하였다. 전체 5문항으로 질문한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로 평균 4.07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로 평균 1.66점으로 나타났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부모가 한인인 경우, 혹은 1세 혹은 1.5세인 경우는 가정에서는 한국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한 문항의 평균은 가장 낮았다. 이 문항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 및 기타 재외동포의 특수 상황 등을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재중동포청소년의 결과와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I-11 부모관련 가정생활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540	3.47	1.46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540	4.07	1.08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540	3.31	1.49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540	1.66	1.03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538	3.36	1.4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라 부모관련 가정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표 VI-12> 참고). 여학생의 평균은 3.78점으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61, p<.001$). 즉,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를 남학생보다 자주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 등을 더 자주 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관련 가정생활의 평균도 높아졌다($F=2.46, p<.05$). 사후검증 결과,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의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국출생의 경우보다 미국 이민이나 미국 유학의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이 가정에서 더 많이 한국 관련 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59, p<.001$).

표 VI-1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부모관련 가정생활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43	1.06	14.61 ^{***}	여>남
	여자	293	3.78	1.06		
	전체	541	3.62	1.08		
학교별	중등	189	3.43	1.11	2.46 [*]	대학, 고등 > 중등
	고등	246	3.68	1.02		
	대학	93	3.80	1.13		
	대학원	9	3.78	1.05		
	기타	4	3.92	1.07		
	전체	541	3.62	1.08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39	1.05	21.59 ^{***}	미국이민, 미국유학 > 미국출생
	미국이민	140	4.15	.98		
	미국유학	9	4.33	.67		
	기타	6	4.39	.65		
	전체	541	3.62	1.08		

주) *** $p < .001$; ** $p < .01$; * $p < .05$

주) 부모관련 가정생활 요인은 요인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문항 중 의 3문항 평균을 사용함

3)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조사 결과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은 5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한민족정체성-의식과 한민족정체성-실천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한민족정체성 중 의식은 자신이 한민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의식과 관련이 있고, 한민족정체성 중 실천은 실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실질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정체성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13>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의식과 관련한 문항의 평균이 실천과 관련한 부분의 문항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은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이고,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은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재미동포 청소년의 경우, 외모가 동양인이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한민족, 즉 자신들의 근본은 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와 동일시하는 부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활하고 미국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고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에게 한민족의 일은 다른 나라 혹은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평균은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3 한민족정체성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의식	나는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롭다.	541	4.33	.85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541	4.47	.87
실천	나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39	3.21	1.02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540	3.23	1.18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540	3.07	1.13

<표 VI-14>는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전체 평균은 4.40점이었고, 남학생의 평균은 4.32점, 여학생의 평균은 4.46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02, p<.05$).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국거주이유로 살펴보면, 미국이민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1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4.32	.76	5.02*	여>남
	여자	293	4.46	.72		
	전체	541	4.40	.75		
학교별	중등	189	4.44	.65	1.07	-
	고등	246	4.42	.76		
	대학	93	4.26	.87		
	대학원	9	4.39	.78		
	기타	4	4.25	.65		
	전체	541	4.40	.75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4.38	.73	0.43	-
	미국이민	140	4.43	.79		
	미국유학	9	4.33	.83		
	기타	6	4.67	.52		
	전체	541	4.40	.75		

주) *** $p < .001$; ** $p < .01$; * $p < .0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15>에 제시되었다.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전체 평균은 3.17점이었고, 남학생의 평균은 3.05점, 여학생의 평균은 3.28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41, p<.05$).

미국거주이유로 살펴보면, 기타 그룹을 제외하고 미국유학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13, p<.001$). 미국유학이 3.85점, 미국이민 3.46, 미국출생 3.04점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05	.94	8.41**	여>남
	여자	293	3.28	.89		
	전체	541	3.17	.92		
학교별	중등	189	3.13	.90	.52	-
	고등	246	3.19	.95		
	대학	93	3.18	.92		
	대학원	9	3.11	.71		
	기타	4	3.75	.83		
	전체	541	3.17	.92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04	.90	11.13***	미국이민, 미국유학 > 미국출생
	미국이민	140	3.46	.91		
	미국유학	9	3.85	.67		
	기타	6	4.00	.70		
	전체	541	3.17	.92		

주) *** $p < .001$; ** $p < .01$; * $p < .05$

4)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의 6개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의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16>에 제시되었다. 미래인재역량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요인은 세계시민의식으로 평균 4.07점이었으며, 세계시민의식은 재미동포청소년의 다른 국가에 대한 친근감 또는 개방적인 자세를 측정하였다.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미래인재역량 요인은 창의적사고로 3.5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16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 각 요인별 평균

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	541	3.95	.62
창의적사고	541	3.57	.72
문제해결력	541	3.70	.74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541	3.94	.55
세계시민의식	539	4.07	.65
국가정체의식	539	3.65	.74

미래인재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은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 뿐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등의 배려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문항별 평균은 <표 VI-17에>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은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문항으로 평균 4.14점이었다.

표 VI-17 의사소통능력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541	3.84	.83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541	3.93	.8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540	3.88	.85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541	4.14	.79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평균은 3.95점이었고, 여학생의 평균은 4.04점으로 남학생 3.84점 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표 VI-18> 참고).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81, p<.001$). 그러나 학교별, 미국 거주이유로 살펴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1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84	.63	14.81***	여>남
	여자	293	4.04	.59		
	전체	541	3.95	.62		
학교별	중등	189	3.89	.59	.90	-
	고등	246	3.98	.67		
	대학	93	3.99	.54		
	대학원	9	4.00	.48		
	기타	4	3.75	.54		
	전체	541	3.95	.62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93	.62	.32	-
	미국이민	140	3.99	.62		
	미국유학	9	3.92	.54		
	기타	6	3.96	.62		
	전체	541	3.95	.62		

주) *** $p < .001$; ** $p < .01$; * $p < .05$

창의적사고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생각, 부분으로 전체를 사고하는 능력 등을 묻고 있다. 창의적사고 요인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19>에 제시되었다.

표 VI-19 창의적사고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539	3.53	.78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540	3.67	.91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541	3.50	.8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창의적 사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0>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57이었으며, 성별, 학교별, 미국거주이유로 살펴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창의적사고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56	.72	.42	-
	여자	293	3.57	.72		
	전체	541	3.57	.72		
학교별	중등	189	3.55	.73	1.41	-
	고등	246	3.59	.72		
	대학	93	3.57	.69		
	대학원	9	3.48	.82		
	기타	4	3.58	.50		
	전체	541	3.57	.72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56	.72	.18	-
	미국이민	140	3.57	.71		
	미국유학	9	3.74	.70		
	기타	6	3.56	.78		
	전체	541	3.57	.72		

주) *** $p<.001$; ** $p<.01$; * $p<.05$

문제해결력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제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21>에 제시되었다.

표 VI-21 문제해결력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540	3.76	.8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541	3.69	.95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540	3.65	.9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2>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70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이 3.78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인 3.61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31, p<.01$). 학급별, 미국거주 이유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61	7.31**	여>남
	여자	293	3.78		
	전체	541	3.70		
학교별	중등	189	3.61	1.65	-
	고등	246	3.72		
	대학	93	3.82		
	대학원	9	3.96		
	기타	4	3.58		
	전체	541	3.70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68	.60	-
	미국이민	140	3.72		
	미국유학	9	3.93		
	기타	6	3.94		
	전체	541	3.70		

주) *** $p<.001$; ** $p<.01$; * $p<.05$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혹은 사회에 대한 관심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25점이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요인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23>에 제시되었다.

표 VI-23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1	3.70	.83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40	4.06	.82
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39	3.98	.8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540	3.60	.89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1	4.25	.71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0	4.09	.79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40	3.73	.82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40	4.09	.81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책임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4>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94점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이 4.02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인 3.84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22, p<.001$). 학급별, 미국거주 이유에 따른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84	.58	13.22***	여>남
	여자	293	4.02	.52		
	전체	541	3.94	.55		
학교별	중등	189	3.88	.55	1.50	-
	고등	246	4.00	.57		
	대학	93	3.89	.50		
	대학원	9	3.81	.63		
	기타	4	3.97	.75		
	전체	541	3.94	.55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92	.56	0.81	-
	미국이민	140	3.98	.54		
	미국유학	9	4.06	.61		
	기타	6	4.10	.27		
	전체	541	3.94	.55		

주) *** $p < .001$; ** $p < .01$; * $p < .05$

세계시민의식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국가 또는 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우호적인 시각과 수용성 등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로 평균 4.20점이었다. 세계시민의식 요인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25>에 제시되었다.

표 VI-25 세계시민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539	4.04	.79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539	4.07	.80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537	3.96	.78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538	4.20	.7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6>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4.07점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이 4.17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인 3.94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01, p<.001$). 학급별, 미국거주 이유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94	.68	17.01***	여>남
	여자	291	4.17	.60		
	전체	539	4.07	.65		
학교별	중등	189	3.97	.64	1.87	-
	고등	246	4.14	.64		
	대학	91	4.07	.66		
	대학원	9	4.00	.79		
	기타	4	4.00	.74		
	전체	539	4.07	.65		
미국거주이유	미국출생	384	4.08	.65	.43	-
	미국이민	140	4.02	.67		
	미국유학	9	4.06	.70		
	기타	6	4.25	.52		
	전체	539	4.07	.65		

주) *** $p<.001$; ** $p<.01$; * $p<.05$

국가정체의식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의 문화, 역사,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나는 미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3.84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항목은 '나는 미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의식 요인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27>에 제시되었다.

표 VI-27 국가정체의식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미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539	3.84	.86
나는 미국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539	3.73	.88
나는 미국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539	3.77	.85
나는 미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539	3.28	.9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국가정체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28>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65점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이 3.72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인 3.58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60$, $p<.05$). 학급별, 미국거주 이유에 따른 국가정체의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국가정체의식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58	4.60 [*]	여>남
	여자	291	3.72		
	전체	539	3.65		
학교별	중등	189	3.67	1.11	-
	고등	246	3.69		
	대학	91	3.57		
	대학원	9	3.28		
	기타	4	3.50		
	전체	539	3.65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4	3.67	.52	-
	미국이민	140	3.60		
	미국유학	9	3.69		
	기타	6	3.92		
	전체	539	3.65		

주) *** $p<.001$; ** $p<.01$; * $p<.05$

5) 재미동포청소년의 교류 경험 및 교류 욕구 조사 결과

재미동포청소년이 동포청소년과 관련한 활동 또는 모임 등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과 이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다음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을 묻는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29>에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은 나타난 항목은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로 3.53점이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지역 내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 한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는 항목은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질문인 ‘나는 미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는 항목에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 현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보다 좀 더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이 한국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즉 자신의 거주 지역에 동포청소년과 캠프나 연수의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더 활용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29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538	3.53	1.0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538	3.25	1.07
나는 미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36	2.99	1.10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39	2.71	1.11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30>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12점이었으며, 성별간 차이는 없었다. 학교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각각 3.12점, 3.20점으로 대학생의 평균인 2.89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9, p<.05$). 미국거주이유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살펴보면, 미국유학

그룹의 청소년의 평균이 3.75점, 미국이민 그룹은 3.26점, 미국출생 그룹은 3.05점 순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9$, $p<.01$).

표 VI-3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07	1.67	-
	여자	291	3.16		
	전체	539	3.12		
학교별	중등	189	3.12	2.49*	중등, 고등 > 대학
	고등	246	3.20		
	대학	91	2.89		
	대학원	9	3.31		
	기타	4	2.75		
	전체	539	3.12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4	3.05	4.29**	미국유학 > 미국이민 > 미국출생
	미국이민	140	3.26		
	미국유학	9	3.75		
	기타	6	3.58		
	전체	539	3.12		

주) *** $p<.001$; ** $p<.01$; * $p<.05$

한국 관련 교류 욕구를 묻는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31>에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은 나타난 항목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로 3.98점이었다. 다음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가 3.67점 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난 항목은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로 2.95점 이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에 가장 높은 희망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한국에서 역사유적지나 공연 등을 관람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을 하고 싶은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 한국 관련 교류 욕구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539	3.98	1.00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538	3.38	1.07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538	3.30	1.22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538	2.95	1.14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538	3.67	1.25

표 VI-3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22	32.65***	여>남
	여자	291	3.66		
	전체	539	3.46		
학교별	중등	188	3.36	1.41	-
	고등	245	3.51		
	대학	93	3.57		
	대학원	9	3.24		
	기타	4	3.05		
	전체	539	3.46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5	3.36	5.22**	미국이민 > 미국출생
	미국이민	140	3.70		
	미국유학	8	3.70		
	기타	6	3.70		
	전체	539	3.46		

주) *** $p<.001$; ** $p<.01$; * $p<.0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32>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46점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은 3.66점, 남학생의 평균은 3.22점으로 여학생의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65, p<.001$). 미국거주

이유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살펴보면, 미국이민 그룹의 청소년의 평균이 3.70점으로 미국출생 그룹의 3.3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미국이민 그룹 청소년의 욕구가 미국출생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2, p<.01$).

6)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와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다음은 재미동포청소년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나 생각에 대해 묻고, 동포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할 지를 묻는 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와 관련한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33>에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은 나타난 항목은 ‘미국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가 3.68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가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이 모국인 한국을 알리고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할에 보통이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평균은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로 3.12점 이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남북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과 혹은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 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33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미국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540	3.68	.81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541	3.63	.88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37	3.41	.79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38	3.34	.90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540	3.12	1.0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역할 기여의 차이는 <표 VI-34>에 제시되었으며, 성별, 학교별, 미국거주이유에 따른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3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38	.73	2.63	-
	여자	293	3.48	.66		
	전체	541	3.43	.70		
학교별	중등	189	3.37	.71	1.44	-
	고등	246	3.51	.72		
	대학	93	3.37	.59		
	대학원	9	3.27	.75		
	기타	4	3.49	.37		
	전체	541	3.43	.70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39	.72	1.73	-
	미국이민	140	3.52	.63		
	미국유학	9	3.56	.47		
	기타	6	3.77	.39		
	전체	541	3.43	.70		

주) *** $p < .001$; ** $p < .01$; * $p < .05$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I-35>에 제시되었다.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에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은 희망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항목들에서도 모두 4점에 근접하는 높은 희망을 나타냈지만,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 방문이나, 또래 청소년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희망을 더 많이 나타냈다.

표 VI-35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인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541	4.12	.83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41	3.95	.83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동포청소년들과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41	3.84	.82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41	3.88	.84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540	3.85	.90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36>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3.93점이었으며, 여학생의 평균은 4.03점, 남학생의 평균은 3.81점으로 여학생의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2.45, p<.001$). 학교별, 미국 거주이유에 따른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3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248	3.81	12.45***	여>남
	여자	293	4.03		
	전체	541	3.93		
학교별	중등	189	3.86	1.87	-
	고등	246	3.99		
	대학	93	3.95		
	대학원	9	3.47		
	기타	4	3.75		
	전체	541	3.93		
미국 거주 이유	미국출생	386	3.91	.65	-
	미국이민	140	3.97		
	미국유학	9	3.96		
	기타	6	4.23		
	전체	541	3.93		

주) *** $p<.001$; ** $p<.01$; * $p<.05$

7) 재미동포청소년의 미래 선택과 기타 항목에 관한 조사 결과

재미동포청소년이 장래에 한국에서 학업 또는 직업을 갖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는 항목에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중 47.1%로 ‘없다’라고 응답한 52.9%보다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7>). 흥미롭게도 여학생은 장래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다는 비율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남학생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2, p<.01$).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비슷하고, 대학생의 경우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높았다. 이는 연령이 낮은 청소년 일수록 미래 한국에서의 직업이나 학업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재미동포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직업에 생각해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거주이유에 따른 차이에서도, 미국에서 출생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민 그룹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이 없다고 한 비율보다 높았다.

표 VI-3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미래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한 차이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 F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4	97	39.8	147	60.2	9.72**
	여자	293	156	53.2	137	46.8	
	전체	537	253	47.1	284	52.9	
학교별	중등	187	74	39.6	113	60.4	14.12**
	고등	246	119	48.4	127	51.6	
	대학	91	53	58.2	38	41.8	
	대학원	9	3	33.3	6	66.7	
	기타	4	4	100.0	0	0.0	
	전체	537	253	47.1	284	52.9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 F
			빈도	%	빈도	%	
미국 거주이유	미국출생	384	164	42.7	220	57.3	10.70 [*]
	미국이민	138	80	58.0	58	42.0	
	미국유학	9	5	55.6	4	44.4	
	기타	6	4	66.7	2	33.3	
	전체	537	253	47.1	284	52.9	
미국 거주기간 (년)		537	$M = 14.49$ ($SD = 4.19$)		$M = 14.56$ ($SD = 3.45$)		0.05

주) *** $p < .001$; ** $p < .01$; * $p < .05$

재미동포청소년이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을 고려할 경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표 VI-38>). 재미동포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표시한 문항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으로 52.9%의 청소년이 이 문항에 표시하였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이 언어 문제가 가장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며,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에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율이 41.8%였다. 이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에게 한국 교육과 취업에 관한 정보의 부족함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VI-38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의 방해 요인에 대한 결과

문항	응답자 (N)	비율 (%)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286	52.9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226	41.8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161	29.8
한국 국적이 없는 것	158	29.2
한국에서 교육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138	25.5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	98	18.1

* 중복응답 가능 질문

*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재미동포청소년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요인은 ‘개인적 한국 방문’과 ‘한류를 통한 드라마, 영화, K-pop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여러 문화 콘텐츠의 확대로 재미동포청소년들도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9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

문항	응답자 (N)	비율 (%)
개인적 한국 방문	307	56.7
한류를 통한 드라마, 영화, K-Pop 등	306	56.6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225	41.6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219	40.5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148	27.4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 활동	129	23.8
한민족캠프나 축제	111	20.5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63	11.6

* 중복응답 가능 질문

*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8)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관련 생활(언어, 가정생활 등), 미래인재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입력방식을 활용하여 한민족정체성-의식을 종속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 한국관련 생활과 미래인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은 청소년의 개인 특성인 성별 (남=1, 여=0), 나이, 미국거주기간으로 하였다.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은 청소년의 한국학교 재학경험(유=1, 무=0), 한국학교 재학기간, 한국어 능력, 부모와의 가정생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 욕구로 하였다. 3단계 투입 독립변인은 미래인재역량으로 하였다.

<표 VI-40>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 변화량=5.79, $p<.001$). 각 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재미동포청소년의 나이가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 $p<.01$).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가 한민족이라든가, 한민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등의 한민족정체성-의식과 관련한 평균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부모와 관련한 가정생활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7$, $p<.05$). 이는 부모와 한국어를 사용하고 대중매체를 접하는 등의 활동을 자주하는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한민족정체성-의식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관련 교류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25$, $p<.001$). 미래인재역량 중 의사소통능력과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 $p<.001$; $\beta=.15$, $p<.05$)

표 VI-40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i>B</i>	<i>SE B</i>	β	<i>B</i>	<i>SE B</i>	β	<i>B</i>	<i>SE B</i>	β
성별(남=1, 여=0)	-.19	.08	-.13*	-.01	.08	-.01	.03	.08	.02
나이	-.02	.02	-.10	-.06	.02	-.26**	-.05	.02	-.24**
미국거주기간(월)	.00	.00	-.03	.00	.00	.13	.00	.00	.07
한국학교재학경험				.02	.21	.01	.04	.21	.01
한국학교재학기간				-.01	.01	-.03	.00	.01	.00
한국어능력				.04	.07	.04	-.01	.07	-.01
부모가정생활				.13	.05	.18*	.12	.05	.17*
동포청소년교류경험				.00	.05	.00	-.01	.05	-.02
한국과의교류욕구				.25	.05	.33***	.19	.05	.25***
의사소통능력							.24	.08	.20**
창의적사고							-.11	.06	-.11
문제해결력							.02	.06	.02
개인및사회적책임							.10	.10	.07
세계시민의식							.16	.07	.15*
국가정체의식							-.02	.05	-.03
R^2	.03			.19			.26		
F 변화량	3.52*			10.94***			5.79***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입력방식을 활용하여 한민족정체성-실천을 종속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 한국관련 생활과 미래인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VI-41>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 변화량=3.31, $p<.01$).

표 VI-41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1, 여=0)	-.27	.10	-.15**	.02	.08	.01	.06	.08	.03
나이	.06	.02	.23**	.00	.02	-.01	.00	.02	.01
미국거주기간(월)	-.01	.00	-.29***	.00	.00	.00	.00	.00	-.03
한국학교재학경험				-.15	.22	-.03	-.11	.21	-.02
한국학교재학기간				.01	.01	.05	.02	.01	.06
한국어능력				.36	.07	.32***	.29	.07	.26***
부모가정생활				.18	.05	.20**	.19	.05	.21***
동포청소년교류경험				.15	.05	.15**	.13	.05	.13**
한국과의교류욕구				.27	.05	.28***	.22	.05	.23***
의사소통능력							.19	.08	.12*
창의적사고							.00	.06	.00
문제해결력							.10	.06	.08
개인및사회적책임							-.04	.10	-.02
세계시민의식							.02	.08	.02
국가정체의식							.09	.06	.07
R^2	.06			.48			.51		
F 변화량	7.33***			41.09***			3.31**		

각 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어능력, 부모관련가정생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욕구가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 $p<.001$; $\beta=.21$, $p<.001$; $\beta=.13$, $p<.01$; $\beta=.23$, $p<.001$, 각각).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관련가정생활, 한국과의 교류욕구만 해당되었으나, 한민족정체성-실

천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과 동포청소년과의 교류경험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를 잘하고 실제 동포청소년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좀 더 자신을 한민족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의사소통능력만 한민족정체성-실천과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 p<.05$).

9)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재미동포청소년이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입력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기여를 종속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 한국관련 생활,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VI-42>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 변화량=12.16, $p<.001$).

각 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동포청소년과의 교류경험이 역할 기여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 p<.05$). 또한 한국관련 교류욕구도 역할 기여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01$). 이는 재미동포청소년이 동포청소년과 교류를 자주하고, 한국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결국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도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민족정체성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의식은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한민족정체성-실천은 동포사회기여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 p<.001$). 이는 단순히 내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민족에 대해 알려고 하고, 한민족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실천적 요소가 미래에 재미동포청소년에 동포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동포사회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 p<.001$; $\beta=.21, p<.001$; $\beta=.18, p<.001$, 각각). 이는 창의적사고 능력 평균이 높을수록,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평균이 높을수록 동포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평균 점수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타국의 문화의 이해와 수용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세계시민의식이 동포사회기여

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타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는 좀 더 우호적인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우리 동포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42 재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i>B</i>	<i>SE B</i>	β	<i>B</i>	<i>SE B</i>	β	<i>B</i>	<i>SE B</i>	β
성별(남=1, 여=0)	-.16	.08	-.11	.04	.07	.03	.05	.06	.04
나이	.01	.02	.03	-.01	.02	-.06	.00	.01	.01
미국거주기간(월)	.00	.00	-.07	.00	.00	.08	.00	.00	-.05
한국학교재학경험				.05	.18	.01	.18	.16	.05
한국학교재학기간				.00	.01	.01	.01	.01	.05
한국어능력				.00	.06	.00	-.06	.05	-.07
부모가정생활				-.05	.04	-.08	-.04	.04	-.06
동포청소년교류경험				.17	.04	.22 ^{***}	.11	.04	.14 ^{**}
한국과의교류욕구				.25	.04	.33 ^{***}	.17	.04	.22 ^{***}
한민족정체성-의식				.10	.05	.10 [*]	.03	.05	.03
한민족정체성-실천				.22	.05	.29 ^{***}	.18	.05	.23 ^{***}
의사소통능력							-.05	.06	-.04
창의적사고							.17	.05	.17 ^{***}
문제해결력							.00	.05	.00
개인및사회적책임							.27	.08	.21 ^{***}
세계시민의식							.19	.06	.18 ^{***}
국가정체의식							.04	.04	.04
R^2	.01			.41			.52		
<i>F</i> 변화량	1.57			26.40 ^{***}			12.16 ^{**}		

2.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 분석⁹²⁾

재미동포청소년의 학부모와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민족정체성, 한국어 교육, 자녀의 미래 삶과 진로, 한인공동체에 대한 제언,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I-43> 참조).

표 VI-43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국인 정체성	· 가족관계	· 주기적인 가족 네트워크와 ‘효’ 문화 · 가족과 전통문화 지킴
	· 한국문화	· 한국 예절 · 한국 음식
	· 대중매체와 한류문화	· 대중매체, 한국문화 소통의 도구 · 한국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매개체 · 자녀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
	· 한국인 정체성 강화	· 한국방문을 통한 한국인 정체성 강화
	· 이중정체성: 한국인이며 미국인으로	· 한민족 토대 위에 미국 시민으로 ·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어 교육	· 가족 내 소통을 위한 한국어	
	·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 증진	
	· 이중언어 사용	· 이중언어 사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이중언어 사용 취업에 강점
한국학교	· 역할	· 사회성 발달과 또래관계 형성 ·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
	· 교육	· 한국문화 습득 · 한국어능력향상
자녀의 미래 삶과 진로	· 부모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삶	· 자녀 개인적 성공에 대한 인식과 의미 · 한인 청소년을 위한 성공 모델
	·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지원	
	· 자녀의 미래 직장	· 한국 내 직장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 · 미국 내 직장생활 선호
	·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의 바람	

92) 이 부분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인공동체에 대한 제언	· 한인공동체의 역할	·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멘토링과 지원 · 가정과 부모교육의 필요성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	· 고국방문 프로그램 ·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1) 한국인 정체성

(1) 가족관계

① 주기적인 가족 네트워크와 ‘효’ 문화

참여 학부모들은 미국 내 가까이 살고 있는 친·인척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국 문화권 안에서 교제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효’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족관계를 통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예절과 조부모를 공경하는 손자·손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효’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애들 앞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고, 애들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인사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범적으로 잘 커야지 하는 바람이죠. (참여자 C)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며 친인척들과 한국적 예절 및 한국문화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중략)...한국문화를 접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참여자 F)

가족이 대가족이고, 조부모님 댁과 가까워 거의 매일 방문하고, 생활 방식이 아직도 한국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하죠. (참여자 I)

② 가족과 전통문화 지킴

참여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전통이나 명절을 지키며 한국문화를 이어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 속에서도 한국음식의 전통을 이어주는 김장이나 장류를 담그며 한국 속에서 보다 더 한국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우리는 친가 식구들이 거의 미국에 있어서 한국 절기나 명절 혹은 생신 등의 이유로 한국인의 명절 및 잔치에 대해 한국 문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D)
본인 세대와 시부모 세대는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을 먹죠.). 심지어 고추장, 된장, 김장을 담그고 있어요. 70년대 초 이민자 가정인 시댁과 함께 살았기에 한국의 모든 풍습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실천했죠. (시부모님과) 분가를 해서도 가까운 거리로 분가해서 여전히 (자주 만나며) 한국보다도 더 한국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참여자 I)

(2) 한국문화

① 한국 예절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한국문화의 예절과 규범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자 E는 이러한 예절문화는 한국문화의 핵심이며 미국문화에는 없는 좋은 문화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인사, 존댓말 등)교육... 우리 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어요. (참여자 A)

아이들이 얘기 때는 몰랐지만 (자녀가) 크면서 사용하는 말투나 웃어른께 쓰는 존칭어, 전화예절과 인사 법 그리고 식사 예절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늘 가르치려고 노력하죠. (참여자 C)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중략)...어른이 행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연륜과 지혜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

려 주려하고 물론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언행일치를 위해 항상 조심해요. (참여자 D)

사고방식은 한국의 어른 공경의 예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른 공경 같은 부분은 미국 문화에 없는 좋은 부분으로 아이의 인성 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참여자 E)

② 한국음식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정 내에서 한국음식을 즐기며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D는 자녀들이 음식을 통해 타문화 친구들에게 한국문화를 전달하며 뿌듯해 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참여자 M은 한국에 대한 정서적인 감성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한국음식을 표현하였다.

집에서는 늘 한국음식을 먹기 때문에 고추장이나 된장, 김치 등은 기본이고...(중략)... 특히, 된장찌개를 먹으며, 엄마“이 집 된장찌개 대박! 시원해!”하고 된장의 맛을 평가하기도 해요. (참여자 C)

요즘 한류가 대세라서 다민족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식사를 한식으로 차려주길 부탁하며...(중략)...식사를 한식으로 하는 것에 더욱 자긍심을 갖는 것 같아요. (한국음식을 친구들에게 대접한 후) 부모나 인터넷을 통하여 더 많은 한국 문화를 묻고 찾아보며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뿌듯해하는 모습도 보여요. (참여자 D)

평소에도 미역국, 순두부국 등을 통해서 한국음식이 미국음식보다 더 정이 가고 본인들이 더 자주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생각들이나 정서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하며 또 다시 한국적인 요소들을 찾게 되는 유일한 끈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M)

(3) 대중매체와 한류문화

① 한국문화 소통의 도구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대중매체는 한국에 대한 정보제공과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적인 매개체이며,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표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개체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 G의 사례처럼 일부 학부모는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실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바쁜 학교생활로 대중매체를 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있고,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서를 알려주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그 선거전에서 자기를 알리는 시간에 학교 방송을 통하여 강남 스타일 노래와 춤으로 잘 어필하여 전교 부회장에 선출됐어요. 작은 사건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를 잘 알림으로써 자기 PR을 잘 하는 계기가 되었죠. (참여자 B)

요즘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다민족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친구들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 생활습관 등 여러 방면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물어보며 실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 프로일 뿐인지 궁금해요. (참여자 D)

큰아이는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국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즐기며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국방송이나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알려주고자 같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특정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함께 봐요. 요즘 높아진 한국인의 위상 때문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국방송을 보거나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한국 사람이 나오면 자신들도 한국 사람을

응원하곤 해요... 한국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관심을 자기가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 O)

부모는 가능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고 한국 연속극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보여주는 하지만 시간상 또는 내용상 비현실적 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참여자 G)

이처럼 미국 내 한국의 한류문화는 재미동포들에게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접촉 기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참여자 L의 사례는 재미동포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높으나 접촉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한국문화에 대한 갈증도 높다고 토로하였다.

한국영화가 간간히 미국극장에서 상영되는데, 명랑, 군도, 국제시장, 변호인 등 한국에서 히트를 친 작품들이 지난 2년간 10여 편 정도 상영되었어요. 이런 영화가 상영되면 해당 영화관은 한국인 관객이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문화에 한인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참여자 L)

② 한국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매개체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재미동포와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는 이들이 미디어 속 한국인과 동질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 매개체임이 발견되었다. 특히, 참여자 K는 국제결혼 가정(미국인 남편)으로 딸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티비를 보며 한국어에 익숙해져 별 불편 없이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는 걸로 생각되는데...근본적인 이유는 자녀 스스로 한국인 피를 가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자 N)

딸아이가 한국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하죠...(중략)...한국말과 문화를 많이 배우고 있어 버리지 않기 위해 자주 한국 영화 감상도 함께 집에서 보는 편이고, 딸이 비록 혼혈이지만 완전 한국아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국제결혼 참여자 K)

③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

대중매체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도구가 되고 있다. 재미동포청소년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잘 들어보지 못한 한국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키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예전에는“대장금”을 보며 선비 놀이도 하고... 요즘에는 “런닝맨”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바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독촉장이 뭐야?“,“간첩은 무슨 뜻이야?“, “나사 빠진 게 뭐야?”등 어떨 때는 설명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재미도 있어요.(참여자 C)

(자녀와) TV나 드라마는 한국 것을 보고 내용을 얘기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한국에서 친척들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여 칭찬 많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 시) 길거리에서 모든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여행에 불편함보다는 아주 재미있게 한국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국제결혼 참여자 K)

(4) 한국인 정체성 강화

① 한국방문을 통한 한국인 정체성 강화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재미동포청소년들이 미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방문을 통해 더욱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 방문 중 한국에 사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며 정을 나누고, 한국음식을 먹는 등의 한국적인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국방문은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즐거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한국에 또 오고 싶고 그리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들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해요.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라 매년 마다 가고 싶다고 하죠. 친척들이랑 함께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 손 솜씨가 탁월한 물건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맛있는 음식들. 재미있는 드라마...(아이들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다고 해요. (참여자 C)

우리 아이들은 매년 한국에 가자고해요. 한국에 외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외가댁에 방문하는 즐거움과 한국의 먹거리를 좋아하죠. (참여자 D)

큰 아이는 여기서 경험 할 수 없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고...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하고, 혼자 마켓을 걸어서 가고 하는 등 소소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참여자 E)

한국 방문을 좋아하고, 자주 가고 싶어 하죠.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조부모님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아주 좋아하고요. (참여자 J)

(5) 이중정체성: 한국인이며 미국인으로

① 한민족 토대 위에 미국 시민으로

참여자들은 자녀가 미국인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사는 한민족이며 미국시민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부모-자녀와의 소통에도 기여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D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면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한민족정체성을 가르치고 알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녀는) 미국인이 아니라 시민권자죠. 당연히 한민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큰 줄거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 나라의 사람의 오늘이 있게 한 원천이니까....(참여자 A)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긍지를 가진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어요...(중략)...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어릴 적부터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부모로서 편하고 익숙한 것이 한국문화이고, 아이가 부모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많이 접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릴 적에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자 J)

②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 F와 참여자 G의 사례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인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이중정체성을 형성하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타민족과도 소통하며 폭넓게 세상을 이해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이 가진 이중정체성의 장점을 살리고 성장하여 넓은 세상을 무대로 리더십을 펼치길 희망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출하였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국 교육의 장점들을 살려서 2세대만의 가치관들이 생겨서 그 안의 안정감과 소속감들을 가지고 살길 바라고 있어요. (참여자 E)

우리 자녀들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국과 한국을 잇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를 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나 주기를 소망합니다. (참여자 F)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써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이들이 한 가지 문화와 사고방식만 익히면 세계화에 뒤처지기도 하지만 특히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고 편견에 사로잡힌 성인들을 많이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많이 보아 그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참여자 G)

참여자 L은 국제결혼가정의 엄마로서 미국인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녀들에게 미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비록 자녀들이 혼혈 한국인인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굳이 한민족정체성은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염려하였다. 반면 참여자 M은 자녀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정체성도 유지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한인 부모(엄마 혹은 아빠)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따라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 교육할 것인가 혹은 아닐 것인가가 달라짐을 시사 하고 있다.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피가 절반은 섞였지만, 미국인으로 태어났고,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죠. 남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도 절반 한국인인 것에 대해 거부감도 없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민족정체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주입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싶진 않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L)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미국인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인지 다른 점은 엄마와 본인들이 하는 한국말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특이한 싸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본인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에 긍정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M)

2) 한국어 교육

(1) 가족 내 소통을 위한 한국어

참여자들은 조부모 및 원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통한 가족 간의 갈등 시에도 해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동일 언어와 문화의 공유가 가족 내 갈등의 소지를 낮추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어 사용이 세대 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소통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여 가족들의 하나 됨과 소통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한국말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녀들은 갈등이 많이 만들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참여자 B)

가까이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 시에는 한국어 사용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자 D)

한국어로 대화하려 합니다. 한국어는 부모의 모국어이기에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죠. (참여자 E)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할 때는 영어를 못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와 얘기할 때는 자연스레 영어도 사용합니다. (참여자 O)

국제결혼 참여자 K와 N의 경우는 엄마의 태도가 주류 미국인 중심 가정 내 자녀들의 한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엄마랑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줄 알고 있고,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K)

부모가 한국어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국어로 대화해요. (국제결혼 참여자 N)

(2)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 증진

참여자들은 한국인 정체성과 자부심을 언어 사용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자녀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모국어를 잘 하는 아이는 영어 또한 잘 할 것 같고, 살아보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국가라 모국의 자부심을 갖는 것을 높이 평가하기에 무조건 한국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한국인” 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 C)

한국어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기에 적어도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한국어와 친숙해지고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대화하길 강조하고 있어요. (참여자 D)

(한국어 사용을) 많이 실천하는 편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릴 적에 심어주어야 하고... 문화적 정체성의 시작은 언어라고 믿어요. (참여자 J)

집안에서는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쓰지만 반드시 억압하면서 한국말을 꼭 써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한국 사람이고 크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 사용을 하지요. (참여자 O)

매일 한국말을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 구태여 영어가 필요 없어요. 한국의 일을 계속 간직하게 해주고 싶고, 일상대화에 거의 문제없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딸과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국제결혼 참여자 K)

(3) 이중언어 사용

① 이중언어 사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영어만을 사용하면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고 한국과 미국 두 국가와 사회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들에게는 특권이라고 인식하므로 자녀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였다.

아이가 커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를 연결 시켜 아이 자신은 물론이고, 한인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자 D)

글로벌 시대에 영어만 쓰는 편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아요. 언어를 아는 것은 힘이고...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를 알게 하고 싶어요. 아이가 커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한인사회와 미국사회를 연결시켜 아이 자신은 물론이고, 한인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자 E)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인 한국어부터 잘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적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한국문화(언어)에 익숙한 부모를 가졌으므로... 다른 순수 미국인에 비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역량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되는 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경험과 능력이 큰 도움이 되겠죠. (참여자 N)

② 이중언어 사용 취업에 강점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하면 취업과 진로 선택에 혜택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취업을 위해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고 노력한 흔적이 발견된다.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하는 경우에는 직장 진로가 더 다양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 사는 친구 아들이 약학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 아이 말로는 자기처럼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학교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고 앞으로 직장을 찾는데 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여자 B)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를 가르쳤고, 이중언어 교육이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죠. 추후 직업결정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니까... (참여자 F)

영어 이외에 한국어를 잘 한다면 두 개의 언어를 한다는 점이 장래에 취업을 해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취업도 당연히 강점이 될 거예요. (참여자 G)

장차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하면 더 많은 직장을 선택할 때 크게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국제결혼 참여자 K)

하지만, 참여자 L은 한국어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발생하는 문제를 세대별로 차이를 두어 설명하였다. 2세와 3세 경우 한국어 사용 여부에 따라 한인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묘사하였다. 3세대 경우는 한인 공동체와는 점차 멀어져 주류사회로 몰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대들의 언어사용이 한인공동체의 결속력과 모습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인커뮤니티에서도 크게 잘 어울리지 못해요. 아예 한국말 못하는 3세들은 한인커뮤니티가 편하지 않아 차라리 주류 사회 쪽을 계속해서 파는데, 2세는 어중간하니까 결국은 그래도 받아주는 한인커뮤니티에서 대학의 전공과는 무관한 보험, 부동산 에이전트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국제결혼 참여자 L)

3) 한국학교

(1) 역할

① 사회성 발달과 또래관계 형성

참여자들은 한국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며 자녀들이 또래 친구와 함께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로서 참여자들은 한국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성장하여 배우자를 찾을 때도 같은 한국학교 친구들끼리 만나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함을 표출하였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학교에서 도움 받고 많은 한국 친구들을 통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도움이 되요). (참여자 A)

어린 시절을 한국학교에서 보낸 추억과 한국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 감싸 안아 주죠. (참여자 C)

(한국학교는) 같은 재미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교류할 수 있어서 올바른 뿌리 교육의 학습과 교제의 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같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동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한 사회성을 키우며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 역할을 해주는 곳 입니다. (참여자 F)

한국학교에는 각자 다른 동네에서 사는 한인 학생들이 모이기에 학생들 서로도 그들의 학교(미국학교)에 있는 다른 한인(한국 학교를 다니지 않는 또는 다른 한국학교를 다니는)들과도 서로 친구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국제결혼 참여자 I)

②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한국학교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성장하길 바랐다.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또래 아이들과 같이 모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쓰는 것 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높아진 정체성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장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D)

한국인 간의 유대감과 문화교육, 그리고 문자 교육은 한국·한글학교에서만 성취되고, 이것을 계기로 자녀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긍심과 능력이 배양되는 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H)

한국의 말, 글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친구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자녀는 동질 집단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제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I)

“너희는 한국인의 피가 절반이 섞였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안 가도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어요...(중략)...아이들도 절반의 한국인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국제결혼 참여자 L)

(2) 교육

① 한국문화 습득

참여자들은 한국학교의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한국문화 교육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학교를 통해 많은 문화적 체험을 하고 교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가정에 비해 한국문화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어, 한국인 엄마는 자녀가 한국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하고, 한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그곳에 참석하고, 한국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에 한국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참여자 B)

(자녀가) 한국말은 잘못하지만...(중략)...문화탐방과 구연동화를 하며 전래동화도 알고 한국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구연동화 대회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자신감을 갖게 되죠. 한국학교에서는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C)

집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글자를 가르칠 수 있지만, 한국의 문화는 혼자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한글학교를 통해서 글과 문화를 배우라고 보냅니다. (참여자 E)

요즘은 한국의 외사촌들과의 그룹 카톡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가족 문화와 예절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해요... 한국학교를 통한 교육 효과가 한 몫 한 것 같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I)

한국학교에서 많은 한국문화 수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한국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회, 추석, 설날행사, 종이접기, 바둑수업 등을 통해서 한국수업 이외에 선생님들과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요. (국제결혼 참여자 M)

② 한국어 능력 향상

참여자들에게 한국학교는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쓰고 읽는 것이 어려운 재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학교는 체계화 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한국학교의 존재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며, 한국어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가정에서 한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는 할 수 있지만 읽고, 쓰는 것까지 모국어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국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참여자 D)

세 자녀 모두 한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글씨도 잘 쓰고, 읽고, 부모와 대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생활에서 한국학교 교육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참여자 O)

남편이 미국인이다 보니 집에서 영어가 주 언어입니다. 4살 때부터 한국학교에 즐기차게 보냈지만, 아이들이 한국어 구사능력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L)

한국학교에 다닌 덕분에 한글을 거의 모두 읽고 써요 ...(중략)... 여름 한국초청 청소년캠프에도 보냈는데 길거리에서 모든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여행에 불편함보다는 아주 재미있게 한국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K)

4) 자녀의 미래 삶과 진로

(1) 부모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삶

① 자녀 개인적 성공에 대한 인식과 의미

참여자들은 성공이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며 더불어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존경받고 주변을 돌보며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모든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더불어 양국의 문화를 아울러서 즐길 줄 알고 베풀고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 꼭 신문이나 방송을 장식하지 않아도 우리 이웃에는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여자 I)

흔히 사회적 지위(명예)와 재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참여자 N)

주변에 누군가에게 아님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뭔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페셔널로 자라주기를 바라죠. (국제결혼 참여자 M)

② 한인 청소년을 위한 성공 모델

참여자들은 한국인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을 자녀를 위한 성공모델로 꼽고 있었다. 한국적 정체성을 토대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정착한 인물들을 자녀를 위한 성공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배우 중에 스티븐 연, 다니엘 김, 강영우 박사, 이승복 박사 등... 삶 속에 본이 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보다 존경 받는 사람이죠. (참여자 A)

팀하스 하형록 회장님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굴지의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정치가로써는 김창준 의원이 있죠. (참여자 B)

전혜성씨, 장한 어머니 상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6남매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학교를 졸업하고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이 아이들을 잘 길러온 어머니는 “남을 돕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죠. “사람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C)

Gideon Yu라고 페이스북 CFO로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페이스북 북의 유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자랑스럽게도 그 사람이 페이스북 북의 CFO로서 재무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성공한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참여자 O)

(2)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지원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바랐으며 선택한 일에 대해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경험담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사회 내 한국인 부모의 언어적인 장벽으로 자녀의 진로를 위한 정보를 찾고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음도 밝히고 있다.

특정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행복과 가족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러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장점과 특기가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고 싶어서 학생 시절인 지금 여러 가지 경험과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를 바라죠. (참여자 D)

어떤 직업이던 자신이 좋아하고 선택하여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중략)... 가까이 있는 친척들 및 지인들에게 구체적인 실질적인 경험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인턴쉽이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참여자 F)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녀 스스로 재능을 인정받는 직종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재능, 적성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돕고 있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I)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인턴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 직접 찾아 다녀야 하는데, 인터넷이 최고의 리소스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한 한인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죠. 영어가 되는 아이들이라도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맡기고 별 생각이 없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L)

(3) 자녀의 미래 직장

참여자들은 자녀의 미래 직장에 대해 한국 내 직장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① 한국 내 직장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가서 잘 적응하여 일하는 자녀들을 본 적이 있어 좋은 직장이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자주 묻곤 해요. 들은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공부는 외국에서 하고 본국을 위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한국에서 직업을 갖게 되면...(중략)... 한국어를 더욱 잘하게 되고 또 한국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단기간 동안이라도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F)

② 미국 내 직장생활 선호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염려와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였다. 참여자 L은 한국의 직장문화가 고압적이며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자 O는 군대와 같은 한국 직장 내 조직문화에서 문화적 적응과 언어적인 문제도 어려운 요소로 언급하였다.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미국 내 직장생활을 선호하였다.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한국에서 자란 동료들과 비교하면 상당하다고 느껴요. 동화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참여자 G)

부모가 있는 곳에서 먼저 직장을 갖길 원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겪을 사회적 혼란에 안정감을 주고 싶어요. (참여자 H)

미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언어적으로 약간 어눌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100% 한국 사람들과 융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들의 소식이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직장생활은 눈치를 많이 봐야 하고 군대 조직 같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문화적 차이로 거기서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O)

미국(이죠). 한국은 비전이 없어요. 살기도 힘들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한국의 고압적인 직장문화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주말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한국식 직장은 개인 삶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L)

(4)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의 바람

참여자들은 자녀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도 좋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배우자는 문화와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더 잘 형성되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적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E는 조손까지 생각하며 자녀의 결혼 상대자가 한국말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자녀의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좋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다만 부모가 원한다고 이야기는 할 생각이예요. 같은 문화권이 중요하니까... (참여자 A)

가능하면 한국 사람이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결혼이 이상적일 것 같아요...(중략)...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부모인 저와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이면 좋겠지만,,,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손녀, 손자에게 한국말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한국문화 중에 인성발달에 좋은 것이 많아요. (참여자 E)

반드시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아무래도 공감대가 더 형성되고 더 행복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저는 배우자는 반드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들에게 해요... (한국인이 아닐 경우) 일단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참여자 O)

반면에 자녀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도 있다. 한국의 시댁문화를 언급하며 잘 키운 딸이 시댁에서 순종하며 가사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음을 상세하게 표출하였다. 다만 한국인 가정도 미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가정의 자녀와 결혼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배우자는 결국 아이의 선택의 문제지만... 되도록 미국인과 결혼시키고 싶어요. (아이들이) 둘 다 딸이다 보니 한국의 시대문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중략)... 머느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고 종질해야 하는 한국식 시대문화 이야기를 들으면 공포심이 생기죠... 부부와 자녀 중심의 미국식 결혼문화를 더 선호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배우자일 경우는 한국인 부모 모두가 3세라서 미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는 제외하고 되도록 원하지 않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L)

5) 한인 공동체에 대한 제언

(1) 한인 공동체의 역할

①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멘토링과 지원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위해 한인 공동체가 멘토링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청소년들 진로에 조언을 주고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것 외에 성공한 한인들의 특강이나 세미나 등으로 청소년들을 동기화시키며 1-2세대가 선배로서 후배들의 진로발달을 지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이에 맞게 도전이 되거나 동기부여를 받을 만한 인사나 명사들의 세미나 혹은 강연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A)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는 것 같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에 더해서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이나 경험을 나누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J)

성공한 분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고, 전문 직종을 방문하여 일일 체험하고, 멘토로 모시고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참여자 K)

재미교포들끼리 서로 networking을 만들어서 mentoring 하고 그것을 통해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한인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하여 2세, 3세대들은 돕고, 1세대와 2, 3세대 간의 언어나 문화 차이를 1.5세대들이 가교 역할을 하여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G)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는 한인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참여자 N).

② 가정과 부모교육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자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정과 부모가 자녀교육과 지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부모가 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녀에게 타인과 협력하는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올바른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교육이 가장 필요해요. (참여자 D)

우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닌...(중략)... 남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마음과 정신을 길러 주는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참여자 F)

저는 (자녀교육은) 우선 가정에서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정부의 제도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참여자 G)

이와 함께, 국제결혼 참여자들은 자녀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하며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한인 공동체 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그것도 너무 바라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줘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원천

봉쇄할거예요...(중략)...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하고,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하죠. (국제결혼 참여자 L)

6)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

(1) 고국방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방문을 통해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부모나라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느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가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방문은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더 좋을 거예요. 고국의 가족 모임에 가는 방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고국 방문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자신과 부모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꼭 방문해야 부모를 이해하고 한국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H)

부모의 고향을 보며, 부모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확인하며 배우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 가족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죠. 또,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알고 배우게 하고 싶어요. (참여자 I)
(고국방문을 통해)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자라서도 가고 싶은 그리고 잠시라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친근감을 주고 싶어요. (국제결혼 참여자 M)

(2)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정부가 재미동포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단계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연계하여 Job Fair나 실제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앞으로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녀들이 미래 한국에서도

일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영어로 소통이 되는 한국 기업/단체/가이드 등과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글로벌한 인재를 쓰기 원한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참여자 A)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Job Fair를 지원 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그 Job Fair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단체에서는 1세들을 위하여 많은 Job Fair를 제공하지만 2세들을 위한 것에는 조금 부족해요. (참여자 B)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더 고민하고 선택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중략)... 현재 많은 시설들이 있어도 어린이 위주라서,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정말 다양한 곳에 우리 후세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program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그런 단체나 제도를 위해 한국정부에서는 그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하는 형태의 program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G)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체험을(하며) 자라서 실제 직장에서도 다시 한국과 연결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일이 한국정부나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제결혼 참여자 M)

다양한 인턴의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의 뛰어난 차세대들을 한국 국적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권유하여, 한국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참여자 I)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쯤부터 기업문화에 익숙하게 한다든지 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자 O)

(3)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참여자들은 한국정부와 한인 공동체 그리고 기업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인 공동체에 그리고 한국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인으로 자신의 정체성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학금 제도들을 추천해요. 한국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다져 질 거고,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그 성공을 바탕으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돕게 될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인 커뮤니티에서 후원해 주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장학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한인동포사회에서 이런 교육과 후원을 받고 자란다면 자신의 성공을 동포사회와 한국을 사랑하고 기여하는데 돌리게 되겠죠. (참여자 F)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들을 위해서 대학등록금 문제가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대학등록금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싸요...(중략)... 한국정부, 미국정부,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국제결혼 참여자 L)

여러 기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잘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여자 O).

3.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⁹³⁾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와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들여다보기, 한국학교 살펴보기, 한국학교에 대한 제언,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표 VI-44> 참조).

표 VI-44 재미동포청소년 교육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들여다보기	· 이중정체성 발달	· 이중정체성 갈등 · 이중정체성 발달의 중요성 · 문화와 민족 정체성 이슈 ·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정체성 함양
	· 한국어 언어교육의 현 주소	· 과거 언어교육의 문제점 · 청소년기 언어 교육의 중요성 · 문화와 역사교육을 병행한 언어교육
	· 미래 진로와 직업	· 이중언어 사용은 취업기회의 확대 · 양국 간 가교역할의 글로벌 리더
한국학교 살펴보기	· 역할과 기능	· 민족 정체성 함양의 장 · 리더 양성의 전초기지 · 정서적 지지 공간 · 문화와 언어 전파의 선봉장
	· 현황과 문제점	· 한국학교의 현황 · 한국학교의 문제
한국 학교에 대한 제언	· 학교 운영 개선 · 주류 교육과정과 연계 · 교재 개발과 동영상 제작 보급 · 교사연수와 전문성 확보 · 지속적인 학교 재정 지원 · 학교에 대한 종합적 제언	
한인 공동체에 대한 제언	· 한인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 한인 공동체의 과제 ·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지원과 협력 필수	

93) 이 부분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1)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들여다보기

(1) 이중정체성 발달

① 이중정체성 갈등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많은 재미교포청소년들이 나는 미국인인가? 또는 한국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등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M의 사례처럼 중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이 백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대학에 가서는 주변사람들로 인해 아시안으로 그리고 코리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의 이중정체성 갈등은 문화적 단절과 물이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재미동포청소년 자신이 이중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미국사회나 한인공동체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이중문화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 학생은 부모와의 대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삶을 살며 방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참여자 I와 F는 재미동포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중정체성을 잘 알고 적응하는데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체성에 혼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한국어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한국에 대한 조국애나 사회 이슈에 별로 민감치 않아서 어느 나라 국적인지 별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다 대학생들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미국사회나 한인사회에 별로 활동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참여자 D)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나 이민을 온 교포 학생들 또는 다른 나라에 태어나 미국으로 들어와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혼란스러워해요. 때로는 2세인 부모 세대와 공감이나 이입이 이뤄지지 않아 대화의 단절을 보이기도 하구요. 2.5세, 3세로 나아가면 더 많은 단절과 물이해, 그리고 문화 수용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H)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현재 재미동포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중략)...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국 관련 무엇인

가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지요, 후에 그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대도시에 나가 정체성의 혼란을 크게 겪는 경우도 봅니다. (참여자 F)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친구들과 어울려 다녀도 그들의 핏속에 흐르는 DNA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American으로 주장을 해도 미국친구들은 그들을 Korean-American이나 심하면 외국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정체성(Who am I?)을 심각하게 느껴 방황하게 되는데 일찍부터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알게 되면 방황하지 않고 당당해 지더라고요. (참여자 I)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미국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 한국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이중생활이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주고 이 속에서 언어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대화 단절, 문화 이중성의 혼란이 학생들을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방황하는 제3의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높은 확률이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는 있어요. (참여자 N)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까지는 자신이 바나나로 생각하지요. 겉은 아시안이지만 속은 백인이고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교우관계나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는 백인이나 흑인 아메리칸이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이나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대부분임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한국어와 한국역사문화를 알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참여자 M)

② 이중정체성 발달의 중요성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민족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인종차별 등의 문제에 봉착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한민족에 대한 긍지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L 과 M은 민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며 자신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과도 소통을 통하여 한인으로 정체성을 키우며 동시에 미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이중정체성 발달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민족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인종 차별을 받게 될 경우 그러한 충격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한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지요. (참여자 A)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과 약함이 없이 자긍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감당하여 성공적인 삶을 갖고 후세에게 한민족정체성을 남겨줄 수 있어 자녀들과도 소통을 통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 시킬 수 있으며 한인 사회에도 후세들을 위해 환원하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참여자 L)

한민족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더 존경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 M)

③ 문화와 민족 정체성 이슈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의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겪는 문화적 충격과 정체성 혼돈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모나 청소년 스스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문화나 민족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 C는 한인 청소년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 한국문화를 즐기는 것을 창피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알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 문제가 현재 재미동포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다.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한국인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그들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을 좋아하는기는 하지만, 한국어나 한국과 관련된 것을 즐기는 것이 웬지 창피하고 미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류의 열풍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C)

대한민국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재미동포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를 뿌듯하게 합니다...(중략)... 하지만, 많은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들에게 한국인으로 뿌리교육을 시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하도록 한국에 대한 문화, 역사와 언어를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F)

한 가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 재미교포 2세들의 불미스런 일들이 보게 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우리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이나 이 세상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참여자 O)

④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정체성 함양

교육전문가들은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인지도가 높은 소셜 미디어 중 한국문화를 알리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여자 K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능력 있는 블로거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동시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

유튜브 블로거들(YouTube bloggers)이 연예인만큼 인지도도 높고 영향력이 큼니다. 그중에는 유명 재미동포 블로거들(댄스, 뷰티, 코미디 분야)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재미동포청소년이 이를 통해 한국을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블로거들을 발굴하여 재정적 지원 및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 K)

한국드라마 혹은 K-Pop 등 한류를 통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참여자 D)

(2) 한국어 언어교육의 현 주소

① 과거 언어교육의 문제점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과거 1세대 부모들은 정책적으로 영어를 강조하는 미국사회 분위기와

한국인으로 미국사회 내 빠른 정착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어습득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40대가 된 한인 2세들이 한국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참여자 M은 부모는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여 부모-자녀 간에도 어려움이 많고 한인 커뮤니티에 활동도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보통 중소 도시 교포학생들의 특징은 1세대 부모님들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은 거의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기회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여자 D)

과거에 이민 1세들은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빨리 잘 적응하기 위하여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그래서 한국어를 등한시하며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Melting Pot)것이라 생각 했어요. (참여자 K)

영어만 하고 한국어를 못하는 재미교포2세와 한국어와 영어를 하는 재미교포2세는 친구들도 다르게 사릅니다. 제가 아는 35세 남자는 고등학교까지는 영어밖에 몰랐다고 하더군요. (참여자 O)

1980년대 이전의 한인 2세들은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멜팅 팻 정책으로 민족 언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부모들도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 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도 적었지요. 그래서 지금 40대 한인 2세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여자 M)

② 청소년기 언어교육의 중요성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이 미국 문화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소년시기에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 강화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며, 결국 미래 취업과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에 한국어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린 시절의 한국어 학습은 부모-자녀 간의 소통 강화, 문화적, 정신적 측면의 강화 등의 여러 장점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 교육이 필요

모든 교육은 시기가 있지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답을 정립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B)

이미 미국의 문화와 영어권 속에서 어린 시절 더 많이 노출되어 자랐을 경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언어와 제 3언어로 어렵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은 안타까워요...(중략)...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학습자 참여의 방법으로 한국어를 일찍부터 배워야 해요. 학습자들의 언어습득의 시기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봤네요. (참여자 H)

어린 시절에 한국어를 배운 학생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 배우게 되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지 않음을 많이 봤어요. (참여자 M)

기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혼과 정서를 이해하는 언어로서 한국어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아동/청소년시기의 배움은 소중한다고 할 수 있지요. (참여자 N)

나. 부모-자녀관계와 소통에 도움

아동, 청소년기에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이런 시기를 잘 넘기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자신감을 많이 가지며 성공적인 미래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C)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인해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부모님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같은 민족의 또래집단과 함께 어울리며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장점도 있고요. (참여자 E)

어렸을 때부터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은 자녀들이 다른 문화 속의 생활권에서부터 자라 온 부모를 좀 더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③ 문화와 역사교육을 병행한 언어교육

전문가들은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한 관계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문화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교육이 병행되어야 한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참여자 H는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노출시켜 교육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언어의 표현은 문화의 표출이죠.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한 관계를 볼 때,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문화를 알게 되는 지름길이고, 언어는 문화를 앎으로써 그 완성도를 더해 갈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의 관계는 항상 병행되어야 하죠. (참여자 B)

한국어의 사용능력만이 강조되거나 문화나 역사 등의 어느 한 가지만이 강조 되었을 때는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봤어요. (참여자 C)

언어의 사용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해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역사를 통한 정체성을 정립한 상태에서 그 언어를 구사하면 효과는 갑절이 되지요. 그러므로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더 많이 노출되고 교육되어야 해요. (참여자 H)

재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중략)... 국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또한 국어이지요. 조상을 알아 간다는 것의 기초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어디에서든 한국어를 모르면서 자신이 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자 N)

(3) 미래 진로와 직업

① 이중언어 사용은 취업기회의 확대

글로벌 시대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도 점차 중요해 지면서 미국 내 이중언어 사용자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영어 외 한국어 사용 가능자는 취업이나 승진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음을 설명하였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 한국어의 사용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구사 능력자를 찾는 곳이 많아졌지요. 구직자가 면접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 한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는 실화가 있어요. (참여자 B)

2중 언어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취업과 승진, 급여 상향조정 그리고 근무능력 향상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자의 요청이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증가 하고 있어요. (참여자 L)

② 양국 간 가교역할의 글로벌 리더

다음 사례들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잘 아는 재미동포청소년들이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 한국과 미국 간에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인공동체의 위상도 높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미국과 한국 양쪽의 문화를 다 이해하는 재미동포청소년이라면, 점차 중시되는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득이 되는 결과보다는 양국의 타협점을 잘 찾아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고, 더불어 한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F)

한국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한국인의 우수성과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교육이 함께 하면 진정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글로벌 한 차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참여자 K)

작게는 집안에서 부모님과 미국생활의 편리함을 연결해 주던 자녀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이젠 더 넓은 의미의 한국과 미국의 외교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O)

2) 한국학교 살펴보기

(1) 한국학교의 역할과 기능

① 민족정체성 함양의 장

한국학교는 재미동포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민족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임에 틀림없다고 한다. 교육전문가들은 한국학교 교육과 활동을 통해 재미동포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우정을 쌓고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한민족 공동체성도 키우게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학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국사회 안에서 한국을 체계적으로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참여자 G)

가정에서 일일이 가르칠 수 없는 한국인의 단체 생활이나 문화 그리고 정서 등을 같은 한국인들끼리 생활하며 배울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정체성의 기본을 심어 주는 곳이죠. (참여자 C)

고유의 문화 교육 활동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습관이나 관심의 표현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율할 줄 알게 되어 성공적으로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참여자 K)

한국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고 봐요. 잘못된 역사 기록에 대해서 함께 진정서도 내고 한국의 학교 모습도 배우고 미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의 생활의 다른 점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중략)...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도록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참여자 M)

② 리더 양성의 전초 기지

교육전문가들은 한국학교가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인재 양성에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한국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학생들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세계시민 또는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리더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산을 이어주고 미래를 보는 시야를 키워 장래 글로벌 지도자를 양육하는 미국속의 한국이에요. (참여자 D)

많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아이들이 세계시민 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한국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J)

한국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자존감은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세상을 넓게 보고 도전하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된다고 생각해요...(중략)...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전초기지이고 교두보 역할도 감당하지요. (참여자 K)

③ 정서적 지지 공간

한국학교는 미국 땅에 사는 교포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며 어머니와 같은 장소로 한국적인 정서를 나누고 가족과 같이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재미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학교 참석은 많은 의미를 주는 장소라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같은 모습으로 생긴 한국인끼리 모인 집단에서 한국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정서를 나누고,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그들만의(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학교의 참석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한국학교는)정체성을 찾아 확신과 자긍심을 키우는 역경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온상이고 타국에 사는 교포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어머니예요. (참여자 D)

소수민족이 갖는 감정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에 관한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한국학교가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민족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가족과 같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요. (참여자 O)

④ 문화와 언어 전파의 선봉장

교육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이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 언어 등을 미국사회에 소개하고 알리는 문화대사로서 양국 간에 민간 외교관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지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지금까지 한국학교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재미동포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는 문화와 언어 전도사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요. (참여자 G)

한국의 문화와 역사, 음식, 한국무용, 전통놀이 난타공연 등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알리는 문화대사의 역할과 한국 문화 예술을 가르쳐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한미 양국 간 협력과 우호 증진에 힘쓰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참여자 K)

(2) 한국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① 한국학교의 현황

한국학교는 아직까지도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교포들의 열정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참여자 H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와 교사 연수 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학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은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한글학교는 오랜 역사의 전통만큼 비교적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와 문제집, 학교 운영과 학술대회 및 연구지 등도 체계를 갖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교사들의 집중적 연수와 재교육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재미교포들의 고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H)

재정 면이나 학교 수업 일수 기타 부족한 여러 면을 생각해 볼 때 미국에서의 한국 학교는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부족한 재정을 몸으로 때우면서 끈질긴 한인의 모습처럼 잘 지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M)

② 한국학교의 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학교가 수적으로는 증가하지만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학교가 재정이 나 수업 일수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타국가의 언어학교와 비교하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최근 한국·한글학교가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한글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 수준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참여자 B)

대부분의 한국학교는 교육환경 및 재정적으로 열악한 현실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지만 잘 수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참여자 L)

중국어 학교와 비교하자면 나라의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O)

3) 한국학교에 대한 제언

(1) 학교 운영 개선

교육전문가들은 한국·한글학교를 신설·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기존 한국학교와 통합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교육방법 등을 서로 협력하여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의 정규학교 교육과도 상호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주변 한국학교들이 통합하면 학생들의 거리상 이동과 교회 신자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며 적절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몇 명의 학생들로 한국·한글학교를 신설,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기존 한국학교와 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B)

미주 각 지역사회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체계 잡힌 운영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주지역의 정규학교 교육과의 상호 보완/연계 학습으로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자 H)

한국학교는 많지만 학교다운 면모를 갖춘 학교는 많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학생이 작아서 1학년과 5학년 학생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통합형 한국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생들 나이와 수준을 고려한 반 배정이 가능하나 거리상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 너무 먼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속한 한국학교가 대부분인 미국은 교회에서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학생을 보낼 경우 교회 출석자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로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참여자 J)

(2) 주류 교육과정과 연계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미국 정규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공교육 시스템 속에 한국어교육이 운영되어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대를 반영하고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성과와 평가가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나가야 한다고 봐요. (참여자 D)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과... 미국 내 정규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E)

현지실정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 및 공급(한국어, 한국역사, 문화)이 필요하고 현지에서 개발하여 사용되는 교과서를 검토하여 교육효과가 좋은 교재를 지원하고 공급해야 해요. (참여자 L)

Digital Natives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 방법과 활동을 더 많이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도록 이끄는 제도가 필요해요. (참여자 M)

한국어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미국 공교육시스템에 한국어 고급과정과 AP과정을 꼭 넣어야 해요. 왜냐면,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이 미국 공교육과 연결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민족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 O)

(3) 교재 개발과 동영상 제작 보급

모든 교육전문가들은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교육에서 교육 자료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어권 동포학생들이 대상임을 고려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동영상 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을 희망하였다. 특히, 역사 교육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어로 된 동영상 제작 등을 건의하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도할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학습지 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특히 역사 교육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로 된 역사적 사건의 동영상 제작 등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행사 때 그 자료를 찾을 때마다 아쉽네요. (참여자 B)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위한 앱 기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 캐릭터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게임과 접목하여, 한국어, 문화, 예술과도 관련 하여 개발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D)

멀티미디어를 통한 좋은 정보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새 멀티미디어나 만화와 같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참여자 E)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도할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학습지 등을 업데이트 시켜 개발해야 합니다. (참여자 H)

(4) 교사 연수와 전문성 확보

전문가들은 교사 연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한국학교 행정가와 교장단 연수, 관련 단체장 등의 연수 등을 통해 교육 지도자의 자질 개선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지도자는 교사를 지원하고 더 많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세대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미래 세대 교사양성도 준비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교 행정을 잘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교장 연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한민족정체성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들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열정은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전문성 교육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지요. (참여자 A)

교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전문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문화와 뿌리 교육을 위한 특별 담당 교사의 영입이 필요해요. (참여자 D)

한국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한국학교 행정가와 교장단 연수, 관련 단체장 등의 연수,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도 개선시키고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한국학교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여자 H)

좀 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한글은 물론이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며 물질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자 K)

통일된 교육과정을 통한 각 학교 간 평준화 및 학생의 분포가 1.5세-2세였던 것이 이제는 2.5세-4세로 학생의 세대가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꾸준한 차세대 교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L)

미국에서는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가 있고 각 지역협의회가 교사연수회를 적어도 1회 이상 정성을 다해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등에서 교사 초청연수 등을 하고는 있지만 횟수를 늘려 더 많은 교사들이 방문해 새로운 교수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어요...(중략)... 교회는 책임자를 목사님이 맡지 말고 교육전문가를 교회 안에서 찾아 (교회 밖에서 초빙하는 것은 전면 불가능하니까) 교장직을 맡기고 그 교장이 교사를 찾고 교사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야 해요. (참여자 I)

(5) 지속적인 학교재정 지원

교육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지에 후원도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적절한 재정의 확보는 학교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양분이며, 좋은 교사를 확보해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참여자 M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원봉사자나 교사의 열정과 헌신만 요구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학생들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후원 역시 중요한데, 진행 사업에 따라 후원 기간이 달리 설정되거나, 예산이 삭감 되는 등 현지에서 발로 뛰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참여자 H)

미국에 약 1000개의 한글학교 중에서 90% 이상이 개신교의 부설학교인데 헌금의 극히 일부만 한글교육에 쏟고 있어요...(중략)... 한국어 교사에게 적절한 사례금을 드려 자존심과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를 은근히 기대한다면 지속적으로 교사를 붙들어 둘 수도 없고 가르치는 교수법 등을 연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지요. (참여자 I)

수업 준비를 포함한 많은 업무 시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 많은 교사들이 주중에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 교사로서 직업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

에 밀려요...(중략)...장기적으로 교사 대우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교사 배려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정부의 교사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한국정부의 지원이 최근에 들어 높아졌는데 한번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즉,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마구잡이로 변동하는 지원 방법은 개선되어야 하다는 거죠. 교육은 1-2년 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지원이 끊긴다면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참여자 M)

한국·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늘어 한인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까지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역사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F)

(6) 학교에 종합적 제언

종합적으로 교육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국학교협회의 중심적인 역할과 지원을 제안하였고 교사의 교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교사의 헌신적인 자세와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캠프, 모국방문, 자매결연학교, 펜팔 등 소통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교류하여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는 한국청소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젝트와 캠프,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등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하고 교환학생 시스템도 미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참여자 D)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국 방문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홍보해서, 보다 많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해요. (참여자 F)

공립학교 교장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다녀온 그들은 친한파가 되어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는데 적극적이고 한국학생들을 보는 눈이 바뀌

게 된다고 봐요.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관심을 갖고 보듯이 조국도 해외동포를 따스하게 돌보면 몇 배의 효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여자 I)

잘 짜인 커리큘럼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보다 듣고 지켜봐 주면서 격려하는 선생님의 헌신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잘 짜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교실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J)

4) 한인 공동체에 대한 제언

(1) 한인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한인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 선배가 후배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인 공동체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후세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돕는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성인 공동체와도 네트워킹 되어 이끌어주고 서로 협력하여 후세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참여자 I)

지금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우리 후세들을 미국 주류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계진출을 돕거나 교육자로 키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중략)...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한 명의 정치인과 교사가 상대하는 사람과 학생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지요. (참여자 J)

학생들이 배운 한국에 대한 지식과 문화 예술은 각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리더의 자리의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요...(중략)...대학 강당을 빌려하는 큰 공연이었는데, 수백명의 학부모와 선생님, 대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이런 경험을 한 학생이라면 한국의 문화 예술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으로 스스로도 만족하고 앞으로의 삶 또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참여자 O)

(2) 한인 공동체의 과제

교육전문가들은 후세대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인공동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후세대들에게 양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 그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사회에 나아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한인 공동체로 돌아오는 후세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인 공동체에 존재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일깨웠다.

미국의 장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국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재미동포를 기대해요...(중략)... 하지만, 졸업 후에는 다시, 주류사회에 들어가 미국인들과 섞여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고등학교 때 친구 사이 일 때와 사회에 나가서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경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결국은 한인들끼리의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이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이슈로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참여자 B)

많은 한인들은 두뇌가 우수하여서 우수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주의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의 힘없는 민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또 이런 개인주의는 개인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요. (참여자 C)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조부모와 생활하여 한국인의 생활습관과 예절을 익힌 학생들은 교회나 다른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을 경험했고 한인 청소년들이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이민 사회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여자 M)

(3)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지원과 협력 필수

참여자 M은 현재 재정적으로 열악한 한국학교·한글학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한국학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들은 한국 학교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단계로 부모가 인식해야 하며 자녀들이 꾸준히 한국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학교는 정부가 세운 학교도 아니고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한국학교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학교는 학원이나 Day care 개념이 아니라 꼭 필수로 6년은 다녀야 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가지므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나오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고 이를 통해 학교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 봐요. 학생 수가 일정치 않고 계속 변동이 있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도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참여자 M)

한국·한글학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관심과 열정 및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후원이 여전히 필요해요. 또 미국에서의 한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참여자 H)

4. 소결⁹⁴⁾

1)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청소년은 541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45.8%(248명), 여자 청소년은 54.2%(293명)이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34.9%, 고등학생 45.5%, 대학생 17.2%, 기타 2.4%로 나타났다. 북동부(24.9%), 서부(26.8%), 남부(30.9%), 중서부(17.4%)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미국 거주 기간은 평균 14.5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71.3%가 미국 출생인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4% 정도의 청소년은 본인 출생 전 부모 또는 조부모 이전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주말 한국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로 나타났으며, 평균 재학기간이 약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말 한국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많고 다닌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86.6%) 경우 부모님의 권유로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사용 능력과 관련한 설문에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말하거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된 직업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과, 미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재미동포 부모의 경우는 미국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내에서 보통 미국인들의 직업 생활 형태를 자신의 자녀들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민족에 대한 의식을 갖고는 있으나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실천 부분에서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와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민족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많으나 문화와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94) 이 부분은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한민족역사를 알거나 한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창의적사고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과 관련한 조사에서 동포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의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회, 한인 커뮤니티에서 동포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동포청소년을 위한 캠프나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등에는 상대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러한 기회가 적어서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국 방문 기회를 더 많이 제공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었다.

한국관련 교류 욕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낮게 나타났다. 재미동포청소년에게 자신들이 향후 동포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흥미롭게도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혹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와 같은 직접 역할 기여 문항보다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함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 역할 기여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와의 가정생활,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의식이었으며,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어능력, 부모와의 가정생활, 동포청소년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실천과 의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하고 동포청소년과 교류경험이 많았던 재미동포청소년이 단순히 자신이 한민족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실천적으로 역사를 알고 동포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실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포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결과에서는 동포 청소년과의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 욕구, 한민족정체성-실천,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한국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수록, 그리고 미래 인재 역량 중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동포사회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재미동포청소년 학부모 면접 조사

재미동포청소년의 학부모와의 면접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어 교육, 자녀의 미래 삶과 진로, 한인공동체에 대한 제언,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가족관계, 한국문화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자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비록 이중 정체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한민족을 토대 위에 성장해야 건강한 미국인으로 살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중 언어 사용은 자녀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 주말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도움 받고 동포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돕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

면접자들의 자녀 중 대부분의 청소년이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하였다. 자녀들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인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학부모도 있었다. 재미동포 학부모들은 한인 공동체가 재미동포청소년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희망과 한인 공동체와 연계한 부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보였다.

재미동포청소년의 부모는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고국 방문 프로그램, 직업연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같은 지원 제도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였다.

3) 재미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 조사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와의 면접 조사를 통해 재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주말 한국학교의 기능과 문제점, 제언, 한인 공동체에 대한 제언 등을 살펴보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재미동포청소년들의 이중정체성 갈등은 문화적 단절과 몰이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재미동포청소년이 자신의 이중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미국사회나 한인공동체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인 한국어,

역사,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과거 1세대 부모들은 정책적으로 영어를 강조하는 미국사회 분위기와 한국인으로 미국사회 내 빠른 정착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어습득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40대가 된 한인 2세들이 한국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해서는 미국 문화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의 한국어 학습은 부모-자녀 간의 소통 강화, 문화적, 정신적 측면의 강화 등의 여러 장점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미국의 주말 한국학교는 민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 동포청소년과 교육자를 통한 정서적 지지 공간의 역할,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세대 교사의 필요성, 재정적 어려움, 한인 공동체와의 연계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주말 한글학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 공동체, 학부모, 지역의 교육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V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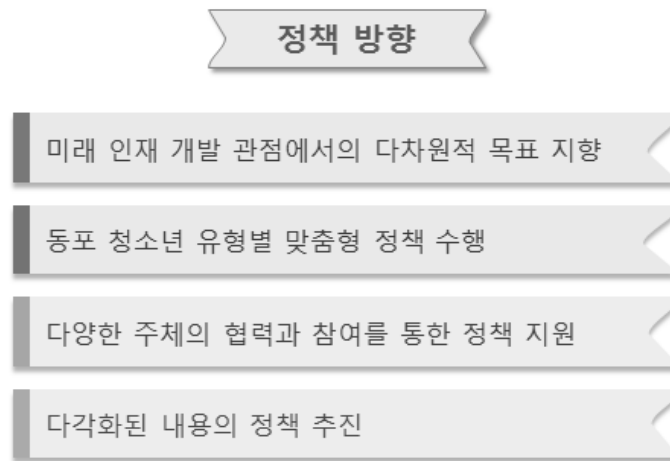
정책제언

1. 정책 방향
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3.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제 VII 장 정책제언*

1.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미래인재 개발 관점, 동포청소년 유형별 특성,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관계, 다양한 정책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목표 지향, 청소년 대상 맞춤형, 다양한 주체의 참여적, 다각화된 내용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

첫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미래 인재 개발의 관점과 밀접히 연관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미래 인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한민족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발전을 후원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세계 공동체의 발전은 물론 한민족의 우수성을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은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음.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폭넓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국가 및 동포청소년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고 정책 접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책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은 동포 청소년 거주 지역 및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동북 3성 지역과 대도시지역 청소년 간에 현안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조선족청소년에 대한 한국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교육기관 및 지자체간 협력 등이 최대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주 대상이 중도입국청소년이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잦은 왕래로 인한 중국 조선족 청소년정책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교육 정책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관심을 갖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재외동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 안에서 공통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과 중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중동포청소년 정책의 경우,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지만, 재중동포청소년 특성상 동포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상당 정도의 정책은 동포사회 공동체의 참여 없이는 수행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 사항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역 교육청, 혹은 민간기관을 통한 접근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정치적 논쟁거리를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측면에서 지자체와 기업, 교육청과 기업, 정부와 청소년시설·단체 등 여러 주체간의 공동의 사업 개발과 지원 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는 국내 초청 사업과 같은 국내 중심의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실시 가능한 정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부처의 지원 하에 미국 현지의 동포사회 공동체 또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제도의 정비, 추진기구의 설치,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상담 등 정책 내용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센터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족정체성이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간 교류나 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적응과 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정책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정책목표와 동포청소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한민족발전의 촉진자(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조력자), 세계시민(한민족문화 계승자)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조선족청소년(동북 3성 지역 청소년, 대도시진출 청소년, 한국진출 청소년)과 재외국민청소년별로 제안하였다.

표 VII-1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중동포청소년 정책과제

		한민족발전의 촉진자 (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 (조력자)	세계시민 (한민족문화의 계승자)
조선족 청소년	동북 3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청소년 교육지원 • 각종 경연대회 확대 • 한국 기업 인턴쉽 및 취업 프로그램 확대 •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및 매뉴얼 개발 •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 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대도시 진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의 설립지원 •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등 한민족교육기회 확대 •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동포청소년간 교류기회 제공
	한국 진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 센터 설치·운영 •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사업 실시 •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 • 조선족청소년의 전문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 •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 설치 지원 • 조선족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 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 •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

	한민족발전의 촉진자 (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 (조력자)	세계시민 (한민족문화의 계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설치 •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 시스템 구축 강화 • 은둔형청소년 상담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배치 • 모국 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재외국민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한국학교 학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리더십캠프 개발·운영

1 동북 3성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정책 과제

1-1 조선족청소년 심리 및 진로 상담서비스 제공⁹⁵⁾

■ 제안배경 : 상당수의 동북 3성 지역의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이주하고 있어서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조선족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고 학교 적응 및 학습부진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친척과 지인을 통해서 자녀교육 문제를 상담하고 있고 공식적인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사나 사설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심리 및 진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내용 : 일정기간 부모 없이도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식적인 상담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부모의 이주로 인해 전학 또는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진로 상담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학교 시스템 이해의

95)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김판준 이사(재외한인학회)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정책자문을 거쳐 수정하였음.

부족에서 오는 입학 거부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동북 3성 지역에 조선족 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상담심리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족 교육기관 또는 조선족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진학과 진로,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교육정보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조선족학교에서는 조선어문교사가 대다수 상담교사도 겸하고 있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조선어문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 상담기술 교육을 포함하고 현지에서는 상담교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조선족 커뮤니티, 특히, 조선족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에서의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한 한국 내 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동북 3성 지역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매뉴얼 개발

- 제안배경 : 조선족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한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그와 관련 활동을 하고 자녀들에게 한국, 한민족 등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게 되면, 자녀들의 생각도 한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조선족 부모들의 자녀 지도는 주로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경험을 토대로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조선족 부모들이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지도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조선족 교육기관과 커뮤니티에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정과의 비교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는 부모 교육 매뉴얼 개발과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공관과 한국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조선족 학부모들의 자녀지도를 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의 선정 등의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현지 공관, 한국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 1-3 우수 인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제공

- 제안배경 : 조선족청소년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한민족의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현재의 국적 여부를 떠나서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수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 주요내용 : 조선족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교육 및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 ·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재외동포재단에서 장학사업으로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내 대학 수학을 원하는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생활비,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모국 수학과 역사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26~28).
- 현안사항 : 장학금 지급, 모국 수학 및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재단 이외에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한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MOU 등을 확대함으로써 교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4 한민족적 자질의 우수성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경연대회 등 확대

- 제안배경 :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은 점차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가 지날수록 소원해지기 쉬운 한민족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족청소년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민족과 관련한 지식이나 품성 등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거나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대회, 퀴즈대회, 노래부르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등을 운영하여 경연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포상하거나 모국 연수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한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경연대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연대회 기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 유사사례 : 최근에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민족지식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동북 3성의 우수한 조선족 학생들에게 한국 방문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있다. 또한 중국의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에는 작문대회, 중국뿌리찾기여행, 노래대회, 문화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5: 55~61).

■ 현안사항 :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등의 활동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각종 경연대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연대회처럼 지속적인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 제안배경 : 조선족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민족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성공 과정에 한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미래 한민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주요내용** : 조선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IT 교육, 한식요리, 뷰티 등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조선족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으로는 지원 규모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관련 기업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조선족청소년들이 교육 후 인턴이나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재외한국학교와의 교류프로그램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청도정양학교에 IT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우수하고, 조선족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역 이외에 IT 교육 대상 지역이나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 **현안사항** : IT, 한식요리 등 관련 기업의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교육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6 한국 기업의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지원

■ **제안배경** :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민족의 후손인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과 중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은 매우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조선족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내의 기업에서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조선족청소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북 3성 지역 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학업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의 인력으로 확보한다.

■ **현안사항** : 정부에서 동북 3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7 민족적 자질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 제안배경 :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의식은 약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족 정체성은 한국과의 교류 등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많은 조선족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소년 교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부(재외동포재단) 이외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재외동포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국제청소년교류사업에 재외동포청소년과의 교류를 포함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지자체 조례 등에 재외동포청소년과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한국학교와의 교류사업과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200명 이내의 동북 3성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통 및 현대문화체험, 역사유적지 답사, 대학탐방 등의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15).
- 현안사항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의 상정 등을 통하여 부처 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의 관련 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8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⁹⁶⁾

- 제안배경 : 한국의 경우에 청소년 개인 단위나 학교 단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 조선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주요내용 : 한국의 교육기관과 중국의 조선족 교육기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 교류 활동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캠프에서부터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진학과 유학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한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에서의 진로선택의 기회도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적 교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국내 학교와의 교류도 추진한다.
- 유사사례 :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국내의 일부 교육청에서 중국 동북 3성지역 등의 조선족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현안사항 : 중국 측은 명문화된 교류 관련 규정이 없고 사안이나 상황 중심으로 교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교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별 사업의 추진은 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의 사업과의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재외동포재단 등에서의 이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1-9 국내 · 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지원

- 제안배경 :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체험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의 문화체험과 한국 방문을 통한 체험 기회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어서 조선족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96)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김판준 이사(재외한인학회)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 **주요내용** : 중국 내에서 조선족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조선족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을 위하여 한국 내 뿌리찾기 프로그램, 조선족청소년동아리와 한국청소년문화동아리와의 연합체험활동 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재중동포사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주도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국내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재외동포사업의 전담기구인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일관된 정책 수행이 필요하며, 동포사회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관련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정책 과제
---	--------------------------------

● **2-1 한글 등 한민족 교육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중국 내 대도시로 진출한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한국어 및 한민족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한국어 및 한민족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현재 대도시 지역의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민족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한글주말학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 인원이 매우 적고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규모나 대상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생 이후의 시기에는 학업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주말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한글주말학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글주말학교에서 한글 교육 이외에 등록금면제 또는 감면, 장학금 지급, 동포청소년 모국방문 시 우선 선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말한국학교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중국 내 대도시

있는 한국학교가 조선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비의 일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호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한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학교 학생과 조선족 동포 학생간의 1:1 친구맺기, 홈스테이, 동반 한국 방문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유사사례 : 조선족 학교가 없는 대도시인 천진(티엔진)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한국학교에 의뢰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진한국국제학교의 주말한글학교는 매년 조선족 동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한글 캠프(동령영, 하령영)은 매회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⁹⁷⁾.

■ 현안사항 : 재외동포재단, 청소년단체 등 한국 관련기관에서 한글주말학교를 청소년활동 교류의 주체로 인정하여 활동프로그램이나 교류프로그램에서의 대상자 선발, 운영 등을 한글주말학교와 함께 하고 교육부에서는 한국학교에서 교육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 사립학교의 설립 지원

■ 제안배경 : 조선족청소년들이 중국사회에서 경쟁력과 함께 한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말에만 실시하고 있는 한글학교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고등학생 연령대에도 한국어와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동북 3성 지역의 경우에는 조선족청소년들을 위한 중·고·대학교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청도정양학교가 유일한 민족학교이다. 과거에 북경 등 타 지역에도 조선족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교사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상해 지역에서도 조선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조선족 동포사회의 공감과 참여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97) 정책자문 과정에서 제안된 교육부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대도시 지역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한다. 한국이나 조선족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며, 학교 설립을 위한 정보의 제공, 관련 전문가의 연계, 교사나 기자재 등 물적·인적자원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 **현안사항** : 대도시 지역 내 사립학교의 설립은 조선족 커뮤니티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중국 내 사립학교 설립에 중국 정부와 동포사회 커뮤니티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3 대도시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 **제안배경** : 청도정양학교를 비롯하여 조선족학교를 설립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어 및 한민족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도정양학교의 경우에는 동북 3성 지역에서 교사가 수급되어 왔으나 점차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 있는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일정기간 교사로 활용한 경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 **주요내용** : 조선족학교에 한국어 및 예체능계 교사나 인턴 등을 파견함으로써 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범대학뿐만 예체능계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민족 문화를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에서 각급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중국 등 외국에서 교사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턴교사 선발 시 자격기준을 다문화가정 출신, 중국 문화 경험자,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력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사의 파견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학교나 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사립학교와의 협약을 통해서 교사를 파견하는 방법 또는 유휴 교사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4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 제공 지원

■ 제안배경 : 한국과 다른 중국의 문화 정책 환경으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방과 후에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고,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많지 않다. 또한 조선족청소년이나 부모들은 청소년활동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족청소년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선족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활동을 조직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조선족사회 동포들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특별히 청소년활동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청소년전문가들과 동포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여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으로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조선족단체나 교사 대상의 교육 또는 연수 시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등 국내 청소년단체의 해외청소년동포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안사항 : 한국 내 청소년활동의 주요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단체 등과 조선족 커뮤니티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청소년 및 전문가의 교류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족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또래동포청소년 간 교류기회 제공

■ 제안배경 :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민족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민족 문화 체험은 한민족 문화라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러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간의 교류와 조선족청소년과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조선족청소년 관련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기업가협회 등을 통한 지역 간 청소년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의 청소년기관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학교 또는 지역교육단체 간 연계를 통한 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동포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또는 한국에서 동포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조선족기업가협회 등 조선족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의 조선족청소년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마련하는 일을 조선족 동포사회가 책임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정책 과제

3-1 초·중학생 대상의 한국학교 학비 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중국에 있는 재외국민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초·중학생 연령대에도 한국학교에서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수 백 만원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내용** : 모든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토요한글학교 프로그램을 무상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 교육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학비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다. 일단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3-2 한국학교에 상담전문교사 파견 등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 제안배경 : 최근 중국 내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사용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한국 문화 및 한국 학교 적응에 어려운 학생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정이나 학생을 위한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적 준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향후 이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한민족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상담전문교사 등을 한국학교에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적응과 정체성 문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의 정체성 혼란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상담 교사의 지원이 우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전문교사 파견의 경우에는 일단 다문화가정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전문교사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학교 교사 파견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사파견 대상 선발 계획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3-3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제안배경 : 중국 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언어나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 교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의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족에 국한해서 지원해 왔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및 교육 등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재개발, 전문가 파견 등 재외국민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토요 한글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시간대 학부모를 위한 토요 한글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학생들의 경우에, 어머니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가정통신문을 해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물을 잘못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머니 한글교실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수익자 부담경비인 관계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방과 후 지원금에서 학부모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별도 지원금을 통하여 학부모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재외국민의 다문화가정 확대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3-4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선

- **제안배경** : 중국에 있는 재외국민청소년들은 주로 한국학교나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한국학교에 비해서 학비가 비싸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만 다니고 있으며, 한국학교는 그 밖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다. 국제학교는 국제화를 지향하는 언어교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지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국제학교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지급해서라도 국제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향에 있어서 많은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국학교의 경우에 국제화를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함께 언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국제학교와 같이 융통성 있게 언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수준 높은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한국학교에 초빙된 교사들의 처우가 확대되면 한국 내 수준 높은 교사들의 해외학교 지원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한국학교 초빙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며 연수이수

시수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한국의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 교사들에 연수비 지원과 함께 연수 이수 시간 인정해 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교육부에서 한국학교의 필수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3-5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 제안배경 : 중국에서는 재외국민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여가시간을 적절히 보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이외에 재외국민 청소년들이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어서 학업 이외에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기에는 학업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험과 체험활동이 필요한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재외국민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 주요내용 : 재외국민청소년들의 재능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외한국학교의 경우에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관과 중고등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며, 책을 읽고 토론하고 모둠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북카페나 스터디룸이 필요하다. 한국학교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커뮤니티 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국민청소년들의 예체능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청소년센터에서 다양한 예체능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2015년에 재외동포재단에서는 6개국에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다목적회관과 한글학교를 비롯한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복합건물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 16).

- **현안사항** : 공간 조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센터 공간 조성을 위한 후원이나 모금 등의 활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부족한 부분을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보조를 받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6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지원⁹⁸⁾

- **제안배경**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 한국에서처럼 방과 후에 체험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며 개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중국 내에서 재외국민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특정한 주체가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학교 단위나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인 커뮤니티 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 한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안사항** : 학교나 한인 커뮤니티 내에 청소년활동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활동을 조직하는 것 등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청소년활동 운영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나 전 · 현직 교사 등을 발굴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7 청소년리더십 캠프 개발 · 운영

- **제안배경**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부분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의 삶에 대해서는 중국, 한국, 기타 국가 등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98)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김판준 이사(재외한인학회)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의 오래된 삶의 경험이 이렇듯 자유로운 생각과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단순히 한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 형성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교육부나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능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리더십 캠프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재외국민청소년과 조선족청소년, 그리고 한국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학기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리더십 강사들을 초빙하여 일년에 2회 이상 재외한국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1 회당 10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YMCA와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6년에 7박 8일간 50여개국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 한민족 청소년의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의 성장을 유도하며 자랑스런 세계시민으로 글로벌코리안, 그린 코리안 중심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⁹⁹⁾.

■ 현안사항 : 한국정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도 중요하다. 특히, 재외국민으로서 혹은 조선족으로서 성공한 기업가나 전문인들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참여와 운영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99) 강원타임즈 블로그(2016. 7. 13일자). 2016년 글로벌리더십 캠프 개최. <http://blog.daum.net/kwtimes/4816>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4 한국 등 해외 진출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정책 과제

4-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¹⁰⁰⁾

■ 제안배경 :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정,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이주한 배경이 있는 아동·청소년들도 한국 아동·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국국적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외국국적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내용 : 국제법에 따라 이주한 배경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의료권, 보호권, 발달권, 참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현안사항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 제안배경 :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 소년과 관련한 정책적 연구와 위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단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100)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 자문과정에서 허승연 사무총장(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주요내용** : 전국 단위의 지원이 가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국 후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부터 성장주기별 교육, 심리·정서, 자립과 관련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관련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4-3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센터 설치·운영¹⁰¹⁾

■ **제안배경** : 조선족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동포청소년들의 국내로의 이주가 해마다 확대되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동포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다만 이들 청소년들과 관련한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이주되어 온 청소년들의 규모가 상당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점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할 자원으로 위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주요내용** : 재외동포재단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기관에 국내 체류 동포청소년 대상으로 인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체류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와 체류유형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포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재개발센터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기업연계와 사회적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재외동포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인식하고 청소년 개발을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진로 개발을 위한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101)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객재석 원장(한국이주동포개발원)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였음.

4-4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 제안배경 : 한국사회로 이주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현재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누구든지 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입학 후 친구,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학습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공교육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중간단계로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한국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진입하여 생활하다가도 위기에 처하거나 부적응할 경우에 탈락되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내용 :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예비학교의 확대, 특히, 지역적 분포와 대상 연령을 고려한 학교의 지정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의 설립을 보다 확대하여 대안교육을 통하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교육부에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원이 요청된다.

4-5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의 설치 지원

- 제안배경 : 한국에 중도 입국한 조선족청소년들의 상당수는 학습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국사회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한국학교에 다니는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습 부적응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찾아지고 있다.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어서 많은 조선족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중동포에 대한 한국방문 비자가 완화되어서 향후 훨씬 많은 조선족청소년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선족청소년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이들을 위한 특성화 교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현재 수원, 영등포, 안산 지역의 경우에만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을 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교육적 요구가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기업과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서 특성화 교육시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주관하는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축제나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조선족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수원글로벌드림센터의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기업과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시설 건립비용을 기업에서 지원하면,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을 지자체에서 제공하게 되면 기업에서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현안사항 : 기업과 지자체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6 조선족(중도입국)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센터 지정

■ 제안배경 : 한국에 중도 입국한 조선족청소년들이 한국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하지 못해서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중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선족 부모들은 서류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선족청소년들은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을 다니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러 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입학 절차에 있어서 중국 학교와 한국 학교 간에 차이가 있고,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들의 한국학교 입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지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학교입학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조선족청소년들의 한국학교 편입학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족 밀집지역 내에 조선족청소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입학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고 입학과 관련한 서류의 준비, 정규학교 입학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와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한다. 기존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청 등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안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입학과 관련된 서식 및 상담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입학상담, 대안교육정보 등을 제고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형을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교육청 등과의 협력 하에 중도입국청소년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에 센터의 지정과 센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외교부 등 기존 기관의 역할 분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7 은둔형 조선족청소년 상담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 **제안배경** : 최근 중도입국 조선족청소년들 중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은둔해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방치할 경우에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불안 등으로 향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적절한 상담과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은둔해 있는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이를 위해서는 은둔형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가정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교육 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일이 필요하다. 심리적 문제, 정신질환, 장애 등을 발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선족 출신 중에서 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은둔형 조선족청소년들의 발굴 및 상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다문화가정센터 등에서 일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제한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참여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4-8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¹⁰²⁾

■ 제안배경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 및 체류의 불안정성으로 장기적인 진로고민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생활한국어 외에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전문용어 및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 환경과 문화를 잘 모르고 특히 직업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어 서로 소통하기 어렵고, 양부/양모, 부나 모가 다른 형제 등 낯선 가족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진로에 대한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 주요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체류자격 변경으로 한국에서 영주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여 향후 삶의 방향에 따른 진로지도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국적취득과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또는 각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기관을 통해 최소 1년~2년 소요되는 다음의 단계별 과정을 밟게 한다.

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성 교육, ②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한 한국어 기초-초급-중급-고급 과정과 TOPIK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집중교육, ③ 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사회성 훈련, ④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 이미지 메이킹 등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과정 교육, ⑤ 한국사회에서의 직업의 종류, 체험 및 진로박람회 등 진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⑥ 경제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생활에 직접 투입되기 전 단계까지의 교육, ⑦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 소규모 식당 등 인턴체험을 실시하고 어려운 점들을 지속적으로 업체와 대상자 두 분류로 소통, ⑧ 인턴체험 이후 취업가능 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지원, ⑨ 취업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한국 체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① 한국사회의 문화와 역사, 교육제도 등 한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문화이해 교육, ②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역사 박물관, 경복궁과 덕수궁, 전쟁기념관, 용인민속촌,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도의 남해안, 경기도의 서해안 등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10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 자문과정에서 허승연 사무총장(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학습 시행 등. 이러한 현장체험 교육 시 한국 학생들과의 매칭을 통해 통합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인들에 대한 정서적 교류와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안사항** : 몇 개월 실시하는 단순한 진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 4-9 동포청소년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 실시¹⁰³⁾

- **제안배경** : 재외동포의 출입국 자유화로 중국동포 중도입국자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류 불안정과 교육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어가 가능한 청소년은 자격증 취득으로 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은 언어능력 미비로 동포비자(F-4)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으로 동포비자(F-4)로 변경한 청소년의 경우에 자격증 관련 분야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내용** : 동포비자(F-4)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한 저소득 동포청소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이미 동포비자(F-4)로 변경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취업동기 등 취업역량 평가 후 관련 분야 취업기술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동포사회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부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동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직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취업과의 연계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3)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객재석 원장(한국이주동포개발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4-10 중소기업 필요 인력 지원을 위한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¹⁰⁴⁾

■ 제안배경 :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마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적절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www.saramin.co.kr)이 중소기업 77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기업과의 처우 격차, 구직자의 편견 등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⁰⁵⁾.

■ 주요내용 : 이러한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술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조선족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취업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직종과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가진 동포청소년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4-11 조선족기업가협회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조선족청년기업가 양성 지원¹⁰⁶⁾

■ 제안배경 :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조선족청소년들에게도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조선족기업가협회는 조선족기업인들의 단합과 상생,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선양, 하얼빈, 창춘, 북경, 대련 등 중국 내 많은 지역별로 협회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조선족기업가협회는 조선족기업가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선족기업가협회의 협력 사업으로서 조선족청소년들이 차세대 조선족청년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104)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05) 충청투데이(2016.7.7.).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할 사람 뽑으려 해도 구하기 힘들어요.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8527>에서 2016년 8월 2일 인출

106)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조선족기업가들이 멘토로서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창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선족청소년 대상으로 조선족 출신 중 청년사업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선족기업가협회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족지식퀴즈대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

■ 현안사항 : 조선족기업가협회 임원들의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조선족청소년기업가의 선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4-12 통번역 전문가 교육 등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 제안배경 : 현재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한국어 교육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재능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은 갖추지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능력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족청소년들이 학교나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한국어 위주로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조금의 도움만 제공하면 통번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 통번역 관련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조선족청소년들을 통번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통번역 이외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를 연계하여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안사항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관련 시설에 기존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 이외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 4-13 조선족청소년 모국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¹⁰⁷⁾

- 제안배경 : 본 연구조사 결과에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에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의 공백이나 학교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실패나 부적응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조선족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한민족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정기적으로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산업현장 견학이나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는 문화프로그램 등 모국정체성 함양을 위한 캠프를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적응캠프, 비전코칭 캠프 등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관련 유관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재외동포재단이나 기업 등에서 후원을 받아서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4-14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

- 제안배경 : 국내에 입국해 있는 조선족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이나 한민족 발전에 대한 기여의식은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재외국민청소년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서 한민족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족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한민족 발전에 대한 기여의식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07) 본 연구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에서 객재석 원장(한국이주동포개발원)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 주요내용 : 한국생활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 사회기여활동을 개발하여 조선족청소년들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민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에 보급하여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관련 부처나 교육청 등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VII-2 재중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동북 3성 조선족 청소년 정책 과제	1-1 조선족청소년 심리 및 진로 상담서비스 제공	단기	외교부, 교육부
	1-2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단기	교육부, 외교부
	1-3 우수 인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제공	단기	외교부, 교육부
	1-4 한민족적 자질의 우수성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경연대회 등 확대	단기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1-5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1-6 한국 기업의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1-7 민족적 자질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중장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교육부
	1-8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단기	교육부
	1-9 국내·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중장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대도시 진출 조선족 청소년 정책 과제	2-1 한글 등 한민족 교육 기회 확대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2-2 사립학교의 설립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2-3 대도시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2-4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 제공 지원	중장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2-5 또래동포청소년 간 교류기회 제공	단기	외교부, 여성가족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재외 국민 청소년 정책 과제	3-1 초·중학생 대상의 한국학교 학비 지원 확대	중장기	교육부
	3-2 한국학교에 상담전문교사 파견 등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중장기	교육부
	3-3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단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3-4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선	중장기	교육부
	3-5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3-6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단기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3-7 청소년리더십 캠프 개발·운영	단기	외교부, 교육부
해외 진출 조선족 청소년 정책 과제	4-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	중장기	여성가족부, 법무부
	4-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여성가족부
	4-3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센터 설치·운영	중장기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4-4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중장기	교육부
	4-5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의 설치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4-6 조선족(중도입국)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센터 지정	단기	교육부
	4-7 은둔형 조선족청소년 상담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단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4-8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	중장기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4-9 동포청소년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 실시	중장기	고용노동부, 법무부
	4-10 중소기업 필요 인력 지원을 위한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	중장기	고용노동부, 법무부
	4-11 조선족기업가협회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조선족청년 기업가 양성 지원	중장기	외교부, 고용노동부
	4-12 통번역 전문가 교육 등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단기	외교부, 교육부, 외교부
	4-13 조선족청소년 모국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단기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4-14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3. 재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재미동포청소년의 정책 지원 방안은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를 근거로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정책 추진과제별로 제시하였다.

표 VII-3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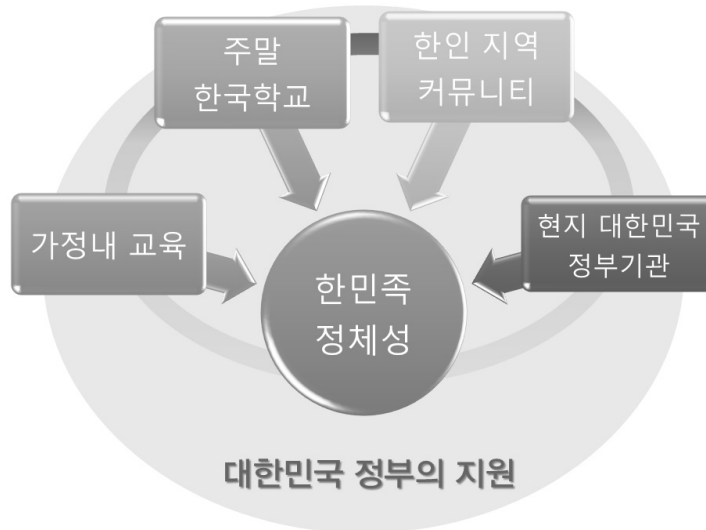
구분	한민족발전의 촉진자 (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 (조력자)	세계시민 (한민족문화의 계승자)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 학교의 연계 •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대회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과목 개발과 홍보 방안 구축 •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육 전문가 양성 • 주말 한국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 재미동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단체 설립 지원 •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기업 지원 및 장학금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1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 과제

1) 한인 공동체의 연계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은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가정과 ‘주말 한국학교’¹⁰⁸⁾에서 그리고 한인 지역 공동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은 재미동포청소년의 가정의 역할, 주말 한국학교의 역할, 그리고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I-2】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연계 방향

108) 해외 소재 ‘한국학교’는 대한민국정부로 인가 받고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식 학교이다. 미국에서 한인회나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한글학교’라 명칭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학교’라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미주 지역의 ‘한글학교’의 새로운 모형과 연계하여 ‘주말 한국학교’라 하였다.

1-1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 제안배경 : 미주 지역의 한인 공동체는 지역 규모에 따라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한인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그 규모와 운영 형태가 다양하다. 다양한 운영 형태와 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주 지역의 한인 공동체는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교육하고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한인 지역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은 주로 한인회가 존재하는 한인회관, 종교기관의 건물, 주말 한글학교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한인 공동체가 재미동포청소년과 소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고 재미동포청소년들과 더욱 소통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한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 일부를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활동 공간,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인 지역 공동체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한인 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주말 또는 방과 후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공간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울 경우,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공간 활용을 하고 한인 공동체에서는 민족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미주 지역의 특성상 도시와 도시 이외 지역의 특성이 매우 달라서 이에 따라 한인 공동체의 역할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역 자원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세부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인 공동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현지 한인 단체와 동포 사회와의 갈등 탓에 큰 진척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¹⁰⁹⁾, 재외동포재단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교육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09) 재외동포신문(2014.10.6). 중단된 한인회관 건립-12억 예산은 어디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71> 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대도시의 경우 미주 현지공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 해외 소재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해외사례 : Bender JCC of Greater Washington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인 'Bender JCC of Greater Washington'(이하 JCCGW)을 소개하고자 한다.¹¹⁰⁾ JCCGW는 워싱턴 DC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이다. JCCGW은 지역 유대인 청소년을 위해 JCC 캠프, 방과 후 학교, 지역 JCC 마카비연맹,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유대인 정체성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휴교일이나 방학 등에 청소년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 1-2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한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한인회는 그 규모는 크지만 동포청소년을 위한 공간 제공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인회의 특성상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직접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여건일 수 있다. 따라서 한인회는 동포청소년을 위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말 한국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말 한국학교 역시 지역 한인 공동체의 지원과 기반을 활용하여 주말 한국학교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인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10) Bender JCC of Greater Washington, <http://www.benderjccgw.org/> 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주요내용** : 한인 공동체는 주말 한국학교와 연계하여 기간 별로 한민족을 위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 축제를 운영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말 한국학교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한인 지역사회 역사를 바로 배우기, 지역 사회 이야기 알기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한인 공동체의 핵심 인물 혹은 성공한 한인 차세대와 주말 한국학교 학생과의 멘토링 제도와 같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미동포 중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한 한인 차세대들의 주말 한국학교 봉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이들을 섭외하고 한인 차세대들이 동포청소년을 위해 교사, 보조교사, 멘토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효과적인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의 분석과 함께 청소년의 욕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이나 문화 행사 등의 기획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한인회와 주말 한국학교를 지원하여 이를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우수 모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나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육원이 소재한 도시라면 한국교육원과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 **제안배경** :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세부 과제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재미동포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과 면접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재미동포 가정의 부모는 재미동포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초적이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재미동포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교재와 이를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재외동포 부모가 자녀 양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관련한 교육 자료에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한 정보, 교육 상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별로 필요한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미국 사회와 재미동포 사회를 반영하는 국가별 차별화된 내용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부모 교육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재미동포사회에 ‘하루 30분 한국어로 대화하기’, ‘한주 한 주제로 한국 관련 이야기 나누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¹¹¹⁾.

- 현안사항 : 이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과 재외동포재단이 부모 교육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개발해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교재 개발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개발되어 있는 교사용 교재를 활용하여 부모 매뉴얼을 보완하여 부모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포청소년과의 교류일 것이다. 동포청소년과의 교류는 한민족 문화에 대한 직접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나와 비슷한 인종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는 미주 지역에서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미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와 한국 등의 방문을 통한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가 모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재외동포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심적인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며 주요 부처인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이 주도하고,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한 교류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11) 캠페인 사업의 제안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10월 24일 실시한 전문가자문에서 이종미 부장(재외동포재단)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1-4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와 부모 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포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 방문과 이를 통한 체험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재미동포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방문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준과 김태기(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정부가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재미동포청소년의 모국 방문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이다. 매년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동포청소년과 교류하고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초청인원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2016년 전체 760여명이 초청대상이었으며, 이중 북미지역에는 약 180여명이 배정되었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재미동포청소년이 모국 방문을 통해 동포청소년과 교류하고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세부과제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청소년 교류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의 교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방문과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이 주도하고 세부 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 관련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기획하는 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국내 학교와 자매결연 하여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1-5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 제안배경 : 재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평상시 한인 가족 이외에 동포를 만날 기회가 적을수록 그 갈증은 더할 것이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한인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주말 한국학교를 포함한 한인 공동체는 주말과 방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재미동포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리적 공간 제공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포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주변 도서관이나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 현안사항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공동체 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인공동체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한인회관 건립 시 청소년을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 공동체 역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각종 대회 및 캠프 지원

● 1-6 각종 대회 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일부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미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원이 소재하는 미주 지역에서도 재외동포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대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백일장, 음악 대회 등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미동포청소년들은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한민족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한인 공동체에서 제한적으로 개최되는 한민족 관련 대회를 미국 전 지역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재미동포청소년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개인적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대회의 기획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재미동포청소년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의 구성과 기획이 필요하다.
- **유사사례** : 현재 한국교육원에서 재외동포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실시 중인 각종 대회 지원이 있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어린이 예술제, 동요대회, 동화구연대회, 역사 퀴즈 대회 등이 있다.
- **현안사항** : 한국교육원이 소재한 지역의 재미동포 한인 공동체는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도시 지역에서는 주말 한국학교와 한인 공동체가 협업하여 대회 개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한인 축제로 확대 또는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7 문화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재미동포청소년이 문화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동포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한국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국악, 취타대, 사물놀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류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현재 한국문화원과 지역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국악, 문화교육, 태권도 등의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 **현안사항** : 한국교육원이 소재한 지역의 재미동포 한인 공동체는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도시 지역에서는 주말 한국학교와 한인 공동체가 협업하여 대회 개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한인 축제로 확대 또는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8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

- 제안배경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현지 민족 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내 유대인 청소년 캠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유대인 청소년들이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유대인 청소년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캠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동포청소년을 위한 캠프 개발 시 유대인 청소년 캠프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캠프는 첫째, 이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재미동포청소년들을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캠프로 활용 할 수 있다.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세부과제에서 제안된 바와 유사하게, 청소년 캠프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캠프의 목적 역시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능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리더십 캠프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민족 캠프 등으로 그 목적과 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다. 캠프를 경험한 청소년은 동료 청소년과의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국 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것이다.
- 유사사례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하에 미국 내 주말 한글학교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 현안사항 : 첫째, 현재 재외동포재단에 의해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국 내 주말 한글학교의 캠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대인 청소년 캠프와 같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해 미국 내에 ‘한인 청소년 캠프’ 단체 혹은 운영 기관을 상설화 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 미국 내 유대인 청소년을 위한 캠프

Jewish Camp - One happy camper¹¹²⁾

Jewish Camp는 미국 내 유대인 청소년을 위한 캠프와 관련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캠프 및 캠프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 사이트는

부모들을 위해 미국 전역의 각종 유대인 캠프 정보, 캠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관련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대인 캠프가 유대인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동포청소년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대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단체의 미션이라고 설명한다.

UJA Federation of New York 지원 유대인 여름캠프 (Jewish Summer Camps)¹¹³⁾

비영리 단체인 UJA Federation of New York은 매년 유대인 청소년의 여름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 여름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유대인 친구들과 생활하며 유대인의 가치를 배우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경험한다. 캠프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의 뉴욕지역 유대인 청소년이 전폭적인 지원으로 캠프에 참가하였다.

2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 한국학교 ·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 및 한국어 교육기관 중 정부 인가를 받은 공식적 한국학교는 2015년 기준 15개국에 32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미국에는 교육부 승인 한국학교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말 한국학교가 미국 전역에 설립되어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와 한국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재외동포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이 넓으며, 한인 이민 역사가 오래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주말 한국학교가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주말 한국학교의 특성상 본 정책과제는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정책 제언은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제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12) Jewish Camp, <http://www.jewishcamp.org/>,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113) UJA Federation of New York, <http://www.ujafedny.org/what-we-do/inspire-jewish-life/jewish-summer-camps/>,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2-1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 제안배경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기준 미국지역의 한글학교(주말 한국학교) 수는 702개이며 교원 수는 6,800여명이다¹¹⁴⁾.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주말 한국학교의 수를 더하면 1,000여개 이상의 주말 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주 지역의 주말 한국학교는 한인의 이민 역사와 함께,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는 중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사회의 변화, 재미동포청소년들의 변화에 따른 한국학교의 변화의 필요성과 한민족 정체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교포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제한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주말 한국학교의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교육 커리큘럼, 교사의 전문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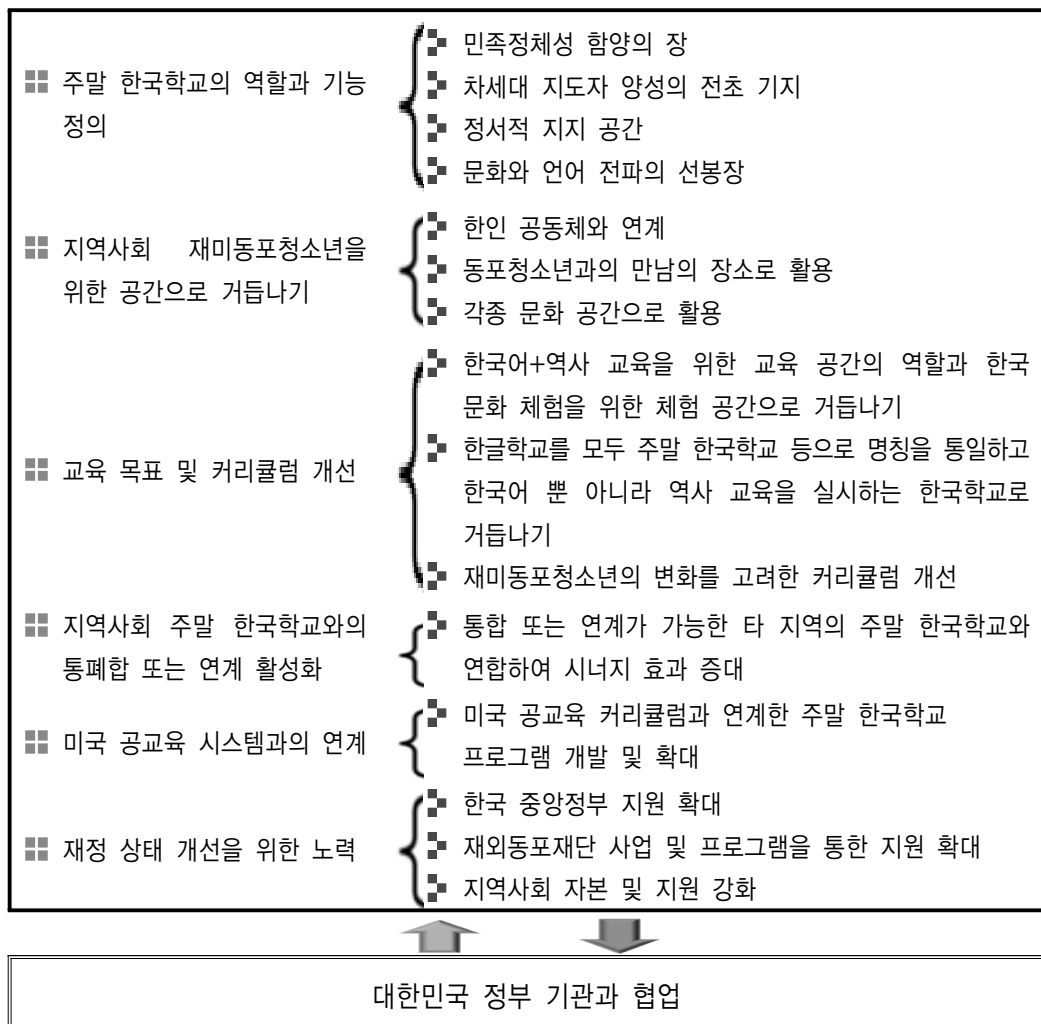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다음 그림은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의 모형 개발에 필요한 방향들을 나타낸 것이다. 주말 한국학교는 지역 한인 공동체와 연계하여 동포청소년을 교육하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기관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의 모형은 미주 지역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모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현안사항 : 재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와 역사를 교육한 주말 한국학교는 재미동포 이민사와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한국학교가 재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민족 정체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주로 종교단체나 한인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말 한국학교는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재미동포청소년의 변화와 시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들어 한국학교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부처인 교육부(한국교육원)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주도로 새로운 한국학교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모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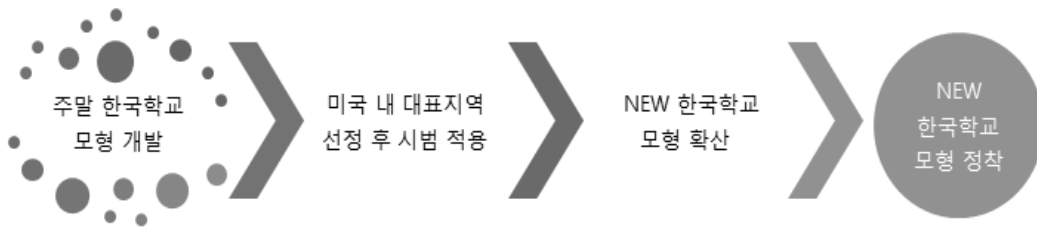
114) 교육부, 2016년 재외한국교육원 현황(파견자수, 관할 내 한글학교 및 동포수).

<http://moe.go.kr/web/100070/ko/board/view.do?bbsId=336&pageSize=10¤tPage=0&encodeYn=&boardSeq=63509&mode=view>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재미동포 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가 한국학교 현황 분석과 새로운 대안 제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새로운 한국학교 모형을 개발한 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필요시 모형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후 새로운 한국학교 모형을 미국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시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림 VII-4] 참고). 새로운 한국학교 모형은 주말 한국학교의 공통된 비전, 목표,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3】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



【그림 VII-4】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추진 방안

2-2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제안배경 : 미주 지역의 주말 한국학교는 지역의 재미동포들이 운영하는 민간 중심의 단체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말 한국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한인 공동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미주지역의 한국학교 연합 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민병갑과 임세정(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한국학교의 88%는 종교기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인단체 및 기관소속으로 운영되는 주말 한국학교는 6% 수준이었다. 종교기관 주말 한국학교 중 80%가 개신교 소속으로 개신교 소속 주말 한국학교에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지역의 전반적 한국학교 현황이어서 한인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말 한국학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주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주말 한국학교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종교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주말 한국학교의 여러 장점을 활용하되, 지역 내 한인 공동체와 연계한 한국학교 운영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교육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시설은 종교단체를 활용하되 활동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한인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형의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미주지역의 주말 한국학교 협의회들은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및 한민족 정체성 향상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현재 주말 한국학교 협의회들은 차세대 한국학교 교사 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과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한국학교 운영을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 한국학교의 개선과 발전을 돕기 위해 재외동포재단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여러 형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말 한국학교 활성화를

위해 한인 공동체를 통한 지원과 주말 한국학교들 간의 연계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지역의 주말 한국학교는 민간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 교육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교육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미동포 현지 상황이 지역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말 한국학교 운영 형태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 2-3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제안배경 : 언어의 습득은 단순한 문자와 음성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 언어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 등을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재미동포청소년에게 한국어 즉 한글을 교육하는 과정은 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과정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재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들 역시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병행했을 때 한인 정체성 확립에 그 효과가 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재미동포사회의 주말 한국학교는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글을 주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글학교’라는 입장과 역사 교육이 병행되기 때문에 ‘한국학교’는 입장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한인 지역사회는 주말 한국학교를 다르게 부르고 있고, 한국학교의 목표와 비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성화한 ‘주말 한국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되, 미국 전역에서 ‘주말 한국학교’라 불리는 교육 기관의 공통된 목표와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재미동포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커리큘럼 개선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주말 한국학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한국학교의 경우 역사와 문화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주말 한국학교의 커리큘럼이 한국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역사 및 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말 한국학교의 커리큘럼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주말 한국학교의 특성에 따라 커리큘럼은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즉 학교를 위한 모델 안을 제시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은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교재는 지역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재가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의 한국학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는 주말 한국학교협회에서 제공하거나 추천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교의 운영 특성상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한국어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는 세종학당에서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재, 국립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개발한 교재, 한국학교 연합 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교재 등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교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한국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 역사 관련 교재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사 및 문화 교재의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교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전문가, 특히 지역 상황과 재미동포청소년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법과 함께, 교육전문가를 한국학교 현지에 파견하여 지역 맞춤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커리큘럼 개발과 함께 관련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주말 한국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부 제작 교재의 적극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및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교재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국가별 이주역사(이민 역사)를 포함한 현지 맞춤형 재외동포교육용 역사문화 교재를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외동포 맞춤형 역사 교육교재 개발에 재미동포사회와 협업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4 주말 한국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재 홍보 방안 구축

- **제안배경** :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형이 정비되면, 명칭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을 통해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는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재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자체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커리큘럼과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한국학교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가 개발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와 영어권 동포학생들이 교육 대상임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동영상 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한민족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한 교육과 미주 한인 이민사 등과 관련한 역사 내용을 포함한 영어 동영상 교육 자료와 같은 시청각 자료가 효과적인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와 함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안, 학습지, 활동지 등을 포함한 교재 세트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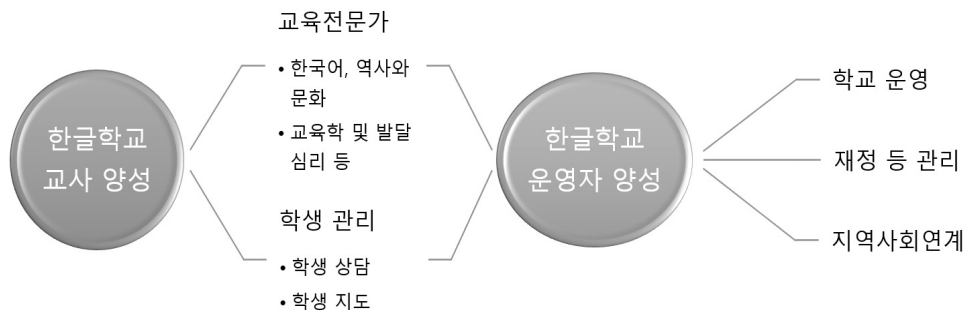
■ 현안사항 : 재외동포재단은 스터디코리안(study.korean.net)을 통해 EBS와 제휴하여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 여러 기관으로 확대하고 재미 한글학교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교육용 교재(CD, 부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해 교재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주말 한국학교 교사 역량 강화

● 2-5 주말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전문가 양성

■ 제안배경 : 재미동포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동포청소년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학교 개선 정책과 함께 차세대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다. 정책은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사의 양성과 학교를 운영할 운영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존 한국학교 교사와 차세대 교사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방향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사는 변화하는 미국사회, 재미동포사회, 재미동포청소년 실태를 반영하여 주말 한국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미주지역 한국학교 교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사회의 한국학교에서 재미동포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다. 한국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국학교 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가 교장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학교 규모 특성상 모든 한국학교가 교사와 교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학교가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교사와 교장 또는 운영진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말 한국학교는 전문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양성과 함께 교장 혹은 운영진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의 교사나 교장 모두는 기본적인 한국어교육과 역사, 문화 지식과 함께 기본적인 교육학 및 아동, 청소년 발달과 같은 교양 지식을 함양하고 학생 상담과 지도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글학교 운영자 또는 교장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재정 관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림 VII-5 참고]). 주말 한글학교 교사와 운영자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이 교사와 운영자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과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5】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육전문가 양성

■ **현안사항** : 일부 주말 한국학교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와 교장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말 한국학교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재미 한국교육원과 연계하여 주말 한국학교(한글학교)의 교사 역량을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육원의 원장은 교육전문직 국가공무원이므로 교육원장을 활용하여 현지 교육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2-6 주말 한글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현재 주말 한글학교 교사는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지원하여 온라인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글학교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세대 주말 한글학교 교사와 운영진 양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주요내용 : 전문적인 한글학교 교육전문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한글학교 교사와 운영자 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과 같은 운영자 양성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교사와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둘의 교육과정과 체계를 차별화 하고, 주말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을 위한 교육 로드맵이 각각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교육 과정과 내용을 세분화하고 특화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을 통해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어 관련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외에 한국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주말 한국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학이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발달 심리, 상담 등의 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워크숍, 온라인 교육, 미주 지역 현지 특강 기회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어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온라인 형태로 개발하고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에게 지원되고 있는 온라인 한국어 관련 과목의 혜택은 한국학교 교사에게 모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 이외에 온라인을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발굴하여 수강 과목의 수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교장 등의 운영진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재외동포재단 지원의 스터디코리안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 현안사항 : 현재 시행중인 재외동포재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사 역량개발 교육은 비교적 단계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연수회, 순회연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운영자 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재외동포재단 교사 연수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의 재외한국교육원의 장학 사업의 기능을 확대하여 현지 주말 한국학교 교사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7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제안배경 : 주말에 운영되는 한국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주말 한국학교 교사는 주말에 재미동포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무급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시킨다는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무급으로 매주 주말마다 봉사해야 한다는 현실은 주말 한국학교 교사로 계속해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한점일 것이다. 주말 한국학교 교사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주말 한국학교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들의 역할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주 각 지역의 우수 한국학교 교사를 추천해서 포상하는 제도, 우수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 방문 기회 제공 및 확대, 한국어 및 교사 양성 과정에 필요한 온라인 수강료 면제 등과 같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외에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방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주말 한국학교 교사들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에는 교사나 교장에 적합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과 장기로 봉사한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2-8 주말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 제도 지원

- 주요내용 : 최근 재외 한글학교의 교사 자격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¹¹⁵⁾.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의 한국교육원, 재미 주말 한국학교 협회들이 일부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된 대상만 혜택을 받고 있고, 주말 한국학교 교사의 수요가 더 많아서 자격이 충족되지 못한 일부 교사들이 한국학교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화를 지원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주말 한글학교의 교사의 전문화를 위해 교사인증제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는 한글학교 교사 인증 자격을 취득한 교사만 주말 한국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재미동포 사회 여건 상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말 한국학교의 교사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인증과정을 거친 교사를 채용한 주말 한국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각 주말 한국학교가 주도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현안사항 :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스터디코리아, study.korean.net’¹¹⁶⁾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재외 한글학교(재미 주말 한국학교) 교사가 한글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증과정을 개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격제도 지원은 2016년 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미주 지역의 주말 한국학교 협회들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 인증을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교사 인증제와 민간의 교사 자격 교육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주말 한국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5) 연합뉴스(2016.10.13.).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55200371.HTML>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116) 스터디코리아, 교사 인증과정,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 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3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3-1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을 위한 단체 설립 지원

■ 제안배경 : 재미동포의 다인종 결혼의 증가로 혼혈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의 전체 한인 총 인구의 12%, 약 15만명이 혼혈 한인으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 한인 인구의 약 17%, 약 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U.S. Census Bureau, 2010). 이에 따라 혼혈 한인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세 이하의 재미동포 중 약 43%, 9~24세 중 약 23%가 혼혈한인으로 집계되었다(U.S. Census Bureau, 2010). 이러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재미동포사회도 빠르게 다인종·다민족화 되어 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인종 결혼 가정의 재미동포청소년은 부모가 모두 한인인 가정의 청소년보다 한인 공동체에 속해 생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다인종 가정의 재미동포청소년도 한국을 위한 미래 인재로 한민족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인종 가정간의 교류를 돕기 위해 이들을 위한 단체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미국에 거주하는 다인종 가정의 부모들이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해당 그룹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으며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인종 가정 중 여성이 한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인종 가정의 여성들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지원할 수도 있다.

■ 현안사항 : 현재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¹¹⁷⁾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재외한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이다. KOWIN과 연계하여 미국 내 다인종 가정의 한인 여성들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 제한하지 말고, 다인종 가정 부모 모두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117)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http://kowin.mogef.go.kr/hom/kowin/intro.do> 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 해외사례: 국제 결혼한 미국여성이 설립한 민간단체¹¹⁸⁾

FAWCO- A Global Women's NGO ¹¹⁹⁾

FAWCO(Federation of American Women's Clubs Overseas, 해외미국여성연맹)는 1931년 런던의 미국인 여성에 의해 설립된 민간 국제 여성 단체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들의 인권, 가족과 교육, 직업과 관련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구성원은 미국인 여성들이지만, 현재는 전 세계 일반 여성의 권익과 가족과 관련한 활동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NGO 단체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FAWCO에 기반을 둔 두바이 미국여성협회는 1991년 AMERICANA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로 적극 확산하고 있다. AMERICANA의 목적은 국제 결혼한 미국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대통령의 날 등 미국 고유 휴일과 역사 알기 등과 각종 문화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교육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AAWE(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¹²⁰⁾

프랑스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들이 자녀 교육 등을 위해 1963년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자녀들에게 미국 문화와 명절을 알리고 자녀들이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사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8) 이진영, 장안리,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성일광(2015), p. 29~31 내용을 요약 정리함.

119) FAWCO, www.fawco.org 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120) AAWE,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 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3-2 다인종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 제안배경 : 다인종 가정의 부모를 위한 별도의 교육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기존 재미동포 부모를 위한 교재의 내용과 콘텐츠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미동포 부모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고, 이 교재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교재는 한국어-영어를 세트로 제작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교재의 번역과 제작 이후에는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홍보 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동영상 교재 제작과 번역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 현안사항 : 교재 개발 및 지원은 관련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여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인종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그 수요를 도출하고 정확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국학교 정규과정에 한국어 채택 및 현지 대입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에 대한 한민족 정체성 교육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3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본 연구의 재미동포청소년 조사결과를 통해 동포청소년과 교류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활동은 이들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 한인 가정 재미동포청소년 보다 더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모국 방문과 같은 기회는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인종 가정의 재미동포청소년들에게 동포청소년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초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초청 사업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만을 위한 교류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사업에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을 포함하는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참가기준과 선정기준에 다인종 가정 재미동포청소년에 대한 가점을 주거나 또는 해당 청소년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재외동포재단의 초청 사업에 다인종 재미동포청소년 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신설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청 사업에 다인종 재미동포청소년의 비율 확대 혹은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와 같이 초청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다인종 재미동포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4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설립

■ **제안배경** : 미국으로 입양되는 입양아는 전체 입양아의 75%로 가장 많이 입양되는 국가이다¹²¹⁾. 중앙입양원(2016)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누적 약 11만명이고, 현재 청소년 연령을 감안하여 1990년부터 2014까지의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약 35,000명 이었다¹²²⁾. 입양아의 전반적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아동이 매년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모국 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그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순한 사후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121) 보건복지부 (2016).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453&SEARCHKEY=TITLE&SEARCHVALUE=%C0%D4%BE%E7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122) 중앙입양원 (2016). 국가별 국외입양 통계 (1958~2014).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193&listSize=10&pageNo=1&bcode=06_1&category=%ED%86%B5%EA%B3%84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 **주요내용** : 중앙입양원¹²³⁾을 통해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모국을 방문한 참가자는 2014년 기준 370명 정도이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하여야겠지만 모국 방문과 같은 사회관리 프로그램의 혜택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양아에 대한 정체성 교육지원은 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민간 주도로 한인 입양아 부모들이 협회를 구성하여 자녀 교육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인 공동체와 연계하여 입양 재미동포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현안사항** : 미국 현지에서 입양아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한인 입양아를 위한 네트워크에 속해서 활동하려는 의지가 한인 입양아를 재미동포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따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향후 한인 입양아가 세계시민을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동포사회를 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4 기업 지원 및 장학금 사업 확대

4-1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 **제안배경** : 재미동포청소년 부모와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재미동포청소년을 국제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주요내용** : 연령별로 효과적인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고려가 필요하며 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 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23)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after/after_mean_1.jsp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연계하여 Job Fair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실제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 기업 중 미국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이 재미동포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Job Fair 개최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은 기업이나 회사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 **제안배경** :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장학제도는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재미 한인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 액수가 크지 않거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사업, 교육부가 미국대사관에 출연한 장학금 등의 정부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과 한인 공동체가 모금 활동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한국 기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학제도를 확대 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장학금의 제도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지원과 더불어 장학금의 수혜대상인 재미동포청소년이 장학금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별로 추진 기간과 관련 부처를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VII-4 재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 과제	1-1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1-2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1-3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단기	교육부, 외교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 과제	1-4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1-5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1-6 각종 대회 지원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1-7 문화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1-8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1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2-2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2-3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단기	교육부, 외교부
	2-4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과목 개발과 홍보 방안 구축	단기	교육부, 외교부
	2-5 주말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전문가 양성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2-6 주말 한국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2-7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3-1 재미동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단체 설립 지원	중장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3-2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중장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3-3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중장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3-4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설립	중장기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기업 지원 및 장학금 사업 확대	4-1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중장기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4-2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강민수 (2011). **다음세대의 리더십 형성을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신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강원타임즈 (2016.7.13). 2016년 글로벌리더십 캠프 개최.

<http://blog.daum.net/kwtimes/4816>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강일규, 전재규, 길은배, 배기형 (20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07-R13-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방문취업제.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1>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고용노동부. 업무소개.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3>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1>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교육부. 국고보조금 정보.

<http://www.moe.go.kr/web/128366/ko/board/view.do?bbsId=428&boardSeq=60301>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교육부. 국제협력관 업무소개.

<http://www.moe.go.kr/web/100034/silkuk/detail.do?silkukSeq=10&deptCode=1342021>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교육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

<http://www.moe.go.kr/web/128167/ko/board/view.do?bbsId=427&boardSeq=61239>에서 2016년 10월 17일 인출.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현황.

<http://moe.go.kr/web/100070/ko/board/list.do;jsessionid=XBG3DVz0j7+w1C-bxOEYxdNt,node01?bbsId=336>에서 2016년 5월 20일, 10월 13일 인출.

교육부. 2016년 재외한국교육원 현황(파견자수, 관할내 한글학교 및 동포 수).

<http://moe.go.kr/web/100070/ko/board/view.do?bbsId=336&pageSize=10¤tPage=0&encodeYn=&boardSeq=63509&mode=view>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국내초청교육.

<http://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9&menuNo=297>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국적법 (2016). 법률 제14183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95&PROM_DT=20140318&PROM_NO=12421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김경근 (2002).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실태와 발전방안: 중국, CIS,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산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세계한상 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 문화공동체 발전전략**, 85-107

김경준, 김태기 (2015).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일, 박춘성, 홍경화, 원경림, 김이내, 김지연, 박상민 (2010). 청소년 GTI(Global Talent Indicator)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1), 45-66.

김미숙, 유효현, 박효정, 전미란, 박춘성(2008). 청소년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화 및 리더십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193-214.

김미숙, 이동임 (2001).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연구 :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01-3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옥 (2010). 현상학적 교육 연구를 위한 주요 개념의 명확화와 보완점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0(1), 25-44.
- 김언주, 심재영 (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 구조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26(2), 129-154.
- 남부현 (2015). 한국어교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도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179-210.
- 동포투데이 (2014.2.6).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교육.
http://dspdaily.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476&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30623205154_2684&ds_code=
 =에서 2015년 1월 11일 인출.
- 동아일보(2015.1.24.). 재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700만의 힘
<http://news.donga.com/3/all/20150124/69255203/1>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업무소개.
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pTeamCD=1371596#deptCont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1704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소개.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Yz>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미주한국어재단. www.koreanlanguagefoundation.org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 민병갑 (2015). 재미동포 차세대 현황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언어사용에 관한 통계.
**재외한인학회 ·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재외동포 차세대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24-39.
- 민병갑, 임세정 (2015).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 · 보급 · 사용
현황 연구 (2014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6). 서울: 재외동포재단.
- 박경래, 곽충구, 정인호, 한성우, 위진 (2012). **재중동포 언어실태조사** (11-1371028-000394-01).
 서울: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소개.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202010#immigration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1453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성경룡, 김인영, 박준식, 손기섭, 이재혁, 전상인, 최태강, 한준 (1999). **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연구보고 14-R 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스터디코리아. 교사 인증과정 소개.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및 청소년활동진흥과 업무소개.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3_01.jsp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연합뉴스 (2016.1.12). 신년인터뷰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0AKR20160111184600371.HTML?from=search>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연합뉴스 (2016.10.13).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0AKR20161013055200371.HTML>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업무소개.

http://www.mofa.go.kr/introduce/organized/depart/20110921/1_25500.jsp?menu=m_70_40_10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외교부 (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월드코리안 (2016.1.2). 2016년도 달라지는 재외동포정책은?.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67>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재외국민_선거권에서 2016년 10월 21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윤인진 (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 :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13, 191-243.

윤인진 (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 4-22.

윤인진, 채정민 (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연구보고 07-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석인, 임영언 (2011).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5(1), 525-547.

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언 (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영, 장안리,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성일광 (2015).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연구보고 15-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경수 (2013).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연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인적자원개발정책전공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연구보고 15-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5). 법률 제13224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30&PROM_DT=20070103&PROM_NO=08164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재외동포신문 (2014.10.6). 중단된 한인회관 건립-12억 예산은 어디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71>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재외동포신문 (2015.7.29). 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선거 등록된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516>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6). 법률 제14173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661&PROM_DT=19990902&PROM_NO=06015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2014a). **2014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14b).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14c). **중국 조선족 학교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15). **2015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재단사업 안내.

<http://www.okf.or.kr/portal/PortalView.do?PageGroup=USER&pageId=1283437318518&query=&url1=>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재외동포재단법 (2015). 법률 제13348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10&PROM_DT=19970327&PROM_NO=05313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2008). 대통령훈령 제228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E0053&PROM_DT=19960229&PROM_NO=00063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전소연, 남부현 (2015). 어린이집 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경험을 통한 교육적 노력과 실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9(4), 617-645.

조혜영, 문경숙,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 (2007).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07-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입양원 (2016). 국가별 국외입양 통계 (1958~2014).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193&listSize=10&pageNo=1&bcode=06_1&category=%ED%86%B5%EA%B3%84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중앙입양원. 사후관리사업 소개.

https://www.kadoption.or.kr/after/after_mean_1.jsp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지은림, 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진미석, 강경중, 강일규, 이남철, 손유미, 전재식, 김미란, 송창용, 오호영, 성양경 (2008).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기본연구 2008-32).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상덕 (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연구보고
RR 2014-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과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충청투데이 (2016.7.7).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할 사람 뽑으려 해도 구하기 힘들어요.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8527>에서
2016년 8월 2일 인출.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업무소개.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27#tabCon13>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한민족교육문화원. 재외동포교육센터 소개. <http://hansaram.kr>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
=BBSMSTR_0000000000014&nttId=46327](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4&nttId=46327)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국외자료〉

AAWE.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Alba, R.D., & Nee, V. (2003). *Remaking the American mainstream: assimilation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ender JCC of Greater Washington. <http://www.benderjccgw.org>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Colaizzi, F.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7).
- FAWCO. www.fawco.org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Jewish Camp. <http://www.jewishcamp.org>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Kibria, N. (2002). *Becoming Asian American: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 identiti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m, R. (2006). *God's new whiz kids?: Korean-American evangelicals on campu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im, S. (2010). *A faith of our own: Second-generation spirituality in Korean American church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Kim, C., & Min, P.G. (2010). Marital patterns and use of mother tongue at home among native-born Asian Americans. *Social Force*, 89(1), 233-256.
- Kim, C.H., & Sakamoto, A. (2010). Have Asian American men achieved labor market parity with white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 934-957.
- Min, P.G. (2010). *Preserving ethnicity through religion in America: Korean Protestants and Indian Hindus across gener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in, P.G. (2012). Twice migran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Their origi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thnic attachment. *Journal of Diasporic Studies*, 6, 155-176.
- Min, P.G. (2013). *Koreans in North America: Their twenty-first century experiences*. Maryland: Lexington Books.

- Min, P.G., & Kim, C. (2009). Patterns of intermarriages and cross-generational in-marriages among native-born Asian American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5(3), 447-470.
- Min, P.G., & Kim, R. (eds.). (1999). *Struggle for ethnic identity: Narratives by Asian American professionals*.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Sakamoto, A., Goyette, K., & Kim, C. (2009). The socioeconomic attachments of Asian Americans. *Annual Reviews of Sociology*, 35, 255-76.
- UJA Federation of NewYork. Jewish summer camps.
<http://www.ujafedny.org/what-we-do/inspire-jewish-life/jewish-summer-camps>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U.S. Census Bureau (2010-2014).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ACS). (www.census.gov 홈페이지)
- Xie, Y., & Goyette, K. (2003). Social mobility and the educational choices of Asian Americans. *Social Science Research*, 32(3), 467-498.
- Zeng, Z., & Xie, Y. (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1075-1108.

〈참고 홈페이지〉

-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
-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소속 경운장학회: scholarship.kyungginy.org
-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index.gne>
- 경상북도교육청: <http://www.gbe.kr>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www.kpacnyc.org
- 뉴욕한국교육원: www.nykoredu.org
- 뉴욕한국국악원: www.ktmdi.org
- 뉴욕한국문화원: www.koreanculture.org

뉴욕 취타대: www.nyktmb.org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www.dje.go.kr>

동화문화원: www.donghwaculture.org

(동화문화원 아시안 전통예술경연대회: atpacdonghwa.wordpress.com,

동화문화원 East Meets West Essay Contest: eastmeetswestdonghwa.wordpress.com)

미동부한인문인협회: newyorkmunhak.net

미주 중앙일보(뉴욕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www.task-us.org

미주한국어재단: www.koreanlanguagefoundation.org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www.kayf.org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뿌리교육재단: www.kayacny.org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http://kowin.mogef.go.kr/hom/kowin/intro.do>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http://www.sje.go.kr>

울산광역시교육청: <http://www.use.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ncheon.go.kr>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www.naksnec.org

전라남도교육청: <http://www.jne.go.kr/index.jne>

전라북도교육청: <http://www.jbe.go.kr>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 www.ustef.org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

충청북도교육청: <http://www.cbe.go.kr>

코리아 소사이어티: www.koreasociety.org

.....

부록

부 록

1.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조선족 학교용)
2.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재외국민용)
3. 开发未来人才——海外同胞青少年的问卷调查 (朝鲜族学校用)
4. 开发未来人才——海外同胞青少年的问卷调查 (海外韩国人用)
5.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재미동포청소년용)
6. Survey on the Youth Population for Establishing Overseas Youth Supporting Policies as a Future Talent Development Strategy
7. 학부모용 심층면접 조사지 (재중동포용)
8.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재중동포용)
9. 학부모용 심층면접 조사지 (재미동포용)
10.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재미동포용)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조선족 학교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 다음 각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선택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안에 직접 답을 작성해 주세요.

I. 일반적 배경

1. 거주지역 : 성 () 시 () <예: 흑룡강성, 하얼빈 >

2. 출생년도 : ()년

3. 성별 : ① 남 ② 여

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

- ① 초중 ② 고중 ③ 대학교 ④ 연구생과정
⑤ 기타(구체적으로)

4-1 현재 다니는 학교:

- ① 조선족학교 ② 한족학교 ③ 조선족·한족 연합학교
④ 한국 국제학교 ⑤ 외국 국제학교 ⑥ 기타()

5. 중국에서 살게 된 이유 :

- ① 중국 출생 ② 중국으로 이주 ③ 기타(구체적으로)

5-1. 학생의 가족 중 누가 먼저 중국으로 왔나요?

- 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세대
②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③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6. 현재 국적(신분) :

- ① 중국 ② 대한민국 ③ 대한민국 영주권
④ 한국·중국 이중국적 ⑤ 기타(구체적으로)

7.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① 아버지만 중국인 ② 어머니만 중국인
③ 두 분 다 중국인 ④ 두 분 다 중국인 아님

Ⅱ. 재외동포 청소년 실태조사

8. 조선족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9번으로) ② 없다 (☞ 10번으로)
③ 조선족학교가 없다 (☞ 10번으로)

9. 조선족학교를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9-1. 조선족학교를 다니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 권유 ② 본인 결정) ③ 기타 ()

10. 한국어 (조선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조선어)로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조선어)를 읽고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국어(조선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학생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부모님은 한국(조선)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조선족)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이 한민족·조선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조선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민족·조선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민족·조선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민족·조선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중국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사회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중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생은 조선족 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상시 한국·조선족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조선족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국에서 하는 한국·조선족 청소년 탐방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민족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에서 성공해서 민족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에 조선족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지역 해외동포와 교류하여 민족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의 다리역할을 해서 남북통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향후 학생이 민족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선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⑥ 기타()

25. 학생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②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③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등 ④ 인터넷사이트 방문
⑤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⑥ 개인적 한국 방문
⑦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⑧ 한민족 캠프나 축제
⑨ 기타()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재외국민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 다음 각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선택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안에 직접 답을 작성해 주세요.

I. 일반적 배경

1. 거주지역 : 성 () 시 () <예: 흑룡강성, 하얼빈 >

2. 출생년도 : ()년

3. 성별 : ① 남 ② 여

4. 중국 거주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

- ① 초중 ② 고중 ③ 대학교 ④ 연구생과정
⑤ 기타(구체적으로)

5-1 현재 다니는 학교:

- ① 조선족학교 ② 한족학교 ③ 조선족·한족 연합학교
④ 한국 국제학교 ⑤ 외국 국제학교 ⑥ 기타()

6. 중국에서 살게 된 이유 :

- ① 중국 출생 ② 중국으로 이주 ③ 중국 유학
④ 기타(구체적으로)

6-1. 학생의 가족 중 누가 먼저 중국으로 왔나요?

- 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세대
- ②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 ③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7. 현재 국적(신분) :

- ① 중국 ② 대한민국 ③ 기타(구체적으로)

8.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① 아버지만 한국인 ② 어머니만 한국인
- ③ 두 분 다 한국인 ④ 두 분 다 한국인 아님

II. 재외동포 청소년 실태조사

9. 한국 국제학교/한글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0번으로) ② 없다 (☞ 11번으로) ③ 한국학교가 없다 (☞ 11번으로)

10. 한국 국제학교/한글학교를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10-1. 한국 국제학교/한글학교를 다니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 권유 ② 본인 결정) ③ 기타 ()

11. 한국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학생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학생은 재외국민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상시 한국 또는 재외국민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또는 재외국민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국에서 하는 재외국민 청소년 탐방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재외국민 사회(한인커뮤니티)와 대한민국 사회가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지역 해외동포와 교류하여 재외국민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의 다리역할을 해서 남북통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향후 학생이 재외국민 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외국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③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⑦ 기타()

25. 학생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②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 ③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등 ④ 인터넷사이트 방문
- ⑤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⑥ 개인적 한국 방문
- ⑦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⑧ 한민족 캠프나 축제
- ⑨ 기타()

26. 학생은 미래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 ① 중국 ② 한국 ③ 기타 국가(구체적으로 _____)

27. 위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나라니까 ② 친구·친척들이 있어서
- ③ 생활여건이 좋아서 ④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 ⑤ 선택한 나라가 (정서적으로) 좋아서(친밀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附件)

开发未来人才——海外同胞青少年的问卷调查
(朝鲜族学校用)

通过本问卷调查获得的所有内容除统计目的以外绝对不能用作其他目的，根据统计法(第33条)其秘密受到保护。

您好！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是1989年成立的国策研究机构。主要为支持青少年开发政府政策及相关节目。今年为了筹备支持海外同胞青少年的政府政策方案，希望调查海外同胞青少年的生活现况及要求等内容。

大家解答的内容予以无记名处理，用于树立政策的研究资料，彻底保障个人的秘密。并且其他人无法看到各位解答的内容。所有提问没有对与错。为了能够在政策上准确反映各位的意见，请诚实回答问题。感谢您参与我们的问卷调查。

2016年4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世宗特别自治市市厅大路370 世宗国策研究园区社会政策栋

<http://www.nypi.re.kr>

主管机构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负责人	
执行机构			

※ 在以下各提问中，在相应的选项上打勾（√），或在（ ）里书写答案。

I. 一般信息

1. 居住地区：()省 ()市<如:黑龙江省，哈尔滨>

2. 出生年度：()年

3. 性别： ① 男 ② 女

4. 目前上的学校是：

- ① 初中 ② 高中 ③ 大学 ④ 研究生
⑤ 其他(具体)

4-1 目前上的学校是：

- ① 朝鲜族学校 ② 汉族学校 ③朝鲜族和汉族联合学校
④ 韩国国际学校 ⑤外国国际学校 ⑥ 其他()

5. 在中国生活的原因是：

- ①在中国出生 ②移居到中国 ③其他(具体)

5-1. 您的家人中最先来到中国的是哪位？

- ① 爷爷和奶奶或之前的祖先
② 本人出生之前爸爸和妈妈年代
③ 本人在韩国出生以后与父母一起移居到中国

①中国 ②大韩民国 ③大韩民国永久居住权
④韩国和中国的双重国籍 ⑤其他(具体)

① 只有父亲是中国人 ② 只有母亲是中国人
③ 两位都是中国人 ④ 两位都不是中国人

①有(☞答9题) ②无(☞跳到10题回答) ③没有朝鲜族学校(☞跳到10题回答)

9-1. 上朝鲜族学校的动机和理由是什么?

① 父母劝说 ② 本人决定 ③ 其他 ()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可以说韩语（朝鲜语）。	①	②	③	④	⑤
2) 听懂并理解韩语（朝鲜语）。	①	②	③	④	⑤
3) 可以读懂或书写韩语（朝鲜语）。	①	②	③	④	⑤

① 完全不同意 ② 不同意 ③ 一般

④ 同意 ⑤ 完全同意

12. 与您父母有关的家庭生活怎么样？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在家跟父母用韩语（朝鲜语）。	①	②	③	④	⑤
2) 我和父母经常做韩国（朝鲜族）饭菜吃。	①	②	③	④	⑤
3) 我和父母经常看韩剧或新闻，或经常听韩国歌曲。	①	②	③	④	⑤
4) 父母希望我在韩国企业工作。	①	②	③	④	⑤
5) 父母希望我跟韩国人（朝鲜族）结婚。	①	②	③	④	⑤

13. 您对自己是韩民族或朝鲜族，怎么想？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我为自己是韩民族或朝鲜族后裔而自豪。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自己是韩民族、朝鲜族。	①	②	③	④	⑤
3) 本人非常了解韩民族或朝鲜族的历史与传统。	①	②	③	④	⑤
4) 本人经常跟其他人讲韩民族或朝鲜族有关内容。	①	②	③	④	⑤
5) 本人认为韩民族或朝鲜族有关的事情就是我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14.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不能理解其他人说的内容时，为了准确理解本人会提问。	①	②	③	④	⑤
2) 本人与他人的想法不同时也可以很好交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会提前想好对方会怎样接受我说的内容和做的行动后再付诸行动。	①	②	③	④	⑤
4) 即便与本人的想法不同，本人也会尊重他人的想法和选择。	①	②	③	④	⑤

15.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本人经常会想出其他朋友没有想出的创意。	①	②	③	④	⑤
2) 本人只听一部分内容也能想象所有内容。	①	②	③	④	⑤
3) 本人擅长把看似没有关系的内容连接到一起想象。	①	②	③	④	⑤
4) 本人根据课题的难度或重要程度采取不同方法解决。	①	②	③	④	⑤
5) 本人在解决问题之前会具体想该怎样做。	①	②	③	④	⑤
6) 开始做课题时回想以前的方法是否得当，再决定是否使用。	①	②	③	④	⑤

16.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本人认为为社会发展应做出自己的努力。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守法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参加公益活动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17.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我关注世界上举行的活动（环境、和平、饥饿等）。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应该帮助全世界的人们过上更好的生活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过社会生活时应有良心。	①	②	③	④	⑤
4) 本人认为应关注社区及邻居。	①	②	③	④	⑤
5) 本人认为实现社会平等尤为重要。	①	②	③	④	⑤

18.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 不同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本人对其他国家感到亲切感。	①	②	③	④	⑤
2) 本人对世界拥有开放的心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其他国家的人拥有友好的态度。	①	②	③	④	⑤
4) 理解其他国家的文化，并持有可以包容的心态。	①	②	③	④	⑤

19.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 不同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本人认为中国文化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中国历史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中国国民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4) 本人认为以多个民族构成的中国社会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5) 本人想将中国的名声传到世界。	①	②	③	④	⑤

20. 您有与经验与朝鲜族青少年及大韩民国青少年交流吗？

	完全 不 同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本人经常与韩国或朝鲜族青少年见面或联系。	①	②	③	④	⑤
2) 本人有经验与从事韩国或青少年有关工作的人联系或一起工作过。	①	②	③	④	⑤
3) 本人参加过在中国举办的韩国或朝鲜族青少年探访活动。	①	②	③	④	⑤
4) 本人参加过在韩国举办的青少年节目。	①	②	③	④	⑤

21. 韩民族和大韩民国对各位海外同胞青少年期待如下作用，您对此怎么想？

	完全 不 同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在中国成功后为韩民族的发展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2) 在中国传播朝鲜族文化。	①	②	③	④	⑤
3) 与其他地区的海外同胞交流，为民族社会的团结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4) 利用个人的创意和能力，为韩国经济和社会发展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5) 做出国际社会的桥梁作用，为南北统一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22. 今后为了发展成为有助于民族和韩国社会的人，您认为需要何种支持？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应提供访问韩国的更多机会。	①	②	③	④	⑤
2) 应开发朝鲜族青少年感兴趣的节目。	①	②	③	④	⑤
3) 给朝鲜族青少年更多与韩国青少年交流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4) 为了更加了解我们民族，提供更多接受民族教育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23. 您对以下活动的想法如何？

	一点也不想	不怎么想	一般	大体上那么想	非常想
1) 想在韩国与青少年交流。	①	②	③	④	⑤
2) 想去韩国参加探访节目。	①	②	③	④	⑤
3) 想到韩国留学。	①	②	③	④	⑤
4) 想去韩国企业工作。	①	②	③	④	⑤
5) 想体验韩国的多种文化（历史遗址、K-POP演出等）。	①	②	③	④	⑤

24. 如果您想在韩国受教育或就业，有妨碍因素吗？（可选多项）

- ① 没有韩国国籍 ② 韩语不流畅
- ③ 经济条件不好 ④ 缺乏韩国教育和就业有关的信息
- ⑤ 缺乏在韩国受教育和就业有关的机会
- ⑥ 其他()

25. 你对韩国感兴趣，起到主要影响的是什么？（可选多项）

- ① 父母或周围长辈的关心和教育 ② 周围朋友的兴趣和对话
- ③ 韩剧、K-pop等韩流 ④ 浏览网站
- ⑤ 韩字培训等韩语教育 ⑥ 个人曾访问过韩国
- ⑦ 交换学生或访问韩国的节目 ⑧ 韩民族夏令营或文化庆典
- ⑨ 其他()

♡ 感谢您参与问卷调查！烦请您再看一下有无遗漏。♡

(附件)

开发未来人才——海外同胞青少年的问卷调查
(海外韩国人用)

通过本问卷调查获得的所有内容除统计目的以外绝对不能用作其他目的，根据统计法(第33条)其秘密受到保护。

您好！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是1989年成立的国策研究机构。主要为支持青少年开发政府政策及相关节目。今年为了筹备支持海外同胞青少年的政府政策方案，希望调查海外同胞青少年的生活现况及要求等内容。

大家解答的内容予以无记名处理，用于树立政策的研究资料，彻底保障个人的秘密。并且其他人无法看到各位解答的内容。所有提问没有对与错。为了能够在政策上准确反映各位的意见，请诚实回答问题。感谢您参与我们的问卷调查。

2016年4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世宗特别自治市市厅大路370 世宗国策研究园区社会政策栋

<http://www.nypi.re.kr>

主管机构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负责人	
执行机构			

※ 在以下各提问中，在相应的选项上打勾（√），或在（ ）里书写答案。

I. 一般信息

1. 居住地区：()省 ()市<如:黑龙江省，哈尔滨>

2. 出生年度：()年

3. 性别： ① 男 ② 女

4. 中国居住期间： _____年 _____个月

5. 目前上的学校是：

- ① 初中 ② 高中 ③ 大学 ④ 研究生
⑤ 其他(具体)

5-1 目前上的学校是：

- ① 朝鲜族学校 ② 汉族学校 ③朝鲜族和汉族联合学校
④ 韩国国际学校 ⑤外国国际学校 ⑥ 其他()

6. 在中国生活的原因是：

- ①在中国出生 ②移居到中国 ③ 中国留学
④其他(具体)

6-1. 您的家人中最先来到中国的是哪位？

- ① 爷爷和奶奶或之前的祖先
② 本人出生之前爸爸和妈妈年代
③ 本人在韩国出生以后与父母一起移居到中国

7. 现在国籍是（什么）：

- ①中国 ②大韩民国 ③其他(具体)

8. 现在父亲和母亲的国籍是？

- ① 只有父亲是韩国人 ② 只有母亲是韩国人
③ 两位都是韩国人 ④ 两位都不是韩国人

II.海外同胞青少年现况调查

9. 您上过韩国国际学校或韩字学校吗？

- ①有(☞答10题) ②无(☞跳到11题回答) ③没有朝鲜族学校(☞跳到11题回答)

10. 上韩国国际学校或韩字学校的期间是？ 年 个月

10-1. 上韩国国际学校或韩字学校的理由是什么？

- ① 父母劝说 ② 本人决定 ③ 其他 ()

11. 您的韩国语（朝鲜语）能力是？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可以说韩语。	①	②	③	④	⑤
2) 听懂并理解韩语。	①	②	③	④	⑤
3) 可以读懂或书写韩语。	①	②	③	④	⑤

11. 您认为需要韩国语（朝鲜语）能力吗？

- ① 完全不同意 ② 不同意 ③ 一般
④ 同意 ⑤ 完全同意

12. 与您父母有关的家庭生活怎么样？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在家跟父母用韩语。	①	②	③	④	⑤
2) 我和父母经常做韩国饭菜吃。	①	②	③	④	⑤
3) 我和父母经常看韩剧或新闻，或经常听韩国歌曲。	①	②	③	④	⑤
4) 父母希望我在韩国企业工作。	①	②	③	④	⑤
5) 父母希望我跟韩国人结婚。	①	②	③	④	⑤

13. 您对自己是韩民族，怎么想？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我为自己是韩民族后裔而自豪。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自己是韩民族。	①	②	③	④	⑤
3) 本人非常了解韩民族的历史与传统。	①	②	③	④	⑤
4) 本人经常跟其他人讲韩民族有关内容。	①	②	③	④	⑤
5) 本人认为韩民族有关的事情就是我自己 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14.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不能理解其他人说的内容时，为了准确理解本人会提问。	①	②	③	④	⑤
2) 本人与他人的想法不同时也可以很好交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会提前想好对方会怎样接受我说的内容和做的行动后再付诸行动。	①	②	③	④	⑤
4) 即便与本人的想法不同，本人也会尊重他人的想法和选择。	①	②	③	④	⑤

15.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本人经常会想出其他朋友没有想出的创意。	①	②	③	④	⑤
2) 本人只听一部分内容也能想象所有内容。	①	②	③	④	⑤
3) 本人擅长把看似没有关系的内容连接到一起想象。	①	②	③	④	⑤
4) 本人根据课题的难度或重要程度采取不同方法解决。	①	②	③	④	⑤
5) 本人在解决问题之前会具体想该怎样做。	①	②	③	④	⑤
6) 开始做课题时回想以前的方法是否得当，再决定是否使用。	①	②	③	④	⑤

16.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本人认为为社会发展应做出自己的努力。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守法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参加公益活动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17.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我关注世界上举行的活动（环境、和平、饥饿等）。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应该帮助全世界的人们过上更好的生活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过社会生活时应有良心。	①	②	③	④	⑤
4) 本人认为应关注社区及邻居。	①	②	③	④	⑤
5) 本人认为实现社会平等尤为重要。	①	②	③	④	⑤

18.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 不同 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本人对其他国家感到亲切感。	①	②	③	④	⑤
2) 本人对世界拥有开放的心态。	①	②	③	④	⑤
3) 本人其他国家的人拥有友好的态度。	①	②	③	④	⑤
4) 理解其他国家的文化，并持有可以包容的心态。	①	②	③	④	⑤

19. 您对以下内容的想法如何？

	完全 不同 意	不 同意	一般	同意	完全 同意
1) 本人认为韩国文化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2) 本人认为韩国历史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3) 本人认为韩国国民非常优秀。	①	②	③	④	⑤
4) 本人想将韩国的名声传到世界。	①	②	③	④	⑤

20. 您有与经验与海外韩国国民青少年及大韩民国青少年交流吗？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本人经常与韩国或海外韩国国民青少年见面或联系。	①	②	③	④	⑤
2) 本人有经验与从事韩国或海外韩国国民青少年有关工作的人联系或一起工作过。	①	②	③	④	⑤
3) 本人参加过在中国举办的海外韩国国民青少年探访活动。	①	②	③	④	⑤
4) 本人参加过在韩国举办的青少年节目	①	②	③	④	⑤

21. 韩国海外国民社会（韩国人社区）和大韩民国对各位海外同胞青少年期待如下作用，您对此怎么想？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在中国成功后为同胞社会的发展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2) 在中国传播韩国文化。	①	②	③	④	⑤
3) 与其他地区的海外同胞交流，为韩国海外国民的团结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4) 利用个人的创意和能力，为韩国经济和社会发展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5) 做出国际社会的桥梁作用，为南北统一做出贡献。	①	②	③	④	⑤

22. 今后为了发展成为有助于韩国海外国民和韩国社会的人，您认为需要何种支持？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1) 应提供访问韩国的更多机会。	①	②	③	④	⑤
2) 应开发韩国海外国民青少年感兴趣的节目。	①	②	③	④	⑤
3) 提供更多与韩国青少年交流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4) 为了更加了解我们民族，提供更多接受民族教育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23. 您对以下活动的想法如何？

	一点也不想	不怎么想	一般	大体上那么想	非常想
1) 想在韩国与青少年交流。	①	②	③	④	⑤
2) 想去韩国参加探访节目。	①	②	③	④	⑤
3) 想到韩国留学。	①	②	③	④	⑤
4) 想去韩国企业工作。	①	②	③	④	⑤
5) 想体验韩国的多种文化（历史遗址、K-POP演出等）。	①	②	③	④	⑤

24. 如果您想在韩国受教育或就业，有妨碍因素吗？（可选多项）

- ① 没有韩国国籍 ② 韩语不流畅
- ③ 没有服兵役 ④ 缺乏韩国教育和就业有关的信息
- ⑤ 缺乏在韩国受教育 and 就业有关的机会
- ⑥ 经济条件不好 ⑦ 其他()

25. 你对韩国感兴趣，起到主要影响的是什么？(可选多项)

- | | |
|-----------------|---------------|
| ① 父母或周围长辈的关心和教育 | ② 周围朋友的兴趣和对话 |
| ③ 韩剧、K-pop等韩流 | ④ 浏览网站 |
| ⑤ 韩字培训等韩语教育 | ⑥ 个人曾访问过韩国 |
| ⑦ 交换学生或访问韩国的节目 | ⑧ 韩民族夏令营或文化庆典 |
| ⑨ 其他() | |

26. 您想住在哪个国家？

- ① 中国 ② 韩国 ③ 其他国家(具体)

27. 想住在上述国家的愿意是什么？

- | | |
|-----------|-------------|
| ① 因为是我的国家 | ② 有亲朋好友 |
| ③ 生活条件好 | ④ 可以拥有更好的职业 |
| ⑤ 情感上很亲密) | ⑥ 其他(具体) |

♡ 感谢您参与问卷调查！烦请您再看一下有无遗漏。♡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재미동포청소년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은주 부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 다음 각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V표시를 하거나 ()안에 직접 답을 작성해 주세요.

I. 일반적 배경

1. 거주지역 : 주(State) () <예: 캘리포니아주, CA>

2. 출생년도 : ()년

3. 성별 : ① 남 ② 여

4. 미국 거주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6. 미국에서 살게 된 이유 :

- ① 미국 출생 ② 미국 이민 ③ 미국 유학
④ 기타(구체적으로)

6-1. 학생의 가족 중 가장 처음 미국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세대
②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③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대한민국
④ 기타(구체적으로)

- ① 아버지만 한인 ② 어머니만 한인
③ 두 분 다 한인 ④ 두 분 다 한인 아님

II. 재외동포 청소년 실태조사

- ① 있다 (☞ 10번으로) ② 없다 (☞ 11번으로) ③ 한국학교가 없다 (☞ 11번으로)

10. 한국·한글학교를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 ① 부모님 권유 ② 본인 결정 ③ 친구의 권유 ④ 기타 ()

11. 한국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은 한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미래인재역량

14.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은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미국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한민족 공동체 참여 욕구

20. 학생은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국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미래에 학생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동포청소년들과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이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③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⑦ 기타()

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②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③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등 ④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⑤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⑥ 개인적 한국 방문

⑦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⑧ 한민족 캠프나 축제

⑨ 기타()

부록

Survey on the Youth Population for Establishing Overseas Youth Supporting Policies as a Future Talent Development Strategy

All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survey shall not be used for a purpose other than statistics, and its confidentiality is protected by the Statistics Act (Article 33).

Greetings,

The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founded in 1989, is a national research center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Office. Since then, NYPI has performed several task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with a vision of supporting the youth in various ways.

This year, we plan to conduct research on the livelihood status and demands of the overseas Korean youth to establish a baseline of government policy measures that support the overseas Korean youth who are regarded as potential talents of the Korean community.

This survey will be taken anonymously and used as research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only, and thus, confidentiality is ensured. Your responses will be strictly kept discrete from others, and none of the questions have right or wrong answers.

We request you to kindly provide honest and sincere answers to this questionnaire so your opinions can be well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April 201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rincipal Investigator Kim, Kyung Jun
Co-researcher Jung, Eun Ju

Social Policy Building,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Complex,
Sicheongdaero 370, Sejong, Korea
<http://www.nypi.re.kr>

※ Please put a check mark (✓) on the number that best corresponds to your answer, or write your answer inside parentheses ().

I. Personal background

1. Residence [State only]: () <e.g. California, CA>

2. Year of birth: ()

3. Gender: ① Male ② Female

4. How long have you stayed in the United States?
_____ year(s) and _____ month(s)

5. Which level of schooling are you currently enrolled in?

- ① Middle School (6~8) ② High School (9~12)
③ Undergraduate School ④ Graduate School
⑤ Other (Please specify:)

6. What is your primary reason for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 ① Born in the United States ② Immigrated to the US
③ Study abroad ④ Other (Please specify:)

6-1. Who among your family came to the United States first?

- ① Grandparents or prior ancestors' generation
② Parents' generation before my birth
③ Came with my parents after my birth

7. What is your current nationality?

- ①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②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③ Citizen of Korea ④ Other (Please specify: _____)

8. Are your parents Korean (ethnicity)?

- ① Father only ② Mother only ③ Both of them ④ None of them

II. Research on the Overseas Youth

9. Have you attended any Korean (language) school?

- ① Yes (☞ Go to #10) ② No (☞ Go to #11)
③ No Korean (language) school near my residence

10. How long have you attended the Korean (language) school?

_____ year(s) and _____ month(s)

10-1. What is your motivation and reason for attending the Korean (language) school?

- ① Parents' advice/decision ② Own decision
③ Friend's suggestion ④ Other (Please specify: _____)

11. How is you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Sufficiently	Extremely well
1) I can speak in Korean	①	②	③	④	⑤
2) I can listen and understand Korean	①	②	③	④	⑤
3) I can read and write in Korean	①	②	③	④	⑤

12. How is your family life regarding your parents?

	Rarely	Sometimes	Most of the time	Frequently	Always
1) I speak Korean when talking with my parents	①	②	③	④	⑤
2) My parents and I cook Korean food	①	②	③	④	⑤
3) My parents and I watch Korean news, K-Drama, movies, or we listen to K-Pops	①	②	③	④	⑤
4) My parents want me to get a job related to Korea	①	②	③	④	⑤
5) My parents want me to marry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13. What is your opinion on the Korean ethnici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am proud to be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2) I think I am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3) I know well about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Korea	①	②	③	④	⑤
4) I often talk about Korea to others	①	②	③	④	⑤
5) I regard incidents or problems of Korea as mine	①	②	③	④	⑤

III. Future Talent Competency

14.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raise a question if I do not understand what others say for better comprehension	①	②	③	④	⑤
2) I can have a good conversation even if I have a different opinion from others	①	②	③	④	⑤
3) I think, speak and behave by considering how others would accept my words and actions.	①	②	③	④	⑤
4) I respect others' opinions and decisions that are different from mine	①	②	③	④	⑤

15.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come up with new ideas that others cannot think of easily	①	②	③	④	⑤
2) I can imagine a whole story even just with a piece of information	①	②	③	④	⑤
3) I can process my thoughts well by connecting stories that may look irrelevant	①	②	③	④	⑤
4) I use different problem solving methods based on the level of difficulty or importance	①	②	③	④	⑤
5) I think and plan in detail before trying to solve a problem	①	②	③	④	⑤
6) Before starting a new project, I reflect on the past methods and decide whether to use them again or not	①	②	③	④	⑤

1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think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to make a better society	①	②	③	④	⑤
2) I think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s and regulations.	①	②	③	④	⑤
3) I think it is essential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⑤

17.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pay attention on world issues such as environment, peace and famine	①	②	③	④	⑤
2) I believe that everyone should help each other to live a better life	①	②	③	④	⑤
3) I believe that I need to be involved in a social life with good conscience	①	②	③	④	⑤
4) I think that I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my community or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⑤
5) I think it is important to fulfill social equality	①	②	③	④	⑤

18.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have a sense of friendliness to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2) I am open-minded to the world	①	②	③	④	⑤
3) I am amicable to other nationals	①	②	③	④	⑤
4) I am willing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 cultures	①	②	③	④	⑤

1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highly regard American culture	①	②	③	④	⑤
2) I highly regard American history	①	②	③	④	⑤
3) I highly regard American people	①	②	③	④	⑤
4) I plan to spread knowledge of American accomplishments to the world	①	②	③	④	⑤

IV. Desire for Particip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20.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fellow overseas Korean youth or other young people in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often talk or communicate with my compatriots	①	②	③	④	⑤
2) I often communicate or participate in an activity with a compatriot youth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3) I often participate in a camp or a seminar designed for the compatriot youth in the United States	①	②	③	④	⑤
4) I often participate in a camp or a seminar designed for the compatriot youth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2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xpectations of the Korean compatriot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society in Korea?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can succeed in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 the compatriot society	①	②	③	④	⑤
2) I can promote Korean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①	②	③	④	⑤
3) I can help in uniting the compatriot societies by interacting with other compatriot groups	①	②	③	④	⑤
4) I can contribute to Kore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ith my ideas and skills	①	②	③	④	⑤
5) I can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y serving as a brid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①	②	③	④	⑤

22. What kind of assistance would you need in order for you to grow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ompatriot community or Korean socie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More opportunity for visiting Korea should be offered	①	②	③	④	⑤
2) Programs that can attract the overseas youth should be developed	①	②	③	④	⑤
3) More assistance should be given to sharing information more actively with the fellow overseas youths living in the same country	①	②	③	④	⑤
4) More assistance is needed to have better interaction with the youth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5) More assistance is needed on ethnic education for understanding Korean ethnicity better	①	②	③	④	⑤

2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ctivities below?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would like to meet people of my age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2)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seminar programs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3) I would like to study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4) I would like to work in a Korean company	①	②	③	④	⑤
5) I would like to experience various cultural activities of Korea such as visiting historical monuments or attending K-Pop concerts	①	②	③	④	⑤

24. Have you thought about studying or working in Korea in the future?

① Yes

② No

25. Which of the following factors hinders you from studying or working in Korea?

(Multiple answers accepted)

- ① Not having a Korean citizenship
- ② Not being fluent in Korean
- ③ Not having served in the military
- ④ Lack of information on studying and job-seeking
- ⑤ Lack of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and get hired
- ⑥ Being financially challenged
- ⑦ Others (Please specify: _____)

26. What are the main influences for you to keep your interest in Korea?

- ① Interest and education of parents or other adults
- ② Conversation within friends
- ③ TV series, movies or K-Pop songs through the Korean-Wave
- ④ Online and SNS activities
- ⑤ Korean language education
- ⑥ Personal visit to Korea
- ⑦ Exchange student programs or Korea visiting programs
- ⑧ Korean Camps or festivals for Korean ethnics
- ⑨ Others (Please specify: _____)

※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Please check once again to make sure you have completed every question.

■ 학부모용 심층면접 조사지 ■

(재중동포용)

I. 일반적인 특성

1. 조사 대상 부/모의 성별?
2. 조사 대상 부/모의 연령?
3. 조사 대상 부/모의 출생지?
4. 조사 대상 부/모가 중국으로 이민/이주 왔을 때의 연령? 이민/이주 한 이유?
5. 조사 대상 부/모의 현재 거주지?
 - 1) 주거 중인 성/시 ? : ()성 ()시
 - 2) 한인 동포사회(커뮤니티)가 있는지의 유무?
 - 3) 한인 동포사회(커뮤니티)와의 접촉 정도?
6.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7. 자녀의 수? 성별? 연령?
8. 자녀의 교육환경?
 - 1) 주변에 민족학교(국제학교)가 있는지의 유무?
 - 2) 민족학교(국제학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접근성)?
 - 3) 학교 이외의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II. 자녀교육

1. 부모님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부모님은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는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급적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노력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1) 자녀는 한국문화를 알리고 노력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부모님은 자녀가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는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을 방문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는 한국방문을 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요청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자녀를 민족학교와 한족학교 중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는 현재 다니는 학교에 만족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자녀를 한국학교 혹은 한글학교에 보내십니까? 보내는 이유 혹은 보내지 않는 이유?
1) 민족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자녀의 진로

1. 자녀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1) 자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까?
2. 자녀가 중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4.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가정 이외에 필요한 도움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정부나 한국정부 혹은 재중동포 커뮤니티 차원에서)
5. 현재에 한국이나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나 시설, 프로그램 중에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6. 일반적으로 재중동포 중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자녀가 재중동포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

(재중동포용)

I.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2. 연령?
3. 직업?
4. 경력?(교사나 현재 일에 종사한 기간)
5. 현재 거주지?
6. 현재 거주지의 교육환경?
 - 1) 초·중·고·대학교의 특성?
 - 2) 학생들의 특성?(경제적 특성, 가족구성원 등)
 - 3) 유학생과 조선족 비율?
 - 4) 한국학교/한글학교 유무?

II. 전문가 활동

1. 재외동포(조선족)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역사를 아는 것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재외동포(조선족) 청소년들이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재중동포 청소년을 민족학교에 보내는 것이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민족학교의 역할 :

- 1) 민족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현재 민족학교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민족학교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Ⅲ. 재중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1. 재중동포 청소년의 현재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성공한 재중동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중국에서 동포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미래에 재중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중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부모용 심층면접 조사지 ■

(재미동포용)

I. 일반적인 특성

1. 조사 대상 부/모의 성별?
2. 조사 대상 부/모의 연령?
3. 조사 대상 부/모의 출생지?
4. 조사 대상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이주 왔을 때의 연령? 이민/이주 한 이유?
5. 조사 대상 부/모의 현재 거주지
 - 1) 거주 중인 주/시 ? : ()주 ()시
 - 2) 한인 동포사회(커뮤니티)의 유무?
 - 3) 한인 동포사회(커뮤니티)와의 접촉 정도?
(① 한인 동포와 주로 교류한다. ② 한인 동포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6.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① 상 ② 중 ③하)
7. 자녀의 수? 성별? 연령?
8. 자녀의 교육환경
 - 1) 주변에 한국·한글학교의 유무?
 - 2) 한국·한글학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접근성)?
 - 3) 학교 이외의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II. 자녀교육

1. 부모님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적인 사고 방식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부모님은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는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급적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노력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1) 자녀는 한국문화를 알리고 노력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부모님은 자녀가 미국인이지만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을 방문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는 한국방문을 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요청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자녀를 한국학교 혹은 한글학교에 보내십니까? 보내는 이유 혹은 보내지 않는 이유?
7. 한국·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자녀의 배우자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자녀의 진로

1. 자녀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십니까?
1) 자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까?
2. 자녀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4.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가정 이외에 필요한 도움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정부나 한국정부 혹은 재중동포 커뮤니티 차원에서)
5. 현재에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나 시설, 프로그램 중에 자녀의 미래 직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6. 일반적으로 재미동포 중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자녀가 재미동포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

(재미동포용)

I.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2. 연령?
3. 직업?
4. 경력?(교사나 현재 일에 종사한 기간)
5. 현재 거주지?
6. 현재 거주지의 교육환경?
 - 1) 초·중·고·대학교의 특성?
 - 2) 학생들의 특성?(경제적 특성, 가족구성원 등)
 - 3) 재미교포의 비율?
 - 4) 한국학교/한글학교 유무?

II. 전문가 활동

1. 재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역사를 아는 것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재미동포 청소년들이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재미동포 청소년을 한국·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이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한국·한글학교의 역할 :

- 1) 한국·한글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현재 한국·한글학교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한국·한글 학교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Ⅲ. 재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1. 재미동포 청소년의 현재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성공한 재미동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미국에서 동포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미래에 재미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gnize overseas youth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thnic communities and to introduce policies to support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for reinfor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global era.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3 years from 2015 to 2017. In 2015, development of common policy was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while in 2016, the goal was narrowed down to policy direction setting and agenda development for the overseas youth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core destination countries of overseas Korean residence.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entails organizing an expert taskforce and conducting surveys and interviews. The expert taskforce, composed of around 5 professionals from academe, on-site fields and policy related bodies, engaged in monthly and bimonthly discussions on the current state of the overseas youth and development of policy initiativ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731 and 541 Korean compatriot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as a means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 of their own identities as Koreans and their expect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mpatriot (Korean) community. Meanwhile, the interview targeted the parents of the overseas youth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eachers and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inquiring their opinions on the bottleneck and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es of the overseas yout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 and initiatives for the overseas youth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overseas youth in China, this paper categorizes the policy initiatives into youths in 3 Northeast provinces (9 tasks), Joseonjok youths in metropolis (14 tasks), and overseas Korean national youth (7 task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ole of facilitator and supporter for the Korean ethnicity development, and successor of Korean heritage. In addition, for the policy initiatives for the overseas youth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commends

policy initiatives for Korean identity cultivation (9 tasks), policy initiatives for improvement of the Weekend Korean School (7 tasks), policy initiatives for the youth from compatriot multiracial families (4 tasks), and initiatives for corporate grants and scholarship in accordance with the role of facilitator and supporter for the Korean ethnicity development, and successor of Korean heritage.

Key words: Overseas compatriot, Overseas youth, Global, Future talent, Korean ethnicity, Korean ethnicity community, Korean ethnicity development, Role expectation, Compatriot in USA, Overseas youth in USA, Compatriot in China, Overseas youth in China, Joseonjok youth. Overseas Korean national youth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정은진·정건희

수시과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
민병갑 (퀀츠칼리지 및 뉴욕시립대학교 교수)
임세정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연구원)
주대신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연구원)

◆ 자문·협력진 ◆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김태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
김판준 (길림대학교 교수)
손인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종미 (재외동포재단 부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

◆ 감수·윤문 ◆

이종미 (재외동포재단 부장)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

연구보고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27-1 93330



연구보고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